

2025 한국중동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전환기 중동: 갈등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미래

- 중동논문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

일시: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12:30-18:30

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애경홀



| 공동주최 |



한국중동학회
Korean Association of Middle East Studies



한국-아랍소사이어티
الجمعية الكورية العربية



유라시아 투르크 연구소
Institute for Eurasian Turkic Studies
동덕여자대학교 Dongduk Women's University

2025 한국중동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 전환기 중동: 갈등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미래 >

-중동논문공모전 시상식 및 수상작 발표-

- 일 시 : 2025년 11월 15일 토요일 12:30-18:30
-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 애경홀
- 공동주최 : 한국중동학회, 한국-아랍소사이터티, 동덕여자대학교 유라시아투르크연구소

Program

12:30-13:00	등 록
13:00-13:10	개회식
(애경홀) [사회] 이경수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개회사: 박순례 (한국중동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13:10-13:30	중동논문공모전 시상식
(애경홀) [사회] 이경수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13:30-13:40	휴식
13:40-15:20	중동논문 공모전 수상작 세션
(애경홀) [좌장] 오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1. 에너지 자원과 국제분쟁: 석유국가의 관심전환 전략 분석	
발표자: 이영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튀르키예 외교노선변화의 역사적 고찰	
발표자: 김승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3. 팔레스타인 대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이스라엘 정책 변화	
발표자: 황원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15:20-15:30	휴식
-------------	----

15:30-17:40	한국중동학회 세션
-------------	-----------

(애경홀) [좌장]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1. 플라톤의 엘렐코스에 대한 태도 변화 -고대 중동수학문화의 영향인가?
발표자: 박제남 (인하대학교)
토론자: 구교선 (전북대학교)
2. “저항의 축”의 세력 약화와 향후 전망
발표자: 김은비 (국방대학교)
토론자: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3. The Emergence of a New Regional Order in the Wake of the 12-Day Wa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haping the Regional Landscape
발표자: 로버트 로렌스 (동덕여자대학교)
토론자: 한새롬 (숙명여자대학교)
4. Selective Entanglement: U.S. Engagement and the Reconfiguration of Middle
East Security Architecture
발표자: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7:40-17:50	휴식
-------------	----

17:50-18:20	정기총회 및 차차기회장 선출
-------------	-----------------

(애경홀) [사회] 이경수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18:20~18:30	폐회식
-------------	-----

(애경홀) ▪ 폐회사: 곽순례 (한국중동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Contents

중동논문 공모전 수상작 세션

1. 에너지 자원과 국제분쟁: 석유국가의 관심전환 전략 분석 9
이영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튀르키예 외교노선변화의 역사적 고찰 31
김승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3. 팔레스타인 대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이스라엘 정책 변화 53
황원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4. PKK의 해산과 튀르키예의 안보화 전략 75
이동운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5. 하디스 해석의 다층성과 이슬람 법학에서의 적용 및 실천의 교차 101
조현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중동학회 세션

1. 플라톤의 엘렐코스에 대한 태도 변화 -고대 중동수학문화의 영향인가? 151
박제남 (인하대학교)
2. “저항의 축”의 세력 약화와 향후 전망 185
김은비 (국방대학교)
3. The Emergence of a New Regional Order in the Wake of the 12-Day Wa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haping the Regional Landscape 193
로버트 로렌스 (동덕여자대학교)
4. Selective Entanglement: U.S. Engagement and the Reconfiguration of Middle East Security Architecture 203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2025 한국중동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전환기 중동: 갈등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미래

중동논문 공모전 수상작 세션

[좌장] 오종진 (한국외국어대학교)

1. 에너지 자원과 국제분쟁: 석유국가의 관심전환 전략 분석

발표자: 이영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2.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튀르키예 외교노선변화의 역사적 고찰

발표자: 김승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3. 팔레스타인 대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이스라엘 정책 변화

발표자: 황원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4. PKK의 해산과 튀르키예의 안보화 전략

발표자: 이동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5. 하디스 해석의 다층성과 이슬람 법학에서의 적용 및 실천의 교차

발표자: 조현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에너지 자원과 국제분쟁: 석유국가의 관심전환 전략 분석

이영상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Energy Resourc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The Diversionary Strategy of Petrostate

This study investigates why petrostates are more likely than non-petrostates to initiate diversionary conflicts during economic slowdown. While existing research on diversionary conflicts emphasizes leaders' incentives under domestic unrest, it has paid limited attention to how natural resource characteristics shape these incentives. This paper argues that oil has three distinctive features—economic, geological, and historical—that create structural conditions for diversionary conflict. Economically, oil generates extraordinary rents and is largely controlled by the state, enabling leaders to maintain strong militaries and reducing external constraints due to major powers' dependence on stable oil supply. Geologically, oil is geographically concentrated and non-lootable, producing frequent territorial disputes and rivalries with neighboring states that provide ready external targets. Historically, experiences of foreign exploitation and nationalization have embedded oil into national identity, reinforcing strong nationalist sentiments that leaders can mobilize in times of crisis. These dynamics collectively enhance leaders' capabilities, opportunities, and political effects of initiating conflict. Using empirical analyses, this study finds that petrostates are indeed more prone to initiate militarized disputes under economic slowdown than non-petrostates. The findings extend diversionary conflict theory and contribute to the deb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al resources and international security.

[Key Words : Petrostate, Natural Resources, Oil, Diversionary Conflict, Economic Slowdown]

I. 서론

카타르는 석유부국으로써 1970~80년대 석유 및 천연가스의 수출을 통해 정부재정을 확대하고 군비를 증강해왔다. 석유세입은 프랑스제 고속정 및 레이더 시스템의 도입, 해양 방어 인프라의 확충으로 이어지며 카타르의 군사력을 끌어올렸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국제유가가 급락으로 재정수입이 감소하자 칼리파(Khalifa) 국왕은 일부 재정긴축 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대중의 불만을 야기했다. 그러던 중 1986년 4월 바레인인 하와르 제도(Hawar islands)의 파슈트 아드 디발(Fasht ad Dibal) 지역에 해양경비 초소 공사를 시작했고, 카타르는 헬기 4대를 동원해 100여명을 상륙시키고 29명을 억류하며 바레인의 공사설비를 철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Wiegand, 2012). 이 사건은 단순한 영토분쟁이 아니라, 석유국가 지도자가 경기침체 상황에서 불만을 전가하고 대중을 결집시키기 위해 분쟁을 선택할 유인이 어떻게 강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그렇다면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경기침체 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가? 기존 관심전환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지도자의 인지심리적 요인, 분쟁의 특성, 국가의 특성 등 다양한 변수에 주목해 왔으나(Jung, 2024; Keller & Foster, 2012; McLaughlin Mitchell & Thyne, 2010),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이 관심전환분쟁의 발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등한시하였다. 석유와 분쟁에 대한 연구 역시 천연자원의 보유 여부와 분쟁의 상관관계, 유가 변동이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집중했을 뿐(Blankenship et al., 2024; Caselli et al., 2015; Hendrix, 2017; Strüver & Wegenast, 2016), 석유국가의 지도자가 경기침체 시 대중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비석유국가에 높은지에 대한 분석이나 이에 대한 이론적 설명은 부족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경기침체 상황에서 석유국가는 관심전환분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석유의 경제적, 지질학적, 역사적 특성에 주목한다. 석유의 높은 수익성과 국가적 통제성은 군사력 강화와 국제적 제약의 완화를 통해 분쟁 개시 능력을 제공한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고 약탈이 불가능한 석유의 지질학적 특성은 영토분쟁과 경쟁관계를 유발하여 분쟁 기회를 창출한다. 나아가 외세의 수탈과 국유화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민족주의라는 역사적 특성은 지도자가 분쟁을 선택했을 때 정치적 효과를 보장한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 정책적 기여점이 있다. 첫째, 기존 관심전환분쟁 연구가 설명하지 못한 석유라는 구조적 조건을 제시하여, 경기침체 시 왜 어떤 국가는 분쟁을 선택하지만 다른 국가는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한다. 둘째, 석유와 분쟁에 관한 논쟁을 확장한다. 단순히 석유가 분쟁을 유발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에서 석유가 분쟁을 촉진하는지를 밝힌다. 셋째, 정책적으로는 저성장 시대 산유국의 불안정성이 국제평화와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제시한다. 이는 특히 중동 지역의 분쟁 관리와 평화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2장에서는 관심전환분쟁에 대한 기존 연구와 그 한계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3장에서는 석유라는 자원이 가지는 경제적, 지질학적, 역

사적 특성을 바탕으로 왜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4장에서는 연구설계, 데이터, 분석방법을 설명하고 석유국가와 비석유국가의 관심전환분쟁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연구의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한계 및 추후 연구 과제를 제시한다.

II. 관심전환분쟁에 관한 기존연구: 지도자, 국가, 이슈의 특성

관심전환분쟁에 대한 연구들은 단순히 국내정치-경제적 위기 시 분쟁이 발발한다는 단순한 인과적 매커니즘을 넘어 관심전환분쟁의 발발 조건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다시 말해 지도자가 국내정치-경제적 위기를 겪을 때, 항상 분쟁을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분쟁을 개시할 확률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도자, 이슈, 국가의 특성이다.

먼저 지도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정책결정자의 인지-심리적 요인이나 현직자로서의 인센티브, 재선가능성과 같은 요인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켈러와 포스터(Keller & Foster)는 지도자의 통치스타일에 초점을 맞춰 자신감과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지도자는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Keller & Foster, 2012). 또한 포스터와 켈러(Foster & Keller)는 낮은 개념 복잡성을 가지고 있고 개인 및 국가에 대한 불신이 큰 지도자들은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Foster & Keller, 2014). 그리고 스미스(Smith)는 낮은 재선 가능성이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대외정책을 유발하고, 타라르(Tarar)는 현직자로서 인센티브가 높은 지도자는 관심전환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Smith, 1996; Tarar, 2006).

이슈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국가 간 어떤 이슈를 가지고 갈등을 겪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즉, 국가 간 논쟁적이고 분쟁적인 이슈를 겪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지도자가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슈의 특성에 대한 대표적인 저작은 미첼과 사인(Mitchell & Thyne)의 연구다. 그들은 영토분쟁과 같은 논쟁적인 이슈를 가진 국가의 지도자는 관심전환분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티어(Tir) 역시 지도자들은 정치-경제적 위기 시 영토분쟁을 의도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McLaughlin Mitchell & Thyne, 2010; Tir, 2010).

마지막으로 국가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국가의 국력, 정치체제, 정치제도, 라이벌국가의 여부 등에 초점을 맞춘다(Haynes, 2017; Jung, 2014, 2024; Mitchell & Prins, 2004; Oneal & Tir, 2006; Powell, 2014). 예를 들어 정성철은 지도자는 두려움이나 욕망을 자극하는 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미첼과 프린스(Mitchell & Prins)는 지속적 경쟁관계(enduring rivalry)에 있는 국가가 있는 경우 관심전환분쟁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Jung, 2014; Mitchell & Prins, 2004). 또한 파월(Powell)은 쿠데타 방지를 위한 구조적 매커니즘을 가진 권위주의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관심전환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

했다(Powell, 2014).

위와 같은 많은 기존연구들이 관심전환분쟁에 대한 다양한 조건에 대해 분석했으나 경제구조 및 정책에 집중하여 관심전환분쟁의 조건을 분석한 논문은 많지 않다. 이에 최근에는 IMF 조건부 지원(IMF conditionality), 불평등, 중앙은행 독립성이 관심전환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Clark & Meyerrose, 2025; Long & Pickering, 2021; Wang, 2023). 대표적으로 클라크와 마이어로즈(Clark & Meyerrose)는 국제통화기금(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의 강력한 조건부 지원을 받은 국가일수록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고 왕즈위안(Wang)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은 국가가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관심전환분쟁이 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에서 유발되는 것을 고려할 때, 국가의 경제구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변수들은 국가의 재정 운용 및 사회적 불만 분출 구조와 면밀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국가의 경제구조 그 중에서도 석유자원의 부존구조에 집중한다. 왜냐하면 석유는 국가가 직접 통제하는 고수익 자원으로써 군사력 증진 및 외교적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자원민족주의를 유발하는 자원이라는 점에서 관심전환분쟁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물론 블랭킨십(Blankenship), 핸드릭스(Hendrix) 등이 유가와 분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다(Blankenship et al., 2024; Hendrix, 2017). 하지만 이들 연구는 독립변수로 유가를 사용하여 석유국가와 비석유국가 간 분쟁 가능성을 직접 비교하지 않았으며, 유가와 분쟁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소규모 시장 경쟁 이론(battling for small market)’이나 ‘신호이론(signaling strength)’을 적용했다. 반면 본 논문에서는 석유국가가 비석유국가에 비해 경기침체 시 관심전환 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석유와 관심전환분쟁에 대한 이론적 매커니즘을 제시한다.

III 왜 석유국가는 관심전환 분쟁을 자주 일으키는가?

왜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경기침체시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은가? 본 연구에서는 석유국가는 관심전환분쟁을 일으킬 구조적 여지가 크고 이는 석유라는 자원의 특성에서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석유의 특성이 석유국가의 분쟁 개시 능력을 강화하고, 기회를 제공하며, 효과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석유의 특성은 경제적, 지질학적, 역사적 특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할 수 있다.

석유는 경제적으로 매우 특별한 자원이다. 왜냐하면 석유는 다른 자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익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유수출이 GDP의 대략 10%를 차지하는 국가들에서 석유세입은 정부재정의 30%이상을 충당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수익은 국영석유기업(national oil company, NOC)

을 통해 국가가 통제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oss, 2012). 이러한 높은 수익과 통제력으로 인해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군사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에 용이하다(Strüver & Wegenast, 2016). 그 결과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노르웨이 등은 2000년 이후 1인당 군사비 지출 상위 10위권에 꾸준히 포함되었다(Hendrix, 2017). 이러한 높은 군사비 지출로 인해 석유국가는 강대국으로부터 다양한 무기를 구입하고 이를 운용할 능력을 얻게 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석유국가가 많은 중동은 아시아나 유럽에 비해 저개발되어 있고 인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에 이어 두번째로 무기수입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부국이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군비지출과 무기구매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한다는 실증적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Ashford, 2022).

이러한 높은 군비 지출과 무기구매는 지도자들에게 승리에 대한 과신을 유발한다. 다시 말해 석유국가 지도자들은 분쟁이 발발하더라도 적은 피해로 빠르게 승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관심전환분쟁 기존연구들은 “부활을 위한 도박(gambling for resurrection)”이 관심전환분쟁의 매커니즘 중 하나라고 설명한다(Haynes, 2017). 즉, 국내적으로 위기에 빠진 지도자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적인 도박을 감행한다는 것이다(Downs & Rocke, 1994). 하지만 석유국가의 지도자는 이 도박의 성공가능성을 더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이 차별적이다. 종합하자면, 석유의 경제적 특성은 지도자로 하여금 경기침체 시 강한 군사력으로 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자신의 유능함을 입증하여 대중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며, 이는 관심전환분쟁의 개시로 이어지는 것이다.

둘째, 석유는 세계 경제 및 안보에 필수적인 자원이다. 석유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침체,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운송이나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이다. 동시에 석유는 무기체계를 운용하고 군사력을 투사하는데도 중요한 전략 자원이기도 하다(Kim, 2023). 이 때문에 주요 강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많은 선진국들은 안정적인 석유 공급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하지만 석유를 일정량 이상 생산하는 동시에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전 세계 14개국에 불과하고 강대국 중에서는 영국과 러시아만 포함된다(Ashford, 2022).

주요 국가들의 높은 석유의존도는 석유국가에게 국제정치적인 레버리지를 제공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석유를 다량 수출하는 초수출국(super exporter)들이 다른 국가에 비해 경제제재의 대상이 될 확률이 적다고 주장하며, 시장지배력이 있는 석유국가의 경우 강대국의 안전보장이나 전략적 제휴(strategic alignment)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한다(Ashford, 2022; Kim, 2019). 본 연구는 이러한 국제적 레버리지를 관심전환분쟁 맥락에 적용한다. 즉, 경기침체에 직면한 석유국가의 지도자들은 분쟁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견제가 약하고 상대국에 대한 지원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나아가 협상국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해 분쟁의 성공가능성을 더 높게 인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석유의 경제적 특성에서 비롯된 국제정치적 레버리지는 지도자들로 하여금 대외 분쟁을 전략적 탈출구로 활용하게 만들며 이는 관심전환분쟁의 개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종합하자면 석유는 국가 지도자가 분쟁을 선택하는데 있어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약을 약화시키는 이중적 효과를 가지는 자원이다. 석유의 높은 수익성과 국가적 통제성은 군사력 유지 및 강화에 도움을 주며 이는 지도자에게 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적 기반을 제공한다. 동시에 석유의 필수성과 이에 따른 주요국의 높은 의존도는 석유국가에게 강력한 국제정치적 레버리지를 부여해 분쟁 과정에서 직면할 외부적 제약을 줄여준다. 물론 이러한 능력과 제약 매커니즘은 평시에도 작동할 수 있지만 분쟁은 고위험 전략이므로 지도자가 반드시 선택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러나 경기침체로 인해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고 정치적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석유국가의 지도자는 이러한 구조적 여건을 활용해 분쟁이라는 도박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석유는 지질학적인 특수성을 가진 자원이다. 첫째, 석유는 특정 지역에 편중된 자원일 뿐만 아니라 가치가 높은 자원이다. 석유는 약탈이 불가능한(non-lootable) 자원이므로 일시적인 자원 탈취로는 이익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석유 확보를 위해서는 해당 영토 자체를 지속적으로 점유해야 하고, 이는 곧 영토 귀속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자원이 풍부한 영토(resource rich territory)에서 영토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기존 연구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Burghardt, 1973; Caselli et al., 2015; Chisadza et al., 2023; Colgan 2013). 그 결과 석유국가는 주변 국가와 경쟁관계(rivalry)에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란-이라크, 쿠웨이트-이라크, 알제리-모로코, 나이지리아-카메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잦은 영토분쟁 및 주변국과의 경쟁관계는 지도자에게 적절한 대외적 표적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석유국가의 지도자는 내부 불만이 고조될 때 외부의 라이벌을 대상으로 분쟁을 개시함으로써 대중을 결집시키고 불만을 전가할 수 있다. 실제로 관심전환 분쟁의 기존 연구에서는 “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가 관심전환분쟁의 주요한 매커니즘 중 하나이고 경쟁국이 존재하는 국가일수록 관심전환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Mitchell & Prins, 2004). 종합하자면 석유의 지질학적 특성은 경기침체 시 지도자에게 더 많은 분쟁 기회를 제공하며, 이는 관심전환분쟁의 개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석유는 역사적 특수성을 가진 자원이다. 석유는 국가의 영토 내에 존재하는 자원으로써 역사적으로 국가의 주권과 깊은 관계가 있다. 실제로 많은 석유국가는 과거에 외세에 의해 석유 수익을 수탈당한 경험이 있으며, 추후 이에 반발하여 석유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해왔다. 예를 들어 카자흐스탄이나 볼리비아는 석유를 ‘국민 자산’ 혹은 ‘국민 유산’으로 담론화 하여 외국자본과 엘리트층을 비판하고 석유 및 가스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단행했다(Koch & Perreault, 2019).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대중들로 하여금 석유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국가정체성의 일부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으로 유발된 강한 민족주의는 지도자에게 강력한 대중 동원 능력을 제공한다. 즉 석유국가 지도자는 경기침체로 인해 내부 불만이 고조될 때, 주변국을 대상으로 분쟁을 시작함으로써 더 쉽게 대중을 결집시킬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민족주의 관련 연구에서는 민족주의가 국가간 분쟁 가능성을 증가시키며(Bertoli, 2017; Schrock-Jacobson, 2012), 민족주의가 강한 대

중은 더 강경한 외교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Ko, 2022; Yeung et al., 2024). 종합하자면 석유의 역사적 특성으로 인해 석유국가의 지도자들은 분쟁을 통해 대중들을 더 쉽게 동원하고 결집시킬 수 있으며, 관심전환분쟁을 통해 확실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석유는 지도자가 분쟁을 선택하는데 있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효과를 배가시키는 자원이다. 석유의 지리적 편중성과 국경연계성으로 인한 주변국과의 경쟁관계는 지도자에게 분쟁을 시작할 적절한 표적을 제공한다. 또한 역사적인 수탈 및 국유화 경험으로 유발된 민족주의는 지도자에게 분쟁의 정치적 효과를 어느정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된다. 물론 모든 석유국가가 경쟁국이나 강한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석유국가가 경쟁국이나 강한 민족주의를 가질 가능성이 비석유국가에 비해 체계적으로 높다면, 석유국가 지도자는 비석유국가 지도자에 비해 더 많은 분쟁 기회를 보유하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석유는 경기침체 시 지도자에게 분쟁의 능력, 기회, 효과를 동시에 제공하는 특수한 자원이다. 경제적 특성은 높은 수익성과 국가적 통제성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가능케 하여 지도자에게 분쟁 개시 능력을 부여한다. 지질학적 특성은 자원의 편중성과 국경 연계성으로 인해 영토분쟁과 경쟁국을 빈번히 발생시켜 분쟁 개시의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적 특성은 외세 수탈과 국유화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지도자가 분쟁을 선택했을 때 정치적 효과를 어느 정도 보장한다. 따라서 경기침체라는 국내적 위기 상황에서 석유국가의 지도자는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을 활용해 무력분쟁이라는 고위험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비석유국가보다 높다.

가설: 경기침체 시,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무력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IV.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 발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군사분쟁 데이터를 사용하여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의 발발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기간은 1952년부터 2001년까지로 설정했고 분석 단위는 방향성이 있는 양자관계-년도(directed dyad-year)로 설정하였다.¹⁾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강대국이 포함되었거나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는 국가 쌍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였다.²⁾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국가 간 군사분쟁(Militarized Interstate

1) 본 연구의 분석기간이 1952년에서 2001년으로 한정된 이유는 석유국가 여부를 측정하는 데이터 및 통제변수로 이용한 데이터의 한계 때문이다. 또한 방향성이 있는 양자관계-년도를 사용한 이유는 분쟁은 분쟁을 시작하는 국가와 분쟁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구분되기 때문이다.

2) 모든 국가쌍을 포함하면 분쟁가능성이 거의 없는 국가쌍도 포함되어 표본의 수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효과가 발생

Dispute)으로 전쟁에 대한 상관관계 양자 국가 간 분쟁 데이터(Correlates of War Dyadic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를 사용하였다(Palmer et al., 2022). 해당 데이터에서는 무력 위협(Threaten), 과시(Display), 사용(Use of force), 전쟁(Short of war)을 모두 무력분쟁으로 코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무력을 실제로 사용한 경우와 전쟁을 무력분쟁으로 코딩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경기침체와 석유국가의 교차항 변수이다. 먼저 경기침체를 측정하기 위해 세계 개발지수(World Value Indicator, WDI)의 GDP성장률 변수를 사용하여 지난 3년 GDP 성장률의 평균을 구해 해당 변수를 측정하였다(WDI 2024). 실제로 관심전환분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GDP 성장률 혹은 GDP 성장률 3년 평균을 경기침체의 측정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Jung, 2024; Keller & Foster, 2012; Oneal & Tir, 2006; Tir, 2010; Tir & Jasinski, 2008).³⁾ 또한 석유국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콜건(Colgan)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그는 석유국가를 GDP대비 석유의 순 수출 비율이 10% 이상인 국가를 석유국가로 정의하였다(Colgan, 2010). 석유 매장량이나 생산량을 기준으로 석유국가 여부를 구분하면 높은 매장량이나 생산량을 가졌지만 이를 대부분 국내에서 소비하여 해외로부터의 추가적인 세입을 확보할 수 없는 국가들도 석유국가에 포함된다는 단점이 있다.⁴⁾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유 순 수출 비율로 석유국가를 정의한 콜건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해당 데이터에 따르면 총 31개국이 석유국가로 분류되어 있으며 전체 관측치의 11.89%(10,167)를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변수의 상호작용항(경기침체X석유국가)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무력분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였다. 먼저 높거나 낮은 유가가 무력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존재한다(Blankenship et al., 2024; Hendrix, 2017). 이에 국제유가 변수에 대한 통제를 진행하였다(Hamilton, 2009). 둘째, 동맹을 맺은 국가들 사이에 분쟁의 가능성이 낮을 수 있기에 동맹에 대한 통제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맹 조약의 의무 및 조항 데이터(The Alliance Treaty Obligation and Provision Project, ATOP)를 사용하여 두 국가가 방위조약을 체결한 경우 '1'로 코딩하였다(Leeds et al., 2002). 셋째, 경쟁국(Rival)의 존재가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경쟁국 여부 변수를 통제하였고 톰슨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Thompson 2022). 넷째,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는 더 잦은 분쟁을 경험할 가능성을 고려해 양국 수도사이의 거리에 자연로그를 씌워 통제하였다.

다섯째, 민주주의 국가쌍이 분쟁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다는 민주 평화론을 고려해 공동민주주의 변수를 생성하여 통제하였다. 민주주의는 폴리티4(Polity4) 데이터의 폴리티2(Polity2) 변수를 사용하여 지수가 6이상인 경우 민주주의로 그렇지 않은 경우 권위주의로 코딩하였다(Marshall et

한다. 관심전환분쟁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도 강대국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거나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가쌍(400마일 이내)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Tir, 2010; Powell, 2014).

3) 이외에도 인플레이션, 시위 등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관심전환분쟁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변수들에 대한 분석은 강진성 검증 파트에서 진행하였다.

4)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KOS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국은 749만톤의 석유를 생산하여 석유생산량 1위를 차지했으나 소비량 역시 824만톤으로 석유소비량 1위의 국가이다.

al.2017). 여섯째, 혁명정부가 들어선 석유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에 비해 분쟁가능성이 높다는 콜건의 주장을 고려해 콜건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혁명정부 여부 변수를 통제하였다(Colgan, 2010). 일곱째, 상대적 국력이 분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대적 국력을 통제하였다. 전쟁에 관한 상관관계 국력 데이터(COW National Material Capabilities, NMC)의 국력종합지표(CINC index)를 사용하여 상대적 국력을 측정하였다.⁵⁾ 마지막으로 강대국의 경우 분쟁에 참여할 기회가 많은 것을 고려해 강대국 여부 변수를 통제하였으며 강대국의 구분은 전쟁에 관한 상관관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분석에서는 종속변수인 분쟁의 시간의존성(temporal dependency)를 고려해 ‘평화기간’, ‘평화기간의 제곱’, ‘평화기간의 세제곱’ 변수를 사용하여 시간에 대한 통제를 진행하였다(Carter & Signorino, 2010). 또한 역인과성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독립변수에 1년의 시차(lag)를 적용하였고 강건군집표준오차(cluster robust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이항변수임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무력분쟁이 0과1의 빈도차이가 매우 큰 희귀 사건(rare event)임을 고려해 퍼스 로지스틱 회귀분석(frith logit)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Firth, 1993). 또한 1974년 이후 국가들이 석유기업을 국유화하거나 국영석유기업을 설립하여 부를 축적한 사실을 고려할 때 1974년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 분석을 진행하였다(Ashford 2022).

2. 연구결과

<표1>은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의 발발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모델1은 기본(Baseline)모델이며 모델2는 GDP성장률과 석유국가 여부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한 모델이고 모델3은 퍼스로지스틱 회귀 분석(Firth logit)을 사용한 분석이다. 또한 모델4는 1974년 이전만 분석한 모델이며 모델5는 1974년부터 2001년까지 분석한 모델이다.

<표1>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무력분쟁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GDP성장률	-0.00802 (0.00635)	0.00164 (0.00875)	0.00155 (0.00664)	-0.0158 (0.0160)	0.0142 (0.0120)
석유국가 여부(공격국)	0.140 (0.107)	0.204* (0.109)	0.206** (0.0863)	0.503 (0.330)	0.219* (0.125)
상호작용항		-0.0260** (0.0124)	-0.0258** (0.0108)	-0.0375 (0.0425)	-0.0423*** (0.0147)
국제유가	0.00617**	0.00620**	0.00623***	0.0537	0.00685**

5) 상대적 국력 변수는 국가 쌍에 포함된 두 국가 중 약한 국가의 국력을 양국의 총 국력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0에 가까울수록 국력이 불균형한 상태이며 1에 가까울수록 균형 상태로 코딩 되었다.

	(0.00242)	(0.00242)	(0.00177)	(0.0534)	(0.00268)
동맹 여부	-0.277**	-0.268**	-0.267***	-0.553***	-0.0962
	(0.110)	(0.110)	(0.0814)	(0.169)	(0.132)
경쟁국 여부	1.365***	1.359***	1.357***	1.564***	1.200***
	(0.128)	(0.128)	(0.0773)	(0.183)	(0.161)
지리적 근접성	-0.278***	-0.278***	-0.278***	-0.130	-0.357***
	(0.0570)	(0.0569)	(0.0290)	(0.0980)	(0.0601)
공동민주주의 여부	-1.023***	-1.021***	-1.015***	-2.098***	-0.942***
	(0.214)	(0.213)	(0.127)	(0.496)	(0.227)
혁명정부 여부(공격국)	0.528***	0.515***	0.515***	0.626***	0.356***
	(0.0969)	(0.0973)	(0.0695)	(0.162)	(0.120)
상대적 국력	0.920**	0.905**	0.906***	0.594	1.046**
	(0.360)	(0.361)	(0.240)	(0.516)	(0.457)
강대국 여부(공격국)	-0.0391	-0.0597	-0.0586	-0.297	-0.0731
	(0.174)	(0.175)	(0.0878)	(0.261)	(0.211)
상수항	0.114	0.0929	0.0939	-0.522	0.644
	(0.432)	(0.431)	(0.242)	(1.359)	(0.514)
관측치	87,561	87,561	87,561	26,140	61,421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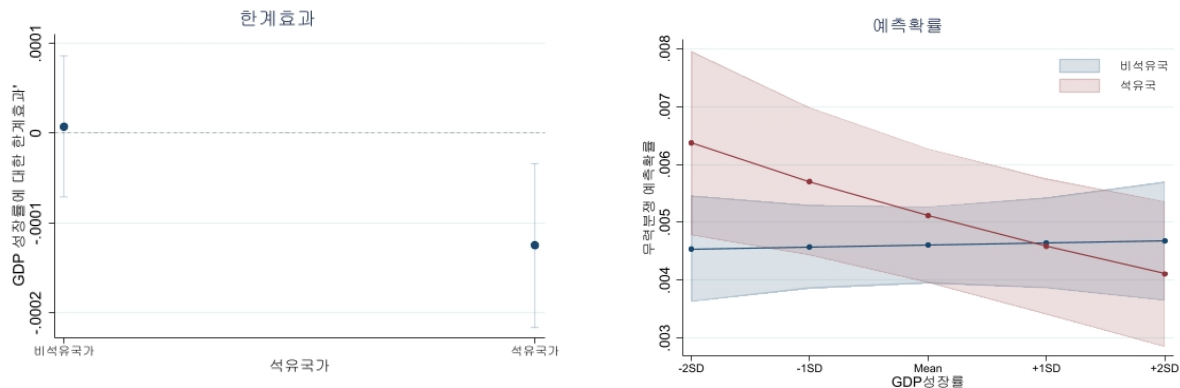
*** p<0.01, ** p<0.05, * p<0.1

먼저 핵심 독립변수인 상호작용항(GDP성장률X석유국가 여부) 변수는 모델 2,3,5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는 과거3년 GDP성장률이 높은 경우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반대로 경기침체 시,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이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GDP성장률 변수는 모든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석유국가 여부 변수는 모델 2,3,5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모델4에서는 석유국가 여부 및 상호작용항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다. 즉, 1974년 이후에만 석유국가가 분쟁 및 관심전환분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석유기업의 국영화 시기 이전에는 국가가 석유 세입을 독점하기 어려워 석유 자원의 분쟁 유발 요인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모델2를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예측확률 및 한계효과를 분석해 보아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1>은 석유국가 여부를 제외한 모든 변수를 평균(혹은 이항변수의 경우 최빈값)으로 고정시킨 후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예측확률 및 한계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비석유국가의 경우 한계효과의 신뢰구간이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은 반면 석유국가의 경우 한계효과가 음의 계수를 가지고 있으면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예측 확률 역시 비석유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감소해도 분쟁 가능성이 크게 변하지 않는 반면 석유국가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면 분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실제로 GDP성장률이

3.83%(평균)일 경우 석유국가가 비석유국가에 비해 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11% 높지만, GDP성장률이 -0.7%(-1표준편차)일 경우 석유국가가 비석유국가에 비해 25% 더 높으며, GDP성장률이 -5.23%(-2표준편차)일 경우 40%까지 벌어진다. 종합하자면 경기침체 시,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무력분쟁을 일으킬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림1> 경제성장률 변화에 따른 예측확률 및 한계효과



통제변수의 분석 결과 역시 대부분 예측했던 방향과 일치하였다. 먼저 국제유가, 경쟁국 여부, 혁명정부 여부, 상대적 국력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부분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높을 수록, 두 국가가 경쟁국일 경우, 잠재적 공격국이 혁명정부일 경우, 양국의 국력이 비슷한 경우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내포한다. 반면 동맹 여부, 지리적 근접성, 공동 민주주의 여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대부분의 모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이는 두 국가가 동맹국인 경우, 두 국가가 지리적으로 멀리 위치할수록, 두 국가 모두 민주주의인 경우 무력분쟁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공격국의 강대국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 강건성 검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강건성 검정(Robustness checks)을 실시하였다. 첫째, 석유국가 여부에 따라 관심변환분쟁의 가능성이 달라지는 효과가 모든 수준의 분쟁에서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무력분쟁 변수를 다르게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존의 무력분쟁 변수가 ‘무력 사용’ 및 ‘전쟁’을 포함한 변수라면, ‘무력 위협’과 ‘과시’를 포함한 ‘저강도 분쟁’, 기존 무력분쟁 변수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만을 포함한 ‘고강도 분쟁’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경제위기 시 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더 높았으며 이는 특히 고강도 분쟁에서 더 유의미하였다(부록1). 이는 고강도 분쟁

발생 시, 석유국가의 대중을 결집시키고 불만을 전가하기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GDP성장률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 변수 역시 관심전환분쟁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독립변수임을 고려하여 GDP성장률 대신 인플레이션 변수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플레이션과 석유국가 여부의 상호작용항은 모든 모델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부록2). 즉,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증가했고, 해당 결과는 분쟁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하였다.

셋째, 경기침체가 얼마나 지속되어야 분쟁의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평가하기 위해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에 지난 1~5년 GDP성장률 평균을 계산하여 해당 변수와 석유국가 여부 변수의 상호작용항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부록3). 분석 결과 지난 1년의 GDP평균 변수를 사용한 분석부터 지난 5년 GDP성장률 평균 변수를 사용한 분석까지 모든 분석에서 상호작용항 변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장기적인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일시적인 경기불황 역시 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효과는 석유국가에서 더 강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가 대중의 불만을 자극하고 해당 불만을 돌리기 위해 지도자가 분쟁을 유발하는 지에 대한 매커니즘을 테스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매개분석(Medi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대중의 불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CNTS data를 사용하였고 반정부 시위, 폭동, 파업의 수를 합산하여 ‘국내불안(domestic unrest)’ 변수를 생성한후 매개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석유국가에서는 GDP성장률이 감소하면 국내불안이 증가하고, 국내불안이 증가하면 무력분쟁이 증가했다. 반면 GDP성장률이 직접적으로 무력분쟁을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그러나 비석유국가에서는 GDP성장률이 증가하면 국내불안이 증가하고, 국내불안이 증가하면 무력분쟁이 증가했으며, GDP 성장률은 직접적으로 무력분쟁을 증가시키지 않았다.

이는 석유국가와 비석유국가의 특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석유국가의 경우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이 석유수출에 의존하고 세수가 매우 낮은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구조는 대중들의 낮은 정치적 책임성을 유발하고 정부의존성을 강화시킨다. 이에 정부는 호황기에 보조금, 고용, 복지정책을 통해 대중을 포섭할 수 있지만, 경기침체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감소하고 정치적 책임성이 낮은 대중들이 직접적으로 반발하게 된다. 반면 비석유국가의 경우 국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세수에 의존하고 대중들은 강한 정치적 책임성을 가진다. 경기침체기에는 대중들이 재정적 제약을 받을 뿐 아니라 정부의 어려움 역시 공감할 수 있다. 이에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긴축정책을 수용하거나 이에 대한 불만을 제도적 경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석유국가는 비석유국가에 비해 경기침체 시 관심전환분쟁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강건성 검증을 실시하여 해당 효과는 저강도 분쟁 보다는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강도 분쟁에서 효과가 있었고, 장기적인 경기침체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불황에도 효과가 있었으며, 석유국가에서만 경기침체가 시위나 폭동과 같은 국내불안을 유발하고 이 불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다는 매커니즘이 지지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다양한 학술적, 정책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관심전환분쟁에 대한 연구에 있어 새로운 변수를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은 어떤 조건에서 관심전환분쟁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답을 제시했지만 석유라는 천연자원의 효과는 간과했다. 석유가 국가의 세입 및 재정구조,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의 지위(position), 주변국과의 관계, 대중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임을 고려할 때, 관심전환분쟁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석유라는 자원을 탐색할 이유는 충분하다. 이에 본 연구는 관심전환분쟁의 발발에 있어 석유라는 변수가 조건부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관심전환분쟁 연구의 확장에 기여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석유와 분쟁에 관한 논쟁을 확장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석유가 분쟁을 유발하는지 평화를 유발하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실제로 기존 연구에서는 석유가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와 오히려 석유가 평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결과가 혼재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경기침체라는 변수에 집중해 석유가 항상 분쟁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석유의 분쟁유발요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주로 발현되는 것이다. 물론 국제유가의 상승과 하락이 분쟁을 유발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석유국가들이 석유 의존 경제를 타파하려 노력하고 있고 석유가 국가의 전체 경제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유가변동은 석유국가와 비석유국가의 경제에 반대되는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석유 혹은 유가변동과 분쟁에 관한 논쟁을 확장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저성장 시대에 산유국의 불안정성이 국제평화 및 에너지 안보에 미치는 함의를 제시한다. 물론 유가하락이 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블랭킨십의 연구는 재생에너지 기술의 발전이 분쟁이라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하는 가치 있는 연구이다. 하지만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재등장, 미중패권경쟁의 격화, 빈번한 국제분쟁으로 세계가 저성장시대에 돌입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본 연구는 저성장이 중동지역의 불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예측한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특히 저성장시대에 국제사회 및 강대국이 중동지역의 평화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지만 석유국가를 더 세분화하여 구분해 분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석유국가임에도 지도자의 분쟁 개시를 제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가진 국가의 경우 본 연구의 이론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제도적 견제 장치, 석유기업의 구조, 지도자의 자율성 등을 고려해 석유가 관심전환분쟁의 발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 희토류, 리튬 등의 자원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국가안보에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다른 중요한 천연자원 역시 관심전환분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도 추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부록

<부록1> 석유국가여부가 관심전환분쟁에 미치는 영향: 저강도, 고강도 분쟁 분석

	Model1	Model2	Model3	Model4
종속변수:저강도분쟁/고강도분쟁	Logit	Firth logit	Logit	Firth logit
GDP성장률(공격국)	-0.0116 (0.00707)	0.00137 (0.00441)	0.00343 (0.0125)	0.00649 (0.00701)
석유국가 여부(공격국)	0.205** (0.100)	0.215*** (0.0764)	0.0905 (0.165)	0.0222 (0.131)
상호작용항	-0.0117 (0.0101)	-0.0169** (0.00795)	-0.0364** (0.0166)	-0.0358*** (0.0115)
국제유가	0.00699*** (0.00201)	0.00777*** (0.00151)	0.00711 (0.00449)	0.0117*** (0.00256)
동맹 여부	-0.302*** (0.105)	-0.313*** (0.0708)	-0.658*** (0.166)	-0.694*** (0.127)
경쟁국 여부	1.379*** (0.115)	1.286*** (0.0689)	1.856*** (0.193)	1.749*** (0.112)
지리적 근접성	-0.300*** (0.0507)	-0.289*** (0.0256)	-0.232** (0.0961)	-0.230*** (0.0426)
공동민주주의 여부	-0.859*** (0.199)	-0.807*** (0.105)	-1.117** (0.441)	-1.151*** (0.192)
혁명정부 여부(공격국)	0.552*** (0.0854)	0.549*** (0.0619)	0.456*** (0.149)	0.485*** (0.101)
상대적 국력	1.184*** (0.342)	1.074*** (0.210)	0.809* (0.460)	0.794** (0.351)
강대국 여부(공격국)	0.240 (0.151)	0.275*** (0.0747)	-0.190 (0.262)	-0.0975 (0.127)
상수항	0.103 (0.389)	0.179 (0.213)	-0.761 (0.647)	-1.340*** (0.352)
관측치	89,160	88,186	89,160	88,186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2>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에 미치는 영향: 인플레이션 분석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종속변수: 무력분쟁/저강도분쟁/고강도분쟁	Logit	Firth logit	Logit	Logit
인플레이션(공격국)	-0.000200 (0.000156)	-7.95e-05 (0.000112)	-0.000104 (6.63e-05)	-0.000699* (0.000413)
석유국가 여부(공격국)	0.0480 (0.133)	0.0538 (0.103)	0.107 (0.121)	-0.295 (0.207)
상호작용항	0.000548* (0.000309)	0.000511* (0.000285)	0.000637*** (0.000203)	0.000847* (0.000447)
국제유가	0.00776** (0.00318)	0.00783*** (0.00222)	0.00742*** (0.00260)	0.00582 (0.00672)
동맹 여부	-0.166 (0.145)	-0.165 (0.104)	-0.197 (0.138)	-0.385* (0.205)
경쟁국 여부	1.276*** (0.171)	1.277*** (0.101)	1.239*** (0.151)	1.859*** (0.293)
지리적 근접성	-0.262*** (0.0595)	-0.261*** (0.0366)	-0.285*** (0.0531)	-0.202* (0.108)
공동민주주의 여부	-1.229*** (0.261)	-1.220*** (0.145)	-1.052*** (0.248)	-1.240*** (0.469)
혁명정부 여부(공격국)	0.549*** (0.116)	0.546*** (0.0938)	0.576*** (0.106)	0.287 (0.202)
상대적 국력	1.085** (0.470)	1.087*** (0.305)	1.329*** (0.451)	0.849 (0.657)
강대국 여부(공격국)	-0.140 (0.209)	-0.137 (0.111)	0.160 (0.176)	-0.608* (0.315)
상수항	-0.129 (0.496)	-0.144 (0.303)	-0.0183 (0.458)	-0.758 (0.874)
관측치	65,282	65,282	65,282	65,282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부록3>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에 미치는 영향: GDP성장을 평균 구간 조정

종속변수: 무력분쟁	모델1 1년 평균	모델2 2년 평균	모델3 3년 평균	모델4 4년 평균	모델5 5년 평균
GDP성장률(공격국)	-0.00509 (0.00770)	-0.000945 (0.00806)	0.00164 (0.00875)	0.00496 (0.00901)	0.00593 (0.00927)
석유국가 여부(공격국)	0.189* (0.109)	0.203* (0.110)	0.204* (0.109)	0.210* (0.109)	0.209* (0.110)
상호작용항	-0.0228** (0.0112)	-0.0282** (0.0118)	-0.0260** (0.0124)	-0.0263** (0.0130)	-0.0254* (0.0135)
국제유가	0.00686*** (0.00243)	0.00605** (0.00243)	0.00620** (0.00242)	0.00632*** (0.00241)	0.00633*** (0.00240)
동맹 여부	-0.316*** (0.112)	-0.268** (0.110)	-0.268** (0.110)	-0.270** (0.110)	-0.267** (0.109)
경쟁국 여부	1.405*** (0.127)	1.362*** (0.128)	1.359*** (0.128)	1.355*** (0.128)	1.351*** (0.128)
지리적 근접성	-0.288*** (0.0564)	-0.277*** (0.0568)	-0.278*** (0.0569)	-0.278*** (0.0569)	-0.281*** (0.0569)
공동민주주의 여부	-1.025*** (0.213)	-1.023*** (0.213)	-1.021*** (0.213)	-1.017*** (0.213)	-1.018*** (0.213)
혁명정부 여부(공격국)	0.596*** (0.0959)	0.507*** (0.0972)	0.515*** (0.0973)	0.522*** (0.0971)	0.524*** (0.0970)
상대적 국력	1.038*** (0.353)	0.910** (0.361)	0.905** (0.361)	0.908** (0.361)	0.910** (0.361)
강대국 여부(공격국)	0.0476 (0.169)	-0.0647 (0.174)	-0.0597 (0.175)	-0.0560 (0.175)	-0.0514 (0.175)
상수항	-0.00146 (0.425)	0.101 (0.432)	0.0929 (0.431)	0.0835 (0.431)	0.0956 (0.430)
관측치	89,160	87,561	87,561	87,573	87,585

Robust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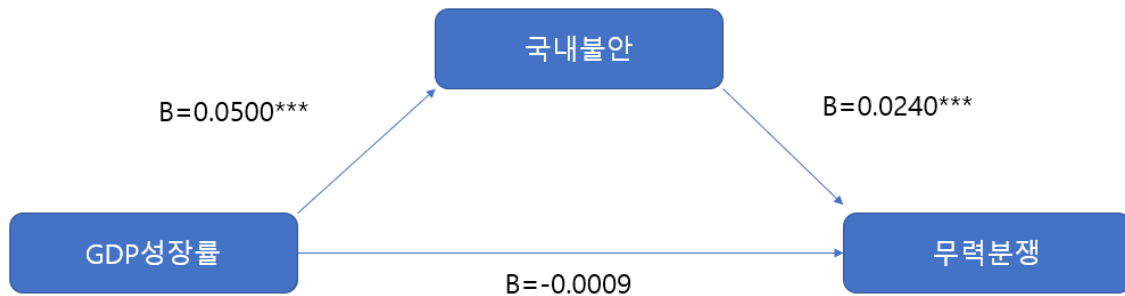
<부록4> 석유국가 여부가 관심전환분쟁에 미치는 영향: 매개분석

(A) 석유국가 매개분석



Effect	Mean	95% Confident Interval	
ACME 1	-.0004	-.0007	-.0000
ACME 0	-.0004	-.0008	-.0000
Direct Effect 1	-.0029	-.0064	.0008
Direct Effect 0	-.0030	-.0066	.0009
Total Effect	-.0033	-.0071	.0003
% of Total Effect Mediated	.1208	-.1908	1.1214

(A) 비석유국가 매개분석



Effect	Mean	95% Confident Interval	
ACME 1	.0001	.0001	.0002
ACME 0	.0001	.0001	.0002
Direct Effect 1	-.0001	-.0019	.0019
Direct Effect 0	-.0001	-.0019	.0019
Total Effect	.0000	-.0018	.0020
% of Total Effect Mediated	.0461	-4.0505	2.5228

참고문헌

< 영문 >

- Ashford, E. (2022). "Oil, the state, and war: The foreign policies of petrostate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Bertoli, A. D. (2017). "Nationalism and Conflict: Lessons from International Sport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1(4), 835~849.
- Blankenship, B., Hasan, Q., Mohtadi, S., Overland, I., and Urpelainen, J. (2024). "Oil Prices and International Conflict: Why Low Oil Revenue May Not Pacify Petrostates." *International Interactions*, 50(3), 478~505.
- Burghardt, A. F. (1973). "The Bases of Territorial Claims." *Geographical Review*, 63(2), 225~245.
- Carter, D. B., and Signorino, C. S. (2010). "Back to the Future: Modeling Time Dependence in Binary Data." *Political Analysis*, 18(3), 271~292.
- Caselli, F., Morelli, M., and Rohner, D. (2015). "The Geography of Interstate Resource War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0(1), 267~315.
- Chisadza, C., Clance, M., Gupta, R., and Wohar, M. E. (2023). "Giant oil discoveries and conflicts." *Environment,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26(6), 15681~15710.
- Clark, R., and Meyerrose, A. M. (2025). "Austerity and Aggression: Government Responses to IMF Conditionality." *World Politics*, 77(1), 111~154.
- Colgan, J. D. (2010). "Oil and Revolutionary Governments: Fuel for International Conflict." *International Organization*, 64(4), 661~694.
- Downs, G. W., and Rocke, D. M. (1994). "Conflict, Agency, and Gambling for Resurrection: The Principal-Agent Problem Goes to Wa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2), 362~380.
- FIRTH, D. (1993). "Bias reduction of maximum likelihood estimates." *Biometrika*, 80(1), 27~38.
- Foster, D. M., and Keller, J. W. (2014). "Leaders' Cognitive Complexity, Distrust, and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Foreign Policy Analysis*, 10(3), 205~223.
- Hamilton, J. D. (2009). "Understanding Crude Oil Prices." *The Energy Journal*, 30(2), 179~206.
- Haynes, K. (2017). "Diversionary conflict: Demonizing enemies or demonstrating competence?"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4(4), 337~358.
- Hendrix, C. S. (2017). "Oil prices and interstate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4(6), 575~596.
- Jung, S. C. (2014). "Foreign Targets and Diversionary Conflic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8(3), 566~578.

- Jung, S. C. (2024). "Economic slowdowns and international conflict." *Journal of Peace Research*, 61(2), 180~196.
- Keller, J. W., and Foster, D. M. (2012). "Presidential Leadership Style and the Political Use of Force." *Political Psychology*, 33(5), 581~598.
- Kim, I. (2019). "A Crude Bargain: Great Powers, Oil States, and Petro-Alignment." *Security Studies*, 28(5), 833~869.
- Kim, I. (2023). "Oiling the War Machine? The Fuel Dilemma and Warfighting Capabilit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7(4), sqad096.
- Ko, J. (2022). "Not So Dangerous? Nationalism and Foreign Policy Preference."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66(3), sqac053.
- Koch, N., and Perreault, T. (2019). "Resource nationalism." *Progress in Human Geography*, 43(4), 611~631.
- Leeds, B., Ritter, J., Mitchell, S., and Long, A. (2002). "Alliance Treaty Obligations and Provisions, 1815-1944." *International Interactions*, 28(3), 237~260.
- Long, S. B., and Pickering, J. (2021). "Disparity and Diversion: Domestic Economic Inequality and MID Initiation." *Foreign Policy Analysis*, 18(1), orab032.
- Marshall, M. G., Gurr, T. R., and Jagers, K. (2017). "Polity IV Project: Political regime characteristics and transitions, 1800–2017." Center for Systemic Peace. <https://www.systemicpeace.org/>
- McLaughlin Mitchell, S., and Thyne, C. L. (2010). "Contentious Issues as Opportunities for Diversionary Behavior."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27(5), 461~485.
- Mitchell, S. M., and Prins, B. C. (2004). "Rivalry and Diversionary Uses of For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48(6), 937~961.
- Oneal, J. R., and Tir, J. (2006). "Does the Diversionary Use of Force Threaten the Democratic Peace? Assessing the Effect of Economic Growth on Interstate Conflict, 1921-2001."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4), 755~779.
- Palmer, G., McManus, R. W., D'Orazio, V., Kenwick, M. R., Karstens, M., Bloch, C., Dietrich, N., Kahn, K., Ritter, K., and Soules, M. J. (2022). "The MID5 Dataset, 2011–2014: Procedures, coding rules, and descrip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ace Science*, 39(4), 470~482.
- Powell, J. M. (2014). "Regime Vulnerability and the Diversionary Threat of Forc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8(1), 169~196.
- Ross, M. L. (2012). "The oil curse: How petroleum wealth shapes the development of nations." In *The oil curs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chrock-Jacobson, G. (2012). "The Violent Consequences of the Nation: Nationalism and the Initiation of Interstate War."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6(5), 825~852.
- Smith, A. (1996). "Diversionary Foreign Policy in Democratic System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0(1), 133~153.
- Strüver, G., and Wegenast, T. (2016). "The Hard Power of Natural Resources: Oil and the Outbreak of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Foreign Policy Analysis*, orw013.
- Tarar, A. (2006). "Diversionary Incentives and the Bargaining Approach to War."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50(1), 169~188.
- Thompson, W. R., Sakuwa, K., and Suhas, P. H. (2022). "Analyzing strategic rivalries in world politics." Springer.
- Tir, J. (2010). "Territorial Diversion: Diversionary Theory of War and Territorial Conflict." *The Journal of Politics*, 72(2), 413~425. 9
- Tir, J., and Jasinski, M. (2008). "Domestic-Level Diversionary Theory of War: Targeting Ethnic Minorities."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2(5), 641~664.
- Wang, Z. (2023). "Unemployment, central bank independence, and diversionary conflict." *International Interactions*, 49(4), 612~638. 4
- Wiegand, K. E. (2012). "Bahrain, Qatar, and the Hawar Islands: Resolution of a Gulf Territorial Dispute." *The Middle East Journal*, 66(1), 78~95.
- World Bank. (2023).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World Bank. <https://databank.worldbank.org/source/world-development-indicators>
- Yeung, E. S. F., Wang, M., and Quek, K. (2024). "What is a Patriot? A Cross-National Study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Analysis*, 20(2), orae007.

구성주의 시각에서 본 튀르키예 외교노선변화의 역사적 고찰 (쿠바 미사일 위기와 키프로스 사태를 중심으로)

김승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A Historical Analysis of Türkiye's Foreign Policy Shift in a Constructivist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Cyprus Conflict

Since the late 2010s, Türkiye's foreign policy has often been portrayed as pro-Russian by major international media. Under President Recep Tayyip Erdoğan, the Turkish government has played a crucial role in reshaping the regional order, occasionally diverging from the Western side. A notable example is Türkiye's procurement of the Russian S-400 air defense system, which signaled a pragmatic approach to Russia. In response, many major medias have tended to emphasize Türkiye's pro-Russian orientation by specifically associating it with the period of President Recep Tayyip Erdoğan's leadership. However, attributing this change solely to Erdogan's leadership or geopolitical calculations risks overlooking deeper historical dynamics.

This paper argues that Türkiye's foreign policy transformation is better explained by a shift in national identity, shaped by historical experiences such as the Cuban Missile Crisis and the Cyprus conflict. These events contributed to a redefinition of Türkiye's identity—from a Western country to an autonomous regional actor.

Drawing on a constructivist framework—particularly the theories of Peter J. Katzenstein and Kim Jae Min—this study examines how identity transformation has influenced Türkiye's diplomatic behavior. It argues that the evolution of Türkiye's self-perception has played a vital role in reshaping its foreign policy orientation, highlighting identity as a central explanatory variable in understanding Türkiye's increasing diplomatic independence from the West.

[Key Words : Constructivism, Cuba Missile Crisis, Cyprus Conflict, Identity, Türkiye]

I. 서론

1923년, 양시앵 레짐을 청산하고 공화국으로 재탄생한 튀르키예는 건국 이후 현대화와 서방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삼았다. 제1차 세계대전 갈리폴리 전투의 영웅이자 튀르키예 해방전쟁을 이끈 무스타파 케말은 1923년 공화국을 수립하며 군주제인 술탄제를 폐지했고, 이어 1924년에는 종교적 상징성을 지닌 칼리프제까지 폐지함으로써 세속 국가로서의 튀르키예의 기틀을 확립했다.

초기 튀르키예 공화국 지도부는 오스만 제국의 몰락 원인을 늦은 현대 국가 건설에서 찾았고, 이에 따라 정치적 현대화뿐 아니라 산업화도 병행하며 현대 국가로서의 튀르키예를 다듬어 갔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지리적 특성과 역사 속 갈등으로 인해 오랫동안 이웃 국가 러시아를 경계해왔으며,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주의 팽창 정책에 맞서 1950년 한국전쟁에 파병하고, 1951년에는 나토에 가입하는 등 친서방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최근 튀르키예의 외교 정책은 종종 반서방적이고 친러시아적인 행보로 묘사된다. 예컨대 2018년 튀르키예가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인 S-400을 도입한 사례는 서방과는 일치 되지 않은 다른 외교 노선으로 여겨졌으며, 언론에서는 이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대통령의 독주 외교이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스트롱맨 외교’로 해석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언론의 평가는 튀르키예의 1923년 건국 이후의 역사 전체를 고려했을 때 논리적이지 않다. 튀르키예는 현재도 나토의 일원이지만 독자적인 외교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 정부와 지도자 뿐 아니라 튀르키예 외교의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선 국가의 생존과 그에 따른 이익에 기반하고 학계에서 지배적인 현실주의적 시각보다는, 튀르키예가 자국과 타국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정체성’이 정책 형성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설정한 구성주의적 시각에 주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튀르키예의 독특한 외교 행보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라는 단일 변수의 결과가 아니라, 튀르키예 내부의 자기 인식과 타자 인식에서 드러나는 정체성 변화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튀르키예 외교 정책의 변화 과정을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며, 특히 튀르키예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정체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외교 정책의 전환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대한민국 학계에서의 튀르키예 외교 관련 연구는 주로 에르도안 대통령 집권 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오종진과 이주성의 「터키의 신아시아 구상과 공공외교 전략(2022)」은 2019년 튀르키예 외교부가 발표한 ‘신아시아 구상(Yeniden Asya)’을 중심으로, 공공외교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에르도안 정부 시기 수립된 새로운 대외 전략에 대한 설명이 주된 논지이다(오종진&이주성, 2022). 박수현과 이효복의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외교와 문화적 영향력: 튀르키예의 대(對)한국 문화외교 잠재력과 함의를 중심으로(2022)」의 경우 지정학적 입지를 바탕으로 전개된 튀르키예의 문화외교에 주목하면서, 특히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기를 주목했다. 특별히 이 연구는 튀르키예 문화 외교의 중요 요소인 언어, 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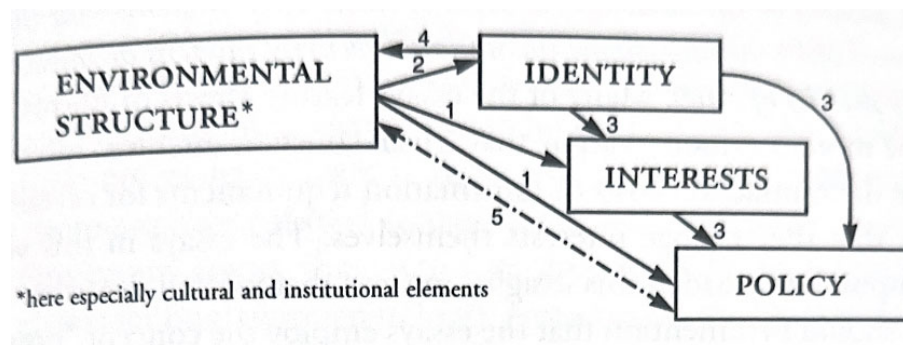
드라마가 가진 영향력과 이에 기반한 튀르키예의 문화 외교가 한국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기술하며, 발전을 위한 제언을 추가했다(박수현&이효복, 2022). 국제정치학 측면에서 튀르키예를 분석한 김덕일은 논문 「AKP 집권 이후 튀르키예의 대(對)이스라엘 외교 정책과 하마스(2025)」에서 국제정치이론인 신고전현실주의를 통해 에르도안 시기와 함께 두드러진 튀르키예의 반이스라엘 성향과 그와 함께 부각된 친하마스 논조에 대해 설명했다(김덕일, 2025).

이러한 최근 국내 연구들은 주로 최근 정권과 특정 시기 외교 정책에 집중되어 있고 논문 주제 설명을 위한 역사적 배경 요소도 대부분 짧게 서술되어 있어, 튀르키예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 역사적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튀르키예의 정체성과 그 역사적 변화에 주목함으로써, 오늘날 튀르키예 외교의 특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냉전 시기를 중심으로 튀르키예가 경험한 일련의 외교 안보 사건들이 튀르키예 정부의 자기 인식 및 주변 국가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튀르키예가 스스로를 ‘서방의 일원’으로 규정했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해 실용 외교 추구 경향이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목적이다.

본 연구는 외교 정책 분석에 있어 정체성의 역할에 주목하며, 이론적 기반으로 피터 카젠스타인(Peter Katzenstein)의 안보 정책 모형<그림1>과 이를 활용해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을 연구한 김재민의 논문을 참고한다.

먼저, 카젠스타인은 국가의 정체성이 국익 형성과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해당 모형이 정체성과 정책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는 점과 이미 이 모형에 기반해 외교 정책을 연구한 선행연구가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핵심 분석 과제인 튀르키예 정체성의 변화와 외교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카젠스타인의 모형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카젠스타인의 모형에 김재민이 자신의 연구에서 사용한 개념을 일부 차용하여, 분석 기준을 수립해 본 연구의 분석 틀로 적용 할 것이다.



<그림1> Katzenstein (1996).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P.53

카젠스타인은 해당 구성주의 이론 모형을 통해, 환경 구조(Environmental Structure), 정체성(Identity), 국익(Interest), 정책(Policy) 간의 상호작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모형에서 환경 구조는 문화적 및 제도적 요소를 의미하며, 카젠스타인은 이를 ‘규범(norms)’이라는 개념으로도 표현했다(Katzenstein, 1996, p.52). 여기서, 연구자는 본 모형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외교 정책 분석 연구를 진행한 김재민의 박사 학위 논문을 참고해, <그림1>의 ‘환경 구조’라는 표현을 ‘대내외적 환경’으로 바꿔 ‘역사적 경험’, ‘사회 구조’, ‘타자 인식’ 등을 다루는 개념으로 구체화 할 것이다(김재민, 2022, p.34).

따라서, 카젠스타인의 모형과 김재민의 논문을 참고해 적용되고 본 논문의 분석 기준으로 기능할 다섯 가지 상호작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Katzenstein, 1996, pp.52-65; 김재민, 2022, p.34):

1. 대내외적 환경 → 국익/정책 형성: 국가가 처한 대내외적 환경(역사적 경험, 사회 구조, 타자 인식)은 국익 및 정책을 구성한다.
2. 환경 구조 → 정체성 형성: 대내외적 환경은 국가 정체성의 기반을 형성한다. 여기서 정체성은 이데올로기, 민족주의, 국내외에서의 주권 등을 포함하며, 자국과 타국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3. 정체성 → 국익/정책 변화: 정체성의 변화는 국익과 정책의 방향을 변화시킨다. 단순한 생존이나 체제 유지를 위한 국익은 상대적으로 정체성과 무관하지만, 대부분의 정책적 이익은 특정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구성되며, 정체성이 달라지면 국익 역시 변화할 수 있다.
4. 정체성 → 국제 구조 영향: 국가 정체성은 체제 구조나 안보 공동체와 같은 국가 간 규범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국가의 정체성 형성과 그 변화는 외부 환경에 반향을 일으킬 수 있다.
5. 정책 → 환경 구조 재구성: 최종적으로 정책은 다시 환경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의 정책은 기존의 대내외적 환경을 재생산하거나 재구성하며, 이는 다시 행위자들의 행동과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현재 튀르키예 외교 정책의 변화가 단지 에르도안 대통령과 해당 정부 시기의 특징이 아닌, 역사 속 구성된 정체성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것임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자가 주목하는 시대적 맥락과 주요 사건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튀르키예 현지 신문 등 1차 자료와 관련 사건을 다룬 단행본 및 학술논문과 같은 2차 자료를 병행하여 활용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본 연구는 문헌 분석에 기반한 사례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서론,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그리고 연구 방법론을 다룬다. 제2장에서는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의 외교정책 기조와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지는 제3장과 제4장에서는 각각 쿠바 미사일 위기와 키프로스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역사적 사례를 다룬다. 제5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틀에 연구자의 수정 내용을 반영한 모형을 적용하여, 주요 사건들과 그에 따른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제기한

정체성 변화와 튀르키예의 외교 노선 다각화 사이의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II. 튀르키예 공화국 초기 외교 동향

1923년 공화국 건국 이후, 튀르키예는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수립하고자 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저항하여 무스타파 케말의 주도로 건국된 튀르키예 공화국은, 그 기원에서부터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튀르키예는 로잔 조약 협상 과정에서 자국 의회인 대국민의회(Türkiye Büyük Millet Meclisi, TBMM)가 결의한 ‘미사크 밀리(Misak-ı Milli)’에 따라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등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다(Küçük, Misak-ı Milli, <https://islamansiklopedisi.org.tr/misak-i-milli>). 협상에 튀르키예 대표로 참석한 이스메트 이뇌뉘(İsmet İnönü)는 영국의 인구 통계 자료를 근거로 이라크 북부의 모술(Mosul)과 케르쿱(Kerkük) 지역에 튀르크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지역이 튀르키예 영토로 편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Tanyol, 1999, p.49).

그러나 영국 외무장관 커즌(Lord Curzon)을 중심으로 한 영국 대표단은 현상 유지 원칙을 내세우며 튀르키예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협상이 결렬되자, 양국은 이 문제를 국제연맹에 회부하였고, 국제연맹은 해당 지역이 이라크 영토로 남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Gönlübol & Sar, 1996, pp.70-72).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모술과 인근 지역을 자국 영토로 편입하는 데 실패하였다(Ibid., p.72).

이와 같은 전후 영토 문제는 영국 뿐 아니라 프랑스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났다. 제1차 세계대전 말기, 영국과 맺은 비밀 협약을 바탕으로 중동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프랑스는, 시리아를 두고 튀르키예와 갈등을 겪었다.

특히, 양국은 안타키야(Antakya)를 중심으로 큰 논쟁을 가졌는데, 1937년 프랑스와 튀르키예의 공동 감독 아래 ‘하타이 공화국’의 수립이 결의되면서 논쟁은 마무리 되는 듯 보였다(Sahillioğlu, Antakya, <https://islamansiklopedisi.org.tr/antakya>). 하지만, 이후 튀르키예는 이 지역의 영유를 실현하기 위해 1938년 하타이 공화국에 군대를 파견하였고(Ibid.), 튀르키예에 우호적이었던 하타이 공화국 의회는 1939년 6월, 튀르키예와의 합병을 결의하였다(Ibid.).

이렇게 튀르키예는 건국 초기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서방 국가들과 많은 갈등을 겪으며 순탄치 않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1922년 소비에트 연방이 수립되어 점차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튀르키예의 대외 노선은 친서방 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1699년 신성동맹 전쟁을 비롯하여 1774년, 1829년, 1878년 러시아가 오스만에게 연달아 패배를 안겨준 역사적 경험은 공화국 건국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사례였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도 튀르키예 공화국이 러시아를 큰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배경이 되었다.

1942년에는 주 튀르키예 독일 대사 폰 파펜(Von Papen)을 겨냥한 암살 미수 사건이 발생하였는

데, 이 사건은 튀르키예-소련 관계 경색의 원인 중 하나였다. 당시 암살을 시도한 소련 스파이 카르닐로브(Karnilov)와 파블로브(Pavlov)는 튀르키예 당국에 체포되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소련은 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며 튀르키예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였다(Esmer & Sander, 1996, p.163).

더불어,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이웃나라 그리스까지 침공했던 독일에 큰 위협을 느끼던 튀르키예는 1943년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후 독일을 패퇴시키며 동유럽에 영향력을 행사하던 소련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튀르키예가 소련에 대해 느낀 경각심은 1943년 영국과 튀르키예 간에 개최된 아다나 회담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당시 연합국은 유럽 전선에서 독일을 격파하기 위해 튀르키예가 연합국 편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영국은 아다나 회담에서 튀르키예의 참전을 설득하였다(Ertem, 2010, p.258). 이 회담의 중요한 이면은 회담 과정에서 튀르키예 지도부가 소비에트 연방에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음을 명확히 언급하였다는 점이다(Ibid.).

1944년 소련이 불가리아를 겨냥해 선전포고를 하고 발칸 반도에 소련군이 진입하며, 발칸 반도 내 사회주의 파르티잔 군대가 활발히 활동한 것은 튀르키예의 대(對)소련 경계심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과 영국의 지속적인 설득이 맞물려, 튀르키예는 1945년 2월 23일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며 친서방 외교 노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초를 마련하였다(Esmer & Sander, 1996, p.184). 한편 서방은 전후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튀르키예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1947년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압박에 대응하여 튀르키예에 대한 경제적·군사적 원조안을 통과시켰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튀르키예-미국 군사원조협력 조약이 마련되었다(J. Shaw & Kural Shaw, 2017, p.471).

이처럼, 냉전이라는 새로운 국제적 상황속에서 튀르키예와 서방 국가들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으며, 튀르키예는 소련 견제를 목적으로 서방 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서방 또한 튀르키예가 소련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전략적 위치를 안보상의 이점으로 인식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세계 정세의 중심으로 부상하면서, 튀르키예와 서방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포함되었고, 동시에 서방이 요구하고 국내에서도 요구되던 다당제도 회복되어 양측 관계는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1950년 총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 이뇌뤼의 공화인민당(Cumhuriyet Halk Partisi, CHP)을 대신해 아드난 멘데레스(Adnan Menderes)와 젤랄 바야르(Celal Bayar)가 이끄는 보수 정당 민주당(Demokrat Parti, DP)이 집권한 이후도, 튀르키예의 친서방 정책 기조는 유지되었다. 같은 해 발발한 한국전쟁에 대해 민주당 정부는 자유진영 국가들과 함께 즉각 병력을 대한민국에 파병하였으며, 이 결정은 여야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Erhan, 2002, p.546).

이처럼 공화국 건국 초기, 역사적 사건들과 영토 문제 등으로 서방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았던 튀르키예의 외교 노선은 냉전이라는 다른 외부 요인과 다당제 회복이라는 국내 요인들로 인해 친서방 외교 노선을 채택하게 되었다. 즉, 이러한 요인들을 통해 튀르키예 내부에선 스스로를 서방

의 일원으로 규정하는 정체성을 수립되었고, 이전에는 거리를 두었던 서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도, 동맹국으로 인식하며 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III. 쿠바 미사일 위기

한국 전쟁 참전과 함께 스스로를 서방의 일원임을 입증한 튀르키예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며 서방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즉, 냉전 초기 튀르키예에게 서방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방파제였으며, 서방에게는 최전선에서 소련과 대치하는 자유 진영의 최전방이었다. 이렇게 동맹으로서 재구성된 튀르키예와 서방의 관계였지만, 서방을 굳건한 동맹이라고 보는 튀르키예의 인식은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위기를 기점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1960년 튀르키예는 쿠데타라는 큰 정치적 변동기를 겪었으나, 군정 아래에서도 튀르키예의 친서방 외교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같은 해 5월 27일 쿠데타로 민주당 정부를 전복시킨 튀르키예 군부는 외교 노선에 대해 친서방적 노선을 유지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당시 쿠데타군 대령 알프아슬란 투르케쉬(Alparslan Türkeş)가 튀르키예 국영 방송사 TRT 라디오에서 발표한 튀르키예 국민 연합위원회(Milli Birlik Komitesi)의 성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불황과 안타까운 상황들로 인해 동족 간의 상잔을 막기 위해,

튀르키예군은 조국의 주권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중략)

동맹국, 이웃국가 그리고 전세계에 알리는 바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유엔 헌장과 인권 선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화국의 국부 아타튀르크의 ‘조국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 정신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체결한 모든 동맹과 조약들은 이행될 것입니다. 나토와 중앙조약기구(CENTO)를 신뢰하고 있으며,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철학은 ‘조국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입니다

(Aslaner, 2016, p.79).”

이와 같이 군부 시절(1960~61년)에도 튀르키예의 친서방 외교 노선은 일관되게 유지되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1962년 쿠바 내 소련 미사일 문제가 공론화되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시작되면서 튀르키예의 친서방 기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1961년 10월 15일 군부의 민간 정권 이양과 함께 치러진 총선 이후 수립된 이스메트 이뇌뉘의 공화인민당 정부는 이전 민주당 정부 및 군정과 마찬가지로 친서방 외교정책을 고수하였다. 당시 튀르키예는 쿠바 미사일 문제가 공론화되자, 긴장된 상황 속에서도 동맹국과 함께 행동할 것임을 밝히며 친서방 외교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입장은 1962년 10월 25일 이뇌뉘의 의회 연설에서 드러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동맹 미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따라 쿠바를 봉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입장과 우리에게 전달된 정보에서 모두 미국이 자국 안보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미국은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평화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동맹국으로서, 현재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중략)

튀르키예가 위협에 직면해 있을때, 동맹국이 우리를 위해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맹국이 튀르키예가 동맹의 의무를 다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도 그 의무를 마땅히 이행할 것입니다. <의원들의 큰 박수>

(Milliyet Gazetesi, 25.10.1962).”

위의 이뇌뇌의 연설에서는 쿠바 미사일 문제의 심각성과 유사시 튀르키예가 동맹국(서방)의 편에서 행동할 것임이 미국의 시선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튀르키예가 스스로를 서방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있다. 그러나 튀르키예의 의지와 달리, 미국은 소련과의 소통 과정에서 동맹국인 튀르키예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962년 10월 28일, 튀르키예의 밀리에트(Milliyet) 신문은 소련과 미국 간의 협상 과정에서 소련 서기장 니키타 흐루쇼프가 미국에 튀르키예 내 미사일 철수를 조건으로 쿠바 내 미사일 철수를 제안했으나, 미국 케네디 대통령이 이를 거절했다는 사실을 1면에 보도하였다(Milliyet Gazetesi, 28.10.1962). 당시 밀리에트 신문은 튀르키예 내 미사일 문제가 쿠바 미사일 관련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드러났음을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기고하였다:

“유엔은 조사의 범위를 튀르키예와 쿠바 뿐만이 아닌 소비에트 연방, 미국, 나토 그리고 바르샤바 조약 기구에 까지 확대해야 하며, 기지 철수의 건은 튀르키예와 쿠바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현실화 되었을때만, 오랜시간 지속된 군축 회담의 결과가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며, 평화의 길이 마련될 것이다 (Ibid.)”

위 기고에 따르면, 튀르키예가 자국 내 미사일 기지 철수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문제가 단순히 튀르키예와 쿠바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미·소 양국 간 갈등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튀르키예의 바람과 달리, 10월 28일 케네디 대통령과 흐루쇼프 서기장은 쿠바 내 미사일 철수와 튀르키예 내 미사일 철수를 맞교환하는 합의를 이루었고, 이후 튀르키예 내 주둔하던 미국의 주피터 미사일은 노후화를 이유로 철수하게 되었다.

기지 철수 과정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언론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당시 페리둔 제말 에르킨(Feridun Cemal Erkin)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은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튀르키예 내 군사 기지 철수를 요구하는 국가들은 먼저 자국 내 군사 기지를 철수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과 소련 간 비밀 합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하였다(Milliyet Gazetesi, 1.11.1962).

결과적으로 쿠바 미사일 위기는 미국의 튀르키예 내 미사일 철수와 소련의 쿠바 내 미사일 철수로 마무리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의 입장은 크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 시점부터 튀르키예는 ‘유사시 공동 행동’을 확신할 만큼 신뢰했던 미국에 대해 큰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튀르키예의 대미 인식은 1970년 이스메트 이뇌뉘의 연설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미국은 우리에게 주퍼터 미사일이 노후되었다는 이유로 철수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대신에 폴라리스 잠수함이 온다고 말했지만, 이후 주퍼터 미사일이 소련과의 협상 대상에 들어간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 튀르키예 지도자들이 미국이 튀르키예를 불필요한 위기에 몰아넣는 것을 용납하지 말아야하며 유의해야함을 알게되었습니다

(Erhan, 2002, p.684).”

위의 연설을 통해,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나타난 미국의 주퍼터 미사일 철수 결정으로 튀르키예가 미국을 위협을 같이 감수해야할 국가에서 유의해야하는 국가로 인식하는 관점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이뇌뉘의 연설에도 나와있듯이, 튀르키예는 해당 사건을 통해서 자국과 동맹 사이의 관계를 재고하게 되었고, 이는 튀르키예의 주요 정당들도 외교 정책에 있어서 다각화를 지향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대표적으로 주요 정당이 대외정책 수립에 있어 미국과 소련에 대한 인식 변화를 달리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좌파 공화인민당은 나토의 중요성을 기본적으로 인지하면서도, 미국과 소련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친 외교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1969년 공화인민당이 반포한 ‘질서전환계획(Düzen Değişikliği Programı)’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2항-튀르키예는 미국과 소련에 대해 적대적이면 안된다

3항-튀르키예는 모든 이웃들과 함께 친선관계를 수립하며 발전해야하고 이웃 국가들 사이 좋은 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기여해야한다

(CHP Düzen Değişikliği Programı, 1969, p.42).”

무엇보다 소련을 적국으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 나타나는 위 프로그램은 1970년대부터 불렌트 에제비트(Bülent Ecevit) 체제 공화인민당의 외교정책 주요 기조로 자리잡히며 견고해졌다(Özcan, 2021, p.264).

또한 우파 정당인 정의당(Adalet Partisi, AP)에서도 이러한 외교 다각화 기조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1965년 데미르엘 정의당 정부는 튀르키예-소련 관계 개선 및 강화를 추진했으며, 1966년 알렉세이 코시긴(Alexei Kosygin) 소련 정부 수반의 튀르키예 방문을 관철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Aydın & Taşkın, 2018, pp.147-150). 아울러, 정의당 정부는 단순한 외교 방문에서만

그치지 않고 소련의 경제 지원을 받아 이스켄데룬(Iskenderun) 철강 공장과 이즈미르(Izmir) 석유 정제소 건설을 완료하며, 실제적인 경제 협력으로 까지 이어가는 행보를 보여주었다(Ibid.,).

이처럼 동맹에 대한 튀르키예의 인식 변화는 단순히 수사상 표현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요 정당들의 기조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사례는 튀르키예가 1950년대 초 서방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자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를 설정하던 상황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계기로 자국과 동맹을 새롭게 규정하게 되는 초석을 보여준다.

더불어, 1960년대 들어 부각되기 시작한 키프로스 문제는 튀르키예와 서방 간의 균열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양측은 해당 문제에 대해 상이한 접근법을 보였으며, 이는 갈등의 심화와 함께 튀르키예의 독자적인 외교 행보를 더욱 뚜렷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졌다. 키프로스 문제가 튀르키예로 하여금 ‘서방과의 동맹’이라는 정체성에서 더욱 이탈하게 만든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IV. 키프로스 문제

1950년부터 자유진영 최전선에서 미국과 함께 소련을 견제해 온 튀르키예는 쿠바 미사일 위기를 겪으며 양국 관계에 변화의 조짐을 보였으나, 미국이 주피터 미사일 철수 후 다른 전략자산을 튀르키예에 배치하면서 큰 파국은 면한 듯했다. 그러나 이후 튀르키예와 자유진영은 키프로스 문제를 둘러싸고 상이한 시각과 행동을 보이며 자유진영 내 단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먼저 튀르키예가 키프로스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키프로스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키프로스는 오랜 기간 그리스인들의 지배 아래 있었으나, 기원후 7세기 무슬림 세력이 등장하며 두 진영 간 격전지가 되었다. 1453년 비잔티움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멸망한 후, 지중해의 패권은 무슬림 세력으로 넘어갔다. 16세기에는 지중해 안보 확보를 위해 오스만 제국이 키프로스를 점령하고 이주 정책을 통해 무슬림을 정착시키기 시작했는데, 이 시점부터 키프로스 내 그리스인과 튀르크인 사이 갈등의 씨앗이 심겨졌다고 평가된다.

16세기부터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아온 키프로스는 1878년,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오스만 제국이 영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영국의 실질적인 통치를 받게 되었다(Çopur, 2024, pp. 15–16). 한편, 1829년 에디르네 조약을 통해 독립한 그리스는 1844년 요아니스 콜레티스(Ioannis Kolettis)가 제시한 ‘메갈리 이데아(Megali Idea)’에 따라 비잔티움 제국의 옛 영토를 회복하려는 팽창주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키프로스에 거주하던 그리스 민족주의자들도 메갈리 이데아에 영감을 받아 그리스와의 합병을 지속적으로 시도했고, 이는 19세기 오스만 제국과 그리스 사이의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1차 세계대전 이후 1919년 그리스군의 이즈미르 침공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닌 튀르키예에게, 키프로스 내에서 그리스인 지도자이자 정교회 종교인인 마카리오스

3세를 중심으로 재차 드러난 그리스 합병 움직임은 단순한 영토 문제를 넘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되었다.

위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들에 기인한 긴장속의 키프로스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1959년 체결된 런던-취리히 조약(London and Zürich Agreements)에 따라, 영국 통치 하에 있던 키프로스는 공화국으로 독립하게 되었으며, 튀르키예, 그리스, 영국 세 나라는 키프로스 공화국의 독립성을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는 1960년 튀르키예, 그리스, 영국 사이에 체결된 보장 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제1조

키프로스 공화국은 독립성, 영토 보전 및 안보의 유지와 헌법의 존중을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키프로스 공화국은 어떤 국가와도 정치적 또는 경제적 연합에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따라서 다른 국가 또는 섬의 일부분과의 통합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활동을 금지함을 선언한다.

제2조

그리스, 튀르키예 및 영국은 본 조약 제1조에 명시된 키프로스 공화국의 약속에 주목하며 키프로스 공화국의 독립, 영토 보전 및 안보와 헌법 기본 조항에 의해 확립된 국가 상태를 인정하고 보장한다.

그리스, 튀르키예 및 영국은 키프로스 섬의 분할을 직간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어떠한 활동도 금지할 것을 약속한다.

제3조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스, 그리고 튀르키예는 키프로스 공화국 설립 시점에 영국의 주권 하에 유지된 지역의 영토적 완전성을 존중할 것을 약속하며, 키프로스 공화국이 오늘 체결된 키프로스 공화국 설립 조약에 따라 영국에 보장해야 할 권리의 사용과 향유를 영국이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본 조약의 조항이 위반되는 경우, 그리스, 튀르키예, 그리고 영국은 이러한 조항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이나 조치를 협의할 것을 약속한다.^[1] 만약 공동 또는 협력 행동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보장국인 세 국가는 본 조약이 창설한 상태를 회복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행동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

본 조약은 서명한 날로 발효된다. 본 조약의 원문은 니코시아에 보관되며, 당사국들은 가능한 빨리 본 조약을 유엔 헌장 제102조에 따라 유엔 사무국에 등록하기로 한다.

이 증거로 서명 당사자들은 본 조약에 서명하였다. 1960년 8월 16일, 니코시아에서 영어와 프랑스어로 작성되었으며, 두 언어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NO. 5475. TREATY OF GUARANTEE. SIGNED AT NICOSIA ON 16 AUGUST 1960)”

1960년 키프로스 공화국이 독립국가로 출범했으나, 공화국 내 주요 부서들이 그리스인으로 채워지면서 상대적으로 키프로스 튀르크인의 입지는 부족한 상황이었다(J. Shaw & Kural Shaw, 2017, p.504). 결국 두 민족 간 갈등은 1963년 크게 폭발하였고, 이 사건은 튀르키예에서 ‘피의 크리스마스 사건(Kanlı Noel Olayları)’으로 지금도 기념되고 있다.

1963년 12월, 10명의 튀르크인이 탑승한 차량이 그리스 경찰의 검문을 받는 과정에서, 일반 그리스 시민이 권총으로 튀르크인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를 말리려던 튀르키예인에게 그리스 경찰이 발포했고, 이 과정에서 제키 카라부루투(Zeki Karabulut)와 제말리에 에미라리(Cemaliye Emirali)가 사망하였다(Çopur, 2024, pp.48-49). 이 사건은 이후 두 민족 간 갈등과 튀르키예-그리스 간 갈등의 중요한 전조가 되었다.

이 시기 키프로스의 그리스계 게릴라 단체 ‘키프로스 전사 민족단(EOKA, National Organisation of Cypriot Fighters)’은 키프로스 튀르크인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린치를 벌이며 양민족 간 갈등을 심화시켰다. 1963년 12월 24일, 그리스군 장교 테레제풀로스(Terezepulos)를 포함한 극단주의자들이 튀르크 마을에 침입해 군의관 니하트 일한(Nihat İlhan), 그의 아내 뮈류베티(Mürüvvet), 그리고 2세에서 10세 사이의 세 아이(무라트, 쿠트시, 하칸)를 집 옥조에서 자동소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Serter, 2008, p.193-194 quoted in Çopur, 2024, p.53).

위와 같이, 튀르키예와 역사적-종교적 공통점을 공유하는 키프로스 튀르크인(Hürsoy, 2013, p.29)의 상황이 악화하자 튀르키예 내에서는 이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1964년에는 키프로스 튀르크인의 마을 가지마우사(Gazimağusa)에서 32명의 튀르크인이 그리스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시 튀르키예 총리 이스멧 이뇌뉘가 키프로스 개입을 결정하고 일부 병력을 군함에 승선시키며 양국 사이의 긴장감은 높아져갔다.

한편 이시점,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 전쟁을 우려한 미국의 린든 존슨 대통령은 1964년 6월 5일 이뇌뉘 총리에게 보낸 편지에서, 튀르키예의 키프로스 개입이 동맹국 간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으며 이는 소련 견제에 부정적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미국이 제공한 무기를 키프로스 개입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Johnson & İnönü, 1966, p.387). 튀르키예가 미국과 협의 없이 행동하면 나토 위원회와 UN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청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도 함께 전달되었다(Ibid., p.388).

이에 대해 이뇌뉘는 6월 13일 존슨 대통령에게 답신을 보내, 존슨 대통령의 편지가 튀르키예에 큰 실망을 안겼음을 표명하며, 튀르키예가 동맹국으로서 항상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Ibid.). 이후 1965년 튀르키예 언론 휴리예트(Hürriyet)가 존슨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튀르키예 내 반미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Seydi, 2006, p.290). 이로써, 키프로스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튀르키예로 하여금, 자국에게 역사적-민족적-종교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지닌 사안에서 미국이 반드시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내 양민족 간 갈등은 해결되지 않은 채 더욱 심화되었다. 튀르키예는 키프로스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꾸준히 인식했으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러한 점은 1965년 튀르키예 대국민의회 주요 정치인인 알프아슬란 튀르케쉬와 당시 총리 데미르엘 간의 회동에서 잘 드러난다:

“튀르케쉬: 그리스에게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약 1만 5천명에서 2만명 규모의 자원 병력을 파견해 주요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데미르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자칫 키프로스의 안정이 무너질 수 있으며, 국제 여론에서 우리의 입지가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 지도부도 분산 상륙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집단 상륙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륙정과 공수부대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Türkeş, 1974, p.119).”

하지만 반복되는 키프로스 그리스인과 튀르키인 간의 갈등과 유혈 사태가 계속되면서, 튀르키예 내에서는 종교적-민족적 유대감을 가진 키프로스 튀르키인 문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다시 한번 지배적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 정부는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게 되었다. 1967년, 키프로스 내 긴장이 한층 고조되자 튀르키예 정부는 비공개 회의를 소집했고, 당시 총리 술레이만 데미르엘은 18시간에 걸친 의회 비공개 회의 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존경하는 튀르키예 대국민의회(TBMM) 의원 여러분, 정부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키프로스 투쟁과 같이 모든 민족이 긴장하고 있는 대목에서, 키프로스 동포의 권리와 튀르키예 공화국의 권리를 관장하는 대국민의회가 연대해서 행동하고, 이런 결정(정부에게 전쟁 선언권을 넘김)을 내린 것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Milliyet Gazetesi, 18.11.1967).”

당시 데미르엘 총리의 발언에서는 튀르키예가 키프로스 문제를 매우 민감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심지어 개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튀르키예 의회인 대국민의회에서는 전쟁 선포 권한을 정부에 위임하는 안건이 총 435명 중 432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이흐산 사브리 차오라얀길(İhsan Sabri Çağlayangil) 튀르키예 외교부 장관은 데리바니스(Delivanis) 주터 그리스 대사에게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이 그리스 측에 있음을 통첩문을 통해 전달했다(Ibid). 또한 차오라얀길 장관은 파커 하트(Parker Hart) 주터 미국 대사를 외교부에 소환해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Ibid). 다음날 새벽 2시경, 외교부를 떠나던 하트 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하며 발걸음을 옮긴 모습도,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Ibid).

키프로스를 둘러싼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 갈등은 두 나라가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에서 자유세계의 결속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에 안겼다. 1967년 11월 23일, 사이러스 밴스(Cyrus Vance) 미국 대통령 특사와 하트 대사는 데미르엘 총리 및 차오라얀길 장관과 만나 대화

를 나누었고, 데미르엘 총리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중략)...만약 그리스군이 키프로스에서 철수하여 평화롭게 물러난다면, 이 위기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1964년 존슨 대통령의 편지와 그 대응 방식은 튀르키예와 미국 간 친선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키프로스에서 발생한 사건 대부분은 그리스인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된 그리스 군대에 의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튀르크 사회는 끊임없이 살해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그리스 정부가 임명한 그리바스(Grivas) 장군이 지휘하는 정규군은 키프로스 내 두 튀르크 마을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이 유린 행위들은 명백히 그리스군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결코 은폐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 측에서 전달받은 사실에 따르면, 섬에서 벌어진 모든 범죄 행위에 나토가 그리스에 제공한 무기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나토 무기들은 원래 영토 침범이나 야만적 행위를 위한 것이 아닌 방어 목적으로 지급되었지만, 현재 그리스와 키프로스 내 그리스 정규군은 이 무기들을 튀르크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우리 역시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모든 민족이 단결하여 모든 어려움을 감내할 것입니다. 설사 이 위기가 우리 때문에 전쟁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가능한 상황을 이미 계산해 두었습니다.”

(Hürriyet Gazetesi, 18.01.1968 quoted in Çopur, 2024, p.85).”

데미르엘 총리의 발언에서는 미국이 키프로스를 둘러싼 튀르키예와 그리스 간 갈등에서 튀르키예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또한, 자유 세계 수호를 위해 제공된 나토 무기가 오히려 튀르크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튀르키예의 불만이 분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특별히 데미르엘의 발언 중 린든 존슨 대통령의 편지가 언급된 대목은 미국의 접근 방식이 튀르키예로 하여금 동맹에 대한 신뢰와 자국의 국익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 갈등은 1974년 볼렌트 에제비트 총리와 네즈메틴 에르바칸 부총리가 주도한 ‘키프로스 평화 작전(Kıbrıs Barış Harekat)’의 개시와 함께 절정에 이르게 된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1973년 그리스에서 일어난 쿠데타로 요르요스 파파도풀로스(Yorgo Papadopoulos) 대통령이 실각하고 페돈 이지키스(Fedon Gizikiz)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그리스 정국은 혼란에 빠졌지만, 그리스 정부는 여전히 키프로스 장악 의지를 굽히지 않은 상황이었다(Çopur, 2024, p.96).

에제비트 정부는 그리스 내 쿠데타와 키프로스 그리스인의 합병 추진 움직임을 면밀히 주시하며, 섬의 그리스 합병이 현실화될 것으로 판단해 군사 개입 작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Özcan, 2021, p.292). 개입 준비 과정에서 에제비트 정부는 키프로스 공화국의 주권과 헌법적 질서 준수의 필요성을 관련 당사국에 촉구했으나, 이 요구가 무산되자 군사 개입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며 실행에 박차를 가하였다(Zürcher, 2022, p.313). 결국 1974년 7월 19일 튀르키예 해군이

육군 병력과 함께 메르신(Mersin) 항구에서 출동하고, 20일에는 공군이 합류하며 ‘키프로스 평화 작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부총리이자 이슬람주의 정당 지도자인 에르바칸이 키프로스 군사 개입이 무슬림들의 정복권리(Fetih hakkı)임을 주장하며 군대가 신속히 무장할것을 지시했다는 것이다(Birand, 1990, p.44). 이러한 에르바칸의 모습은 당시 튀르키예 정부의 평화 작전이 종교적 요소 또한 내포하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작전 이후 7월 23일 튀르키예 대국민의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에제비트 총리는 키프로스 평화 작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

“의회 의장 케말 규벤(Kemal Güven): 의제에 따라 외교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총리님 입장해 주십시오

총리 에제비트: 친애하는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마지막 회의를 기점으로 지금까지 키프로스 작전과 관련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드립니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튀르키예군은 키프로스 협정의 당사국으로서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1974년 7월 20일 키프로스 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중략)

절대로 키프로스를 침략해 합병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없을 것입니다. 국제조약이 우리에게 준 권리와 의무의 범위 안에서 행동하기 위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Tutanak Dergisi, 23. 07. 1974: 4)”

에제비트는 키프로스 평화 작전 개시 이후에도 이 작전이 키프로스 합병이 아닌, 1960년 키프로스 독립 당시 당사국으로서 튀르키예가 지닌 의무를 이행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1974년 8월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키프로스에 군병력을 투입한 튀르키예를 ‘침략국’으로 규정했으며, 11월 1일 유엔 총회에서는 튀르키예의 철군과 난민 복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Bostanoğlu, 2008, p.494).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은 튀르키예의 군사 행동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존슨 대통령 시절의 편지에서도 드러났듯, 미국은 튀르키예의 군사 개입에 대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1975년 2월 5일 미국 의회는 튀르키예의 키프로스 진입에 대한 대응책으로 무기 수출 제한안을 상정하여 가결하였다(Ibid.). 이 과정에서 그리스 측의 정치적 로비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점도 주목할 만하다(Ibid.). 미국은 이와 더불어 튀르키예에 예정되어 있던 군사 지원 프로그램을 취소하였고, 이에 반발한 튀르키예는 자국 내 미군 기지의 활동을 중단시키면서 튀르키예-미국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되었다(Seydi, 2006, pp. 292-293). 아울러 1976년 미국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 후보였던 지미 카터가 키프로스 문제와 튀르키예-그리스 간 갈등과 관련하여 튀르키예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행위도 튀르키예 지도부의 분노를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Bostanoğlu, 2008, p.502).

이러한 과정들은 튀르키예로 하여금 미국이 튀르키예의 동맹으로의 역할보다는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국가임을 다시한번 상기시켰으며, 이는 튀르키예 대외관과 안보 인식에 쿠바 미사일 위기 만큼 깊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키프로스 평화 작전을 기점으로 부과된 미국의 제재와 외교적 압력은 튀르키예의 자주성 확보 의지를 강화하는 한편, 대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국 정체성의 재확립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튀르키예는 키프로스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며, 단순한 친서방 외교가 아닌 실용주의 외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튀르키예가 소련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게 된다.

키프로스 평화 작전 이후 키프로스는 실질적으로 그리스인이 남부를, 튀르크인이 북부를 점유하는 형태로 분리되었다. 이후 1983년 11월 15일 북키프로스 튀르크 공화국이 선언되었고, 튀르키예 주요 언론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새로운 튀르크 국가의 탄생을 축하했다.

정리하자면, 튀르키예는 초기에는 국제 여론을 의식하여 군사 행동에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섬 내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이후 파급 효과를 감안하면서도 결국 ‘키프로스 평화 작전’을 단행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받게 되었다.

더 나아가, 튀르키예는 키프로스 문제를 통해 자국과 서방이 취한 상이한 접근법과 그 결과를 통해,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지속되어온 서방과의 동맹 정체성을 다시금 재고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튀르키예가 키프로스 문제를 계기로 소련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배경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당시 소련이 키프로스 내 안정을 요청한 입장은 키프로스 공화국의 현상 유지를 목표로 했던 튀르키예의 상황과도 부합하였다. 1970년 소비에트 연방은 공식 성명서를 통해 키프로스 섬 내 상황이 지역 주민과 키프로스의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Derman & Kurban, 2016, p.468). 이러한 소비에트 연방의 입장은 키프로스 공화국의 독립성을 추구하는 튀르키예의 국익과도 일정 부분 일치하는 측면이 있었다(Qasımlı, 2013, p.344).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튀르키예는 외교 정책의 다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국민의회 의장 케말 규벤을 포함한 특사단을 소련에 파견하여 소련 고위정치인 니콜라이 포드고르니(Nikolai Podgorny)와 키프로스 문제를 논의하였다(Ibid., p.422). 이 같은 행보는 단순한 실용외교를 넘어, 냉전기 나토 회원국이자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 간주되어온 튀르키예의 이념적 정체성이 재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튀르키예는 키프로스 문제를 계기로 서방 중심의 일극적 외교에서 벗어나 다극적 균형을 추구하는 외교 전략, 나아가 독자적 외교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V. 분석 및 결론

이 장에서는 분석모형을 바탕으로 위에 서술된 사건들을 조사해 가설에 부합한지 아닌지를 검증할 것이다

1. 대내외적 환경

국외적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1. 냉전기 소련의 존재,
2. 미국 중심의 핵 위기 관리 방식이 드러난 쿠바 미사일 위기,
3. 키프로스 사태로 인한 지역 안보 불안정.

국내적 요인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주요하다:

1. 키프로스 튀르크인과 공유하는 종교-문화 정체성
2. 나토 회원국으로서의 입지.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으로서 소련을 견제하는 것을 안보 정책의 핵심 축으로 삼았으나,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민족적-종교적으로 연결된 키프로스 튀르크인에 대한 책임 인식 사이에서 복합적인 딜레마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이 튀르키예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자국 내 주피터 미사일을 철수한 사건과, 1974년 키프로스 평화 작전 이후 미국 의회가 무기 수출을 제한한 조치는 튀르키예로 하여금 기존의 서방과의 동맹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다.

2. 정체성 변화

변화 전 정체성: 서방의 일원&튀르크

변화 후 정체성: 자주적 외교 주체&튀르크

2차 세계대전 전후로 튀르키예는 지역에서 확대되는 소련의 영향력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서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제 지원 그리고 나토 가입을 통해 스스로를 서방의 일원이자 동맹이라는 정체성으로 규정했고, 외교적 태도도 이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아울러 키프로스 튀르크인들과는 튀르크라는 민족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었기에, 관련 사안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각종 조치를 취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쿠바 미사일 위기와 키프로스 사태를 거치며, 튀르키예는 서방을 온전한 동맹으로는 바라보지 않게 되었고, 자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독자적인 행보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기존의 ‘서방 일원’이라는 정체성에서 자국을 자주적 외교 주체의 행위자라는 정체성으로 재설정하면서, 서방을 전략적 협상대상이자 대응 주체로 인식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이는 소련에 대해서도 적국에서 전략적 상대로 바라보는데 영향을 줘 외교 상대로 취급하는 초석을 이루었다.

또한 튀르키예라는 민족 정체성 역시 키프로스 사태에 대한 군사 개입의 중요한 동기로 기능하였기에 튀르키예의 대외 정책 과정에서 기능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 할 수 있다.

3. 국익 변화

변화 전 국익: 친서방 외교노선을 통한 소련 견제

변화 전 국익: 외교 다변화를 통한 자국 권익과 안보의 우선 확보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미국의 일방적 결정과, 키프로스 사태에서의 무기 수출 제한은 튀르키예에게 기존의 외교노선이 자국 안보에 필수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에 따라 튀르키예는 외교 다각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게 되었고, 실용주의 노선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4. 정책 변화

변화 전 정책 사례:

- 한국전 파병
- 나토 가입
- 쿠바 미사일 위기 초기의 미국지지

쿠바 미사일 위기 이후:

- 1969년 좌파 공화인민당도 정강에서 소련 자극 회피를 명시함. 이는 좌파뿐 아니라 우파 정당 정부에서도 관철되며, 튀르키예의 전반적인 국익 추구 과정이 실용주의 외교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함

키프로스 사태 이후:

-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키프로스 평화 작전을 단행함
- 대국민의회 의장 케말 규벤이 특사단을 이끌고 소련을 방문, 니콜라이 포드고르니와 키프로스 문제를 논의함 -> 소련과 접촉하며 실용 외교 전개

5. 변화한 정체성과 정책이 야기한 대내외적 영향

국외적 환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변화 전

- 유럽 내 자유 진영 세력인 나토가 특별한 갈등 없이 유지됨

변화 후

- 기존의 자유 진영 내부 질서(특히 나토 내 균형)가 그리스-튀르키예 간 갈등으로 흔들림
- 튀르키예-소련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이 부상함
- 나토 내부 이질성 심화 → 미국의 대소 정책 재조정 필요성 제기

국내적 환경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변화 전

- 튀르키예 좌파&우파 진영의 친서방 외교 노선 고수

변화 후

- 실용주의 외교는 일시적 노선이 아니라,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 모두가 수용하는 장기적 전략으로 고착화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때 연구자가 보고자 한 정체성의 변화가 실질적인 튀르키예의 외교 다각화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제도적 요소, 정체성, 국익, 정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과 서로에게 영향을 줌을 강조하는 카젠스타인의 분석 모형이 본 연구 내 튀르키예 사례를 다루기 적합하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대부분의 언론은 현 튀르키예의 외교정책을 반미 그리고 친러로 표현하며, 그 사유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을 그 핵심 이유로 지목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본 사례 분석을 통해 튀르키예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날 튀르키예의 외교 행보는 그저 에르도안 대통령을 단일 원인으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결론일 것이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구성된 튀르키예의 경험과 정체성이 오늘날 튀르키예의 외교 행보를 구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것이 에르도안 대통령 시기에도 나타난다고 분석하는 것이 더욱 심화적으로 튀르키예의 외교 노선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덕일(2025), “AKP 집권 이후 튀르키예의 대(對)이스라엘 외교 정책과 하마스(2025)”, 『아세아연구』, 68(1): 251~282
- 김재민(2022), “카자흐스탄의 국가정체성과 대(對) 중앙아시아 대외전략 연구 - 구성주의를 중심으로 -“,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 박수현·이효복(2022),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으로서의 공공외교와 문화적 영향력: 튀르키예의 대(對) 한국 문화외교 잠재력과 함의를 중심으로”, 『중동문제연구』, 21(3): 97~127
- 오종진·이주성(2022), “터키의 신아시아 구상과 공공외교 전략”, 『중동연구』, 41(1): 2~21

[국외 자료]

- Aslaner, Serhat (2016). “27 Mayıs’tan 15 Temmuz’a Metinlerle Türkiye Darbe Tarihçesi” *Mecuma*, 91
- Aydın, Suvai/Taşkın, Yüksel. (2018). *1960’tan Günümüze Türkiye Tarihi*. İletişim
- Birand, Mehmet Ali. (1990). *30 Sıcak gün*. Milliyet Yayınları
- Bostanoğlu, Burcu. (2008). *Türkiye-ABD ilişkilerinin Politikası*. İmge Yayınevi
- Çopur, İzzettin. (2024). *1974 Kıbrıs Barış Harekat ve Anılar*. Kastaş Yayınevi
- Derman, Saynur Giray&Kurban, Vefa (2016). “KIBRIS SORUNUNUN TÜRK DIŞ POLİTİKASINA ETKİSİ VE ABD-SSCB İLE İLİSKİLER” *Journal Of Modern Turkish History Studies*, 16(33): 455~484
- Erhan, Çağrı. (Ed). (2009). *Türk Dış Politikası*. İletişim
- Ertem, Barış. (2010). Türkiye Üzerindeki Sovyet Talepleri ve Türk-Sovyet İlişkileri (1939-1947).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Social Research*, 3(11): 252~273
- Esmer, Şükrü Ahmet&Sander Oral(1993). İkinci Dünya Savaşında Türk Dış Politikası. In Gönlübol, Mehmet (Ed). *Olaylarla Türk Dış Politikası (1919-1995)*. (pp.137-185) Siyasal Kitabevi
- Gönlübol, Mehmet&Sar, Cem. (1993). 1919-1938 Yılları Arasında Türk Dış Politikası. In Mehmet Gönlübol (Ed). *Olaylarla Türk Dış Politikası (1919-1995)*. (pp.3-126) Siyasal Kitabevi
- Hürsoy, Siret. (2013). "ELEŞTİREL KURAM PERSPEKTİFİNDEN KIBRIS SORUNU" *İ.Ü. Siyasal Bilgiler Fakültesi Dergisi*, 48: 23~41
- Johnson, Lyon B.&İnönü, İsmet (1966). “President Johnson and Prime Minister İnönü: Correspondence between President Johnson and Prime Minister İnönü, June 1964, as Released by the White House January 15, 1966” *Middle East Journal*, 20(3):
- Katzenstein, Peter J. (Ed) (1996). *The Culture of National Security: Norms and Identity in World*

Politics. Columbia University Press

Özcan, Genzer (2021). Yetmişli Yıllarda “Dış” Politika In Mete Kaan Kaynar (Ed), *Türkiye’nin 1970’li Yılları* (pp.261-290) İletişim

Qasımlı, Musa. (2013). *Türkiye-Sovyet Sosyalist Cumhuriyetleri Birliği İlişkileri 1960-1980* (Alpertunga ALTAYLI, trans.). Atatürk Araştırma Merkezi Başkanlığı

Serter, Vehbi Zeki. (2008) *Kıbrıs’ta Rum-Yunan Saldırıları ve Soykırım*. Gnkur. Ataşe Aşk.lığı yayınları, p.193-194 quoted in Çopur

Seydi, Süleyman (2007). Soğuk Savaş Dönemi Türk Dış Politikası. In Süleyman Inan&Ercan Hayatoğlu (Ed), *Yakın Dönem Türk Politik Tarihi*. Anı Yayıncılık

Shaw, Stanford J.&Shaw, Ezel Kural. (2017). *Osmanlı İmparatorluğu ve Modern Türkiye 2* (Mehmet Harmancı, Trans.). E yayınlar

Tanyol, Cahit (1999). *Türkler ile Kürtler*. Gendaş Kültür

Türkeş, Alparslan (1974) *Dış Politikamız ve Kıbrıs*. Kutluğ Yayınlar

Zürcher, Erik Jan. (2022). *Modernleşen Türkiye’nin Tarihi* (Yasemin Samer, Trans.). İletişim

*튀르키예 의회 아카이브 자료

CHP Düzen Değişikliği Programı<공화인민당 질서전환계획>, 1969

Tutanak Dergisi<튀르키예 의회 속기록>, 23. 07. 1974: 4

*튀르키예 현지 신문 및 튀르키예 종무부 이슬람 백과 자료

Hürriyet Gazetesi<휴리예트 신문>. 18.01.1968 quoted in Çopur, 2024, p.85

Milliyet Gazetesi<밀리예트 신문>. 25.10.1962, 28.10.1962, 1.11.1962, 18.11.1967

Küçük, Cevdet. (2020). Misak-ı Milli. *İslam Ansiklopedisi*.

<https://islamansiklopedisi.org.tr/misak-i-milli> (2025.05.26)

Sahillioğlu, Halil. (1991) Antakya. *İslam Ansiklopedisi*.

<https://islamansiklopedisi.org.tr/antakya>(2025.05.26)

*1960 키프로스 보장 조약

NO. 5475. TREATY OF GUARANTEE. SIGNED AT NICOSIA ON 16 AUGUST 1960. (1960). *UN Peacemaker*.

<https://peacemaker.un.org/sites/default/files/document/files/2024/05/cy20gr20tr600816treaty20of20guarantee.pdf>(2025.05.26)

팔레스타인 대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이스라엘 정책 변화: 구조토픽모델을 활용한 사우디 외교성명 분석

황원준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The Palestine Cause and Saudi Arabia's Israel Foreign Policy Moves: The Analysis of Foreign Statement Us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Since the Abraham Accords in 2020, many scholars and experts have assessed the decline of the Palestinian Cause in Arab states and anticipated that Saudi Arabia would eventually normalize relations with Israel. However, the outbreak of the Israel– Hamas war shifted the landscape and appears to have revived the Cause within Saudi foreign policy.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the war led to a meaningful restoration of the Cause in Saudi Arabia. To answer this question, the study employs Structural Topic Modeling to analyze Saudi foreign ministry statement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Palestinian Cause in Saudi Arabia's policy toward Israel was significantly revitalized by the 2023 war alone. Furthermore, the effect became more evident when considered alongside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Iran. Although references to Palestinian issues beyond the Gaza Strip —where the war is ongoing—also increased following both events, attention to East Jerusalem did not rise significantly, likely due to its political sensitiv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while the Gaza conflict and Saudi–Iran rapprochement have jointly reactivated the Palestinian Cause, certain sensitive issues remain strategically downplayed.

[Key Words : Saudi Arabia, Palestine cause, Israel-Hamas war, Saudi-Iran normalization, Structural topic modeling]

I. 서론

2020년 9월 15일 아랍에미리트(United Arab Emirates, UAE)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맺은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s) 이후 많은 이들이 아랍 국가들의 팔레스타인 대의(Palestine cause)가 약해졌다고 평가했다(Guzansky & Marshall, 2020, 382; 김강석, 2021, 3-4).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갔으며, 미국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확대하려 노력했다(Niu & Wu, 2021, 182). 2023년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MbS) 왕세자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정상화의 방향으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발언하기도 하였다(Ebrahim, 2023. 9. 21). 아랍의 맹주를 자처하며 아랍연맹(Arab League)과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GCC)를 주도하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는 2002년 아랍평화안(Arab Peace Initiative, API)을 기초로 한 팔레스타인 대의의 유기(遺棄)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이스라엘 외교정책은 큰 관심을 받았으며, 국내에서도 그 원인과 여파에 관해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김강석, 2019; 서정민, 2020; 엄익란, 2025; 최준영·김은비, 2023).

이러한 가운데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아랍 세계에서 팔레스타인 대의의 입지를 다시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는 다시 요원해졌다(엄익란, 2025, 110). 그렇다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변화했을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에 미친 영향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으나, 몇몇 기존 문헌에서 이와 관련한 중요 쟁점을 찾을 수 있다. 그 영향에 관한 첫 번째 견해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내 여론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이스라엘과의 협력을 신중히 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설명이다(Ahn, 2025; Katz, 2025). 또 다른 견해는 전쟁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에 정책은 우호적이며, 하마스와 관련 세력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안소연, 2024). 이와 같이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그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 글의 연구 질문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이스라엘 정책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이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성명(statement)을 수집하여 구조토픽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STM) 분석을 진행했다. 이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회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앞서 이루어진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2023년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가 일정 수준 회복되었다고 주장한다. STM 분석 결과, 두 사건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부 성명에서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내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함에 따라 연구의 주장에 대한 지지를 확인

하였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관련 배경에 관한 기술과 더불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주장의 예측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설계를 기술하고, 다음 IV장에서는 STM을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끝으로 결론에서는 연구의 함의 및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해 논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II. 팔레스타인 대의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 동인

1. 아랍의 팔레스타인 대의

팔레스타인 대의는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아랍 국가들의 민족적 사명이 투영된 중요한 가치다(강원구, 2022, 87-88; Alcott, 2019. 5. 21). 이는 아랍연맹 창설의 중요한 동기로 작용했고, 중동전쟁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아랍 국가들은 카르툼 결의안(Khartoum Resolution)과 API를 통해 아랍 공동의 팔레스타인 대의를 공약했으나, 일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 및 외교관계를 맺음에 따라 팔레스타인 대의의 약화를 경험하기도 했다.

1936년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유대인 이민 등에 반발하여 봉기를 일으킨 뒤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국가들이 공유하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1945년 아랍연맹 창설 시에도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결속의 중요한 동력이자 논의 이슈였다(Sachdev, 2025. 5. 28). 아랍연맹을 통해 아랍 국가들은 1947년 팔레스타인 분할에 관한 유엔총회(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GA) 결의안 181호에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며(황의현, 2024, 113), 같은 해 12월에는 지원병으로 구성된 비정규 아랍해방군(Arab Liberation Army, ALA)을 창설했다. 1948년 초부터 ALA가 팔레스타인 내 유대인 거주지를 공격하여,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전투가 발생했고, 아랍 각국의 정규군은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선언문 발표를 기점으로 공격을 시작했다(Yitzhak, 2024, 1323). 이처럼 당시 팔레스타인 대의는 아랍의 정체성과 이익에 핵심적인 사안이었다.

1967년 6월에 이루어진 제3차 중동전쟁(6일 전쟁) 직후 같은 해 9월 아랍연맹 정상회담에서는 카르툼 결의안을 발표했다. “3NO”원칙을 제시한 이 결의안은 이스라엘과의 평화, 이스라엘에 대한 국가인정, 이스라엘과의 협상을 모두 거부하겠다는 아랍의 원칙과 공약을 보여주었다(Meital, 2000, 64-5). 이스라엘의 영토 반환 없이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하겠다는 카르툼 결의안은 2002년 API 발표 전까지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아랍의 입장을 대표했다(백승훈, 2025, 91). 하지만 카르툼 결의안을 통한 아랍의 팔레스타인 대의는 이스라엘과 국경을 마주한 두 아랍 국가의 평화협정 체결로 큰 균열을 겪었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 협정과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을 통해 이집트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인정했고, 1994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을 계기로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동예루살렘 및 서안지구 점령을 인정한 것이다(홍미정, 2022, 118-120).

이후 2002년 베이루트(Beirut)에서 아랍연맹은 API를 발표하며 팔레스타인 대의를 다시 한번 공

약했다. API는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조건으로 1967년 전쟁 이전의 국경으로 완전 철수와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의 독립 수용을 요구했으며, 나아가 UNGA 결의안 194호에 기반한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의 해결을 주장했다(Podeh, 2014, 588). 그러나 하마스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한 마찰이 지속되고,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이란과 아랍 왕정 국가 간의 갈등이 커지면서, 팔레스타인 피로(Palestine Fatigue)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기 시작했다(강원구, 2022, 87-95; 서정민, 2018, 79-83).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 문헌은 2020년 UAE와 바레인 이 이스라엘과 맺은 아브라함 협정에 대하여 팔레스타인 대의 약화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강원구, 2022, 94; 김강석, 2021, 11-19; 백승훈, 2025, 93; 홍미정, 2022, 121-124).

2.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와 대(對)이스라엘 정책

오늘날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대의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다. 아랍 민족주의를 주도했던 이집트가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팔레스타인 대의가 크게 손상되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의 파흐드(Fahd bin Abdulaziz Al Saud) 왕세자는 1981년 파흐드 평화안(Fahd Plan)이라고도 불리는 아랍연맹 이니셔티브(Arab League Initiative)를 제안했다(엄익란, 2025, 117). 이는 카르툼 결의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했으며, 1982년 아랍연맹의 페즈(Fez) 정상회의에서 정식으로 채택되었다(Khalidi, 1984, 261-2). 2002년 API를 제안한 이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였던 압둘라(Abdullah bin Abdulaziz Al Saud)였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적으로도 팔레스타인의 가장 큰 후원국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두 해(2021, 2024)를 제외한 모든 해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 국가 중 가장 큰 후원금을 유엔팔레스타인난민기구(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UNRWA)에 기부했다(UNRWA, n.d.).

이러한 맥락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오랜 기간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대적인 정책을 유지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차츰 변화했다. 2010년대 들어서 점진적으로 협력을 시작했고, 2017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 두 국가의 관계는 더욱 진전되었으며, 2020년 아브라함 협정 체결 후에는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협정에 가입하도록 적극 설득하기도 했다(Kateb, 2025. 4. 25; Niu & Wu, 2021, 175-6).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 변화는 팔레스타인 대의의 약화로 이어졌는데 대표적으로 2014년 가자 전쟁과 2021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위기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4년에는 약 7주간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으로 팔레스타인인 약 2,100명과 이스라엘인 73명 사망했으며, 2021년에는 11일간 양측의 교전으로 260여 명의 팔레스타인인과 13명의 이스라엘인이 사망했다(Valbjørn et al., 2024, 10). 이스라엘의 주장에 따르면 2014년 충돌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대의에 대한 지지를 밝혔으나, 비밀리에 협상안을 이스라엘에 제안했다. 비록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협상안을 거절했으나, 당시 안은 API에

서 상당히 양보한 내용이었으며,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협력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Staff, 2019. 2. 13). 2021년 5월에는 유대인 정착촌 건설 반대 시위에 대응해 이스라엘이 알 아크사 모스크(Al-Aqsa Mosque)에 진입하여 시위를 강경 진압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교전이 발생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는 알 아크사 모스크에서의 진압과 관련하여 비난 성명을 발표했으나, 하마스와의 교전에 관해서는 침묵을 유지했다(KSA Foreign Ministry, n.d.).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 변화를 이끈 주요한 동인은 이란의 위협, 정권 안보, 아랍 및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위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이란의 위협은 다수의 기존 문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설명하는 주요 동인이다(엄익란, 2025, 118; 최준영·김은비, 2023, 20-32; Abadi, 2019; Beck, 2020; Furlan, 2019, 175-7; Niu & Wu, 2021). 2003년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안전조치 협정 위반을 지적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을 지역 내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Bowen & Kidd, 2004, 259-60). 2011년 아랍의 봄을 기점으로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의 적극적 지지 속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과 점진적으로 협력을 시작했다(Niu & Wu, 2021, 175).

둘째, 정권 안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정책을 좌우하는 또 다른 동인이다(김강석, 2019; 서정민, 2025; 이수진, 2020; Debre, 2020). 2011년 아랍의 봄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내 여러 국가의 정권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에 대응하여 아랍 왕정 국가들은 긴밀하게 협력했고(이수진, 2020), 이란은 각국의 급진 이슬람 세력을 지원하며 아랍 왕정을 위협했다(김강석, 2019, 135-8). 이러한 맥락에서 정권 안보 동인은 앞서 언급한 이란의 위협 관련 동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관련하여 서정민(2025)은 사우디-이란 갈등으로 대표되는 시아파와 수니파 간의 충돌은 각국의 정권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으로 사용되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 변화는 이란에 대한 국내외 위협 대응과 더불어 경제적 협력을 통한 비전 2030 추진을 통해 정권 안보를 강화하려는 배경에서도 이해할 수 있다(김강석, 2019, 140-2).

셋째는 직접적으로 아랍 및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위협이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과거 중동전쟁을 통해 이스라엘과 전쟁을 겪었다는 점에서 오랜 기간 이스라엘을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해 왔다(최준영·김은비, 2019, 22-3). 또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초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아랍 세계에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스라엘을 위협으로 간주해 왔으며,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정체성의 상징이 되어왔다(황의현, 2024, 113-4). 이러한 맥락에서 아랍 또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공격이나 위협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직접적인 동인으로 작용해왔다.

3.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앞서 살펴본 세 가지 동인은 2023년 발생한 두 가지 사건을 계기로 중대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하나는 3월 10일 발표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였으며, 다른 하나는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먼저,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와 관련하여 양국은 위기가 고조되던 가운데 2016년 단교를 선언했고, 2023년 초까지 이를 유지했다(Chulov, 2016. 1. 4). 이후 양국은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외교관계를 복원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합의를 통해 외부 위협을 완화하여 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나아가 미국의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레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Hwang, 2024, 386-90). 사우디아라비아의 입장에서 이란과의 수교는 외부 위협의 감소뿐만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던 급진주의 세력의 위협 완화로도 이어져 정권 안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이란과의 외교 관계 복원은 이스라엘과 협력의 주요한 동인이었던 이란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을 일정 수준 약화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두 번째 계기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이다. 전쟁 발발 이후 몇 차례 휴전이 이루어졌으나 다시금 전투가 재개되었고,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 내며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여 전장을 확대했으며, 가자지구에 대한 강도 높은 공격을 통해 하마스와 가자지구 주민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다. <표 1>은 전쟁 발발 이후 일련의 주요 사건들을 요약한 것이다.

<표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주요 경과>

일 자	내 용
23. 10. 0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10. 08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 시작
11. 21	이스라엘-하마스 4일간 휴전 합의(이후 7일 연장)
12. 0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재개
24. 04. 01	이스라엘의 주 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
04. 14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격(300여발의 미사일 및 드론 발사)
07. 31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하니예 암살
09. 27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헤즈볼라 지도자 나스랄라 사망
10. 0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이란의 이스라엘 두 번째 미사일 공격
10. 16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자 신와르 제거
10. 26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공격
11. 2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11. 27	이스라엘-헤즈볼라 휴전 합의
25. 01. 19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
03. 01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기간 만료

06. 13	이스라엘의 이란 핵 및 군사시설 폭격
06. 22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06. 23	이란의 카타르 내 미국 군사기지 미사일 공격

출처: Al Jazeera(2025. 1. 19); AP(2025. 6. 15); Dahman et al.(2025. 3. 1); Salem(2025. 6. 28)

2023년 발생한 두 가지 계기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팔레스타인 대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직후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직후 이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외교부 성명을 발표했으며, 2024년과 2025년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에 대한 공격 이후에도 이를 비판하고 이란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연구에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국내 여론 변화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가 강화되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고 평가하였다(Ahn, 2025; Katz, 2025). 반면, 안소연(2004)은 국영방송의 보도를 통해 카타르와 비교했을 때 사우디아라비아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정도가 약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표 2. 이스라엘의 주요 공격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성명(영문) 발췌>

일 자	내 용	외교성명 발췌
23. 10. 07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calls for an immediate halt to the escalation between the two sides,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nd restraint....recalls its repeated warnings of the dangers of the explosion of the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continued occupation, the depriv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of their legitimate rights, and the repetition of systematic provocations against its sanctities...
24. 10. 01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stresses the need to preserve Lebanon'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and affirms its solidarity with the Lebanese people...
24. 10. 26	이스라엘의 이란 미사일 공격	...expresses its condemnation and denunciation of the military targeting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25. 06. 13	이스라엘의 이란 핵 및 군사시설 폭격	...expresses its strong condemnation and denunciation of the blatant Israeli aggressions against the brotherly Islamic Republic of Iran...
25. 06. 22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	...with deep concern the developments in the Islamic Republic of Iran...condemned and denounced the viol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출처: KSA Foreign Ministry(n.d.).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비롯한 2023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과 관련한 팔레스타인 대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그리고 그 영향은 얼마나 유효할 것일까?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사우디-이란의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두 사건은 앞서 논의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동인을 모두 자극하였으며, 이 연구는 두 사건의 결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팔

레스타인 대의 회복에 유효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측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단순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반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팔레스타인 대의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쟁이 진행 중인 가자지구에 관한 외교부 성명뿐만 아니라 정착촌 문제나 알아크사 모스크 문제 등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다른 이슈에 관한 성명 역시 증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외교부 성명의 내용과 그 양적 변화를 통해 예측에 대한 검증을 시도한다.

III 연구 설계

1.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부 성명

이 연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에서 팔레스타인 대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고 측정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영문 외교부 성명(Statement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을 수집했다. 외교부 성명은 외교 사안에 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문서로 특히 영문으로 작성된 외교부 성명은 대외적으로 자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다른 국가와 소통하는 수단이다. 외교부 성명은 특정 사건 및 계기로 인해 발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관련 국가 또는 사건을 명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외교부 성명은 특정 국가에 관한 국가의 외교정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며, 기존 여러 연구에서 이러한 성명을 기반으로 특정 국가의 태도 및 정책을 분석한 바 있다(김상범, 2023; 이현지·이화준, 2021).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부 성명은 외교부 X 영문 계정(Saudi Arabia Foreign Ministry, KSAmofaEN)에서 수집했다(KSA Foreign Ministry, n.d.). 성명의 수집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이다. 전체 기간은 주요 분기점이 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전후로 균등하게 기간이 구분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전쟁 발발 전 625일, 발발 후 661일에 대한 관측을 확보할 수 있는 3년 반 기간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자료 수집 방법과 관련하여 외교부 X 계정에서 성명은 그림 파일로 게시됨에 따라, 해당 내용에서 본문 텍스트를 추출해 각 성명별로 csv파일에 정리했다. 또, 성명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비난, 애도, 환영, 촉구 등 외교적인 입장표명이 아닌 정책 시행에 관한 공지 또는 홍보와 관련된 내용은 제외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자적인 외교정책이 아닌 다른 국가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에 관한 공동성명 역시 제외했다. 이상의 방법을 통해 총 334개의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성명의 텍스트를 수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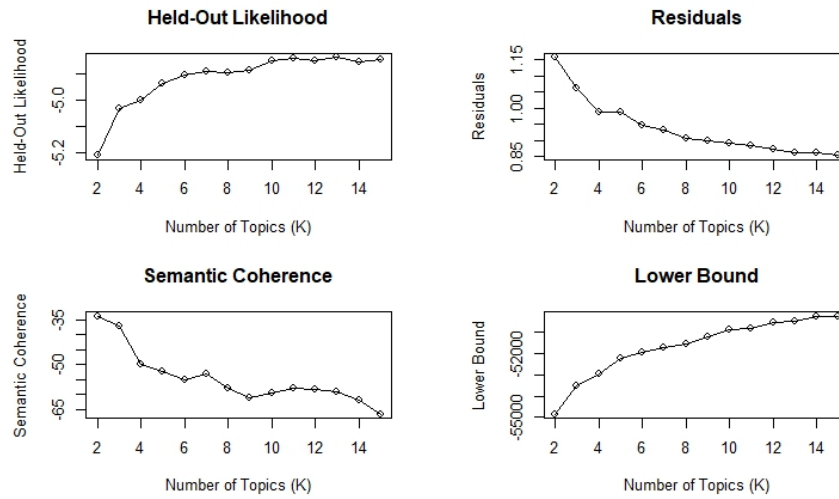
2. 구조토픽모델링(STM)

외교부 성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정한 사건을 계기로 그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STM 분석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토픽모델링은 자연어 처리를 활용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의 일환으로 단어가 함께 등장하는 패턴을 포착하여 텍스트에 내재된 주제를 탐색하는 비지도 통계 기법(unsupervised statistical approach)이다(Blei, 2012). 각 주제는 단어들에 대한 확률분포로 구성되며, 각 문서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어떠한 주제에서 높은 확률로 나타나는지를 판단해 문서 내 주제들을 예측하는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의 원리를 사용한다(Blei et al., 2003). 기본 토픽모델링은 적정 토픽의 수를 계산하고, 이를 통해 텍스트 데이터 전체가 어떤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STM은 기본 토픽모델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텍스트에 관한 정보인 메타 데이터(meta data)를 활용하여, 각 주제가 특정한 변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하는 확장된 분석 기법이다. STM은 각 문서의 특성에 따라 주제의 구성 비율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에 따라 사회과학의 최근 여러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성기은·신성균, 2023; 김성관·황원준, 2024; 이후량·여유경, 2024). STM을 개발한 Margaret Roberts 등의 연구진은 이를 R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stm} 패키지와 분석 코드를 제공하며, 이 연구는 해당 패키지와 코드를 사용했다(Robert et al., 2019).

STM 분석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텍스트에 대한 전처리 작업과 적정 토픽 개수 선정이 필요하다. 먼저 전처리 작업은 분석할 텍스트 내에 있는 내용 중 불필요한 단어 및 문자를 제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나아가 영문 텍스트의 경우에는 일관된 텍스트 인식을 위해 대문자를 모두 소문자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차 전처리는 {tm}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stopwords 기능을 활용해 대명사, 관사, 전치사 등 기본적인 불필요 단어들을 제거했다. 2차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성명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지만 주제의 해석에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단어인 “ministry”, “foreign”, “affair”, “kingdom”, “saudi”, “arabia”, “express”를 제거했다.

<그림 1. 적정 토픽 개수 판단을 위한 지표>



다음으로 적정 토픽 개수는 {stm} 패키지의 searchK 기능을 활용하여 선정하게 되는데, 이는 몇 개의 토픽으로 텍스트 데이터를 구분했을 때 가장 적합한지 분석하는 과정이다. 이때 적정 여부는 네 가지 지표를 비교하여 판단하며, 이들 지표에는 가능도(Held-out likelihood), 잔차(residuals), 의미 응집도(semantic coherence), 하한선(lower bound)이 있다. 가능도는 훈련에 포함되지 않은 단어에 대한 예측 성능을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성능이 우수함을 의미한다. 잔차는 과소적합을 진단하는 지표로 그 값이 1보다 낮은 토픽 개수를 선정해야 한다. 의미 응집도는 토픽 내 상위 단어들이 문서 내 공동으로 등장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값이 클수록 일관된 주제가 나타남을 뜻한다. 끝으로 하한선은 적합도의 향상 수준을 의미하며, 증가 폭이 완만해지는 지점을 적정 개수로 판단한다. 네 가지 지표 중 일반적으로 가능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가능도 값이 크고, 잔차 값은 1 미만이며, 의미 응집도의 값은 증가하고, 하한선 값은 증가 폭이 완만해지는 지점을 선정해야 한다. <그림 1>과 <표 3>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9개의 토픽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적정 토픽 개수 판단을 위한 지표>

토픽 개수	가능도		잔차	의미 응집도		하한선	
	값	Δ		값	Δ	값	Δ
2	-5.176	-	1.152	-34.289	-	-53395.21	-
3	-4.968	0.208	1.050	-37.336	-3.047	-52074.68	1320.53
4	-4.960	0.009	1.023	-48.409	-11.073	-51405.09	669.59
5	-4.901	0.059	0.993	-46.671	1.738	-50812.85	592.24
6	-4.890	0.011	0.958	-61.046	-14.375	-50515.56	297.29
7	-4.895	-0.005	0.943	-59.000	2.046	-50265.01	250.55
8	-4.892	0.003	0.926	-60.660	-1.660	-49994.15	270.86
9	-4.849	0.043	0.909	-56.616	4.044	-49680.60	313.55
10	-4.857	-0.008	0.877	-55.944	0.672	-49518.26	162.34

11	-4.867	-0.01	0.864	-59.813	-3.869	-49257.99	260.27
12	-4.850	0.017	0.863	-58.474	1.339	-49037.50	220.49
13	-4.874	-0.024	0.863	-62.728	-4.254	-48905.66	131.84
14	-4.848	0.026	0.854	-67.039	-4.311	-48729.75	175.91
15	-4.849	-0.001	0.861	-65.230	1.809	-48532.09	197.66

주: 소수점 넷째 자리 반올림, Δ 는 변화량

STM에서 토픽을 분류한 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바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외교부 성명이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이다. 특히, 팔레스타인 대의 중 가자지구 외의 다른 이슈 관련 성명 역시 증가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외교부 성명의 토픽을 종속변수라고 할 수 있으며, 독립변수는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 및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다. 독립변수의 두 가지 요소는 각각의 영향과 두 가지가 결합된 영향을 보기 위해 먼저 이항형(binary) 변수로 두 요인의 영향을 분석하고, 이어서 두 요인을 순서형(ordinal) 변수로 결합하여 추가적인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이항형 변수는 각 사건의 발생 전에는 0, 이후에는 1의 값을 갖는 변수이며, 순서형 변수는 이란 관계 정상화 전까지는 0, 이후에는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에는 2의 값을 갖도록 했다.

IV.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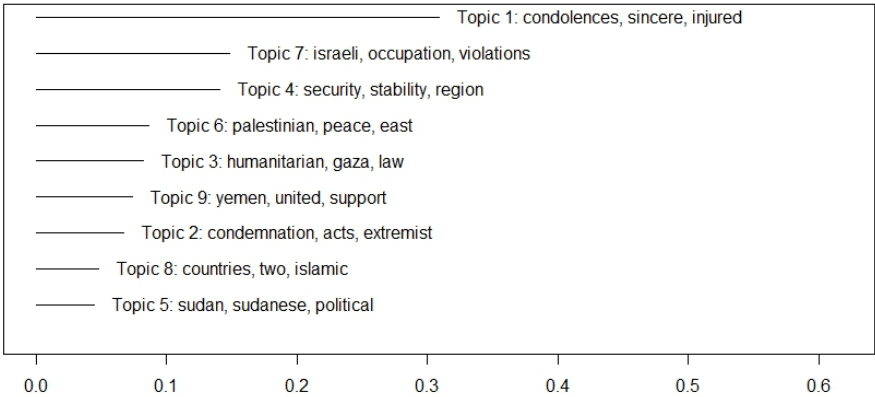
<표 4. 9개 토픽별 빈출 및 배타적 단어>

구 분		내 용
토픽1	Highest Prob	condolences, sincere, injured, recovery, speedy, families, government
	FREX	condolences, sincere, recovery, victims, sympathy, speedy, wishes
	주제	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애도
토픽2	Highest Prob	condemnation, acts, extremist, practices, efforts, rejection, world
	FREX	extremist, hatred, muslims, religious, practices, world, acts
	주제	무슬림 증오 극단주의 비판
토픽3	Highest Prob	humanitarian, gaza, law, strip, relief, civilians, targeting
	FREX	relief, agency, unrwa, strip, gaza, humanitarian, law
	주제	가자지구 인도주의 범죄 비판[팔레스타인 대의 1]
토픽4	Highest Prob	security, stability, region, peace, syria, efforts, agreement
	FREX	region, syria, syrian, president, security, prosperity, stability
	주제	시리아 내전 우려 및 안정 촉구
토픽5	Highest Prob	sudan, sudanese, political, embassy, diplomatic, missions, renews
	FREX	sudan, sudanese, missions, embassy, diplomatic, political, parties
	주제	수단 내전 우려 및 안정 촉구

토픽6	Highest Prob	palestinian, peace, east, jerusalem, resolutions, capital, borders
	FREX	east, borders, jerusalem, independent, rights, palestinian, decision
	주제	동예루살렘에서의 인권 탄압 비판[팔레스타인 대의 2]
토픽7	Highest Prob	israeli, occupation, violations, forces, condemnation, community, denunciation
	FREX	occupation, israeli, violations, blatant, forces, ongoing, mechanisms
	주제	이스라엘 점령 및 정착촌 확대 비판[팔레스타인 대의 3]
토픽8	Highest Prob	countries, two, islamic, minister, government, prime, arab
	FREX	countries, two, prime, minister, islamic, cooperation, relations
	주제	이슬람 내 여러 분쟁에서 양측의 협력 촉구
토픽9	Highest Prob	yemen, united, support, yemeni, efforts, nations, brotherly
	FREX	yemen, yemeni, united, terrorist, nations, reach, brotherly
	주제	예멘 내전에서 정부 지지 및 후티 반군 비판

stm 함수를 활용해 적정 토픽 개수로 판단된 9개를 기준으로 토픽을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는 각 토픽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빈출 단어(Highest Prob)와 다른 토픽에는 나타날 확률이 적고 해당 토픽에서만 등장 확률이 큰 단어인 FREX(FREquency EXclusivity, 배타적 단어)로 제시된다. 같은 패키지 내에 있는 findThoughts 함수는 각 토픽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예시로 보여주며, 연구자는 이를 활용해 해당 토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분류한 9개의 토픽은 ①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애도, ②무슬림 증오 극단주의 비판, ③가자지구 인도주의 범죄 비판(이하 가자지구), ④시리아 내전 우려 및 안정 촉구, ⑤수단 내전 우려 및 안정 촉구, ⑥동예루살렘에서의 인권 탄압 비판(이하 동예루살렘), ⑦이스라엘 점령 및 정착촌 확대 비판(이하 정착촌 문제), ⑧이슬람 내 여러 분쟁에서의 양측 협력 촉구, ⑨예멘 내전에서 정부 지지 및 후티 반군 비판이다. <그림 2>는 각 토픽이 전체 텍스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토픽은 재해 및 사고에 대한 애도 관련 토픽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재해 및 사고에 대해 애도의 성명을 발표해 왔다.

<그림 2. 토픽 비율>



9개의 토픽 중 팔레스타인 대의와 관련된 토픽은 3번, 6번, 7번 토픽으로 판단했다. <그림 3>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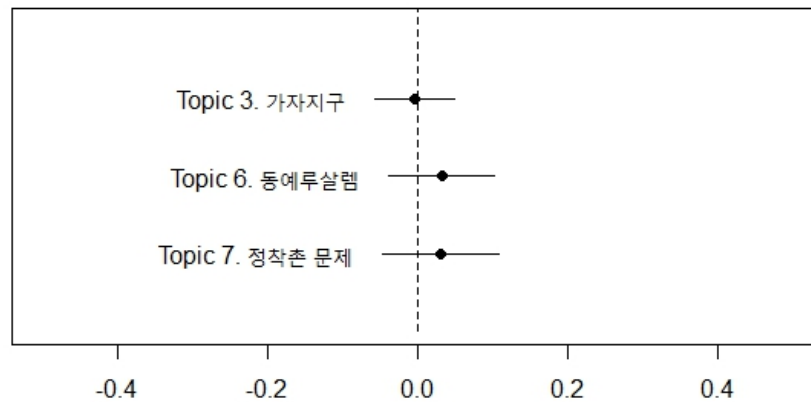
세 가지 토픽의 상위 15개 빈출 단어로 구성된 워드클라우드이다. 이들 세 가지 토픽은 팔레스타인 대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인 가자지구, 동예루살렘, 그리고 정착촌 관련 내용이다. 이스라엘 정착촌 문제는 1967년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한 여러 지역에서 꾸준히 확대가 되어왔으나, 가장 큰 규모로 정착촌 건설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안 지구이다(Knell & Gritten, 2025. 5. 29). 따라서 이들 세 가지 토픽은 아랍이 카르툼 결의안과 API에서 일관되게 이스라엘에 요구해 온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를 영토로 하고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국가 건설 관련 내용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중 가자지구 토픽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전쟁 직후 이에 관한 성명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외교정책에서 팔레스타인 대의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가자지구 토픽 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 토픽들 역시 함께 증가해야 한다.

<그림 3.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토픽의 워드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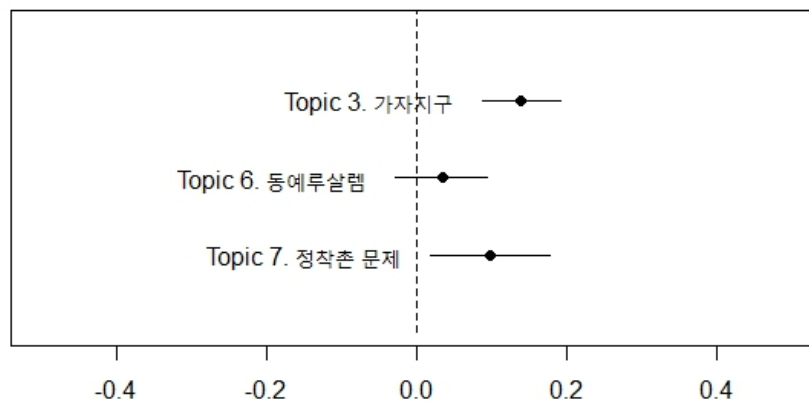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팔레스타인 대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두 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관계 정상화와 전쟁의 영향을 각각 개별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그림 4>와 <그림 5>가 이에 해당한다. 이들 두 도식의 X축은 이항형 변수에 따른 평균 토픽 비중 차이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그림 5>의 경우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각 토픽의 비중 추정치의 증감을 보여주는 것으로 다음 식을 통해 추정한다: $\Delta_{\text{토픽 } k} = E[\theta_{\text{토픽 } k} | \text{전쟁 후}] - E[\theta_{\text{토픽 } k} | \text{전쟁 전}]$. 두 번째 단계는 두 요인을 결합하여 그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그림 6>의 결과와 같다. <그림 6>의 Y축은 독립변수의 값 변화(X축)에 따른 토픽 비중 추정치를 의미한다.

<그림 4. 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가 팔레스타인 대의 토픽에 미친 영향>



<그림 5.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팔레스타인 대의 토픽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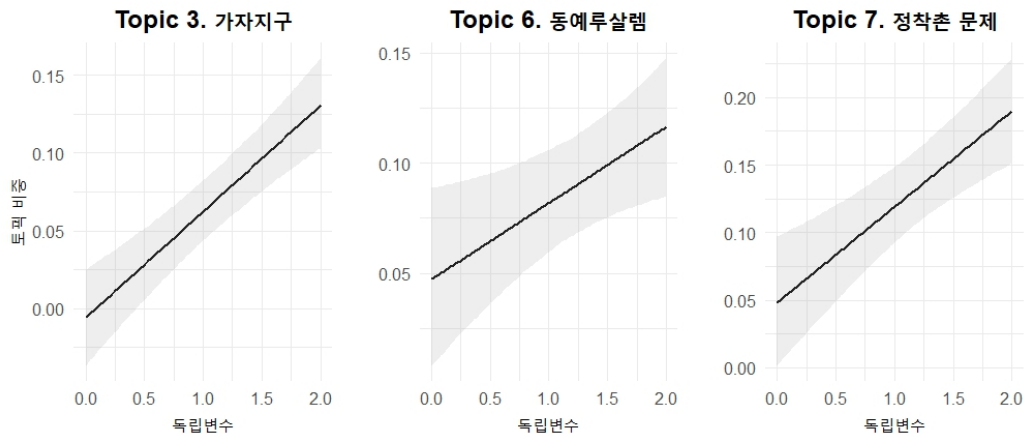
주: 가운데 점은 추정치이며, 좌우의 선은 95% 신뢰구간

먼저 첫 번째 단계의 분석 결과이다.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동예루살렘 토픽과 정착촌 문제 토픽이 다소 증가하기는 했으나, 세 토픽 모두 95% 신뢰구간이 0 값을 포함함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을 보여주는 <그림 5>에서는 세 가지 토픽의 추정치가 모두 양수 값을 보였으며, 가자지구 토픽과 정착촌 문제 토픽은 9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자지구 토픽 외에도 정착촌 문제 토픽까지 유의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점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에서 팔레스타인 대의가 일정 수준 회복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단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자. <그림 6>에서 동예루살렘 토픽을 제외한 다른 두 가지 토픽은 독립변수의 값이 변화함에 따라 뚜렷하게 토픽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5>는 독립변수의 값에 따른 토픽별 비중 변화의 구체적인 수치를 요약한 것이다. 가자지구 토픽의 경우 독립변수가 0에서 1 값으로 변화할 때(사우디-이란 관계 정상화) 추정치가 -0.006에서 0.063으로 증가했으며

(0.069 증가), 0 값에서의 97.5% 상한이 1 값에서의 2.5% 하한보다 값이 작음에 따라 95% 신뢰 수준 역시 명확히 구분되었다. 또, 독립변수가 1에서 2 값으로 변화할 때(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추정치는 0.131로 증가했고(0.068 증가), 95% 신뢰구간 역시 명확히 구분되었다.

<그림 6. 이란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영향>



주: 가운데 실선은 추정치이며, 회색 영역은 95% 신뢰구간. 독립변수는 순서형이나 두 사건의 흐름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연속형으로 도식.

<표 5. 순서형 변수에 따른 단계별 추정치>

	독립변수	2.5%	추정치	Δ	97.5%
토픽 3 가자지구	0	-0.037	-0.006	-	0.025
	1	0.044	0.063	0.069	0.083
	2	0.103	0.131	0.068	0.161
토픽 6 동예루살렘	0	0.008	0.047	-	0.089
	1	0.060	0.082	0.035	0.106
	2	0.085	0.117	0.035	0.147
토픽 7 정착촌 문제	0	0.002	0.048	-	0.097
	1	0.093	0.120	0.072	0.149
	2	0.151	0.190	0.070	0.229

주: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정착촌 문제 토픽 역시 독립변수가 0에서 1 값으로 변화할 때 추정치가 0.048에서 0.120으로 증가했으며(0.072 증가), 1에서 2 값으로 변할 때 0.190으로 증가했다(0.070 증가). 두 사건에 따른 정착촌 문제 토픽의 비중 증가 실질 효과(substantive effect)는 가자지구 토픽에서의 효과보다 크다. 95% 수준의 통계적 유의성과 관련해서는 0에서 1 값으로 변할 때 약간의 구간이 겹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1에서 2 값으로 변화할 때는 구간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따라서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 및 전쟁의 결합 요인은 가자지구 토픽뿐만 아니라 정착촌 토픽의 증가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두 가지 요인을 각각 분석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두 가지 요인을 결합한 두 번째 단계의 분석에서는 두 요인 모두 팔레스타인 대의 변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분석의 결과는 연구의 예측을 지지하며, 2023년의 두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에서 팔레스타인 대의가 일정 수준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의 결과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 있다. 그 첫 번째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토픽 중 왜 동예루살렘 토픽은 정착촌 문제 토픽만큼 유효하게 증가하지 않았는지에 있다. 이는 동예루살렘 이슈의 민감성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다. 이슬람의 3대 성지는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이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중 메카와 메디나를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공식적으로 “두 성스러운 모스크의 수호자(Custodian of the Two Holy Mosques)”라는 칭호를 사용한다. 세 번째 성지인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요르단이 수호자로서 책임과 권한을 주장해 왔으며, 이스라엘 역시 1994년 협정에서 요르단의 역할에 관해 인정한 바 있다(Baker, 2022. 5. 9).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세 번째 성지의 수호자로서 요르단의 역할을 공개적으로 반대하지도 않지만 지지하지도 않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Sharnoff, 2021. 1. 26). 또 다른 측면에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결코 양보하지 않으려는 민감한 사안이면서 동시에 미국이 이스라엘의 수도임을 인정함으로써 명확히 입장을 밝힌 이슈이다(Satlogg, 2017. 12. 14). 이러한 점에서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대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더라도 민감한 이슈인 동예루살렘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논의할 사항은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란에 대한 위협인식이 얼마나 변화했느냐이다. 두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에 대해 사우디아라비아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명을 통해 이란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하였다. 이란에 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우호적인 태도는 관계 정상화와 더불어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인한 이란의 위축과도 관련이 있다. 2023년 시작된 전쟁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하마스나 헤즈볼라 등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이 상당한 타격을 받았으며, 이란과 긴밀한 관계에 있던 시리아의 아사드(Bashar al-Assad) 정권 역시 내전에서 패배하였다(Burke, 2025. 6. 15). 나아가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대한 위협으로 여기던 이란의 핵 프로그램 역시 후퇴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이후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전히 이란을 위협으로 여겨왔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안보 협력을 통해 이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다(Stemmann & Arana, 2024, 2). 특히, 핵 개발 단계에서의 예방 공격은 장기적으로 핵무장 의지를 강화할 수 있음에 따라 향후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다시 가속화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란에 대한 위협 인식은 다시 강해질 수 있다(Braut-Hegghammer, 2011; Reiter, 2005).

V. 결론

이 연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외교정책에서 팔레스타인 대의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실증적인 근거로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그리고 인과적 추론을 통해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결합된 영향이 나타날 것을 예측하였으며, 이 예측을 검증하기 위해 STM을 활용한 사우디아라비아 외교부 성명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내용이 외교부 성명에서 뚜렷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이란과의 관계 정상화와 전쟁의 영향을 일련의 단계로 놓고 그 영향을 분석했을 때 두 사건에 따른 점진적인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왜 팔레스타인 대의 관련 이슈 중 가자지구 및 정착촌 관련 사안은 두 사건 이후 분명하게 증가한 반면, 동예루살렘 이슈는 유의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는지 설명했다.

연구의 결과는 팔레스타인 대의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정책 관련 기존 문헌의 논의에 다음과 같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여러 문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이스라엘 외교정책 변화를 설명하고, 관계 정상화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다(김강석, 2019; 서정민, 2020; 엄익란, 2025; 최준영·김은비, 2023; Abadi, 2019; Beck, 2020; Furlan, 2019; Niu & Wu, 2021). 많은 연구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약화를 주장하였지만, 이 연구는 2023년 두 가지 사건에 따른 팔레스타인 대의의 회복에 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세부적으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팔레스타인 대의 회복에 미친 영향을 논하는 문헌의 차원에서도 함의가 있다. 전쟁이 팔레스타인 대의 회복과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전망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안소연, 2024; Ahn, 2025; Katz, 2025). 이 연구의 결과는 잠정적일 수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가 일정 수준 회복되었음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2025년 7월을 기준으로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스라엘의 군사적 작전은 시리아로 확대될 위험에 놓여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론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으며, 향후 중동의 정세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적인 분석이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분석 대상의 시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것 역시 향후 연구의 중요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교부 성명만을 다루었지만, 향후 연구에서는 그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를 GCC 전체 등으로 넓힐 경우 더욱 다양한 함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팔레스타인 대의는 중동 분쟁의 오랜 이슈이며,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의 팔레스타인 대의 회복에 관한 이 연구가 관련 이슈에 관한 이해를 돕고, 복잡한 중동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 강원구(2022). “팔레스타인 대의 약화와 아랍에미리트-이스라엘 관계 변화 연구,” 『중동문제연구』, 21(2): 75-106.
- 김강석(2019).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정권안보 추구하고 정책 변화,” 『아시아리뷰』, 9(1): 129-148.
- _____(2021). “아브라함 협정의 배경 고찰: 아랍에미리트와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중동연구』, 39(1): 1-26.
- 김상범(2023). “베트남전쟁기 북한의 성명외교 연구(1964-1972),” 『군사』, 127: 179-229.
- 김성관·황원준(2024). “대한민국 핵무장 담론의 구성과 변화요인 분석: 구조토픽모델을 중심으로,” 『전략연구』, 31(1): 221-244.
- 백승훈(2025).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구상에 관한 소고: 아브라함 협정과 오슬로 협정간의 충돌과 한계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6(1): 83-115.
- 서정민(2018). “정권생존, 이란의 귀환 그리고 중동의 새로운 정치역학,” 『한국중동학회논총』, 38(3): 73-94.
- _____(2020). “걸프의 정권 안보와 이스라엘-UAE·바레인 관계 정상화,”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0(3): 101-128.
- _____(2025). “수니-시아파 갈등 담론 속 정당화의 성능 측정: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사례 중단 시계열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46(1): 117-141.
- 성기은·신성균(2023). “한국과 미국의 동맹관념 변화에 관한 연구: 구조토픽모델(STM)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3(3): 55-93.
- 안소연(20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나타난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로파간다 경쟁: 알 자지라와 알아라비야 보도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중동연구』, 43(1): 65-98.
- 엄익란(2024). “‘적’에서 ‘파트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對)유대인 및 대(對)이스라엘 담론전환과 관계 정상화 가능성 연구,” 『중동연구』, 43(3): 107-138.
- 이수진(2020). “정치 체제와 정권생존: 아랍의 봄 기간 중 걸프 왕정의 사례를 중심으로 (2011-2014),” 『한국이슬람학회논총』, 30(2): 31-52.
- 이후량·여유경(2024). “중국의 강대국 지위 추구 속 북핵 인식 변화: 학계의 북핵 담론에 대한 구조토픽모델 분석,” 『국제정치논총』, 64(3): 161-212.
- 이현지·이화준(2021). “UN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의 위기관리전략 연구,” 『아세아연구』, 64(3): 31-68.
- 최준영·김은비(2023). “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 간 관계개선 요인 연구,” 『지중해지역연구』, 25(1): 17-41.
- 홍미정(2022). “이스라엘/아랍국가들 평화협정: 팔레스타인인들의 주권 박탈,” 『중동연구』, 40(3):

109-140.

황의현(2024). “초국적 아랍 정체성과 국가 이익 사이의 긴장: 아랍 국가의 팔레스타인 난민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5(2): 103-132.

Abadi, Jacob(2019). “Saudi Arabia’s rapprochement with Israel: the national security imperatives,” *Middle Eastern Studies*, 55(3): 433-449.

Ahn, So-Yeon(2025). “The Shifting Dynamics of Amity and Enmity in the Middle East: Analyzing the 2023 Israel-Hamas War through the Framework of Regional Security Complex Theory,” *As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20.

Alcott, Blake(2019. 5. 21). “What is ‘the Palestine Cause’?” *Palestine Chronicle*, <https://www.palestinechronicle.com/what-is-the-palestinian-cause/>(검색일자: 2025. 8. 5).

Al Jazeera(2025. 1. 19). “Timeline: The path to the Israel-Hamas ceasefire deal in Gaza,” *Al Jazeera*, <https://www.aljazeera.com/features/2025/1/19/timeline-the-path-to-the-israel-hamas-ceasefire-deal-in-gaza>(검색일자: 2025. 7. 24).

AP(2025. 6. 15). “Timeline of tensions and hostilities between Israel and Iran,” *Associated Press*, <https://apnews.com/article/israel-iran-timeline-tensions-conflict-66764c2843d62757d83e4a486946bcb8>(검색일자: 2025. 7. 24).

Baker, Alan(2022. 5. 9). “Jordan and the Temple Mount,” *Jerusalem Center for Security and Foreign Affairs*, <https://jcpa.org/article/jordan-and-the-temple-mount/#:~:text=The%20Kerry%20Understandings%20acknowledged%20Jordan's,only%20to%20visit%20the%20site.>(검색일자: 2025. 8. 5).

Beck, Martin(2020), “The Aggravated Struggle for Regional Power in the Middle East: American Allies Saudi Arabia and Israel versus Iran,” *Global Policy*, 11(1): 84-92.

Blei, David M.(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_____, Andrew Y. Ng & Michael I. Jordan(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Bowen, Wyn Q. & Joanna Kidd(2004). “The Iranian Nuclear Challenge,” *International Affairs*, 80(2): 257-276.

Braut-Hegghammer, Målfrid(2011). “Revising Osirak: Preventive Attacks and Nuclear Proliferation Risks,” *International Security*, 36(1): 101-132.

Burke, Jason(2025. 6. 15). “How the dismantling of Iran’s regional proxies paved way for Israel’s attack,”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5/jun/15/israels-attack-on-iran-has-a-real-chance-of-bringi>

- ng-about-regime-change(검색일자: 2025. 8. 1).
- Chulov, Martin(2016. 1. 4). “Saudi Arabia cuts diplomatic ties with Iran after execution of cleric,”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an/03/saudi-arabia-cuts-diplomatic-ties-with-iran-after-nimr-execution>(검색일자: 2025. 7. 22).
- Dahman, Ibrahim, Tim Lister, Tamar Michaelis, Mohammed Tawfeeq & Dana Karni(2025. 3. 1),
 “Gaza ceasefire hits expiration date with Israel and Hamas split on way forward,” *CNN*,
<https://edition.cnn.com/2025/03/01/europe/gaza-ceasefire-ends-israel-hamas-intl>(검색일자: 2025. 7. 28).
- Debre, Maria J. (2020). “Legitimation, regime survival, and shifting alliances in the Arab League: Explaining sanction politics during the Arab Spring”
- Ebrahim, Nadeen(2023. 9. 21). “Saudi crown prince says normalization deal with Israel gets ‘closer’ every day,” *CNN*,
<https://edition.cnn.com/2023/09/21/middleeast/saudi-arabia-mbs-interview-fox-intl>(검색일자: 2025. 7. 20).
- Furlan, Marta(2019), “Israel-Saudi Relations in a Changed and Changing Middle East: Growing Cooperation?,” *Israel Journal of Foreign Affairs*, 13(2): 173-187.
- Guzansky, Yoel & Zachary A. Marshall(2020). “The Abraham Accords: Immediate Significance and Long-Term Implications,” *Israel Journal of Foreign Affairs*, 14(2): 379-389.
- Hwang, Won-June(2024). “Forging Reconciliation Despite Antagonism: Examining the Normalization of Ties Between Saudi Arabia and Iran in 2023,” *Journal of Asian Security and International Affairs*, 11(3): 376-399.
- Kateb, Alexander(2025. 4. 25). “The Abraham Accords After Gaza: A Change of Context,”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research/2025/04/the-abraham-accords-after-gaza-a-change-of-context?lang=en>(검색일자: 2025. 7. 22).
- Katz, Yaron (2025). “Analyzing Middle Eastern Geopolitics from the Arab Spring to the Israel-Hamas War,” *Athens Journal of Mediterranean Studies*, 11(1): 9-20.
- Khalidi, Rashid(1984). “The Asad Regime and the Palestine Resistance,” *Arab Studies Quarterly*, 6(4): 259-266.
- Knell, Yolande & David Gritten(2025. 5. 29). “Israel announces major expansion of settlements in occupied West Bank,” *BBC*, <https://www.bbc.com/news/articles/c1j5954edlno>(검색일자: 2025. 7. 31).
- KSA Foreign Ministry(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fficial

- English Account of X, <https://x.com/KSAmofaEN>(검색일자: 2025. 7. 22).
- Meital, Yoram(2000). “The Khartoum Conference and Egypt Policy after the 1967 War: A Reexamination,” *Middle East Journal*, 54(1): 64-82.
- Niu, Song & Tongyu Wu(2021). “Changes and Trends in the Current Relations Between Saudi Arabia and Israel,” *Asian Journal of Middle Eastern and Islamic Studies*, 15(2): 172-188.
- Podeh, Elie(2014). “Israel and the Arab Peace Initiative, 2002-2014: A Plausible Missed Opportunity,” *Middle East Journal*, 68(4): 584-603.
- Reiter, Dan(2005). “Preventive Attacks against Nuclear Programs and the ‘Success’ at Osiraq,” *Nonproliferation Review*, 12(2): 355-371.
- Roberts, Margaret E., Brandon M. Stewart & Dustin Tingley(2019). “stm: R Package for Structural Topic Models,” *Journal of Statistical Software*, 91(2): 1-40.
- _____, Brandon M. Stewart, Dustin Tingley & Edoardo M. Airolidi(2013). “The structural topic model and applied social science,”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workshop on topic models: computation, application, and evaluation*, 4(1): 1-20.
- Salem, Mostafa(2025. 6. 28). “How Qatar defused Iran’s attack on the targets US-run base in the region,” *CNN*, <https://edition.cnn.com/2025/06/28/middleeast/qatar-iran-attack-israel-latam-intl>(검색일자: 2025. 7. 24).
- Satloff, Robert(2017. 12. 14). “Mohammed bin Salman Doesn't Want to Talk About Jerusalem,” *Washington Institute for Near East Policy*, <https://www.washingtoninstitute.org/policy-analysis/mohammed-bin-salman-doesnt-want-talk-about-jerusalem#:~:text=On%20the%20former%2C%20he%20repeatedly,himself%20to%20bringing%20that%20about>(검색일자: 2025. 8. 1).
- Sechdev, Mahesh(2025. 5. 28). “Ananta Insights, Arab League,” *Ananta Centre*, <https://anantacentre.in/ananta-insights-arab-league-80-an-assessment-by-ambassador-mahesh-sachdev-may-2025/#:~:text=The%20context%20around%20the%20foundation,leader%20Gamal%20Abdul%20Nasser%20and>(검색일자: 2025. 7. 21).
- Sharnoff, Michael(2021. 1. 26). “Don’t Pursue Saudi-Israeli Peace at Jordan’s Expense,” *Foreign Policy*, <https://foreignpolicy.com/2021/01/26/dont-pursue-saudi-israeli-peace-at-jordans-expense/>(검색일자: 2025. 8. 1).
- Staff, Toi(2019. 2. 13). “Netanyahu rejected secret Saudi peace plan after 2014 Gaza War – report,” *The Times of Israel*, <https://www.timesofisrael.com/netanyahu-rejected-secret-saudi-peace-plan-after-2014-gaza-war-report/>(검색일자: 2025. 7. 22).

- Stemmann, Juan & Gonzalo Arana(2024). *Saudi Arabia and Iran in the Shadows of a Regional War*, Cambridge, MA: 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
- UNRWA(n.d.). “Donor Charts,” *U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e Refugees in the Near East*,
<https://www.unrwa.org/how-you-can-help/government-partners/funding-trends/donor-charts>(검색
일: 2025. 7. 22).
- Valbjørn, Morten, André Bank & May Darwich(2024). “Forward to the Past? Regional Repurcussions of the Gaza War,” *Middle East Policy*, 31(3): 3-17.
- Yitzhak, Ronen(2024). “The formation of the Arab Liberation Army (ALA) for the 1948 Palestine war,” *Israel Affairs*, 30(6): 1323-1336.

PKK의 해산과 튀르키예의 안보화 전략

이동윤 (한국외국어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대학)

PKK's dissolution and Turkey's Securitization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the decline of the Kurdistan Workers' Party (PKK)'s armed struggle, culminating in its dissolution in May 2025. Drawing on securitization theory, it argues that the PKK's weakening resulted from a deliberate securitization strategy by the Erdoğan government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2015 peace process. This strategy was a calculated political maneuver to consolidate a nationalist constituency after the June 2015 election.

It identifies Turkey's large-scale, cross-border military operations as the primary driver of PKK's decline, with the 'Claw' series of operations in northern Iraq proving particularly decisive in dismantling the PKK's command structure and eroding its operational strongholds. Crucially, these sustained military campaigns were enabled by securing the consent of the domestic audience. The study contends that the Erdoğan government systematically cultivated this consent by persistently framing the Kurdish issue solely through the lens of "terrorism." This strategy involved dismantling legitimate political spaces by targeting the HDP, weaponizing the judiciary, and using controlled media to amplify a nationalist narrative.

The study concludes that military success was a direct consequence of this political securitization. However, while effective in neutralizing the PKK, the strategy entailed severe democratic backsliding and widespread human rights violations. The study argues that achieving sustainable peace will require the fundamental 'de-securitization' of the issue.

[Key Words : PKK, Recep Tayyip Erdoğan, Securitization, The Kurdish Issue, Türkiye]

I. 서론

2025년 5월 12일 쿠르디스탄 노동자당(Kürdistan İşçi Partisi, 이하 PKK)이 자진 해산을 결정했다. PKK는 해산 성명에서 튀르키예 정부와의 무장투쟁 종식을 선언하며, 47년 만에 해체 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튀르키예의 집권 여당 정의개발당(Adalet ve Kalkınma Partisi, 이하 AKP)는 “‘테러 없는 튀르키예’라는 목표 달성에 의미 있는 조치”라고 말하며 환영했다. 이번 해산은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무장해제로 이어졌다. 2025년 7월 11일 PKK는 이라크 북부에서 무장해제 행사를 열고 무기 소각식을 벌였다. 이 같은 PKK의 행보는 안보 우려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무장해제로 나아가는 첫 번째 구체적 조치였다(유, 2025).

쿠르드 문제는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이래로 지속된 국내적 갈등이자, 정체성과 국가 안보가 교차하는 복합적인 정치 현상이다. 쿠르드족은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비국가 민족으로, 튀르키예를 포함한 중동 각국에 분산되어 거주하고 있다.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은 전체 인구의 약 15~20%를 차지할 만큼 비중 있는 집단임에도¹⁾, 튀르키예 정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동화 및 억제의 대상이 되어 왔다.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Mustafa Kemal Atatürk)의 지도로 건국 초기부터 추진된 ‘튀르키예인 중심의 동질적 국민 정체성 구축’은 쿠르드족과의 갈등을 내재했다. 건국 세력인 튀르키예 민족주의 엘리트들은 튀르키예어와 튀르키예 문화에 기반한 국민 정체성을 구축하고, 튀르키예 민족 외 다른 소수민족에 대한 강력한 동화정책을 실시했다. 쿠르드족은 국가 체제 내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되었으며, 언어·문화·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의 정체성 요구에 대해 비상조치법, 강제 인구 이동, 언론 검열, 정치적 금지 조치 등 다양한 강경책을 동원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무장 정파인 PKK의 무력 투쟁이 본격화하면서, 쿠르드 문제는 본격적인 국가 안보 의제로 부상하였다.

튀르키예의 대(對) 쿠르드 정책은 쿠르드족에 대한 인식에 따라 변화했다. 이는 튀르키예 정부의 안보 인식이 실제 위협에 근거한 것이 아닌, 정치적 이익과 국가 정체성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담론적 도구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특히 튀르키예 내부에서 1925년 셰이크 사이드 반란 이후부터 1970년대 PKK의 등장 전까지의 시기에는 쿠르드족의 뚜렷한 무장 투쟁이나 분리 독립 시도가 나타나지 않는 비교적 모호한 시기가 지속되었다(Yayman, 2011). 그런데도 튀르키예 정부는 일관되게 쿠르드족을 국가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자 ‘잠재적 반역자’로 간주했다. 이후 정의개발당의 집권으로 튀르키예의 대 쿠르드 정책은 전환점을 맞이한다. 2002년 집권 이후 정의개발당은 쿠르드족에 대한 유화적 정책을 펼치며, 이전 정부의 민족주의적 안보 관점 접근에서 일부분 선회했다. 튀르키예인의 두 번째 정체성 형성을 허용한다는 발표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AKP는 쿠르드족을 국가 통합을 위협하는 안보적 대상이 아닌, 종교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규정

1)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튀르키예 거주 쿠르드족은 약 1천400만 명, 이는 튀르키예 전체 인구의 약 18%에 해당한다(출처: 박영서(2023.1.31), “[뉴스 따라잡기]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갈등”, Voice Of America, <https://www.voakorea.com/a/6939854.html>, 검색일: 2025.5.13).

하며 튀르키예인과 쿠르드족 간 화합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쳤다(김, 2018).

그러나 2015년을 기점으로 튀르키예 정부의 쿠르드족 문제 평화 프로세스가 붕괴하며 AKP 정권 역시 이전 정부의 대립과 탄압 노선으로 선회했다. 2016년 1월 28일 연설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Recep Tayyip Erdoğan) 튀르키예 대통령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깃발, 하나의 조국, 하나의 국가"원칙을 재차 강조했으며, "자치라는 이름 아래 국가 안에 국가를 만들려는 자들의 세상을 그들의 머리 위로 무너뜨릴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언급하며 쿠르드 분리독립 세력에게 강력히 경고했다(Sputnik Türkiye, 2016). 이로써 튀르키예 정부와 쿠르드족은 이전으로 돌아가 대립을 이어가게 되었다(Anthony, 2019). 그러나 2025년 5월 쿠르드족 무장단체 PKK가 해산되며 튀르키예와 쿠르드족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본 연구는 PKK를 위시한 쿠르드 무장 투쟁 세력의 쇠퇴를 만들어낸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튀르키예 정부와 쿠르드족 간 갈등 관계는 계속되었으나, 오늘날처럼 PKK의 무장 역량이 약화해 무장 해제에 이르게 된 상황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오늘날의 상황이 2015년 에르도안 정부의 쿠르드 이슈 재안보화 정책에 기인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진행된다. 첫째, 2015년 이후 에르도안 정부는 어떠한 담론과 전략으로 쿠르드 문제를 재안보화했는가? 둘째, 재안보화 이후 에르도안 정부의 안보화 전략의 특징은 어떠했으며, 이것이 쿠르드 문제를 향한 군사적 접근의 정당화로 이어진 과정은 어떠했는가? 셋째, 이 과정에서 시행된 정책과 PKK의 무장 해제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본 연구는 2015년 이후 에르도안 정부의 쿠르드 문제 대응이 단순한 안보 정책을 넘어 갖는 정치적 함의를 규명한다. 2015년 이후 튀르키예 정부의 쿠르드 문제 대응이 단순한 테러 위협에 대한 반응을 넘어, 정권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내외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의도적인 안보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화(Securitization) 이론을 토대로 시기별 정부 대응과 2025년 PKK 무장 해제가 자발적 선택이었는지, 혹은 정부의 안보화 정책에 따른 결과였는지를 검토한다. 또한 선행연구를 통해 튀르키예 정부의 쿠르드족 대상 안보화 전략과 그 변화를 파악하고, 에르도안 정부가 추진했던 평화 프로세스가 2015년을 기점으로 왜, 그리고 어떻게 재안보화로 전환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끝으로 언론 자료를 통해 재안보화 과정을 조명하고,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튀르키예 국민(청중)의 수용 여부를 살피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 연구 검토

전통적 안보 개념은 국가를 유일한 안보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국가의 생존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냉전의 종식은 국가 간 군사적 대립을 넘어 정체성,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영역이 세계 정치의 전면에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는 전통적 안

보 딜레마를 넘어, 대외적 위협 대신 국내 사회적 위협 요인이 중요하게 주목받았다(민, 2006). 이러한 변화 속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의 정의는 군사적 위협을 넘어 “국가 및 사회가 그들에게 적대적일 수 있는 변화의 힘에 대응하여 자신의 독립적 정체성과 기능적 보존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장했으며(Buzan, 1991), 생존뿐 아니라 국가-사회-개인의 일상에 존재하는 불확실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재인식되었다.

코펜하겐 학파는 안보의 대상을 국가 너머로 확장하며 사회 안보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는데, 이는 언어, 문화, 종교, 민족 정체성과 같은 집단 정체성의 보존과 관련된 것이다(김, 2018). 사회적 안보는 문화, 언어, 정체성의 전통적인 패턴의 재생산과 지속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Buzan, 1991). 국가와 사회의 안보는 별개이며, 국가의 생존과 사회의 생존은 구별된다. 국가가 자신의 주권을 지키는 동안 사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려 한다(Buzan & Waever, 1997). 지배적인 민족이나 다수에게 통제되는 특정 국가 내에서, 소수 집단은 자신들의 지위와 안보를 유지하거나 향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Roe, 2004).

안보 영역과 안보 행위자가 다양화되면서, 국가 혹은 어떤 집단의 구성원 모두가 동의하는 객관적 안보 위협이나 안보 문제는 존재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무엇이 안보 문제인가?’라는 질문보다 ‘무엇을 안보 문제라고 간주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더욱 중요해지기 시작했다(김, 2011). 코펜하겐 학파 역시 이 질문에 집중하며, 1990년대 구성주의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안보가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안보화 이론’을 제시했다. 구성주의는 세계가 상호주관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며, 규범과 정체성이 세계 정치의 역동성을 형성하는 핵심 요소라고 주장한다(McDonald, 2008). 이러한 관점에서 안보화 이론은 안보를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위협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발화 행위를 통해 특정 이슈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구성되는 과정으로 파악한다. 즉, 안보는 “특정한 수사적 구조와 정치적 효과를 갖는 담론적 양식이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라기보다 간주관적 담론”이며(김, 2015),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객관적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를 논하는 사람들이 위협으로 인식하고 그 위기적 속성을 문제화하는 사회적 행위”로 이해된다(민, 2006).

코펜하겐 학파는 특정 이슈가 다뤄지는 방식을 비정치화, 정치화, 안보화의 세 단계 스펙트럼으로 구분한다. 비정치화는 이슈가 공적 논의의 대상이 아닌 상태이며(정, 2018), 정치화는 이슈가 기존 정치 제도 내에서 다뤄지는 상태이다(Bourbeau, 2011). 안보화는 정치화된 이슈가 특정 참조 대상의 생존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정치 규범을 넘어서는 예외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로, “기존의 정치를 넘어서는 해결책을 요구하는 정치화의 극단적 형태”이다(Buzan et al, 1998). 이 과정에는 안보화 주체, 참조 대상, 실존적 위협, 그리고 청중이라는 주요 요소가 포함된다(김 & 문, 2016). 안보화는 1단계에서 안보화 주체가 수사적 구조를 통해 특정 사안을 위협으로 제시하고, 2단계에서 청중이 이를 수용하여 비상조치를 용인할 때 성공한다(Williams, 2003). 성공적인 안보화는 안보화 주체에게 기존의 법과 규범을 초월하는 비상조치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며, 사회의 군사화 및 군사적 수단의 정당화를 촉진할 수 있다(Booth,

2005). 결국 안보화는 객관적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 체제 안보를 강화하고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이, 2024).

물론 코펜하겐 학파의 안보 이론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먼저 전략 환경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한다는 비판이다(Emmers, 2010). 발화행위가 안보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은, 외부에 존재하는 전략 환경을 간과할 수 있다. 그러나 튀르키예 내 쿠르드 이슈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안보 대립이 아닌 국가 대 사회 간의 갈등이며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갈등 양상이다. 전통적인 안보 문제 접근보다 국가 내부에서 벌어지는 안보 문제화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전통적 안보의 틀보다, 발화 행위를 통해 이뤄지는 안보에 대한 담론적 구성과 담론에 근거한 국가 내부의 행위 실천의 과정을 살펴보는 안보화 이론의 틀이 사안을 바라보는 데 더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안보화 과정의 지나친 축소와 유럽 중심적인 접근이다. 안보화 이론은 발화행위 외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의사소통 과정과 제도화 과정을 누락할 수 있으며(Williams, 2003), 안보화에서 과정보다는 결과에 집중하며 사건을 언어-행위 순의 연대기적으로 바라본다. 그 때문에 안보화의 수행이 발화행위를 건너뛰고 바로 행동으로 표출되는 사례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발달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행동 이전에 발화와 언어 표현의 사용을 보장받는 서구 유럽에 편향된 시각이다. 최악의 경우 안보화 과정은 안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선행적 분석 가정에 맞게 재해석되거나 편집되는 경우가 발생한다(Wilkinson,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하는 튀르키예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²⁾ 연구 분석 기간인 2015년에서 2025년까지의 기간은 쿠르드족의 정계 및 사회 진출이 이미 이루어진 시기다. 쿠르드족 역시 발화 행위를 할 공간과 기회를 확보받았기 때문에 이론을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간과 사례라고 할 수 있다³⁾.

튀르키예 내 쿠르드 이슈는 다수의 연구에서 분석된 바 있다. Derisiotis는 튀르키예 내 쿠르드 이슈를 역사 순으로 정리했다. 그는 건국 초기부터 튀르키예 정부가 강제적 민족 동질화 정책을 통해 쿠르드족을 탄압했으며, 이후 에르도안의 쿠르드 문제 해결과 실패, 그리고 재안보화의 과정을 분석한다(Derisiotis, 2019). 국내에서는 김성운이 튀르키예와 쿠르드족의 갈등을 역사적으로 정리했으며, 튀르키예 정부의 탄압과 쿠르드족의 대항 투쟁의 역사를 다루었다(김, 2018). Birdişli는 쿠르드 문제를 안보화 이론의 틀로 분석했다. 쿠르드 이슈에서 튀르키예 정부는 안보화 주체로서, 국가 통합을 참조 대상으로 규정하고, 이를 위협하여 국가 분열을 조장하는 쿠르드족을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여 쿠르드 이슈를 정치적 영역이 아닌 안보의 영역에서 다루었음을 지적한다(Birdişli, 2014). Geri는 쿠르드 문제가 소수자에게 적용된 안보화 이론의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하

2)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튀르키예의 민주주의 지수는 4.26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혼합된 체제로 분류된다. (출처: EIU(n.d.), "Democracy Index 2024",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4/>, 검색일: 2025.5.13)

3) 튀르키예 내 대표적인 쿠르드계 정당인 HDP는 2012년 10월에 창당되었으며, 2015년 6월 총선거에서는 약 13.1%의 득표율로 80석을 확보하며 제3당으로 부상했다(출처: Gülsen Solaker(2023.1.11), "Geçmişten günümüze HDP", Deutsche Welle, <https://www.dw.com/tr/ge%C3%A7mi%C5%9Ften-g%C3%BCn%C3%BCm%C3%BCze-hdp/a-64349949>, 검색일: 2025.5.13).

며,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 문제를 안보-군사화된 문제로 축소해 군사적 탄압을 정당화하고, 쿠르드족이 정치적 포용을 위해 무장 투쟁을 포기할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말한다(Geri, 2016). Geri는 다른 연구에서 쿠르드 이슈를 민주적 과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 에르도안 정부가 2015년 이후 쿠르드 문제를 재안보화한 원인을 다룬다. 그는 에르도안 정부가 낮은 존재론적 안보, 엘리트의 권력 투쟁, 정치 이데올로기적 위협으로 인해 쿠르드 문제를 재안보화했다고 분석한다(Geri, 2017). Has는 쿠르드족을 쿠르드 사회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안보화 행위자로서 바라봤다. 그는 튀르키예 내 쿠르드 문제가 튀르키예 정부의 국가적 안보화와 쿠르드족의 사회적 안보 사이의 갈등으로 바라보며, 이 갈등은 튀르키예 국가와 쿠르드 운동 사이의 비공식적 전쟁을 통해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쿠르드족을 안보화 행위자로 위치시켜, 쿠르드 문제에서 튀르키예 정부와 국가 중심적 안보화와 쿠르드족의 사회적 안보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작용한다(Has, 2025).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튀르키예 내 쿠르드 이슈를 주요 사건 위주로 정리하여 안보화 이론의 선형적 구성에 의존하고, 청중의 승인이 실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또한 안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자체에만 집중할 뿐 최종적으로 안보화가 어떤 구체적 결과로 나타났는지 분석하지 않았으며, 특히 안보화가 쿠르드 무장 투쟁의 쇠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 이후 PKK의 무장투쟁 역량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살펴본다. 2025년 PKK의 무장 해제는 충분한 무장 투쟁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쿠르드족이 평화적 협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선택한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조직의 쇠락으로 인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해체였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튀르키예 정부가 시행한 쿠르드족의 안보화가 실제로 국내 여론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보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성공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안보화의 실행이 곧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선형적 가정에서 탈피하고자 한다.

III 튀르키예와 쿠르드족 문제

1. 쿠르드 문제의 기원과 에르도안 정부 이전까지의 안보화 과정

갈등의 기원은 튀르키예 독립 전쟁(1920-1923) 이후 형성되었다. 튀르키예 독립운동을 이끈 무스타파 케말은 쿠르드족의 지원을 얻기 위해 쿠르드족 독립 국가 설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1923년 독립 전쟁에서 승리하고 튀르키예 공화국이 건국되자 케말 정부의 태도는 바뀌었다. 신생 튀르키예 공화국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tek millet, tek bayrak, tek vatan, tek devlet)’를 내세우는 단일 민족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쿠르드족의 존재를 부정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체결된 세브르 조약에서 명시되었던 쿠르드족의 자치 및 조건부 독립 조항은, 튀르키예의 승리 후 체결된 로잔 조약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 튀르키예 공화국의 배신과 강압적

인 동화 정책에 반발한 쿠르드 지도자들은 독자적인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저항하기 시작했으며, 이로써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튀르키예-쿠르드 갈등의 현대적 기원이 확립되었다.

케말주의 엘리트들은 오스만 제국의 다문화적 유산을 서구화의 장애물로 간주하고, 동질적이고 세속적인 단일 민족국가 건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Zeydanlioğlu, 2009).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인’의 정체성은 ‘튀르키예어를 사용하는 무슬림’으로 규정되었고, 쿠르드어 사용 금지, 오스만어 폐기 등 강력한 언어·문화 동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민족적 동질화 프로젝트 속에서 쿠르드족은 강압적인 동화의 대상이 되었다(김, 2018).

쿠르드족은 이에 대항하여 여러 차례 봉기를 일으켰으나, 본격적인 투쟁은 PKK에 의해 시작됐다. 1978년 설립된 PKK는 1984년부터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시작하며 PKK는 튀르키예의 국가적 안보화에 도전했다. 그들은 튀르키예 국가를 쿠르드족의 사회 안보를 위협하는 식민주의자로 규정했으며, 쿠르드 정체성, 언어, 문화, 공간을 안보화함으로써 폭력 사용을 정당화했다. 이러한 사회적 안보화를 바탕으로 PKK는 튀르키예의 남동부 지역에서 지배력을 확립했고, 정부에 대항하는 안보화 행위자로 발전했다(Clark, 2016; Gunes, 2012). 쿠르드족의 저항이 본격화하자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족과 PKK를 테러단체로 규정했다. 국영방송 TRT와 같은 언론 매체는 정부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하며 여론을 형성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었다(Elmas & Kurban, 2011). 쿠르드족은 ‘산속의 테러리스트 쿠르드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쿠르드 독립운동 단체는 테러 조직으로 낙인찍혔다(Yuksel, 2018). 정부는 PKK를 진압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 작전, 인구 구조 변경을 위한 강제 이주 및 재정착, 국가주의 교육을 통한 동화 정책 등 전방위적인 비상조치를 단행했다(Yayman, 2011). 국가는 “튀르키예에는 쿠르드 문제가 없고, 오직 테러 문제만 있을 뿐이다”와 같이 쿠르드 문제를 테러 문제로만 재구성했다(Gunter, 2000).

2002년 에르도안 집권 이전까지 튀르키예의 쿠르드 문제는 참조 대상, 즉 국가 통합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 엘리트라는 안보화 주체가 쿠르드 정체성 자체를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군사력 동원, 정치 활동 제한, 강제 동화라는 비상조치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온 전형적인 안보화의 역사였다(Birdişli, 2014).

2. 에르도안 정부 시기의 쿠르드 문제: 평화 프로세스 붕괴 이전 (2002-2015)

2002년 집권한 AKP는 이전의 세속주의 강경파와 달리, 초기부터 쿠르드 문제에 대해 온건하고 민주적인 해결 방식을 모색하는 태도를 보였다. 에르도안 정부 ‘쿠르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 쿠르드족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2002년 튀르키예 정부는 개혁안을 통해 제한적인 쿠르드어 방송 및 교육을 허용하고 ‘산악 튀르키예인’이라는 담론을 폐기하며 쿠르드족의 민족적 실체를 사실상 인정했다(Derisiotis, 2019). 특히 2005년 에르도안 총리는 디야르바크르 연설에서 국가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과거 정부의 과오를 인정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야말로 쿠르드족의 불만을 해소할 유일한 길”이라며 군사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천명했다. 이는 ‘종교적 유대와

형제애’를 기반으로 한 부드러운 접근 방식으로, 강압적인 케말주의적 안보 관점에서 벗어나 문화적 차이 인정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는 시도였다(Derisiotis, 2019).

이와 같은 유화적 제스처는 초기에 상당한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에르도안은 2007년 총선과 헌법 국민투표에서 쿠르드 유권자들의 상당한 지지를 확보했다. 그러나 담론적 변화가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매우 더뎠다. 2002년에 통과된 쿠르드어 관련 권리 보장 법안의 이행은 지지부진했으며, 쿠르드어 방송에 대한 제약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2009년에 이르러서였다. 그 때문에 쿠르드 사회 내 AKP에 대한 신뢰는 점차 약화했고, 2009년 지방선거와 2010년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쿠르드 유권자들은 AKP에 등을 돌렸다(Derisiotis, 2019).

본격적인 평화 협상 시도는 2012년 말,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북부 국경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평화 프로세스(Resolution Process)’였다. 정부는 수감 중인 PKK 지도자 압둘라 외잘란 및 친쿠르드계 정당과 공식적인 평화 협상을 개시했다(Özdemir & Sarigil, 2017). 2015년 2월 28일 정부 대표와 HDP 의원들은 이스탄불 돌마바흐체 궁전에서 오잘란 PKK 수감지도자의 메시지를 공동 발표하며 10개 항의 평화 원칙에 합의했다. 이 돌마바흐체 합의는 평화 프로세스의 역사적 진전으로 평가받았다(Hurriyetdailynews, 2015). 그러나 이 같은 평화 기류는 여러 가지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 지정학적 사건들로 인해 결렬되었다(Yegen 2023). 첫 번째 사건은 시리아 쿠르디스탄에서 "로자바 혁명"(Knapp et al, 2016)이 일어나며 쿠르드족과 쿠르드 운동이 정치적, 영토적으로 약진한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은 튀르키예 남동부 주와 로자바에서 쿠르드 운동에 의해 실행된 외잘란의 "민주적 자치 및 민주적 연방주의" 모델의 진전이었다(Akkaya & Jongerden, 2012; Akkaya & Jongerden, 2014). 세 번째 사건은 2015년 6월 총선에서 HDP가 선전하며 AKP의 과반이 붕괴한 것이다(Gunes, 2017; Yilmaz et al, 2022).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쿠르드 운동의 성공과 영향력 확대를 의미했으며, 이는 튀르키예 정부의 국가적 안보를 다시금 자극했다. 특히 2015년 6월 총선에서 AKP의 과반 의석 확보 실패와 HDP의 약진은 쿠르드 문제에 있어 큰 분기점이 되었다. 이는 AKP 정권이 단독 정부를 구성할 의회 과반수를 잃으면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했다. 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에르도안 정권은 권위주의적 재안보화 전략을 꺼내 들었다(Has, 2025).

그는 “튀르키예에 더 이상 쿠르드 문제는 없다”라고 선언하며 기존 쿠르드 문제를 향한 접근법을 바꿨다(Yeniçağ, 2015). 이는 쿠르드 유권자들의 지지를 잃은 상황에서, 민족주의 성향의 유권자들을 결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정권은 친쿠르드 정당 HDP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다(Jongerden, 2018; Yilmaz et al, 2022). AKP 정권은 안보 담론의 부활과 함께 재안보화를 통해 헤게모니를 회복했다. 그 이후로, AKP 정권은 테러와의 전쟁을 명분으로 국내외 군사 작전을 개시해 왔으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쿠르드 정치인들, 예를 들어 국회의원과 시장들을 제거하고 투옥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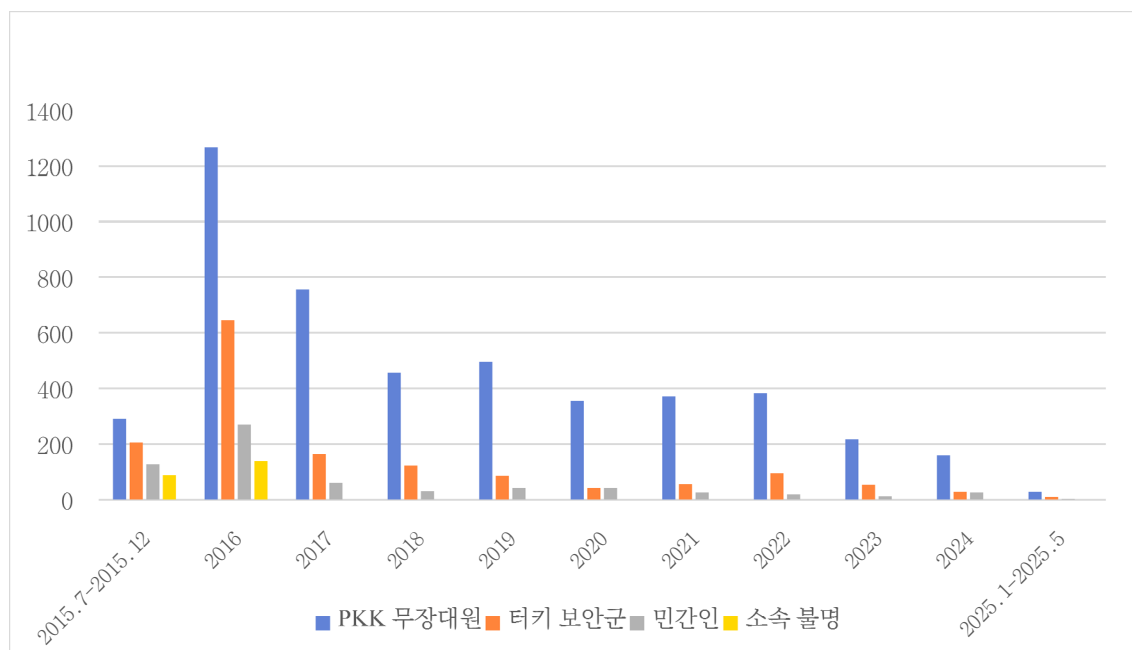
정리하면 에르도안 정부의 쿠르드 정책은 집권 초기 ‘민주적 포용’과 ‘이슬람 형제애’를 내세운 유화적 접근에서 시작했으나, 실질적인 실행의 지연으로 신뢰를 잃었다. ‘평화 프로세스’ 역시

AKP의 선거 전략과 정권 유지라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폐기되었다. 이로써 쿠르드 문제는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안보 문제로 회귀했으며, 튀르키예 사회는 갈등과 폭력의 악순환에 빠져 들게 되었다.

IV. PKK의 위축과 에르도안 정부의 안보화 전략

2025년 5월, 40년간 이어진 튀르키예와 쿠르디스탄 노동자당(PKK)의 무력 충돌이 PKK의 공식 해산 결정으로 일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이는 단순한 휴전이 아니다. 통계자료는 PKK의 군사적 저항이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쇠퇴 중임을 보여주었다. PKK 약화의 핵심 원인에는 튀르키예 정부군의 국외 대규모 군사작전이 있었으며, 특히 ‘클로(Pençe)’로 명명된 군사 작전 시리즈의 영향력이 컸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15년 7월 평화 프로세스 붕괴 이후 최소 7,227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중 튀르키예 정부군은 1,501명이지만, PKK 무장대원은 그 세 배가 넘는 4,851명에 달했다. 이는 단순한 교전 손실을 넘어, 한쪽의 조직적 역량이 소멸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였다(Crisis Group, 2025).

[그래프 1. 2015년 7월 이후 쿠르드 분쟁 관련 총 사상자 수]



출처: Crisis Group (2025), Crisis Group의 자료를 재구성

2015년에서 2016년, 튀르키예 남동부의 디야르바크르, 시르나크 등 쿠르드족 다수 거주 도시에서 격렬한 시가전이 벌어질 때 사망자는 양측과 민간인을 합쳐 2015년에는 700여 명, 2016년에는

2300여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2016년 6월경 튀르키예 정부군이 이들 도시 중심부의 통제권을 완전히 장악한 이후, 튀르키예 내부의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했으며 PKK의 해산 직전인 2025년에는 10명 미만으로 급감했다(Crisis Group, 2025).

분쟁은 튀르키예 국내에서 국외로 이동했다. ACLED(Armed Conflict Location and Event Data, 이하 ACLED)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튀르키예 내부의 폭력 사건은 현저히 감소한 반면, 국경 너머 이라크와 시리아 북부에서의 충돌은 오히려 급증했다. 국제위기감시기구의 분석가 베르카이 만드라즈(Berkay Mandıracı)는 2022년 보고서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튀르키예와 이라크 북부에서 월평균 209건의 폭력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이는 분쟁 초기 도시전 시기의 빈도를 초과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이 사건들의 대부분은 튀르키예군의 공습이었고, 사망자 수는 월평균 40명 수준으로 현저히 낮았다”라고 덧붙였다(Berkay Mandıracı,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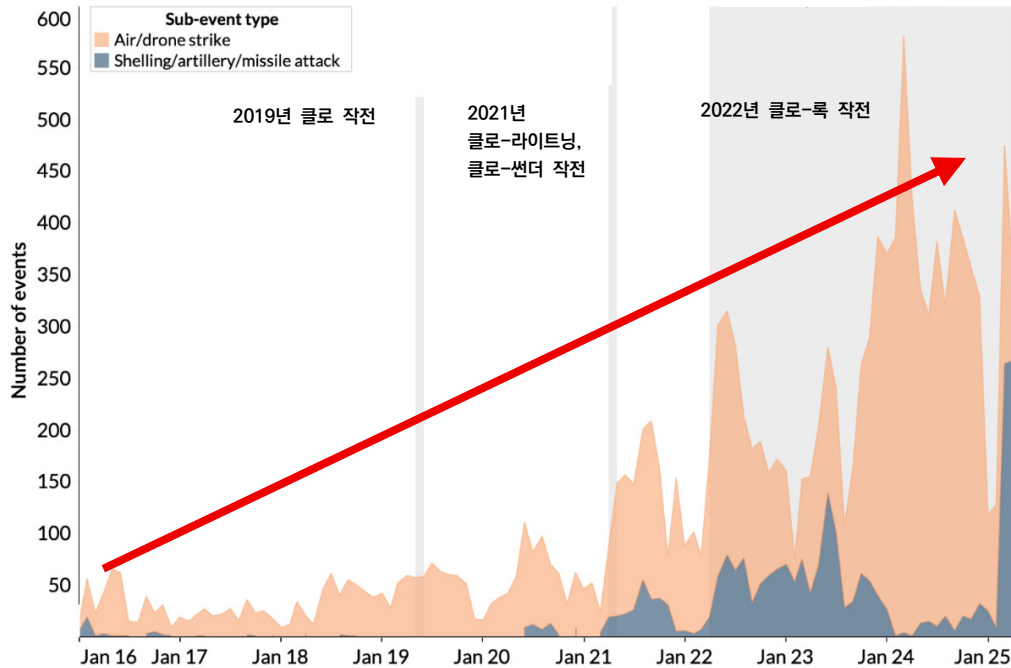
쿠르드 저항의 쇠퇴를 이끈 직접적인 원인은 2019년부터 시작된 ‘클로’ 작전 시리즈였다. 이는 “테러를 원점에서 파괴한다”라는 새로운 안보 개념 아래 PKK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한 공세적 전략이었다. 과거 튀르키예의 군사 작전이 국경 방어와 PKK의 공격에 대한 사후 대응에 가까웠다면, ‘클로’시리즈는 PKK의 근거지를 아예 없애버리는 공세적인 ‘지역 통제’ 전략을 내세웠다(Çevik, 2022).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 작전이 “국경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테러를 근원에서 차단하는 전략”이라고 설명하며, 국제법상 정당방위 권리에 근거한 적극적인 안보 전략으로 정당화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홀루시 아카르는 “단 한 명의 테러리스트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끊임없이, 공격적인 자세로 계속될 것”이라고 공언하며, 이 작전이 PKK의 뿌리를 뽑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천명했다(튀르키예 국방부, 2022). 독일 국제안보연구소(SWP) 또한 튀르키예가 자국 영토에서 PKK를 몰아내기 위해 국경 너머에 통제 구역을 만드는 공세적인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2022년 4월 18일에 정부는 튀르키예군의 클로-락 작전이 시리아에서 시작될 것이라 발표했으며, 이 군사작전은 쿠르드 문제를 안보 및 군사적 해결책으로만 다루고 정치적 해결책을 배제하려는 경향을 강화했다(Çevik, 2022).

<그래프 2>는 튀르키예 정부가 2019년부터 이라크와 시리아의 PKK 인프라를 겨냥한 국경 간 작전인 2019년 클로(Pençe), 2021년 클로-라이트닝(Pençe-Şimşek)과 클로-썬더볼트(Pençe-yıldırım), 2022년 클로-록(Pençe-Kilit)을 통해 PKK에 대한 군사작전의 수가 점차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확대는 공군력, 특히 드론의 영향력이 막대했다. PKK는 2018년 414건에서 2024년 4,427건으로 급증한 항공 및 드론 공격에 점점 더 취약해졌고, 이것이 쿠르드 무장 투쟁의 약화로 연결되었다.

[그래프 2. 튀르키예군의 PKK를 향한 원격 공격 추세]

Turkish remote violence against the PKK

January 2016 - April 2025



출처: Ezzeddine (2025)

클로-록 작전은 PKK가 수십 년간 ‘안전지대’로 여겨온 이라크 북부의 메티나, 자프, 아바신-바시안 지역을 직접 타격했다. 이곳은 PKK의 동굴, 터널, 탄약고 등 핵심 기반 시설과 지휘부가 밀집한 소위 ‘심장부’였다. 튀르키예군은 특수부대를 헬리콥터로 공수하고, 무장 드론을 동원해 PKK의 동굴과 bunker 수백 개를 파괴하며 통제 구역을 구축했다. 2022년 11월, 이스탄불 이스티클랄 거리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된 클로-소드(Pençe-Kılıç) 작전은 이라크, 시리아에 위치한 PKK와 시리아 쿠르드족 민병대 인민수호부대(Yekîneyên Parastina Gel, 이하 YPG)의 훈련소와 지휘 본부를 대규모 공습으로 파괴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 작전이 “테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공격을 가하는 기지로 사용하는 지역”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하며, PKK의 후방 지원 체계를 마비시켰음을 분명히 했다(튀르키예 국방부, 2022).

이 작전들이 결정적이었던 이유는 튀르키예의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에 있었는데, 튀르키예군은 바이락타르 TB2 드론을 이용하여 산악지대에서 PKK 고위급 인사를 직접 제거했다. 국제위기감시 기구는 “2021년 확인된 PKK 전투원 312명 중 3분의 1 이상이 숙련된 지휘관급 전투원이었다”라고 분석하며, 튀르키예의 정밀 타격이 PKK의 핵심 역량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음을 입증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튀르키예 내에서 “기술을 통해 국가적 자긍심을 고취하는 민족주의”인 ‘테크노-내셔널리즘’을 촉진하며 드론 사용에 대한 국내 비판을 잠재우는 부수적인 효과와 함께 PKK

를 튀르키예 밖으로 몰아내며 튀르키예 내 쿠르드 분쟁 감소에 기여하였다(Outzen,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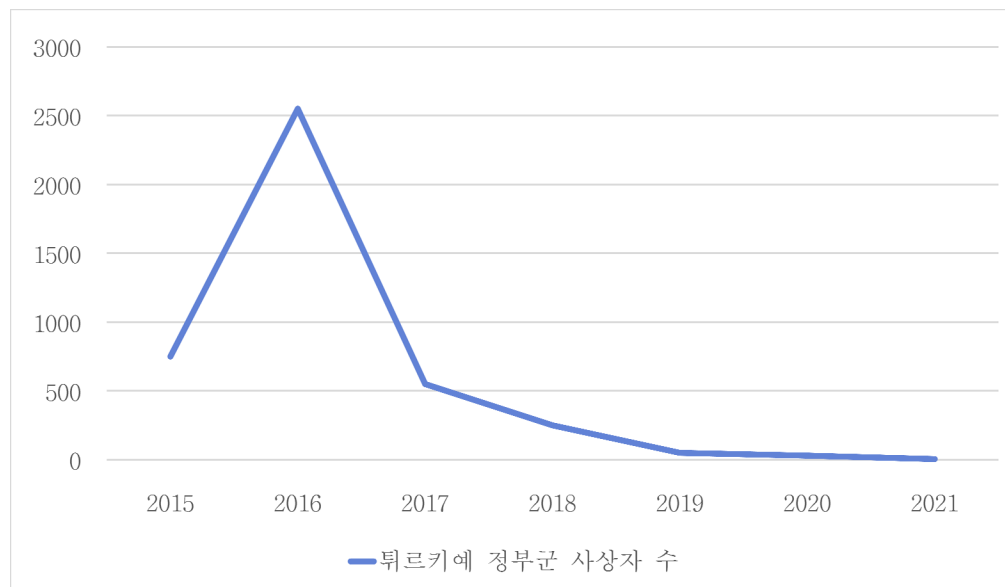
[표 1. 2015-2021년 튀르키예 내 PKK에 의한 공격]

연도	튀르키예 내 PKK에 의한 공격(건)
2015	1201
2016	1276
2017	404
2018	224
2019	110
2020	35
2021	26

출처: Kriter (2022), 기사 내 자료를 재구성

<표 1>은 튀르키예 내부 PKK에 의한 공격 건수를 보여준다. 대규모 군사작전 이전에도 PKK의 공격 건수가 지속해서 감소했고, 군사작전 이후에도 감소세가 계속됨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2016년은 각각 1201건, 1276건으로 무장 투쟁이 활발히 일어났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404건으로 크게 줄었다.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군사작전이 시작된 2018년, 그리고 클로 작전이 시작된 2019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난다. 이는 튀르키예군의 작전이 PKK 조직의 계층 구조와 숙련된 인력 및 물자 자원을 직접 겨냥하여 PKK 조직의 지리적, 정치적, 사회학적 통합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다(Düz, 2022).

[그래프 3. 2015-2021년 튀르키예 정부군 사상자 수]



출처: Kriter (2022), 기사 내 자료를 재구성

이에 따라 <그래프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튀르키예 정부군의 사상자 수 역시 크게 줄어들었다. 2016년 PKK의 무장 투쟁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에는 튀르키예 정부군의 사상자 수가 2500여 명에 달했으나, 2017년부터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 감소 추세가 계속되었다. 특히 국외 군사작전이 전개되는 2018년 이후에도 정부군의 사상자 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점은, PKK가 튀르키예군의 군사작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렸음을 보여준다.

PKK의 확장세 역시 위축되었다. <표 2>에서와 같이 2013년부터 2020년까지의 PKK 신규 가입자 수 추세를 보면, 2014년 최대 신규 가입자를 기록한 후, 2016년부터 신규 가입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후 계속해서 신규 가입이 줄어들어 2020년에는 52명만이 PKK에 신규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 같은 PKK의 위축세를 선전했다. 국방부는 클로 작전 시리즈를 통해 총 1709명의 ‘분리주의 테러 조직원’을 무력화했으며, 2023년에는 신규 가입자(43명)보다 자진 투항자(122명)가 더 많아졌다고 발표하며 조직의 붕괴를 선전했다(Crisis Group, 2025).

[표 2. 2013-2020년 PKK 신규 가입자 수]

연도	PKK 신규 가입자 수 (명)
2013	2597
2014	5558
2015	3884
2016	703
2017	161
2018	136
2019	130
2020	52

출처: Teram (2021), 기사 내 자료를 재구성

이러한 군사 작전은 PKK를 테러 단체로 규정하고, 튀르키예 내 쿠르드 문제를 정치 영역에서 안보 영역으로 옮긴 결과였다. 정부는 2015년 재안보화 이후부터 국내 여론을 설득하기 위해 쿠르드 문제를 일관되게 테러 문제, 즉 안보 문제로 다뤄왔다. 더불어 2018년 이래로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했고, 긴 시간 동안 지속했다. 장기적인 군사작전은 정부의 결정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승인한 국내 여론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2015년 6월 총선에서 친쿠르드계 정당 HDP가 약진하며 에르도안 대통령의 AKP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자(Letsch, 2015), AKP는 2년 반 동안 이어지던 평화 프로세스를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7월 28일 “국민 통합을 해치려는 자들과 평화 프로세스를 계속할 수 없다(Bu ülkede milli birliğimize kast edenlerle bir çözüm sürecini devam ettirmek, öyle zannediyorum ki mümkün değil.)”라고 선언하며 PKK 탄압을 공식화했다(sözcü, 2015). PKK 역시 무장 투쟁의 재개를 선포했고, 튀르키예 남동부 쿠르드 지역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재개되었다(Karadeniz, 2015). 이러한 기조는 2016년 에르도안의 AKP가 강경 민족주의 성향의 민족주의행동

당(Milliyetçi Hareket Partisi, 이하 MHP)과 ‘국민 연합’을 결성하면서 더 강화되었다. MHP는 쿠르드 문제에 대해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는 정당으로, 이 연합은 튀르키예 정부의 대(對) 쿠르드 정책이 극도로 강경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Balancar, 2021).

2016년 5월 튀르키예 의회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다수결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괄 박탈하는 헌법 수정안을 가결했다. 이 조치로 HDP 소속 의원 50여 명을 포함한 138명의 의원이 과거 발언·행위에 대해 형사소추를 받을 길이 열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민 앞 연설에서 “국민은 분열주의 테러 집단의 지원자를 의회에서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Millet, bölücü terör örgütünün uzantılarını Meclis'te görmek istemiyor.)”라며 이 법안을 지지했다(Solaker & Pamuk, 2016). 특히 2016년 7월에 일어난 군부의 쿠데타 미수는 에르도안 정권이 안보화 전략을 펴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정권은 쿠데타를 빌미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쿠르드 세력을 포함한 모든 반대파를 억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권위주의적 분위기는 쿠르드 문제 해결에 대한 건전한 국내 토론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정부가 거침없이 안보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초석을 놓았다(Yegen, 2023). 얼마 후 HDP에 대한 실질적 억압이 나타났다. 2016년 9월 11일, 정부는 자치단체법 긴급법령을 통해 쿠르드계 시장 24명을 “테러 조직과 연계”를 명분으로 한꺼번에 직위해제하고 국가 임명 관리를 파견하는 조치를 취했다(BBC, 2016). 시장 강제 교체 조치는 이후 수년간 지속되어, 2019년 선거에서 당선된 쿠르드계 시장들까지 포함해 2016년 이후 수십 명의 시장들이 해임되고 관선 시장(Kayyum)으로 대체되었다(Rudaw, 2024). 2016년 11월 4 일에는 HDP 공동대표 셀랏틴 데미르타쉬(Selahattin Demirtaş)와 피겐 유크섹다오(Figen Yüksekdağ)를 비롯한 HDP 소속 국회의원 12명이 테러 선전 혐의로 일제 체포되었다. 체포된 의원들은 의회 발언과 시위 호출 등으로 PKK를 옹호하거나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았다(Shaheen, 2016).

쿠르드족을 향한 국내의 정치적·사법적 억압은 국경 너머의 군사적·외교적 압박과 결합하며 총체적 안보화 전략으로 심화되었다.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 문제에 지정학적으로 접근하며, 쿠르드 문제를 단지 국내의 민족 갈등으로 국한해서 바라보지 않았다. 정부는 튀르키예 밖의 쿠르드 세력까지 직접 통제하고, 억제하며, 그들의 세력 구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Yegen, 2023). 정부는 쿠르드족의 모든 정치적·민족적 열망을 ‘테러리즘’과 ‘분리주의’라는 단일한 프레임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세적인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다.

국내에서는 HDP를 PKK와 동일시하며 이들의 정치적 생명력을 끊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정부는 HDP를 평화 프로세스를 함께하는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 선거 경쟁자로 보고 PKK와 동일시하며 고립시켰다(Hoffman, 2019). 2017년 2월 정부는 피겐 유크섹다오 공동대표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셀랏틴 데미르타쉬 전 공동대표의 재판을 지연시키며, 합법 정당의 활동 기반을 체계적으로 와해시켰다(Öztürk, 2017). 2019년 8월에는 디야르바크르, 마르딘, 반 등 3개 광역시 시장을 테러 연루 혐의로 직무정지하고, 정부에서 임명한 관선 시장으로 대체했다(Hazar, 2019). 나아가 2019년 말까지 19개 시·군의 HDP 소속 시장들이 순차적으로 더 해임되어, 2019년 3월 지방선거에서

HDP가 이긴 3개 광역시 포함 24곳에 다시 관선 관리자가 파견되었다(ibid). 2020년 9월에는 2014년 코바니 시위⁴⁾에 대한 수사를 명분으로 HDP 전현직 간부 8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TRTHaber, 2021; McKernan, 2021). 2021년에 이 같은 정치적 탄압은 더욱 거세져, 튀르키예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에 HDP의 해산을 공식 청구하며 당 지도부 및 687명 당원에 대해 5년간 정치 활동 금지까지 요구했다. 기소장에서 HDP는 ‘PKK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국가의 통합성에 반하는 행위의 중심(PKK ile organik bağ içinde, devletin bölünmez bütünlüğüne aykırı fiillerin odağı)’으로 규정되었다(Dal, 2023). 에르도안 대통령은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테러 조직과 연계된 정당에 대해서는 법이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terör örgütü ile iltisaklı partiler için hukuk gereğini yapacaktır)”라고 지지 의사를 내비쳤고, 여당 대변인은 “HDP는 사실상 스스로 문을 닫은 것이며, 국민 사이에서는 이미 끝난 존재다(HDP kendini kapattı aslında, millet nezdinde bitmiştir)”라고 평했다. 2023년 1월에는 HDP의 국고보조금 계좌 동결을 결정하며 HDP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가했다(Dal, 2023). 2023년 12월에는 코바니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상당수에 중형이 선고되었다. 셀라틴 데미르타쉬 전 HDP 공동대표에 징역 48년, 피젠 유크섹다르 전 공동대표에 징역 30년 등을 선고했다.

국외에서는 2017년부터 PKK와 YPG의 거점을 직접 공격하기 시작했다. 4월 25일 새벽, 튀르키예 공군은 이라크 신자르(Sincar) 산과 시리아 북동부 카라초크(Karacok) 산의 YPG/PKK 거점을 동시다발 공습한 후, 튀르키예 합동참모본부는 이와 관련한 성명을 냈다. 성명에서 합동참모본부는 PKK를 테러조직으로 규정하며, 이 공습이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의 단결, 통합, 안보를 위협하는 이 테러 소굴들을 소탕하기 위한(Ülkemizin ve milletimizin birlik, bütünlük ve güvenliğine kasteden bu terör yuvalarının yok edilmesi amacıyla)” 것이라고 밝혔다(AA, 2017). 2018년에는 국외에서 전개되는 튀르키예군의 군사작전이 본격화했다. 2018년 1월, 튀르키예군은 시리아 서부 아프린(Afrin) 지역의 YPG 세력을 소탕한다는 목표로 대규모 지상전을 개시했다. ‘올리브 가지 작전(Zeytin Dalı Harekâtı)’으로 명명된 이 군사작전은 1월 20일 튀르키예 공군의 대대적 폭격으로 시작되어, 3월 18일 튀르키예군 및 친튀르키예 반군(시리아국민군)이 아프린 도심을 점령함으로써 마무리됐다(Genco, 2018). 특히 올리브가지 작전은 튀르키예 국내에서 대체로 높은 지지를 받았고, 에르도안 정권은 이를 2018년 6월 조기 대선·총선에서 국수주의 표 결집에 활용했다(AA, 2018). 2019년 10월에는 미국의 시리아 철수를 기회로 쿠르드 자치 세력 SDF(YPG 주도)를 몰아내고 완충지대를 구축하기 위한 ‘평화의 샘(Barış Pınarı)’작전을 단행했고, 10월 22일 러시아와의 외교적 합의를 통해 시리아 북부에 완충지대를 확보했다(AA, 2019). 이 합의에 따라 YPG는 튀르키예 국경으로부터 30km 밖으로 밀려나고, 튀르키예군이 장악한 지역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그

4) 코바니 사태로 인해 일어난 시위. 코바니 사태는 2014년 시리아 쿠르드족 도시 코바니가 IS에게 점령될 위기에 놓였던 사건으로, 당시 튀르키예 내 쿠르드족은 튀르키예 정부가 코바니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튀르키예 동부의 쿠르드족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출처: Amnesty International(n.d.), “Kobani protests in Turkey: Human rights failures”, <https://www.amnesty.nl/actueel/kobani-protests-in-turkey-human-rights-failures>, 검색일: 2025.7.14)

외 접경지는 러시아-시리아 병력이 순찰하는 완충지대로 설정되었다. 에르도안은 이를 역사적 합의로 평가하며 “시리아 영토에서 어떤 분리주의도 용납하지 않을 것(Suriye topraklarında bölücü bir gündeme asla izin vermeyeceğimizi)”이라고 선언했다(Permana & Widadio, 2019). 이는 군사 행동과 강대국 외교를 결합해 쿠르드 자치권의 싹을 자르려는 전략이었다. 2020년에는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자치 지역 내 PKK 거점을 직접 타격하기 위한 클로 작전이 개시되었고, 앞서 언급했듯 이는 PKK의 쇠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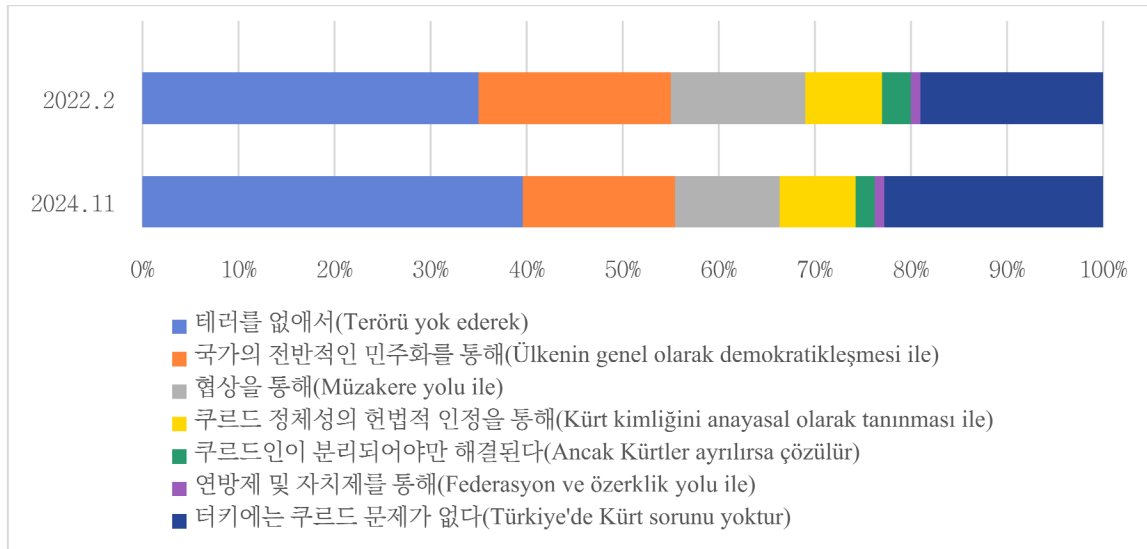
정부의 안보화 전략은 튀르키예 내부 여론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3월, 여당 뿐 아니라 주요 야당들까지 “테러에 단결해 맞서겠다”라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할 정도로 ‘테러리즘 척결’은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다(임, 2016). 정부는 ‘쿠르디스탄’이나 ‘자치’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범죄시하고, 쿠르드 정체성을 다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안보화 정책을 승인하도록 유도했다(Yegen, 2023).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8년 시리아 북서부 쿠르드 민병대와 이슬람 국가를 겨냥하여 시행한 군사작전인 올리브-가지 작전에서, 튀르키예군의 군사 작전을 “국가적 투쟁”으로 묘사하며 “필요하다면 전 세계와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다(Jones, 2018). 이러한 발언들은 쿠르드 관련 모든 이슈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대응 외에 다른 모든 선택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낳았다.

2018년 초 시리아에 수행된 올리브 가지 작전을 수행하기 전 실시한 여론조사에 응답한 튀르키예 국민 중 56.1%는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을 넘는 군사 작전에 지지를 보냈다(Aydın, 2018). 또한 올리브 가지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0%가 지지를 표했다(Jones, 2018). 이 같은 군사작전 지지 경향은 현재에도 이어져, 2025년 설문조사에서도 정부의 지속적인 군사 작전을 통한 PKK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응답자의 69.8%가 정부의 정책을 지지했다(Imren, 2025).

주류 언론은 안보화 지지 여론 형성을 도왔다. 국영 아나돌루(Anadolu) 통신과 친정부 매체인 사바흐(Sabah)는 HDP 시장의 해임을 “테러의 자금원에 ‘관재인’ 타격”이라고 보도하며 정부의 조치를 정당화했다. 반면, 반정부 성향을 지닌 메소포타미아 통신(MA)이나 비아넷(Bianet)과 같은 매체들은 동일한 사안을 “유권자 의지에 대한 정치적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저항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테러 선전’이라는 이름 아래 억압되었다. 결국 “국가 생존”과 “국경 수호”라는 프레임은 튀르키예 사회의 강한 민족주의 정서를 자극했고, 정부는 군사 작전을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국내 정치적 기반을 확보했다.

<그래프 4>는 15세 이상 튀르키예 성인 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다. 2024년 11월 기준 응답자의 40% 쿠르드 문제를 안보 중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월의 35%에서 5%p 증가한 수치다. 또한 ‘튀르키예에는 쿠르드 문제가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22년 2월 19%에서 2024년 11월 23%로 증가했다. 이는 튀르키예 국민 전반이 정부의 안보 중심적 접근에 찬성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경향에 동조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국가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통해’, ‘협상을 통해’ 등 정치적 해법을 강조하는 응답은 감소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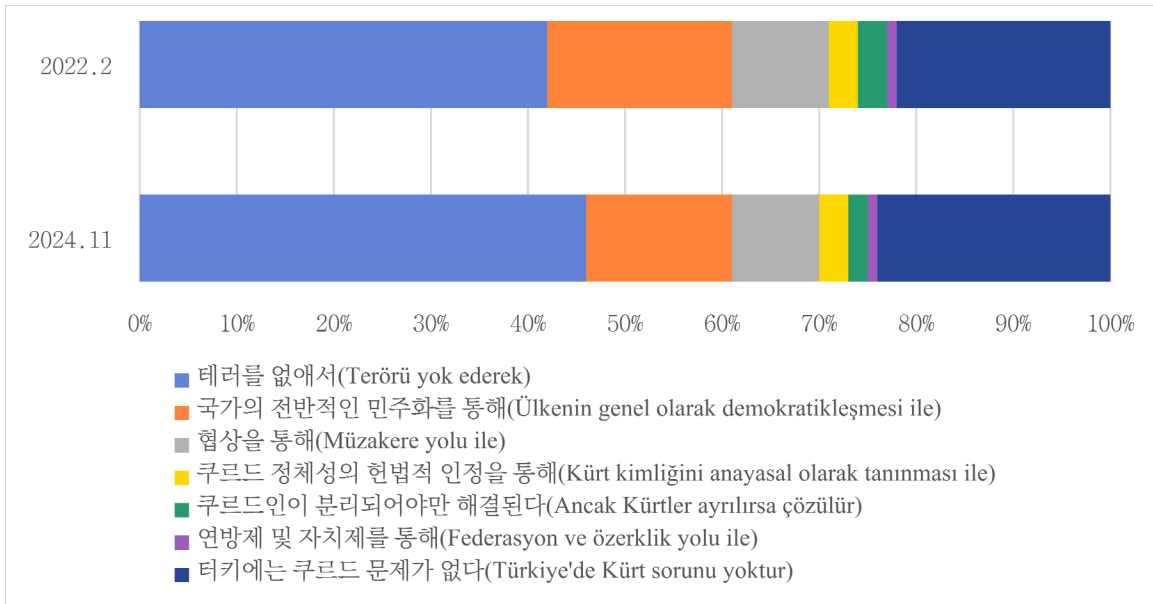
[그래프 4. 남동부/쿠르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Güneydoğu/Kürt sorunu en iyi nasıl çözülür?)]



출처: Konda Araştırma (2024) Konda Araştırma의 자료를 재구성

특히 쿠르드족을 제외한 튀르키예인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 같은 경향이 극명하게 나타났다. <그래프 5>에서 보듯 2022년 2월 응답자의 42%가 ‘테러를 없애서’를 택했으며, 2024년 11월에는 4%p가 늘어 46%가 이같이 응답했다. 이는 계속되는 정부의 강경 기조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2024년 3월, 야샤르 귄레르(Yasar Guler) 국방부 장관은 “테러는 40년간 튀르키예의 큰 장애물이었고, 이제 튀르키예는 대테러 작전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 이것이 대통령이 명령한 것”이라고 말하며, “북부 이라크에서 테러리스트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Abdulrazek, 2024). 한편 PKK가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TUSAS)에 공격을 가한 것 역시 튀르키예 국민의 위협 인식을 자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 정치인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하며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 지역에 대한 공격도 강화했다(Zakarian, 2024). PKK의 저항과 계속되는 정부의 안보화 담론과 조치, 대응으로 인해 튀르키예 정부의 안보중심적 접근이 튀르키예인들에게서 지지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래프 5. 남동부/쿠르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튀르키예인 대상, 쿠르드족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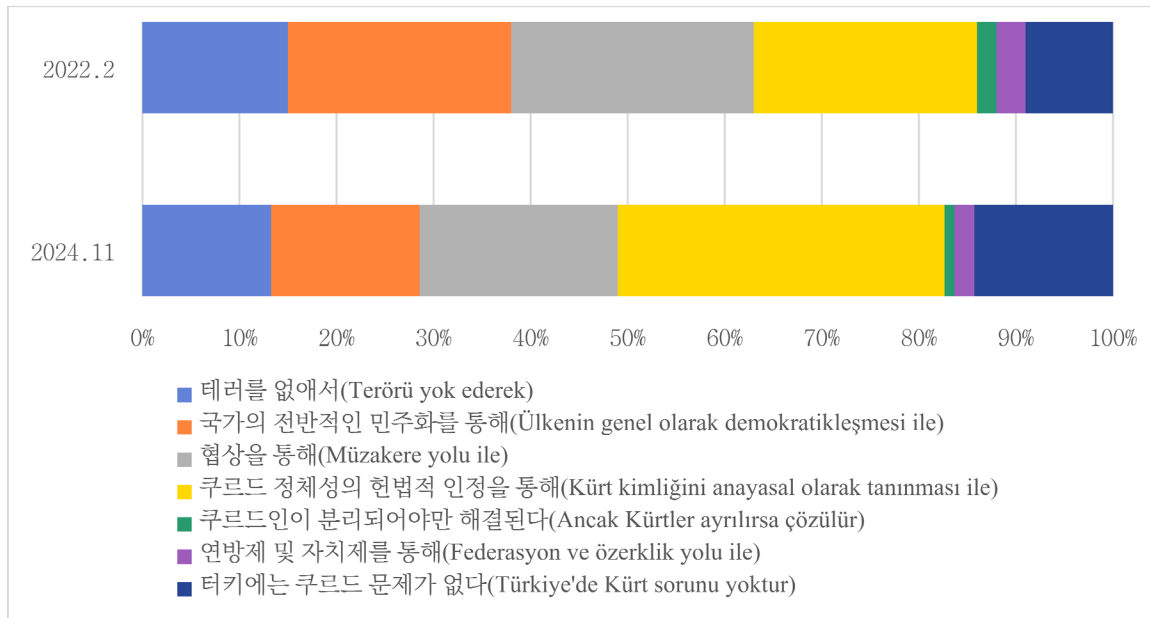


출처: Konda Araştırma (2024) Konda Araştırma의 자료를 재구성

쿠르드족의 경우는 군사적 접근을 원하지 않았다. 2022년과 2024년 각각 13%와 15%의 응답자만이 안보 중심적 해결책에 찬성했다. 대부분은 ‘쿠르드 정체성의 헌법적 인정’, ‘협상을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민주화를 통해’라는 정치적인 해법에 찬성했다. ‘쿠르드족이 분리되어야만 해결된다’, ‘연방제 및 자치제를 통해’ 등 분리주의적인 해결책에 찬성한 응답자는 2022년과 2024년 모두 적었다. 오히려 ‘튀르키예에는 쿠르드 문제가 없다’라는 응답 비율이 2022년에 비해 2024년에 5%p 증가하며, 쿠르드족 사이에서도 쿠르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강경노선을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어진 것이 확인된다.

정부는 쿠르드 문제를 ‘테러’라는 단일한 프레임에 가두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고, 실제 테러로 인한 공포와 민족주의 정서, 그리고 통제된 언론 환경 속에서 대중은 그 메시지를 수용하며 군사 작전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결론적으로, 튀르키예 정부의 국외 대규모 군사작전은 이러한 강력한 국내 정치적 지지를 바탕으로 실행된 ‘특별 조치’였다. 튀르키예는 군사 기술의 우위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과 동의를 만들어내는 안보화 정책을 통해 쿠르드의 저항은 위축되고, 이는 2025년 5월 PKK 군사 조직 해산과 무장 해제로 이어지게 됐다.

[그래프 6. 남동부/쿠르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쿠르드족 대상)]



출처: Konda Araştırma (2024) Konda Araştırma의 자료를 재구성

V. 결론

PKK의 붕괴는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라, 튀르키예 정부가 행한 안보화 전략의 성공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15년 이후 에르도안 정부의 쿠르드 문제 대응은 평화적 해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내외적으로 쿠르드 정치 세력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려는 총체적 안보화 전략으로 귀결되었다. 안보화 전략은 청중의 승인으로 이어져, 국경 바깥의 PKK 거점을 직접 공격하는 대규모 군사 작전의 정당화로 귀결됐다. 국내 여론의 뒷받침 아래 전개된 대규모 군사 작전은 PKK의 무장 투쟁 역량을 말살해 최종적으로 PKK의 무장 해제를 초래했다. 2015년 재안보화는 먼저 쿠르드계의 합법적 정치 공간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2015년 6월 총선에서 HDP가 AKP의 단독 과반을 무너뜨리자, 에르도안 대통령은 대화의 문을 닫았다. 2016년에는 HDP 의원들을 겨냥한 ‘의원 면책특권 박탈’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결정적으로 7월 15일 쿠데타 시도 실패 이후 선포된 국가비상사태(OHAL)는 HDP 소속 시장 24명을 “테러 조직 연계” 혐의로 해임하고 중앙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Kayyum)을 파견하는 조치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선출직 공직자 축출은 2019년 지방선거에서 HDP가 주요 도시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었으며, 결국 2021년 3월 튀르키예 최고검찰청이 HDP에 대한 정당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정점에 달했다.

국내적 탄압은 국경을 초월한 군사적 안보화를 위한 밑바탕이 되었다. HDP를 향한 탄압 전략에서 쿠르드족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제거해야 할 테러조직으로 명명되었으며, 국내의 합법 정당인

HDP는 무장 테러 조직으로 규정된 PKK와 동일시되었다. 테러 = PKK = HDP라는 동일시 아래, PKK를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은 테러 조직 소탕으로 인식되었다. 2018년 ‘올리브 가지’, 2019년 ‘평화의 샘’, 2020년 ‘클로-이글(Pençe- Kartal), 클로-타이거(Pençe-Kaplan)’, 2022년 ‘클로-룩’ 작전에 이르기까지 튀르키예군은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에서 PKK와 YPG를 동일한 ‘테러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규모 군사 작전을 수행했다. 이처럼 튀르키예 정부는 쿠르드 문제 전체를 ‘테러와의 전쟁’으로 규정하여, 쿠르드 문제에 대한 안보적 접근을 정당화했다. 2018년 올리브 가지 작전에 대한 지지와, 2022년과 2024년에서 확인되는 튀르키예 국민 일반의 지지는 이 같은 안보화 전략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었음을 보여준다.

2014년부터 2025년까지 튀르키예 정부의 쿠르드 문제 대응은 코펜하겐 학파가 제시한 안보화 이론이 총체적으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분석될 수 있다. 이 시기 안보화 주체인 에르도안 정부와 그 민족주의 동맹 세력은 참조 대상인 ‘튀르키예 국가의 통합’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쿠르드 정치·군사 운동 전체를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성공적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은 강력한 발화 행위를 통해 추진되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쿠르드 정치 세력의 요구를 “테러리즘”으로 명명하고, “단 하나의 테러리스트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함으로써, 쿠르드 문제를 정상적인 정치의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해 안보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이러한 안보화 담론은 국내외, 특히 국경 바깥의 광범위한 비상조치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국경을 넘은 군사력 투사는 PKK와 그 연계 세력으로 간주한 시리아의 YPG까지 동일한 실존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올리브 가지, 평화의 샘, 클로 작전 시리즈 등 일련의 군사작전은 국외에 상시 주둔하고 PKK의 거점을 장기적이고 집중적으로 타격하여 조직을 소멸하는 것을 목표로했다. 이 같은 안보화된 위협을 국경 밖에서부터 제거하려는 공세적인 비상조치는 효과적으로 작용해, 2025년에 이르러 PKK는 무장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PKK의 무장 해제는, 지난 10여 년간 튀르키예 정부가 국가 안보라는 최우선 명분을 통해 쿠르드 문제 전체를 성공적으로 안보화한 과정의 결과였다. 이 안보화는 국내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국경 밖으로 군사력을 투사하는 비상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에르도안 정권은 이를 통해 쿠르드 분쟁을 군사적으로 관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주장했으나, 민주주의와 인권 측면에서는 심각한 퇴보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년 현재, HDP 해산 문제와 시리아 쿠르드 자치구도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가운데, 향후 튀르키예가 안보화된 이 문제를 다시 정치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탈안보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문 >

- 김병조(2011), “‘사회안보’이론의 한국적 적용: 도입, 채택, 발전,” 『국방연구』, 54(1): 1-26,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김상배(2015), “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 안보화 이론의 시각,” 『한국정치학회보』, 49(1): 71 – 97, (한국정치학회).
- 김성운(2018), “터키-쿠르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전망,” 『Muslim-Christian Encounter』, 11(2): 113-150,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이슬람연구소).
- 김성진(2018), “유럽 내 시리아 난민과 사회안보,” 『정치정보연구』, 21(1): 99-127, (한국정치정보학회).
- 김현정·문보경(2016), “사회안보 관점에서의 난민,” 『21세기정치학회보』, 26(3): 125-148, (21세기 정치학회).
- 민병원(2006), “탈냉전시대의 안보개념 확대: 코펜하겐 학파, 안보문제화, 그리고 국제정치이론,” 『세계정치』, 5(0): 13-62,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 이수진(2024), “정체성의 안보화와 걸프 국가들의 시아파 차별 정책: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국중동학회논총』, 45(2): 53-76, (한국중동학회).

< 영문 >

- Akkaya, Ahmet Hamdi and Jongerden, Joost(2012), “Reassembling the Political PKK and the Project of Radical Democracy,” *European Journal of Turkish Studies*, 14: 1–19, (*European Journal of Turkish Studies*).
- Akkaya, Ahmet Hamdi and Jongerden, Joost(2014), “Confederalism and Autonomy in Turkey: The Kurdistan Workers’ Party and the Reinvention of Democracy,” Cengiz Gunes and Welat Zeydanlioğlu eds., *The Kurdish Question in Turkey: New Perspective on Violence, Representation and Reconciliation*, pp. 186–204, (Routledge).
- Birdişli, Fikret(2014), “Securitization of Kurdish Question in Turkey,”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Social Sciences*, 4: 1-15, (*International Journals of Multidisciplinary Research Academy*).
- Booth, Ken ed.(2005), *Critical Security Studies and World Politics*, (Lynne Rienner Publishers).
- Bourbeau, Philippe(2011), *The Securitization of Migration: A Study of Movement and Order*, (Routledge).
- Buzan, Barry(1991), “New Patterns of Glob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67(3): 431-451, (Oxford University Press).

- Buzan, Barry and Ole Waever(1997), “Slippery? Contradictory? Sociologically Untenable? The Copenhagen School Replie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3(2): 241–2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uzan, Barry, Ole Waever, and Jaap de Wilde(1998), *Security: A New Framework for Analysis*, (Lynne Rienner Publishers).
- Clark, Jessie Hanna(2016), “The “Life” of the State: Social Reproduction and Geopolitics in Turkey’s Kurdish Question,” *Annals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Geographers*, 106(5): 1176–1193, (Routledge).
- Derisiotis, Anthony(2019), “Erdoğan, Turkey's Kurds and the Regionalisation of the Kurdish Issue”, *New Middle Eastern Studies*, 9(1): 53-68, (British Society for Middle Eastern Studies).
- Emmers, Ralf(2010), “Securitization,” Alan Collins ed., *Contemporary Security Studies*, pp. 136-151, (Oxford University Press).
- Gunes, Cengiz(2012), “Explaining the PKK’s Mobilization of the Kurds in Turkey: Hegemony, Myth and Violence,” *Ethnopolitics*, 12(3): 247–267, (Routledge).
- Gunes, Cengiz(2017), “Turkey's New Left,” *New Left Review*, 107: 9–30, (New Left Review).
- Gunter, M. Michael(2000), “The continuing Kurdish problem in Turkey after Öcalan’s capture,” *Third World Quarterly*, 21(5): 849–869, (Routledge).
- Has, Ibrahim(2025), “Divergent Paths: The Statal Securitization of the Kurdish Question and the Struggle for Kurdish Societal Security in Türkiye,” *World Affairs*, 188(1): e212059, (SAGE Publications).
- Jongerden, Joost(2018), “Looking Beyond the State: Transitional Justice and the Kurdish Issue in Turkey,” *Ethnic and Racial Studies*, 41(4): 721–738, (Routledge).
- Knapp, Michael, Anja Flach, and Ercan Ayboğa(2016), *Revolution in Rojava: Democratic Autonomy and Women's Liberation in Syrian Kurdistan*, (Pluto Press).
- McDonald, Matt(2008), “Constructivism,” *Security Studies: an Introduction*, pp. 63-76, (Routledge).
- Roe, Paul(2004), *Ethnic Violence and the Societal Security Dilemma*, (Routledge).
- Williams, Michael C.(2003), “Words, Images, Enemies: Securitization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7(4): 511-531, (Oxford University Press).
- Wilkinson, Claire(2007), “The Copenhagen School on Tour in Kyrgyzstan: Is Securitization Theory Useable Outside Europe?,” *Security Dialogue*, 38(1): 5–25, (SAGE Publications).
- Yayman, Hüseyin(2011), *Türkiye’nin Kürt Sorunu Hafızası*, (Doğan Kitap).
- Yegen, Mesut(2023), “Ethnopolitics to geopolitics: the Turkish State and the Kurdish question since 2015,” *British Journal of Middle Eastern Studies*, 50(4): 943-961, (Routledge).

Yilmaz, Ihsan Mustafa Demir, and Erdoan Shipoli(2022), “Securitisation Via Functional Actors and Authoritarian Resilience: Collapse of the Kurdish Peace Process in Turkey,” Australi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7(1): 1–16, (Routledge).

< 인터넷 >

박영서(2023.01.31), “[뉴스 따라잡기]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갈등”, Voice Of America, <https://www.voakorea.com/a/6939854.html>, (검색일자: 2025.05.13.)

임성우(2016.04.29), “터키 주요 정당들, ‘테러와의 전쟁’ 선언”, EMERiCs, https://www.kiep.go.kr/aif/issueDetail.es?brdctsNo=186594&mid=a30200000000&search_option=&search_keyword=&search_year=&search_month=&search_tagkeyword=&systemcode=07&search_region=07011000&search_area=¤tPage=27&pageCnt=10, (검색일자: 2025.07.14.)

유현민(2025.07.11), “PKK, 무장해제 행사...분리독립 무력투쟁 공식 종료“,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711154900099>, (검색일자: 2025.05.12.)

Anadolu Ajansı(2017.04.25), “TSK'dan Sincar ve Karaçok dağlarına hava harekati“, Anadolu Ajansı, <https://www.aa.com.tr/tr/dunya/tskdan-sincar-ve-karacok-daglarina-hava-harekati/804409>, (검색일자: 2025.07.21.)

Anadolu Ajansı(2019.10.09), “Barış Pınarı Harekati başladı“, Anadolu Ajansı, <https://www.aa.com.tr/tr/baris-pinari-harekati/baris-pinari-harekati-basladi/1607139>, (검색일자: 2025.07.21.)

Amnesty International(n.d.), “Kobani protests in Turkey: Human rights failures“, <https://www.amnesty.nl/actueel/kobani-protests-in-turkey-human-rights-failures>, (검색일자: 2025.07.14.)

BBC News Türkçe(2016.09.11), “28 belediyeye kayyum atandı“, BBC News Türkçe, <https://www.bbc.com/turkce/haberler-turkiye-37332272>, (검색일자: 2025.07.14.)

McKernan, Bethan(2021.04.26), “Turkey puts 108 Kurdish politicians on trial over 2014 Kobani protests“,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1/apr/26/turkey-puts-108-kurdish-politicians-on-trial-over-2014-kobani-protests>, (검색일자: 2025.07.21.)

Genco, Cem(2018.01.20), “Afrin’e ‘Zeytin Dalı Harekati’başladı“, Anadolu Ajansı, <https://www.aa.com.tr/tr/pg/foto-galeri/afrine-zeytin-dali-harekati-basladi>, (검색일자: 2025.07.20.)

Letsch, Constanze (2015.06.07), “Turkey election: preliminary results show ruling AKP party set to lose majority“,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5/jun/07/turkey-election-preliminary-results-erdogan-akp-p>

- arty, (검색일자: 2025.06.07.)
- EIU(n.d.), “Democracy Index 2024”, <https://www.eiu.com/n/campaigns/democracy-index-2024/>, (검색일자: 2025.05.13.)
- Permana, Erric and Widadio, Nicky Aulia (2019.10.23), “Indonesia’s leader unveils cabinet including archrival“, Anadolu Ajansı, <https://www.aa.com.tr/en/asia-pacific/indonesia-s-leader-unveils-cabinet-including-archrival/1623512>, (검색일자: 2025.07.21.)
- Ezzeddine(2025.05.22.), “Disbanding the PKK: A turning point in Turkey’s longest war?“, ACLED, <https://acleddata.com/qa/qa-disbanding-pkk-turning-point-turkeys-longest-war>, (검색일자: 2025.07.12.)
- Balancar, Ferda(2021.09), “The Influence of the AK Party – MHP Relationship on the Kurdish Issue and the Resolution Process“, Democratic Progress Institute, <https://www.democraticprogress.org/wp-content/uploads/2021/09/The-Influence-of-the-AK-Ferda-Balancar.pdf>, (검색일자: 2025.06.07.)
- Solaker, Gülsen(2023.01.11), “Geçmişten günümüze HDP“, Deutsche Welle, <https://www.dw.com/tr/ge%C3%A7mi%C5%9Ften-g%C3%BCn%C3%BCm%C3%BCze-hdp/a-64349949>, (검색일자: 2025.05.13)
- Solaker, Gulsen and Pamuk. Humeyra (2016.05.21), “Turkish parliament strips MPs of immunity in blow to Kurdish opposition“,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turkish-parliament-strips-mps-of-immunity-in-blow-to-kurdish-opposition-idUSKCN0YB0UW/>, (검색일자: 2025.06.07.)
- Zakarian, Natalie(2024.12.09), “The Kurdish Question: What’s Behind Erdogan’s Policy U-Turn?“, Georgetown Security Studies Review, <https://georgetownsecuritystudiesreview.org/2024/12/09/the-kurdish-question-whats-behind-erdogans-policy-u-turn/>, (검색일자: 2025.07.14.)
- Outzen, Rich(2022.05.23), “Claw-Lock: An Assessment of Turkish Counter-PKK Operations in Northern Iraq in 2022“, The Jamestown Foundation, <https://jamestown.org/program/claw-lock-an-assessment-of-turkish-counter-pkk-operations-in-northern-iraq-in-2022/>, (검색일자: 2025.06.07.)
- Rudaw(2024.11.04), “Turkey's removal of Kurdish mayors 'a blow to local democracy': US“, Rudaw, <https://www.rudaw.net/english/middleeast/turkey/04112024>, (검색일자: 2025.07.15.)
- Abdulrazek, Saeed(2024.03.08), “Türkiye Plans 40-Kilometer Security Corridor Inside Iraq by Summer“, Asharq Al-Awsat, <https://english.aawsat.com/arab-world/4906476-t%C3%BCrkiye-plans-40-kilometer-security-corri>

dor-inside-iraq-summer, (검색일자: 2025.08.08.)

Çevik, Salim(2022.07), “[SWP] Turkey’s Military Operations in Syria and Iraq”, SWP,
<https://www.swp-berlin.org/10.18449/2022C37/>, (검색일자: 2025.07.15.)

Sözcü(2015.07.28), “Erdoğan'dan flaş açıklama”, Sözcü,
<https://www.sozcu.com.tr/erdogandan-flas-aciklama-6-wp895029>, (검색일자: 2025.06.07.)

Sputnik Türkiye(2016.01.28), “Erdoğan: Dünyayı başlarına yıkarız“, Sputnik Türkiye,
<https://anlatilaninotesi.com.tr/20160128/erdogan-mevcut-anayasa-1020494180.html>, (검색일자: 2025.05.14)

Karadeniz, Tulay(2015.07.29.), “Turkey's Erdogan: peace process with Kurdish militants 'impossible““, Reuters,
<https://www.reuters.com/article/world/us/turkeys-erdogan-peace-process-with-kurdish-militants-impossible-idUSKCN0Q20UU/>, (검색일자: 2025.06.08.)

Türkiye Cumhuriyeti Millî Savunma Bakanı(2022.01.31), “Millî Savunma Bakanı Hulusi Akar, Pençe-Kilit Operasyonu’na Katılan Birliklerin Komutanlarıyla Toplantı Yaptı“, Türkiye Cumhuriyeti Millî Savunma Bakanı, <https://www.msb.gov.tr/SlaytHaber/3112022-13273>, (검색일자: 2025.07.14.)

Türkiye Cumhuriyeti Millî Savunma Bakanı(2022.11.20), ““PENÇE KILIÇ HAVA HAREKÂTI” İle İlgili Basın Açıklaması“, Türkiye Cumhuriyeti Millî Savunma Bakanı, <https://www.msb.gov.tr/SlaytHaber/20112022-68716>, (검색일자: 2025.07.14.)

Yeniçağ(2015.03.16), “Erdoğan: Kürt sorunu diye bir şey yoktur“, Yeniçağ,
<https://www.yenicaggazetesi.com.tr/erdogan-kurt-sorunu-diye-bir-sey-yoktur-111550h.htm>, (검색일자: 2025.06.07.)

하디스 해석의 다층성과 이슬람 법학에서의 적용 및 실천의 교차

조현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Diverse Interpretations, Diverse Fiqh: A Comparative Study of Hadith Exegesis and Islamic Legal Positions on Embryonic Formation and Abortion

This paper investigates how identical Hadith passages give rise to divergent Islamic legal rulings through interpretive variati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Hadith concerning the origin of human life and fetal development. By comparing the legal opinions of the four major Sunni schools of jurisprudence, this study examines how interpretative differences in textual elements—such as the inclusion of specific terms, syntactic ambiguities, or pronoun references—lead to layered and sometimes conflicting interpretations. Drawing on Hadiths from 『Sahih al-Bukhari』, 『Sahih Muslim』, and 『Forty Hadith of Al-Nawawi』, it explores each school's methodological approach to Hadith interpretation and its influence on defining the permissibility and timing of abortion. Furthermore, the study considers how these classical positions are applied within modern legal systems in contemporary Muslim societies, thus tracing the connection between textual exegesis and real-world legal practice. By combining grammatical-theological analysis with historical and legal contextualization, this research highlights the interpretive fluidity of Islamic jurisprudence and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scriptural tradition and legal implementation.

[Key Words : abortion, embryoic development, Hadith, Islamic jurisprudence, madhhab]

I.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동일한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같은 발원지를 가진 것으로 여겨지는 하디스 구절은 문법적 구조, 특정 어휘의 삽입 등의 요인으로 여러 다른 해석을 가지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일차적으로, 획일화되지 않고 다양하게 해석되기도 하는 하디스 구절에는 무엇이 있는지, 또 그 다원성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하여 본다. 연구 대상으로는 생명의 창조와 태아의 형성에 대해 다루는 하디스 구절인 al-Bukhari의 『Sahih al-Bukhari』 ‘59번째 장 생명의 창조’ 19번째 전언¹과 『Sahih Muslim』의 ‘The Book of Destiny’ 46번째 장의 1,2,4번 구절, 『40 Hadith of al-Nawawi』의 4번째 하디스를 선정하였다. 본 구절을 1) 특정 어구의 삽입과 배제 2) 문장의 구조상 특징 3) 상이한 전승이라는 측면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어떠한 다층적 해석들이 가능해지는지 알아본다. 이에 더하여 해당 지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 이슬람 법학에서 각기 다르게 해석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간다. 이슬람 법학의 틀로 법제화된 상이한 견해들이 실제 무슬림 사회에 재현되는 양상까지 논지를 확장시킨다.

더불어 본고는 다층적인 해석이 가능해지는 하디스 구절이 이슬람 법학 내에서 상이한 법적 입장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양상을 조명하고자 한다.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하디스 구절을 선정하고 해당 하디스의 다양한 해석으로 실제 태아와 낙태 문제에 있어서 상이하게 율법화되는 경향을 중심으로, 하디스 구절의 해석 차이가 법학과 간의 실질적 법적 판단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하디스라는 종교적 전언이 단순한 텍스트 수준을 넘어, 실제적인 법 제정과 윤리적 판단의 근거로 기능하는 양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적 입장들이 과거에 형성되어 고착화되었으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적용 양상을 보이거나 인식의 변화가 존재하기도 하는지 또한 함께 고찰할 것이다.

해당 연구는 하디스와 이슬람 법학의 연동 구조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하나의 하디스가 특정 어휘의 삽입이나 전승자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른 법적 의미를 생성해내는 사례는 전통적인 텍스트 해석과 제도 형성 사이의 상호적 관계를 잘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생명권, 낙태와 같은 시의적인 생명 윤리적 주제를 다룸으로써, 종교법 내에서 생명의 시작이 어떠한 해석 과정을 거쳐 규범화되는지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더불어 본고는 동일한 하디스를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역·학파별로 우세한 법적 해석과 실천 양상이 달라지는 현실을 조망함으로써, 이슬람 사회에서 전통과 현대, 해석과 제도, 신학과 실천이 어떻게 교차하고 조정되는지를 이해하는데도 유의미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하디스를 둘러싼 해석의 층위와 그 법적 실현이 어떻게 구성되고 지속되고 변화하는지를 입체적으로

¹ 『Sahih al-Bukhari』 하디스 텍스트 기준, 『Sahih Muslim』의 경우 ‘46번째, 운명의 장의 첫 번째 구절’이며 『40 Hadith of An-Nawawi』의 경우 ‘4번째 구절’에 해당한다.

드러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핵심 용어 및 개념 정리

1.2.1. 쿠란과 하디스 (Qur'an/Hadith) (القرآن/حديث)

쿠란은 이슬람교에서 알라신의 말씀 그대로를 옮겨 담은 최고 권위의 경전이다. 이는 무슬림들이 전체를 암기하기도 할 정도로 경외 받는 텍스트이며, 쿠란을 수록한 실물 경전을 만지기 위해서는 의례적인 정결 상태가 요구된다고 여겨질 정도로 신성시되는 종교적 산물이다. 쿠란이 지닌 절대적 권위에도 불구하고, 쿠란은 무슬림 사회에서 특정 문제를 논할 때에 가장 먼저, 실질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법적 출처가 되지는 못한다. 이는 쿠란은 실질적 법률서로 기능하지 않으며, 이슬람 신학에서 널리 공유되는 교리들은 쿠란에 직접 언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떠한 문제에 있어서 쿠란만을 참조하는 것은 단지 부분적인 그림만을 얻는 것에 불과하다고 견해를 밝히기도 한다(Jonathan A.C.Brown, 2009). 이슬람 율법, 신학, 종교 전통의 대부분은 무슬림들이 신의 계시라고 믿는 쿠란에서 기원한 것이 아닌, 이슬람교의 예언자인 무함마드가 남긴 언어적, 행동적, 규범적 유산인 '순나(Sunna)'에서 발견된다. 무함마드의 말과 행동을 의미하는 '순나'는 이슬람 문명에서 쿠란을 해석하는 틀을 제공하였으며, 무슬림을 실질적인 정진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슬람 역사에서 순나가 보존되고 전달되는 단위가 바로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하디스(Hadith)'이며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 행동 그리고 습관 등을 묘사하여 담아낸 보고서이다(김능우, 2024). 쿠란과 달리 하디스는 빠르고 정확하게 정리되어 통일된 형태로 문헌화 과정을 거치지지는 못하였다. 하디스는 무함마드 사후 수 세기에 여러 주체를 거쳐 기록되고 전승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 무함마드가 실제로 말하거나 행한 것에 대한 동시대적인 역사적 기록은 될 수 없었다. 예언자의 사망 이후 무슬림 공동체는 여러 피트나²를 경험하였고, 그 속에서 하디스는 권위 투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며 조작 및 위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하디스는 예언자의 사망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오랜 구술 전승과 다양한 정치·신학적 갈등을 거치며, 권위를 둘러싼 경쟁의 장에서 조작되거나 이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고 하디스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체계화하려는 노력은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8세기 후반부터 9세기에 이르러, 하디스의 진위를 엄격히 가려내는 비평학이 발전하면서, 하디스의 전승자 체계와 내용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제도화되었다. 그 결과, 수많은 하디스 자료들 가운데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은 하디스들을 선별하여 집성한 정통 하디스집들이 출현하게 된다. al-Bukhari와 Muslim이 집대성한 하디스와 다른 네권의 주요 하디스 모음집인 Sunan Abi Dawud, Jami' at-Tirmidhi, Sunan an-Nasa'i, Sunan Ibn Majah와 함께 "6대 정통 하디스"로 불리게 되었고, 이는 이슬람 율법학과 신학의 기초가 되는 하디스 정경으로 자리매김하였다.

² 피트나(Fitna, فتن)는 유혹, 시련, 선동, 내전, 분쟁 등의 뜻을 가지는 아랍어 단어이다. 역사적인 맥락에서는 주로 내전을 의미한다.

1.2.2. 이스나드와 마튼 (Isnad/Matn) (إسناد/ماتن)

하디스의 진위를 구별하기 위해 학자들이 발전 시켜온 것이 ‘이스나드(Isnad)’와 ‘마튼(Matn)’을 분석하는 하디스 비평학이었다. 이스나드는 아랍어로 ‘지원(support)’, ‘전송자의 사슬’을, 마튼은 ‘본문 내용’, ‘텍스트’를 의미한다. 이스나드는 예언자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게 전달되어 수록되어 있는지를 추적하는 사슬이자 계보로 기능하였다. 전송자의 계보에 모순이 없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하디스로 분류하였으며, 전송자의 계보가 확실하지 않거나 전송자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구절을 약한 신용의 하디스로 분류하여 폐기하기도 하였다. 하디스가 전송되어 온 그 궤적을 추적하는 이스나드는 지식의 원천을 되살리는 무슬림 학자들의 한 방식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스나드가 그 말을 누가 전했는지에 대한 경로라면, 마튼은 그 과정에서 무함마드가 실제로 했다고 전해지는 말과 행동에 대한 내용 자체를 의미한다. 하디스를 평가할 때에는 이스나드의 연속성과 진실성, 마튼의 정확성 모두 분석의 대상이 된다.

1.2.3. 이슬람 법학과 법학파 (fiqh/madhab) (فقه/مذهب)

이슬람 법학, 피크흐(Fiqh)는 신의 뜻에 충실한 삶의 방식에 대해 다루는 샤리아.(Sharia, شريعة, 아랍어로 ‘길’을 의미)의 해석과 적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샤리아는 쿠란과 하디스를 통해 계시된 신의 절대적인 법이며,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신의 명령으로 여겨진다.³ 반면 이슬람 법학인 피크흐는 이러한 샤리아를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해석하고 구체적 현실에 적용하려는 인간의 지식 체계이며, 시대와 학파에 따라 발전하고 변화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슬람 법학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원천에 기초한다. 첫 번째는 쿠란으로, 이슬람의 최고 경전이며 일부 법적 조항이 담겨 있기는 하나 전체 법률의 세부를 모두 제공하지는 않는다. 두 번째는 하디스이며,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과 행위를 기록한 것으로 순나의 기반이 된다. 세 번째는 이즈마로, 무슬림 학자들의 합의를 통해 규범을 정립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은 키야스로, 기존 사례에 비추어 새로운 문제에 유추를 통해 법적 판단을 내리는 방법이다. 이처럼 이슬람 법학은 단순한 경전 해석을 넘어 역사적 맥락, 공동체의 판단, 논리적 추론을 통합하는 복합적인 법 체계임을 알 수 있다.

순니 이슬람 법학은 오랜 역사 속에서 네 개의 주요 학파(madhab, مذهب)⁴를 형성하였다. 먼저 하나피 학파는 이라크 출신 아부 하니파에 의해 창시되었으며 오늘날 터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에서 주로 따른다. 말리키 학파는 마디나 출신의 이맘 말리크가 창시하였으며, 지역 관습과 예언자 동시대인의 실천을 법적 근거로 삼는다. 샤피이 학파는 이맘 샤피이에 의해 정리된 법학으로, 동남아시아와 이집트 등지에서 영향력이 크다. 한발리 학파는 하디스를 최우선으로 삼는 전통주의 학파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널리 따르고 있으며 오늘날의 와하비즘과 연관된다. 오늘날 이슬람 법학은 개인의 종교 실천 뿐 아니라 금융, 윤리, 환경, 국가 통치 등 공공영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자 금지, 형벌법,

³ 이후 서술에서 fiqh/이슬람 법학은 ‘이슬람 법학’으로, Sharia/이슬람 율법/샤리아는 ‘샤리아’로 통일하여 표기한다.

⁴ 이하 ‘이슬람 법학파’로 통일.

여성의 권리, 생명윤리, 낙태 등 현대적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슬람 법학은 꾸준히 해석과 논의를 통해 답을 모색하고 있으며, 학자들은 고전적 원천에 기반하되 시대에 맞는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이슬람 법학은 종교적 실천을 넘어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포괄적 삶의 규범체계로 작동하고 있다.

1.3. 연구 대상

『40 Hadith of al-Nawawi』, 『Sahih Muslim』 2643a, 『Sahih Muslim』 2643b, 『Sahih al-Bukhari』 3208에 수록된 5개의 하디스 구절과 함께 태아와 낙태, 생명의 창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순니 4대 법학파의 법적 견해와 법률서를 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자세한 문헌 해석은 본문에서 제시하도록 한다.

1.4 연구 대상 선정 사유

1.4.1. 『Sahih al-Bukhari』, 『Sahih Muslim』

Abu ‘Abd Allah Muḥammad ibn Isma‘il ibn Ibrahim al-Ju‘fi al-Bukhari (أبو عبد الله محمد بن إسماعيل بن إبراهيم الجعفي البخاري)⁵는 “al-Jami al-musnad al-sahih al-mukhtasar min umur Rasul Allah wa sunanihi wa ayyamihi (The Abridged Authentic Compilation of the Affairs of the Messenger of God)”⁶, 오늘날 『Sahih al-Bukhari』로 불리는 책을 집필하였다. 이는 97개의 장과 이에 따른 세부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절 별 저자의 짧은 해설을 포함하고 있다. Abu al-Husayn Muslim ibn al-Hajjaj ibn Muslim ibn Ward al-Qushayri an-Naysaburi (أبو الحسين مسلم بن الحجاج بن مسلم بن ورد القشيري النيسابوري)⁷는 오늘 날 『Sahih Muslim』으로 널리 알려진 『al-Musnad』를 집필하였다. 『Sahih al-Bukhari』와 『Sahih Muslim』은 각 각 순니파의 정통 하디스를 수록하였다고 널리 받아들여지는 ‘6권의 책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컬렉션을 담당하고 있다. 6대 하디스 중 가장 정교한 정제 과정을 거쳐 뛰어난 완성도를 갖춘 『Sahih al-Bukhari』와 『Sahih Muslim』은 ‘두 정통성’이라는 의미의 ‘Sahihayn’⁸으로 불리기도 한다.

수많은 하디스 전승록들 사이에서 『Sahih al-Bukhari』와 『Sahih Muslim』이 Sahihayn으로서의 지위를 얻게 되었는데에 대해서 Jonathan Brown은 그의 저서 『The Canonization of al-Bukhari and Muslim』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이 두 저서는 시의적절성에 힘입어 공동체의 신뢰와 제도적인 권위를 확보하였고, 이는 역사적 및 사회적 조건과 맞물리며 공고하게 정전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Al-Bukhari와 Muslim은 하디스 전승을 검토할 때 이스나드에 있어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무슬림 공동체는 그들의 작업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예언자 순나의 재현으로 보았다. 이들이 남긴

⁵ 이하 Al-Bukhari. 서기 810년 Bukhara에서 출생하여 870년 Samarkand에서 사망하였다.

⁶ Abu Nasr Ahmad al-Kalabadhi(1987), ed. ‘Abdallah al Laythi, “Rijal Sahih al-Bukhari”, 2 vols, Beirut: Dar al Ma’rifa. pp.9-12

⁷ 이하 Muslim. 서기 815년 Nishapur에서 출생하여 875년 Nasarabad에서 사망하였다.

⁸ صحيح: 정통한, 옳은, 진실의 라는 의미의 아랍어 형용사. 쌍수격은 صحيحين 이다. Sahih al-Bukhari와 Sahih Muslim 을 아울러 صحيحين (Sahihayn)으로 일컫는다.

하디스 전승록은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 예배와 같은 공동체의 주요 의례 속에서 사용되었고,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쿠란 이후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저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Sahihayn’과 비슷한 시기 쿠라산 지역에서는 이들과 비견될 만한 다른 하디스 모음집들도 편찬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이븐 후자이마(Ibn Khuzayma, d. 311/923)와 무함마드 이븐 힙반 알 부스티(Muhammad ibn Hibban al-Busti, d. 965)의 『Sahih』가 그것이다. 이들은 포괄적인 법학적, 신학적 하디스를 수집했으며, 당시 순니 공동체 내에서 널리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Sahihayn’만이 정전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고, 이븐 후자이마와 이븐 힙반의 저작은 그 명성을 이어가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알 하킴 알 나이사부리(al-Hakim al-Naysaburi, d. 1014)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그는 Al-Bukhari와 Muslim의 하디스 모음집을 가장 탁월한 평가 기준으로 세웠으며, 자신의 스승이었던 이븐 힙반의 저작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알 하킴은 이븐 힙반의 『Sahih』를 두고, 그 이스나드에는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신뢰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하였다. 흥미롭게도 Al-Bukhari의 이스나드에도 당대에는 신원이 불확실한 인물이 있었지만, 후대에는 별도로 이를 식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 그 전승이 정당화되었다. 반면 이븐 힙반의 경우, 그러한 정당화의 기회를 얻지 못했고, 알 하킴의 비판은 그 전승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븐 후자이마는 이븐 힙반의 경우와는 상이했다. 그의 『Sahih』는 이스나드 상의 문제보다는, 공동체가 그의 작업에 충분한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전화 되지 못하였다. 알 하킴이 그에게 신뢰할 수 있는 법적 판단자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있어 “그것은 잘 알 수 없다”⁹며 회피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당시 그의 작업은 동시대의 신학적·법학적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Sahihayn’의 최종적 정전화는 학문적인 선택과 정치적 판단, 조건, 대상의 탁월함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였다. 내용의 질, 저자의 명성, 이스나드 검토의 엄격함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이 하디스가 공동체의 믿음과 의례 속에서 수행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사회적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학자들의 공적 승인이라는 모든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 정전은 단순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가 “우리는 이 책을 신뢰한다”고 선언하는 정치적이자 신학적인 행위의 산물이자 텍스트와 권위, 공동체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Sahih al-Bukhari』와 『Sahih Muslim』의 ‘Sahihayn’으로서의 권위가 완성되었고, 수백년의 시간동안 가장 활발히 연구되는 대상으로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Sahihayn’이 공동체가 선택하고, 반복적으로 선택되었으며 권위를 부여받은 텍스트라는 점에서 이를 대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한다.

1.4.2. 『40 Hadith of al-Nawawi』

Yahya ibn Sharaf al-Nawawi (631A.H-676A.H/1230-1277) (يحيى بن شرف النووي)¹⁰는 시리아 남쪽 나와 지역에서 출생한 순니 샤피이파 법학자이자 하디스 학자이다. 그는 이슬람 법학에 관한 기본 지식과 그

⁹ Al-Khalili (1993), al-Irshad, Mecca: Dar al-Fikr. p. 313.

¹⁰ 이하 al-Nawawi.

중요성에 대해 다루는 『al-Majmu'a』를 저술하며, “만일 샤피이 법학파의 추종자들이 법학파의 견해와 모순되는 하디스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mujtahid'¹¹, 혹은 특정 주제나 사건에 대한 부분적 'mujtahid'를 완성시키는 일이다. 우리들은 문제에 대해 탐구해야 하며, 하디스를 독립적으로 따를 권리를 가진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디스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법학파의 입장에 의문을 품고 이를 조사했는데도 하디스를 근거로 판단을 내린 전례가 있다면 그 하디스를 따라 행동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는 자신의 법학파의 이맘의 판단을 따르지 않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¹² 라는 전언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는 여러 고전 텍스트들을 충실하게 분석하고 이성을 기반으로 가장 적절한 율법 판단을 내리고자 하는 al-Nawawi의 학문적 견해를 잘 드러내는 일례가 된다.

『40 Hadith of al-Nawawi』는 al-Nawawi가 al-Bukhari와 Muslim의 'Sahihayn'으로부터 주요 구절을 발췌하고 상세한 해석을 덧붙여 편찬한 하디스의 하위 버전 중 하나이다. 이는 'arba'iniyyat'라는 하디스 문학의 하위 장르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al-Nawawi는 샤피이의 저명한 법학자였던 자신의 배경지식을 토대로 40개 구절에 대한 체계적인 해설을 제시한다. 이것은 하디스와 샤리아, 이슬람 법학 사이의 연관성을 일차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만일 하디스 텍스트 자체의 권위가 약한 경우, 이를 보완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1.4.3. 구절 선정 사유, 의의와 중요성

본 연구가 주목하는 하디스 구절은 태아의 형성과 발달 과정, 영혼의 불어넣음에 대해 다루는 전언들로, 이슬람 법학과 신학에서 '생명의 시작'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점으로 기능해왔다. 인간 생명의 시작점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낙태, 유산, 생명윤리 등 다양한 법적·윤리적 쟁점과 직결되며, 해당 하디스는 이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으로 반복적으로 인용되어 왔다. 특히 'nutfah - alaqah - mudghah'¹³의 세 단계와 그 이후 영혼이 불어넣어지는 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하디스는 단순한 생물학적 기술을 넘어서 형이상학적 인격 부여의 시점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 구절은 동일한 전언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ahih al-Bukhari』, 『Sahih Muslim』, 『40 Hadith of al-Nawawi』 등 다양한 판본에서 표현, 문장 구조, 특정 어휘의 삽입·배제 등에 있어 미묘한 차이를 보인다. 예컨대 어떤 판본은 '각 단계 별 40일이 소요됨'을 명시하는 반면, 다른 판본은 '40일 동안 3단계가 모두 이루어지'는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하디스 해석의 다원성을 발생시키며, 결과적으로 법학파 간의 입장 차이를 형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예를 들어 낙태 허용 시기에 대한 판단, 생명권 해석 등 실천적인 법학의 내용은 이 하디스의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 하디스는 과거에만 적용되었던 역사적 문헌이 아니라, 현대 무슬림 사회에서 여전히 낙태 판결,

¹¹ Mujtahid(مُجْتَهِد): 이슬람 율법에 있어 법적 판단을 내리는 자격을 가지는 이. 신용 가능한 정도에 따라 여러 분류로 세분화되기도 한다.

¹² Muhammad ibn Uthaimin (1996), Kitaab al-Ilm, Riyadh: Daar al-Tharayaa, pp. 212-213.

¹³ Nutfah는 아랍어로 한 방울의 액체, 정액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Alaqah는 혈액이 응고되어 만들어지는 혈전을 의미하며, Mudghah는 형체가 명확하게 형성되지 않은 작은 살 덩어리를 의미한다. 해당 용어들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본문에서 후술하도록 한다.

불임 치료, 태아 기증, 생명윤리 판단 등의 실제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경전의 기록을 넘어서 ‘살아있는 전통’으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당 하디스 구절을 중심으로 해석의 층위, 판본 간 차이, 그리고 그에 기반한 이슬람 법학의 실천적 적용을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하디스의 내용 및 해석의 차이

2.1.1 하디스 텍스트 해석 - 『Hadith 4, 40 Hadith al-Nawawi』

عَنْ أَبِي عَبْدِ الرَّحْمَنِ عَبْدِ اللَّهِ 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 قَالَ: حَدَّثَنَ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 وَهُوَ الصَّادِقُ الْمَصْدُوقُ -: "إِنَّ أَعْدَكُمْ يُجْمَعُ خَلْقُهُ فِي بَطْنِ أُمِّهِ أَرْبَعِينَ يَوْمًا نُطْفَةً، ثُمَّ يَكُونُ عِلْقَةً مِثْلَ ذَلِكَ، ثُمَّ يَكُونُ مُضْغَةً مِثْلَ ذَلِكَ، ثُمَّ يُرْسَلُ إِلَيْهِ الْمَلَكُ فَيَنْفُخُ فِيهِ الرُّوحَ، وَيُؤَمَّرُ بِأَرْبَعِ كَلِمَاتٍ: بِكُتُبِ رِزْقِهِ، وَأَجَلِهِ، وَشَقِيٍّ أَمْ سَعِيدٍ؛ فَوَاللَّهِ الَّذِي لَا إِلَهَ غَيْرُهُ إِنْ أَعْدَكُمْ لَيَعْمَلَنَّ بِعَمَلِ أَهْلِ الْجَنَّةِ حَتَّىٰ مَا يَكُونُ بَيْنَهُ وَبَيْنَهَا إِلَّا ذِرَاعٌ فَيَسْبِقُ عَلَيْهِ الْكِتَابُ فَيَعْمَلَنَّ بِعَمَلِ أَهْلِ الْجَنَّةِ فَيَدْخُلَهَا". [رَوَاهُ الْبُخَارِيُّ] ، [وَمُسْنَدُهُ]

알라께서 기뻐하시기를¹⁴, 아비 압둘 라흐만 압둘라 빈 마스우드가 전했다: 사도께서 (ﷺ)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 그는 진실하며 신용을 받는 사람이다 - 너희들 중 하나의 창조는 어머니의 배(자궁)에 40일간 ‘누트파’¹⁵의 형태로 모인다. 그리고 이처럼 혈전의 단계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처럼 살덩어리의 형태가 된다. 그리고 나면 천사가 그에게 보내지고 영혼을 불어넣게 된다. 그리고 천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일을 수행한다: 생명의 유지, 수명, 일, 불행과 행복을 기록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 알라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 너희들 중 하나가 본인과 그 곳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 정도의 길이가 남을 때까지 천국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면, 자신에게 기록되어 새겨진 것이 그를 제치고, 그는 지옥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 중 하나가 본인과 그 곳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 정도의 길이가 남을 때까지 지옥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면, 자신에게 기록되어 새겨진 것이 그를 제치고, 그는 천국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al-Bukhari, Muslim 전승 참조]

2.1.2. 『Sahih al-Bukhari』, Beginning of Creation, Book 59, Hadith 19

حَدَّثَنَا الْحَسَنُ بْنُ الرَّبِيعِ، حَدَّثَنَا أَبُو الْأَخْوَصِ، عَنِ الْأَعْمَشِ، عَنْ زَيْدِ بْنِ وَهْبٍ، قَالَ عَبْدُ اللَّهِ حَدَّثَنَ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هُوَ الصَّادِقُ الْمَصْدُوقُ قَالَ " إِنَّ أَعْدَكُمْ يُجْمَعُ خَلْقُهُ فِي بَطْنِ أُمِّهِ أَرْبَعِينَ يَوْمًا، ثُمَّ يَكُونُ عِلْقَةً مِثْلَ ذَلِكَ، ثُمَّ يَكُونُ مُضْغَةً مِثْلَ ذَلِكَ، ثُمَّ يُنْفِثُ إِلَيْهِ الْمَلَكُ، فَيُؤَمَّرُ بِأَرْبَعِ كَلِمَاتٍ، وَيُقَالُ لَهُ اكْتُبْ عَمَلَهُ وَرِزْقَهُ وَأَجَلَهُ وَشَقِيٍّ أَوْ سَعِيدٍ. ثُمَّ يُنْفِثُ فِيهِ الرُّوحَ، فَإِنَّ الرَّجُلَ مِنْكُمْ لَيَعْمَلَنَّ حَتَّىٰ مَا يَكُونُ بَيْنَهُ وَبَيْنَ الْجَنَّةِ إِلَّا ذِرَاعٌ، فَيَسْبِقُ عَلَيْهِ كِتَابُهُ، فَيَعْمَلَنَّ بِعَمَلِ أَهْلِ الْجَنَّةِ حَتَّىٰ مَا يَكُونُ بَيْنَهُ وَبَيْنَ النَّارِ إِلَّا ذِرَاعٌ، فَيَسْبِقُ عَلَيْهِ الْكِتَابُ، فَيَعْمَلَنَّ بِعَمَلِ أَهْلِ الْجَنَّةِ ".

알라의 사도께서 (ﷺ) - 그는 진실하며 신용을 받는 사람이다 - 우리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압둘라, 자이드 빈 와흐비, 암마쉬, 아부 아흐와시, 알 하산 빈 알라비이가 전하였다. 너희들 중 하나의 창조는

¹⁴ 이는 ‘عَنْ أَبِي عَبْدِ الرَّحْمَنِ عَبْدِ اللَّهِ بْنِ مَسْعُودٍ رَضِيَ اللَّهُ عَنْهُ’를 번역한 것으로, 직역한다면 ‘알라께서 그에 대해 만족해하시기를’이라는 의미이다. 주로 예언자 무함마드의 동료들 언급할 때 그 대상에 대한 존경과 축복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해당 하디스의 경우 전승자인 이븐 마스우드에게 하느님의 기쁨과 축복을 기원하는 것이 된다.

¹⁵ نُطْفَةٌ(Nutfa)는 ‘to dribble’, ‘to trickle’, ‘to flow’, ‘to spill’이라는 동사형 어근을 가지며, 복수형 نُطَفٌ(Nutaf)는 액체의 방울이라는 의미를 기초로 하여 ‘남성의 정액’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된다. 이 단어가 가진 함의는 본론 2.2.1.에서 후술 예정이다.

어머니의 배(자궁)에서 40일 동안 모인다. 그리고 이처럼 혈전의 단계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처럼 살 덩어리의 형태가 된다. 그리고 나면 알라께서 천사를 보내신다. 그리고 천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일을 수행한다. 천사는 그에게 그의 행동과 생명의 유지, 수명, 불행 또는 행복을 새기도록 명받는다. 그 후 천사는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는다. 너희들 중 한 남자가 그와 천국 사이 거리가 팔 하나 정도의 길이가 남을 때까지 일¹⁶을 수행하면, 그에게 기록되어 새겨진 것이 그를 제치고, 그는 지옥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그와 지옥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 정도 남았을 때, 그에게 기록되어 새겨진 것은 그를 제치고, 그는 천국의 행동을 수행하게 된다.

2.1.3. 『Sahih Muslim』, The Book of Destiny, Book 46, Hadith 1

حَدَّثَنَا أَبُو بَكْرِ بْنُ أَبِي شَيْبَةَ، حَدَّثَنَا أَبُو مُعَاوِيَةَ، وَوَكَيْعٌ، ح 7 أَوْحَدَنَا مُحَمَّدُ بْنُ عَبْدِ اللَّهِ بْنِ لُمَيْرٍ الْهَمْدَانِيُّ - وَاللَّفْظُ لَهُ 18- حَدَّثَنَا أَبِي وَأَبُو مُعَاوِيَةَ وَوَكَيْعٌ قَالُوا حَدَّثَنَا الْأَعْمَشُ، عَنْ زَيْدِ بْنِ وَهْبٍ، عَنْ عَبْدِ اللَّهِ، قَالَ حَدَّثَنَا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وَهُوَ الصَّادِقُ الْمَصْدُوقُ 19 "إِنَّ أَحَدَكُمْ يُجْمَعُ خَلْقُهُ فِي بَطْنِ أُمِّهِ أَرْبَعِينَ يَوْمًا ثُمَّ يَكُونُ فِي ذَلِكَ عِلْقَةً مِثْلَ ذَلِكَ ثُمَّ يَكُونُ فِي ذَلِكَ مُصْنَعَةً مِثْلَ ذَلِكَ ثُمَّ يُرْسَلُ الْمَلَكُ فَيَنْفُخُ فِيهِ الرُّوحَ وَيُؤَمَّرُ بِأَرْبَعِ كَلِمَاتٍ بِكُتُبٍ رَزَقَهُ وَأَجَلِهِ وَعَمَلِهِ وَشَقِيٌّ أَوْ سَعِيدٌ فَوَالَّذِي لَا إِلَهَ غَيْرُهُ إِنْ أَحَدَكُمْ لَيَعْمَلُ بِعَمَلِ أَهْلِ الْجَنَّةِ حَتَّى مَا يَكُونُ بَيْنَهُ وَبَيْنَهَا إِلَّا ذِرَاعٌ فَيُسَبِّقُ عَلَيْهِ الْكَتَابُ فَيَعْمَلُ بِعَمَلِ أَهْلِ النَّارِ فَإِنَّ أَحَدَكُمْ لَيَعْمَلُ بِعَمَلِ أَهْلِ النَّارِ حَتَّى مَا يَكُونُ بَيْنَهُ وَبَيْنَهَا إِلَّا ذِرَاعٌ فَيُسَبِّقُ عَلَيْهِ الْكِتَابُ فَيَعْمَلُ بِعَمَلِ أَهْلِ الْجَنَّةِ فَيَدْخُلُهَا".

알라의 사도께서 (ﷺ) - 그는 진실하며 신용을 받는 사람이다 - 우리에게 전하였다는 것을 1)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자이드 이븐 와합, 알 아오마쉬, 아부 무아위야, 그리고 와키 이븐 알 자라흐, 아부 바크르 이븐 아비 샤이바가 우리에게 전하였다. 2)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자이드 이븐 와합, 알 아오마쉬, 압둘라 이븐 누마이크 (무함마드 이븐 합둘라 이븐 누마이크의 아버지), 아부 무아위야 그리고 와키,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이븐 누마이크가 우리에게 전하였다.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이븐 누마이크 알 함다니의 말에 의하면, 너희들 중 하나의 창조는 어머니의 배(자궁)에 40일간 모인다. 그리고 이처럼 혈전의 단계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처럼 살 덩어리의 형태가 된다. 그리고 나면 천사가 그에게 보내지고 영혼을 불어넣게 된다. 그리고 천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일을 수행한다: 생명의 유지, 수명, 일, 불행과 행복을 기록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 알라 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 너희들 중 하나가 본인과 그 곳 사이의 거리가 팔 하나 정도의 길이가 남을 때까지 천국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면, 자신에게 기록되어 새겨진 것이 그를 제치고, 그는 지옥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고 지옥에 가게 된다. 그리고 너희들 중 하나가 본인과 그 곳 사이 거리가 팔 하나 정도의 길이가 남을

¹⁶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은 나와있지 않다.

¹⁷ 하디스 본문에 나오는 "ح" (hā')는 하디스 전승 방식 중 '병렬 전승'을 나타내는 기호이다.

두 개 이상의 이스나드(전승 경로)가 하나의 본문(matn)을 공유할 때 사용된다.

"ح"는 아랍어로 "hā' al-tahwīl (حاء التحويل)"를 줄여서 표현한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환'을 의미한다.

¹⁸ وَاللَّفْظُ لَهُ : '그 사람의 용어, 표현에 따르면'의 의미. 하나의 matn이 여러 사람을 통해 전달되었을 때, 그 중 누구의 본문 기준으로 이 텍스트를 정리하였는지 명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현이다. 해당 하디스 본문에서는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이븐 누마이크가 전한 표현을 기준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¹⁹ 다중 전승 경로가 나타난다. 첫 번째 전승 라인으로는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합 -> 알 아오마쉬 -> 아부 무아위야, 그리고 와키 이븐 알 자라흐 -> 아부 바크르 이븐 아비 샤이바" 순이며,

두 번째 전승 라인으로는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합 -> 알 아오마쉬 -> 압둘라 이븐 누마이크 (무함마드 이븐 합둘라 이븐 누마이크의 아버지) + 아부 무아위야 + 와키 ->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이븐 누마이크" 순서로 나타난다.

때까지 지옥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면, 자신에게 기록되어 새겨진 것이 그를 제치고, 그는 천국의 사람들의 행동을 수행하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2.1.4. 『Sahih Muslim』, The Book of Destiny, Book 46, Hadith 2

حَدَّثَنَا عُثْمَانُ بْنُ أَبِي شَيْبَةَ، وَإِسْحَاقُ بْنُ إِسْرَاهِيمَ، كِلَاهُمَا عَنْ جَرِيرِ بْنِ عَبْدِ، الْحَمِيدِ ح وَحَدَّثَنَا إِسْحَاقُ بْنُ إِسْرَاهِيمَ، أَخْبَرَنَا عِيسَى بْنُ يُونُسَ، ح وَحَدَّثَنَا أَبُو سَعِيدٍ، الْأَشْجِيُّ حَدَّثَنَا وَكِيعٌ، ح وَحَدَّثَنَا عَبْدُ اللَّهِ بْنُ مُعَاذٍ، حَدَّثَنَا أَبِي، حَدَّثَنَا شُعْبَةُ بْنُ الْحَجَّاجِ، كُلُّهُمْ عَنْ الْأَعْمَشِ، بِهَذَا الْإِسْنَادِ²⁰ . قَالَ فِي حَدِيثِ وَكِيعٍ " إِنَّ خَلْقَ أَحَدِكُمْ يُجْمَعُ فِي بَطْنِ أُمِّهِ أَرْبَعِينَ لَيْلَةً " . وَقَالَ فِي حَدِيثِ مُعَاذٍ عَنْ شُعْبَةَ " أَرْبَعِينَ لَيْلَةً أَرْبَعِينَ يَوْمًا " . وَأَمَّا فِي حَدِيثِ جَرِيرٍ وَعِيسَى " أَرْبَعِينَ يَوْمًا " .

1) 자리르 이븐 압둘 하미드가 우리에게 전했다는 것을 우스만 이븐 아비 샤이바와 이스하크 이븐 이브라힘이 우리에게 전하였다. 2) 이사 이븐 유누사가 우리에게 전했다는 것을 이스하크 이븐 이브라힘이 전하였다. 3) 와키이 이븐 알 자라흐가 우리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아부 사이드 알 아슈즈가 전하였다. 4) 샤으바 이븐 알 핫자즈가 무아드 이븐 무아드에게 전하고 그것을 아비드 알라 이븐 무아드가 전하였다. 이 모든 전승은 알 아오마쉬의 이스나드를 따라 전해졌다. 와키이의 이야기에 따르면, 너희들 중 하나의 창조는 어미의 배(자궁)에서 40번의 밤 동안 모인다고 한다. 그리고 슈으바를 통해 무아드가 전해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40번의 밤과 40번의 날' 동안이라고 하였으며, 자리르와 이사의 전승에 따르면 '40일' 동안이라고 한다.

2.1.5. 『Sahih Muslim』, The Book of Destiny, Book 46, Hadith 4

حَدَّثَنِي أَبُو الطَّاهِرِ، أَحْمَدُ بْنُ عَمْرٍو بْنِ مَرْحُوحٍ أَخْبَرَنَا ابْنُ وَهْبٍ، أَخْبَرَنِي عَمْرُو، بْنُ الْخَارِثِ عَنْ أَبِي الرَّبِيعِ الْمَكِّيِّ، أَنَّ عَامِرَ بْنَ وَائِلَةَ، حَدَّثَهُ أَنَّهُ، سَمِعَ عَبْدَ اللَّهِ بْنَ مَسْعُودٍ، يَقُولُ الشَّقِيُّ مَنْ شَقِيَ فِي بَطْنِ أُمِّهِ وَالسَّعِيدُ مَنْ وَعِظَ بَغِيرِهِ . فَأَتَى رَجُلًا مِنْ أَصْحَابِ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لَهُ حَدِّثْنِي عَنْ أَبِي سَعِيدٍ الْغِفَارِيِّ فَحَدَّثَهُ بِذَلِكَ مِنْ قَوْلِ ابْنِ مَسْعُودٍ فَقَالَ وَكَيْفَ يَشْقَى رَجُلٌ بَغِيرَ عَمَلٍ فَقَالَ لَهُ الرَّجُلُ أَتَعْجَبُ مِنْ ذَلِكَ فَأَتَى سَمِيعُ بْنُ رَسُولِ اللَّهِ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يَقُولُ " إِذَا مَرَّ بِالطُّفَةِ ثُبَّتَانِ وَأَرْبَعُونَ لَيْلَةً بَعَثَ اللَّهُ إِلَيْهَا مَلَكًا فَصَوَّرَهَا وَخَلَقَ سَمْعَهَا وَبَصَرَهَا وَجِلْدَهَا وَلَحْمَهَا وَعَظْمَهَا .

아부 타히르 아흐마드 이븐 아무르 이븐 사르흐가 전하고, 그는 이븐 와함으로부터, 그는 아무르 이븐 알-하리스로부터, 그는 메카 출신 아부 주바이르로부터 전해, 그는 아미르 이븐 와실라로부터 들었다고 전한다. 아미르는 마스우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불행한 자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불행하며, 행복한 자는 타인을 통해 교훈을 얻는 자다.” 그리하여 아미르 이븐 와실라는 예언자의 동료 중 하나인 후다이파 이븐 아스이드 알-기파리를 찾아가 이븐 마스우드의 이 말을 전했다.

그러자 후다이파는 말했다: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한 사람이 불행하게 되는 단 말입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말했다:

“그게 놀랍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도(ﷺ)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누트파(nutfa, 정액)’가 42일을 지나면, 알라(ﷻ)가 그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는 그를 형상화하며, 그의 청각, 시각, 피부, 살, 그리고 뼈를 창조합니다.”

²⁰ 4개의 다중 전승이 나타난다.

1.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함) -> 알 아오마쉬 -> 자리르 이븐 압둘 하미드 -> 우스만 이븐 아비 샤이바 + 이스하크 이븐 이브라힘
2.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함 -> 알 아오마쉬 -> 아이사 이븐 유누사 -> 이스하크 이븐 이브라힘
3.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함 -> 알 아오마쉬 -> 와키이 이븐 알 자라흐 -> 아부 사이드 알아슈즈
4.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함 -> 알 아오마쉬 -> 샤으바톤 이븐 알 핫자즈 -> 무아드 이븐 무아드 -> 아비드 알라 이븐 무아드

III. 하디스의 다중 해석: 어휘, 구조, 전승자의 경계에서

3.1. 용어 نُطْفَةٌ Nutfa의 삽입

نُطْفَةٌ(Nutfa)는 نطف(Nataf)는 ‘to dribble’, ‘to trickle’, ‘to flow’, ‘to spill’이라는 동사형 어근을 가지며, نُطْفَةٌ(Nutfa), 복수형 نطف(Nutaf)는 액체의 방울이라는 의미를 기초로 하여 일반적으로 ‘남성의 정액’으로 해석된다.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Al-Nawawi의 하디스 구절 (1), Bukhari의 하디스 구절 (2), Muslim의 하디스 구절 (3)은 같은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거의 차이가 없는 유사한 문장 구조와 내용이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 주목해야 할 지점은 Al-Nawawi의 하디스 텍스트에 등장하는 ‘نُطْفَةٌ(Nutfa)’라는 단어이다. Bukhari의 하디스와 Muslim의 하디스는 생명 창조의 단계를 1) 자궁에 모임, 2) 혈전(Alaqa), 3) 살 덩어리(Mudghag)의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2단계의 혈전 상태와 3단계의 살 덩어리 형태처럼 구체적인 용어(Alaqa/Mudghah)를 제시한 것과 다르게 1단계는 ‘자궁에 모여든다’라고 서술하며 구체적인 형태와 용어는 제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상기 두 하디스에 비해 비교적 이후에 편찬된 Al-Nawawi의 하디스 본문의 경우엔 ‘نُطْفَةٌ(Nutfa, 방울, 정액)’이라는 특정 용어가 추가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해당 어휘의 추가로 al-Nawawi의 텍스트는 생명 창조의 단계가 1) 정액의 형태로 자궁에 모임(Nutfa), 2) 혈전(Alaqa), 3) 살 덩어리(Mudghah)²¹로 제시되며 의미가 비교적 구체화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하디스의 두 정본에서는 활용되지 않은 어휘를 al-Nawawi가 텍스트에 추가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철저한 검증을 통한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는 Ijtihad의 전통을 추종하였던 그의 학문적 경향으로 미루어 보아, 쿠란과 같은 절대적 권위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기존 하디스 모음집의 모호한 지점들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쿠란 75:36-40 (Surah al-Qiyamah)

- > أَيَحْسَبُ الْإِنْسَانُ أَنْ يُتْرَكَ سُدًى
- > أَلَمْ يَكُنْ نُطْفَةً مِنْ سَنِيٍّ يُنْفِى
- > ثُمَّ كَانَ عَلَقَةً فَخَلَقَ فَسَوَّى
- > فَجَعَلَ مِنْهُ الزَّوْجَيْنِ الذَّكَرَ وَالْأُنثَى
- > أَلَيْسَ ذَلِكَ بِقَادِرٍ عَلَى أَنْ يُخْبِيَ الْمَوْتَى

“인간은 자신이 내버려질 존재라고 생각하는가?

그는 배출된 한 방울의 누트파가 아니었는가?

그 다음 그는 알라까가 되었고,

알라는 그를 창조하여 균형 있게 형상 지으셨다.

그리고 그로부터 남성과 여성을 만드셨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이가 바로 그분이 아니신가?”

쿠란 53:45-46 (Surah an-Najm)

- > وَأَنَّهُ خَلَقَ الزَّوْجَيْنِ الذَّكَرَ وَالْأُنثَى
- > مِنْ نُطْفَةٍ إِذَا تُنْفِى

²¹ 이후 세 단계에 대한 용어는 ‘누트파/알라까/무드가’로 통일한다.

“그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한 쌍을 창조하셨다.

정액이 사출될 때 나오는 누트파로부터.”

쿠란 56:58-59 (Surah al-Waqi'ah)

> أَفَرَأَيْتُمْ مَا تُثْنُونَ

> أَأَنْتُمْ تَخْلُقُونَهُ أَمْ نَحْنُ الْخَالِقُونَ

“너희가 사출하는 정액을 보지 못하였느냐?

그것을 창조하는 것이 너희냐, 아니면 우리가 창조자인가?”

이처럼 쿠란은 인간 창조의 가장 첫 단계를 누트파, 정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al-Bukhari의 텍스트와 Muslim의 텍스트에는 어머니의 배에 모이게 된다는 서술만 존재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생명 창조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존재한다. al-Nawawi는 이러한 모호성을 해소하고 더욱 명확한 하디스 해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쿠란에 언급되어 있어 정당성이 확보된 누트파(نُطْفَة, Nutfa)라는 용어를 부가적으로 추가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3.2. 생명의 창조에 소요되는 시간 - 40일 설과 120일 설

또 다른 추론으로는 '누트파'의 추가로 태아 형성 과정과 이에 상응하는 기간에 있어서 상충되는 두 견해 사이 긴장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Al-Nawawi의 하디스 구절 (1), al-Bukhari의 하디스 구절 (2), Muslim의 하디스 구절 (3) 모두 태아 형성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그 소요 기간에 있어서는 두 가지 상이한 해석이 존재한다. 먼저 세 구절 모두 생명 창조 과정에 있어 4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40일이라는 기간이 각 단계마다 소요되어 총 120일이라는 기간이 걸리는 것인지, 혹은 3단계 전부 포함하여 40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너희들 중 하나의 창조는 어머니의 배(자궁)에 40일간 '누트파'의 형태로 모인다. 그리고 이처럼 혈전의 단계가 된다. 그리고 그 다음, 이처럼 무드가의 형태가 된다.”

40일이라는 기간이 제시된 후 '그리고 이처럼', '그렇게', '그와 같이', '그와 같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مِثْلُ**가 반복되어 문장을 연결한다. **مِثْلُ**는 후행하는 단어와 성격이 동일하거나, 혹은 구체적인 예시가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며 **كَذَلِكَ**는 '그것'이라고 해석되는 지시대명사이다. 생명 창조 기간 총 120일 설과 40일 설이 각축을 다투는 지점은 바로 이 표현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는 **كَذَلِكَ**라는 대명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선행 명사에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مِثْلُ** **كَذَلِكَ**가 앞서 언급한 40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지칭한다고 상정하는 경우, 각 단계마다 40일이 소요되어 총 120일이 소요된다는 해석이 도출된다. 이와 다르게 **كَذَلِكَ**가 선행 기간을 받는 대명사가 아닌, 누트파 상태에서 알라까 상태로, 마지막으로 무드가 상태로 이행하는 과정 자체의 유사성과 그 방식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경우 세 단계 모두는 40일 내에 이루어지고 종결되는 것이다.

Jamal Ahmed Badi(2002)는 al-Nawawi가 자신의 하디스 모음집에 '누트파'라는 용어를 추가한 까닭도 태아 창조 40일 설과 120일 설 사이의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al-Bukhari와 Muslim의 하디스에는 생명 창조의 가장 첫 단계에 어머니의 자궁에서 어떠한 형태로 40일간 모이게 되는지, 구체적인 형태와 방식에 대한 언급은 나와있지 않다. 그렇기에 해당 과정이 3단계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지, **مثل ذلك**라는 표현이 40일이라는 시간을 대명사로 받는 것인지, 혹은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장소 혹은 태아가 발달하는 과정의 유사성을 의미하는 것인지 더욱이 모호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누트파’를 삽입하게 되면 태아 형성의 첫 단계가 정액의 형태라는 구체적인 양태가 잡히게 되고, 누트파 -> 알라까 -> 무드가라는 세 단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용어가 부여되며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는 단순히 한 단어의 삽입이 아닌, 하디스 문장 전체의 구조와 흐름을 구체화시키는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에 이러한 목적으로 ‘누트파’라는 단어를 자신의 하디스 모음집에 추가한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해진다.

120일 설과 40일 설 중 주류를 이루는 해석은 120일 설이다. Ibn Hajar al-Asqalani의 ‘Fath al-Bari’, al-Nawawi의 ‘Sharh Sahih Muslim’, 그리고 Ibn Rajab al-Hanbali의 ‘Jami‘ al-‘Ulum wa-l-Hikam’ 하디스 주석서에는

"قوله: (مثل ذلك) أي: في المدة"

“그의 말씀에서 ‘مثل ذلك’는 바로 (앞의) 기간을 의미한다.”

— Fath al-Bari, 3208 حديث رقم شرح

"مثل ذلك في المدة عند الجمهور"

“‘مثل ذلك’는 대다수 학자들(jumhur)의 견해에 따르면 그 기간을 가리킨다.”

— Jami‘ al-‘Ulum wa-l-Hikam, شرح الحديث الرابع (Hadith 4 from 40 al-Nawawi)

라는 기술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고전 하디스 학자들의 전통적이고 주류를 이루는 해석에 의하면, **مثل ذلك**는 직전의 ‘40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각의 단계가 40일씩 지속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누트파 상태로 40일, 알라까로 40일, 무드가로 40일이 지나 총 120일이 되었을 때 영혼(روح)이 주입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다수의 이슬람 법학 학파에서도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낙태 허용 시점을 설정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학파는 영혼 주입이 일어나지 않은 120일 이전까지는 제한적으로 낙태가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이후에는 자궁 속 태아도 명백한 생명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본다. 이와 관련된 법학적 논의는 이후 서술하도록 한다.

반면에 일부 현대 하디스 학자들은 현대 의학의 최신 학문적 경향을 반영하여 대안적 해석을 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우엔 **مثل ذلك**를 단순히 앞선 상태와 유사한 방식 또는 과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경우 각 단계가 40일씩 지속된다는 해석이 아니라 전체 발달 과정이 40일 이내에 일어날 수 있다는 의미 관계가 완성된다. 이러한 해석은 특히 현대 생물학 및 의학에서 말하는 태아 발달 속도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시도에서 두드러진다.

몇몇 하디스 학자들은 또한 **مثل ذلك**를 처음의 40일을 반복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따라서 모든 단계가 총 40일 안에 이루어진다고 재해석하기도 한다. 실제로 본고의 분석 대상 4번에 해당하는 Muslim의 『Sahih Muslim』에서도 40일 (혹은 40일 밤, 40일 낮과 40일 밤)이 지나면 태아가 완성되고 천사가 그에게 영혼을 불어넣는다는 명백한 서술을 찾아볼 수도 있다. 학자들은 영혼이 불어넣어지는 시점은 무드가 단계를 지난 직후, 즉 태아가 인간의 형상을 갖추기 시작할 때임을 동의하여 왔다. 현대

의학은 이 시점이 약 6주차임을 확인해 주며, 이는 120일 설보다는 40일 설에 더욱이 가깝다. 결국 영혼이 40일 이후에 곧바로 불어넣어진다는 해석은 전통적으로 다수가 받아들인 120일 설보다 현대 의학과 조화를 이루며 더욱이 강력한 주장을 이룬다고도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배아 발생(embryogenesis)’의 지식에 비추어볼 때, 6주차 무렵이면 심장 박동과 신경 활동이 이미 시작된 상태이자 장기 형성(organogenesis)이 이미 시작된 상태로 이는 주류를 이루는 120일 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한다. (Akita, 2022)

3.3. 40일의 낮 / 40일의 밤과 40일의 낮 / 40일의 밤

앞서 언급한 분석 대상 하디스 (4), Muslim의 『Sahih Muslim』 The Book of Destiny, Book 46, Hadith 2에서는 (1),(2),(3)번 하디스 구절과는 그 구조와 성격을 달리한다. 먼저 4개의 다중 전승이 나타난다. (3)번 하디스 구절 또한 2개의 다중전승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경우는 전승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Muslim의 『Sahih Muslim』 The Book of Destiny, Book 46, Hadith 2에서는

1.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합) -> 알 아흐마쉬 -> 자리르 이븐 압둘 하미드 -> 우쓰만 이븐 아비 샤이바 + 이스하크 이븐 이브라힘
2.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합) -> 알 아흐마쉬 -> 아이사 이븐 유누사 -> 이스하크 이븐 이브라힘
3.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합) -> 알 아흐마쉬 -> 와키이 이븐 알 자라흐 -> 아부 사이드 알아슈즈
4. 예언자 무함마드 -> (압둘라 이븐 마스우드 -> 자이드 이븐 와합) -> 알 아흐마쉬 -> 샤야바툼 이븐 알 핫자즈 -> 무아드 이븐 무아드 -> 아비드 알라 이븐 무아드

라는 다소 복잡한 4개의 다중 전승 구조가 나타나며 이에 따라 내용상의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자리르의 전승에서는 (전승 1번) 태아가 형성되는 기간을 40일이라고 전하며, 무아드 (전승 4번)에서는 ‘40일의 밤과 40일의 낮’으로 전승하였으며 와키이 (전승 3번)에 따르면 40일 밤 동안이라고 하디스 전언을 전하고 있다.

Ibn Hajar al-Asqalani의 Tahdhib al-Tahdhib을 참고해보면 Ibn Rajab, al-Nawawi 등 여러 하디스 학자, 법학자들은 해당 하디스에 언급된 전승자인 al-A‘mash (الأعمش), Shu‘bah (شعبة بن الحجاج), Waki‘ ibn al-Jarrah, Jarir ibn‘ Abd al-Hamid, Mu‘adh ibn Mu‘adh 모두 하디스 비평에 있어 ‘신용 가능’하거나 ‘하디스 전승의 지도자’로 평가한다. 전승자가 전원 하디스 전승에서 신뢰받는 인물이라는 점, 또한 낮과 밤이라는 여러 확정되지 않는 표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의미 관계를 뒤바꾸어 버리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본문 전체의 신뢰성 자체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하디스 본문에 다중 전승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다양한 표현들을 가감없이 제시하면서, 구술 전승의 전통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변이로 합의하여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 주목하여야 하는 점은 해당 하디스는 생명 창조의 과정을 ‘40일’로 명시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이다. 이는 40일씩 3단계를 거친다는 120일 설의 전통적인 하디스 해석의 주류 흐름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역으로 현대 생물학적 지식과 비교적 정확히 들어맞아 해당 하디스 구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IV. 하디스와 이슬람 법학의 연결 지점

4.1. 샤리아, 이슬람 법학, 그리고 법학과

샤리아(شريعة, Shari'a)는 아랍어 어원으로 '길(path)'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이슬람의 법(Islamic law)으로 해석된다. 피크흐(فقه, Fiqh)는 '완전한 이해', '깊은 이해'라는 의미를 지닌 어근을 가지며 '이슬람 법학'으로 해석된다. 샤리아와 이슬람 법학 모두 이슬람의 교리를 토대로 한 법적 규범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공유하지만, 여러 측면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는 개념들이다.

샤리아는 인간이 일상생활 속에서 신과 타인과 함께 맺는 관계를 바른 길로 이끌어주기 위해 알라가 계시한 일련의 규범으로 정의할 수 있다. 샤리아는 세계의 다른 법 체계와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 샤리아를 논의하는 학문을 이슬람 법학(Fiqh)이라 부르며, 해당 용어는 상술했듯 언어적 어원상 '영리함', '이해', '통찰'을 의미하는 아랍어에서 유래하였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발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한다. 샤리아는 불변하고 영원한 알라의 계시이며, 이슬람 법학은 그 뜻을 해석하려는 인간의 이성적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 때문에 이슬람 법학은 시간, 장소,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유동적이고 유연한 성격을 지니며, 샤리아와는 상반되는 성질을 가진다. 이슬람 법학을 통한 샤리아 해석은 반드시 정당한 규범을 따라야 하며, 잘못된 해석이나 오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샤리아는 오직 쿠란과 순나에서 유래한 계시에 기초하는 반면, 이슬람 법학은 지식과 추론에 기초하여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인간 이성의 산물이다.

인간의 지식과 추론에 기초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확일적이지 않고 다원화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특정한 견해를 지지하는 무슬림들이 모여 동일한 법학적 체계를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법학파'가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법학파의 초기 주요 활동지는 이라크 바그다드, 쿠파, 바스라였고 이에 이어 메디나와 메카, 다마스쿠스 또한 중심 무대로 등장하였다. 메디나 지역은 하디스의 발원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전통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졌으며 이라크 지역은 보다 개방적이고 이성을 기반으로 한 해석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후 9세기 초에 이르러 종래 법학파를 지리적 연고에 따라 분류하는 경향이 점차 약해졌으며, 압바스조 초기에 이르러 4대 법학파가 출현하게 된다.

이슬람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순니 정통 4대 법학파는 하나피 학파, 말리키 학파, 샤피이 학파, 한발리 학파이다. 이들은 모두 샤리아의 해석과 적용을 위한 법학적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이슬람의 다양한 지역과 시대에서 각각 고유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순니파 4대 정통 법학파 중 가장 먼저 성립한 학파는 아부 하니파(Abu Hanifa, 699-767)가 초대로 이끌었던 하나피

학파(Hanafi)이다. 이 학파는 이라크 쿠파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였으며, 이성과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합리주의적 성향이 특징이다. 아부 하니파는 쿠란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개인적 견해인 라이(ra'y)와 유추(끼야스)를 적극 활용하여 법적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경향은 이 학파가 ‘이성의 사람들’(ahl al-ra'y)로 불릴 정도로, 전통보다는 실용성과 융통성을 중시하는 태도로 이어졌다. 따라서 하나피 학파는 비교적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실생활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학 체계를 발전시켰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도 터키,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지에서 가장 널리 확산된 학파로 자리잡고 있다.

말리키 학파(Maliki)는 메디나 출신인 이맘 말리크(Malik b. Anas, 711–795) 창시의 법학파이다. 예언자의 도시에서 전해지는 관습과 전통, 즉 메디나 순나를 매우 중요한 법원의 근거로 삼았다. 말리키 학파는 하디스를 중시하면서도, 공동체의 합의(이즈마, Ijma')와 공공의 이익(마슬라하, maslahah)을 일정 부분 고려하여 법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해석 방식은 신중하고 보수적인 편에 속한다. 이 학파는 북아프리카 지역과 과거 안달루시아 지역에서 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등지에서 주요한 법학파로 존속하고 있다.

샤피이 학파(Shāfi'i)는 이맘 샤피이(as-Shāfi'i, 767–820)에 의해 발전 및 체계화된 학파이다. 이맘 샤피이는 이슬람 법학의 이론적 기틀을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으며, 이슬람 법의 네 가지 법원—쿠란, 하디스(순나), 이즈마, 끼야스—를 명확히 정리하였다. 특히 샤피이는 순나의 개념을 예언자의 하디스로 한정하여 정의하였고, 하디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스나드와 마튼의 신빙성을 중시하였다. 그는 이성적 추론의 사용을 제한하며, 하디스와 꾸란에 근거한 명시적 판단을 우선시했다. 이 학파는 해석과 체계 면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며, 현재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와 이집트, 시리아 등지에서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

순니파 전통 4대 법학파의 마지막은 한발리 학파(Hanbali)로 아흐마드 이븐 한발(Ahmad b. Hanbal, 780–855)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븐 한발은 철저한 전통주의자였으며, 쿠란과 하디스를 제외한 다른 법원들, 특히 이즈마나 유추의 경우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수용하였다. 이 학파는 문자적 해석을 중시하며, 이성과 사회적 고려보다 계시된 본문을 엄격하게 따르려는 보수적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비교적 폐쇄적이고 경직된 해석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와하비즘(Wahhabism)의 근간이 되며 정치적·종교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4.2. 태아와 낙태에 대한 4대 법학파의 개념, 샤리아적 필요

‘태아(الجنين)’는 아랍어 ‘جَنًى’를 어원으로 가지며 이는 ‘뱃다, 숨기다’를 의미한다. 자궁 안에 숨겨져 뿔혀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해당 어원을 채택하고 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의학적 관점에서 태아란 임신 중에 형성되는 생명체로, 이는 모체의 자궁 안, 혹은 시험관 외부에서 성장 중인 상태로 간주할 수 있다. 하나피 학파, 말리키 학파, 샤피이 학파, 한발리 학파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자궁 안에 있는 생명체라는 언어적 정의와 일치하는 견해를 따른다. 일부 샤피이 학파의 학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수정란이 응고된 혈액 (علقة, 알라까)이나 씹은 고기처럼 보이는 것(مضغة, 무드가) 상태를 지난 후에야 태아라 정의된다고 보았다(al-Muzani, 1974).

순니 정통 4대 법학파는 쿠란 구절인

وَلَقَدْ خَلَقْنَا الْإِنْسَانَ مِنْ سُلَالَةٍ مِنْ طِينٍ (12) ثُمَّ جَعَلْنَاهُ نُطْفَةً فِي قَرَارٍ مَكِينٍ (13) ثُمَّ خَلَقْنَا النُّطْفَةَ عَلَقَةً فَخَلَقْنَا الْعَلَقَةَ مُضْغَةً فَخَلَقْنَا الْمُضْغَةَ عِظْمًا فَكَسْنَا الْعِظْمَ لَحْمًا ثُمَّ أَنْشَأْنَاهُ خَلْقًا آخَرَ فَتَبَارَكَ اللَّهُ أَحْسَنُ الْخَالِقِينَ

(سورة المؤمنون 11,12,13)

“분명히 우리는 인간을 진흙에서 추출한 정수(精髓)로부터 창조하였다.”

“그 다음 우리는 그를 안전한 곳에 위치한 누트파로 만들었다.”

“그런 다음 정액을 응고된 핏덩이로 만들고, 그 알라까를 작은 고깃덩이로 만들며, 그 무드가에 뼈를 형성하고, 그 뼈에 살을 입혔다. 그 후 우리는 그를 또 다른 존재로 새롭게 창조하였다.” (민는 자들의 장 11,12,13)

을 기반으로 하여 태아의 발달 단계를 누트파(نطفة, Nutfa, 정액) 이자 수정란 상태, 다음으로 혈전과도 같은 알라까(علقة, Alaqā) 상태, 무드가(مضغة, Mudgha) 상태, 뼈(عظام, 'Idham)와 골격 구조 생성의 단계, 마지막으로 살이 입혀진 상태(كسونا لحماً, Lahm)로 구분한다.

이어서 낙태에 대한 법학파들의 정의이다. 낙태(إسقاط الجنين)라는 표현은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إسقاط”는 ‘떨어지다’, ‘무너지다’라는 뜻의 아랍어 동사 “سقط”에서 파생된 말로, 무언가가 아래로 떨어진다는 의미이다. “الجنين”은 앞서 언급하였듯 어머니 자궁 안에 있는 태아를 뜻한다. 따라서 낙태란 자궁 안에서 태아를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Al-Afriqi, 연도미상) 구체적으로는 자궁 안의 태아를 고의적으로, 혹은 불가피하게 떨어트려 배출하는 것으로, 1) 약물 복용, 2) 물리적 충격, 3) 외과적 시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출산 이전에 태아를 제거하는 행위로, 태아의 생존 가능성, 태아의 성장 정도에 관계 없이 모든 행위가 낙태에 포함이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낙태를 20주 이전에 500g 미만의 수정체 혹은 태아에 대한 잉태를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순니 이슬람 법학파에서 낙태와 낙태의 가부를 결정하는 요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신에 의해 영혼이 불어넣어진 상태(Ensoulement)’이다. 이는 태아 형성의 최종적인 단계로 신의 명에 따라 태아에게 영혼을 불어넣어지는 것이다. 태아를 낙태하는 행위에 대한 샤리아적 판결은 영혼이 불어넣어지기 전과 후로 명확하게 나뉘며, 각 시점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진다. 영혼이 불어넣어지기 전의 낙태에 대해 학자들 사이에는 허용과 금지라는 두 입장으로 나뉘는데 이 차이는 ‘낙태가 피임(인위적으로 수정을 막는 행위)과 같은가?’라는 질문에서 비롯한다. 피임을 허용한 학자들은 영혼이 불어넣어지기 이전의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낙태는 피임이라는 행위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으로, 낙태도 허용하였다. 반대로 피임을 금지한 학자들은 생명에 대해 인위적인 행위를 가하는 것은 신의 의지에 반하는 행동이라는 입장으로 낙태 또한 금지하였다.

그러나 이는 주된 견해는 아니며, 낙태는 생명 존중이라는 쿠란과 순나의 가르침에 따라 금지되지만, 일정한 샤리아적 필요성을 갖추게 된다면 부분적으로 낙태가 허용된다는 입장이 가장 보편적이다. 영혼이 불어넣어지기 전이라도 낙태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샤리아적 필요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다. 그것이 누트파 (정액) 상태이든, 알라까 (혈전) 상태이든, 무드가 (온전한

형상을 갖추지 않은 작은 살 덩어리) 상태이든 동일하다. 이와 다르게 낙태가 완전히 허용된다고 보는 의견은 근거가 약하며, 오히려 금지한다고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으로 더 강한 논거를 지닌다. 낙태는 창조의 시작 이후를 의미하지만, 피임은 창조가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낙태와 피임을 동일 선상에 둘 수 없다는 논리이다(Andri Nirwana, 2021).

이슬람 학자들은 낙태의 허용 여부를 구분하기 위해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하나는 ‘필요’의 개념이다. 샤리아에서 절박한 필요(الضرورة الشرعية)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한다. 샤리아적 허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덜 해로운 것을 선택하라는 원칙(ارتكاب الأخف من المفاسد)’으로 태아로 인해 산모의 생명에 심각하게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가 긴급한 샤리아적 필요에 해당한다. 해당 해악은 낙태 외에는 제거될 수 없으며, 그에 따라 낙태의 필요는 실제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한다. 또한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은 최소화된 것이어야 하며 이 모든 것은 샤리아의 근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이다. 산모의 생명은 실제적이고 확실한 것이지만, 태아는 그에 비해 생명의 ‘가능성’의 경계에 놓여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산모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것이 샤리아의 틀 안에서 부분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샤리아의 다른 원칙과도 부합한다. 예컨대 ‘이익이 충돌할 때, 양립이 불가능하면 더 큰 이익을 선택하라’, 또는 ‘두 사람 모두를 구할 수 없을 때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원칙을 찾아볼 수 있다.

다른 예로는 젖이 부족한 상황에서 두 아이가 있을 때,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한 아이만을 살리는 선택이 허용된다는 Fatwa²²를 찾아볼 수 있다(Andri Nirwana, 2021). 이러한 원칙에 따라, 산모의 생명은 본질적인 것이며, 태아는 그에 종속된 존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확실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능성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다. 또한 산모가 이미 아이들을 둔 어머니일 경우, 그녀의 죽음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낙태는 오히려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해석 또한 찾아볼 수 있다.

²² 파트와(فتوى, Fatwa)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법학자가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하여 내린 판단이다. 쿠란과 하디스, 샤리아를 바탕으로 하여 내린 법적인 견해이나 실제 강력한 사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속법의 판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하 파트와.

4.3. 낙태 행위와 허용 분기에 대한 법학과 별 판결

<표1> 태아 발달 과정과 낙태 허용 여부 (fiqh)

단계	태아형성 과정	시기	발생 사안	낙태의 허용 여부 (fiqh)
1	누트파-정액 상태 (Nutfah)	수정-40일	정자와 난자가 자궁에서 결합	하나파: 허용 샤피이: 대부분 허용 한발리: 일부 허용 말리키: 금지
2	알리까-혈전 상태 (Alakha)	40일-80일	혈전의 형태로 발달	하나파: 허용 샤피이: 일부 허용 한발리: 일부 허용 말리키: 금지
3	무드가 - 형태가 잡히지 않은 살 덩어리 상태 (Mudghah)	80일-120일	혈전이 살 덩어리로 형성	하나파: 허용 샤피이: 일부 허용 한발리: 일부 허용 말리키: 금지
4	또 다른 창조 (영혼의 주입) ²³	120일출생	태아가 영혼을 가지게 됨	금지(학파간 합의)

참조: 해당 표는 Musallam (1983); Bowen (1997); Brown (1999); Bowen (2003); Katz (2003); Hedayat et al. (2006); Atighetchi (2007); and Al-Hibri (2011)의 연구를 참조한 Gilla K Shapiro (2013)의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순니파 4대 법학파의 파트와(فتوى, fatwā: 이슬람 법학자가 이슬람 법에 대해 내놓은 견해)를 검토해 본 바, 하나파, 샤피이, 한발리, 말리키 법학파 모두 보편적으로는 태아 형성 단계 120일 설을 기반으로 하여 낙태 가부 판결을 내린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일 설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이 추론해볼 수 있었다. 첫째로는 후다이파를 필두로 하는 40일 설 전승은 무슬림의 하디스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4개를 전후로 하는 다중 전승에서 각 내용에서의 차이가 나타나 통일된 마튼이 없어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al-Bukhari의 하디스와 Muslim의 하디스에서 모두 교차 전승자로 등장하는 이븐 마스우드에게 비해 40일 설을 주장하는 하디스의 전승자인 후다이파는 하디스 전승량, 법적 영향력에 있어 상대적으로 그 신뢰도가 낮다는 점이다. 물론 후다이파 전승의 하디스 또한 Muslim의 하디스에 수록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전승으로 여겨지기도 하나, 그 법적 권위는 이븐 마스우드에게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다른 하디스 전승과 충돌하는 경우, 채택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추론할 수 있다(Ghaly, 2014). 이스나드의 신뢰성과 마튼의 통일성을 강조하여 하디스 텍스트 자체를 살펴 본다고 하였을 때, 하디스에 등장하는 “مثل ذلك”라는 표현은 직전의 “40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각각의 단계가 40일씩 지속된다는 의미로 이해되는

²³ 아랍어 원문은 خَلَقَ آخر. 직역한다면 ‘다른 창조’이나 맥락적으로 보았을 때는 태아 발달의 마지막 단계, 영혼의 주입 정도로 해석될 수 있다. 쿠란의 ‘믿는 자들의 장’에도 등장하는 표현이다.

것이 당위적이라는 결론으로, 누트파 상태로 40일, 알라까로 40일, 무드가로 40일이 지나 총 120일이 되었을 때 영혼(روح)이 주입되는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네 학파 모두 기본적으로는 120일 설을 토대로 하고 있으나 각 발달 단계에 있어서 낙태 허용/비허용의 판결은 일정 부분 그 궤를 달리하고 있다. 후대 무슬림 사회의 법학 담론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하나피 학파의 경우 ‘영혼이 불어넣기 이전 단계’인 임신 이후 4개월까지는 낙태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는 경향을 찾아볼 수 있다. 샤피이 학파와 말리키 학파의 경우 하나피 학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샤리아적 필요성을 엄격하게 적용하나, 그 필요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는 기조를 보인다. 이에 반해 말리키 학파는 대부분 모든 형태의 낙태를 엄격하게 금지한다(Musallam, 1983). 이는 40일 이전 또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네 학파는 각 각의 차이점을 견지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영혼이 불어넣어진 이후, 즉 120일이 경과하고 난 뒤의 낙태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4.4. 법학파 별 세부 입장

4.4.1 120일 설을 중심으로

낙태에 대한 법학파 별 세부적 입장으로, 하나피 학파는 태아의 신체 형성과 기관 형성은 일반적으로 120일 이후 시작되며, 신체 일부가 식별되지 않는 한 낙태는 허용된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Mohammad, 2023). 한발리 학파의 학자들에 의하면 태아가 알라까 혹은 무드가 상태에 있을 때는 낙태가 허용되며, 그 기한을 120일로 산정한다. 카사니(Kasani)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의 창조로부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한, 그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다. 그는 아직 태아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이다.”²⁴ 즉 일반적으로 하나피 학파에서는 누트파, 알라까, 무드가 단계에 있는 낙태에 대해 배상금²⁵ 지불의 의무는 없으며, 낙태는 허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음으로 샤피이 학파는 태아에게 창조의 징후(태아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은 한 낙태는 허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태아의 형체 일부가 확인될 경우, 낙태는 금기가 된다(Al-Mavardi, 1987). 샤피이 학파의 신뢰받는 문헌 중 하나인 『무그니 알무흐타즈(Mughni al-Muhtaj)』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이 범죄로 인해 태아를 낙태하고, 그 태아의 일부가 드러났다면 배상금인 Ghurra가 부과되며, 그 일부가 사람의 형상을 드러내는 손가락, 눈, 머리카락 한 가닥 등이라면 충분하다... 따뜻한 물을 부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계속해서 “천으로 싸인 태아가 발견되면 형상은 드러나게 된다. 만약 알라까 상태라면 아무런 배상도 필요 없으며, 낙태로 이 기간도 종료되지 않는다 (Mohammad, 2023).”

태아의 형성과 혼의 주입이 임박함에 따라 생명의 신성성과 불가침성은 더욱 강화된다. 그러나

²⁴ Mohammad Karim Olughbik-Mohammad Arif Nazari(2023), “Abortion and Its Provis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Islamic Jurisprudence”, Academic Research in Educational Sciences, 4(11), p. 165.

²⁵ Ghurra (الغرة) 태아의 사망 시 (특히 낙태로 인한 사망) 지불되어야 하는 배상금의 단위 또는 이름이다. 주로 태아의 아버지가 배상금을 수취하게 된다.

샤피이 학파의 대표 학자 중 한 명인 이맘 알 가잘리와 같은 경우는 태아가 어떤 단계에 있든 간에 낙태는 범죄로 간주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는 태아의 다양한 단계를 구분하면서도, 낙태는 생명의 창조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Ghazali, 1983). 알 가잘리에 따르면, 낙태의 금지 근거는 태아의 창조가 시작된 시점이 아니라, 정액이 준비되고 자궁 내에 위치하며 인간 형성의 잠재력을 띠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정액의 준비와 능력 획득은 남성의 정액과 여성의 난자가 섞이는 것, 즉 결합의 시작부터 출발한다. 이 단계는 누트파 단계에 해당하며 생명을 얻고 형성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는 작은 조직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초기 단계에서의 낙태 또한 권리를 침해하고 생명의 길을 차단하는 명백한 적대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다(Ghazali, 1983). 그러나 정액 혼합 단계에서부터 낙태가 범죄이며 금지된다는 견해는 샤피이 학파 내에서는 이맘 알 가잘리 단독의 견해로 간주된다. 종합하여 샤피이 학파에서는 누트파 단계, 알라까 단계 등 초기 단계에서는 낙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으나, 구체적인 형태가 관찰되기 시작할 수도 있는 무드가 단계에서는 그 신성성과 불가침성이 강화되고, 이후 혼이 불어넣어진 이후는 명백한 범죄로 간주된다.

한발리 학파 학자들은 임신 120일이 지나고 혼(روح)이 불어넣어진 이후, 즉 태아에 움직임이 생긴 이후에는 낙태가 엄격히 금지된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하나 (Al-Bouti, 1976), 40일 전후 누트파 단계에서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존재한다. 한발리 학자 대다수는 태아가 아직 자궁 내에서 누트파 단계일 경우, 즉 임신 첫 40일 동안은 낙태가 허용되지만, 40일 이후는 금지된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다른 일부 한발리 학자들은 태아에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 즉 임신 첫 4개월 동안은 낙태가 허용된다고 보기도 한다. 한발리 학자 중 한 명인 알 마와르디는 이 경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태아가 누트파 단계에 있을 경우 약물로 낙태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편 이븐 알조우지는 이를 금기로 본다. 이븐 아킬은 혼이 불어넣어지기 전이라면 낙태는 허용된다고 본다. 즉 40일-120일 사이 낙태의 가부에 있어서는 하나의 통일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Al-Mawardi, 1994). 그러나 이븐 라자브, 이븐 알조우지, 이븐 타이미야 등 다른 학자들은 태아가 알라까 단계에 도달하면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정액은 흘러다니지만 알라까 단계에 있어서는 태아는 점차 그 존재를 굳히며 단단해지는 과정에 진입하였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Ibn Jozi, 1982). 결론적으로, 다수의 한발리 법학자들은 태아가 수정 또는 초기 수정 단계일 때는 낙태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한발리 학파 내에서 유효한 이론은 혼이 불어넣어지기 전까지는 낙태가 허용된다는 것이나 이후 단계에서 낙태 가부에 대한 합의된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발리 학파에서 낙태의 정당성 여부는 자궁 내에서의 태아 형상 형성 여부와 초기 징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형상이 드러난 이후부터는 낙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정리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말리키 학파의 법학자들은 다른 학파보다 더욱 엄격한 입장을 견지한다. 말리키 학자 대다수는 임신 초기 4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낙태를 금지하고 불법으로 여긴다. 말리키 학파에 있어 이 행위의 ‘신성성(sanctity)’을 위해서는 단지 정액이 자궁에 도달한 것만으로도 충분하기에 임신이 시작된 순간부터 자궁 내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Ghanim, 2001). 임신부가 고의로 태반, 착상 조직, 응고된 피 등을 유산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배상금이 부과된다. 말리키 학파에서는 임신 40일

이전의 초기 단계일지라도 낙태는 하람으로 엄격하게 금지된다.

4.4.2. 태아 형성 과정 40일 지지 법학자

Shihab al-Din al-Qarafi는 이집트 출신 말리키 학파의 법학자이다. 그는 당대 이집트의 법학자 중 가장 저명하다고 알려진 3인 중 하나로, 법학적 판단의 정교함으로 오늘날까지도 현대적 법학 판단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상술한 120일 기준의 태아 형성 과정과는 다른 기준과 발달 과정을 제시하였다. 그의 저서 『Al-Dhakhira』와 『Anwar al-Furuq』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3단계 각 40일 소요라는 120일 설 해석을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배아는 출산까지 세 가지 주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태아가 만들어지는 ‘형성(takhalluq)’, 태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운동(taharruk)’,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산(wilāda)’이 그 세 단계에 해당한다. 여기서 특이점은 일반적으로 태아의 형성에 120일이 소요된다는 일반적인 법학파의 합의와는 다르게, 형성 단계에는 불과 전체 30일-45일 정도만이 소요된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40일 만에 너희들 각자의 창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Muslim의 하디스 구절(분석 대상 4번, 5번)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생의학적 관점과 이슬람의 전통을 융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반적으로 생명의 징후로 여겨지는 ‘운동 단계’와 ‘뇌 성장’은 대략 착상 40일 전후에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Al-Qarafi는 이에 해당하는 하디스 문장을 문법적으로 재해석한 바 있다. 그는 이븐 마스우드 하디스 전승 중 ‘너희 중 하나의 창조는 어머니 뱃속에서 40일 동안 모인다’²⁶라는 구절에서 ‘너희 중 하나’²⁷라는 표현에 주목하였다. 40일이라는 기간은 모든 대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불특정한 한 대상에만 해당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으며, ‘너희 중 하나’ 서술한 것은 태아 형성과 출산의 과정, 기간이 확립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예외적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승에 나타난 서술적 일반화를 경험적 다양성과 조화시키려는 전략적 문법 해석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해석이 선행 학자들의 견해에 어긋나더라도, 새로운 의학 지식과 경험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이성적인 법 판단(ijtihad)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학자들이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침묵해야 한다는 사실엔 어폐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슬람법은 시대적 상황과 과학적 지식에 따라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러한 관점은 그를 단순한 보수적 계승자가 아니라 창의적 해석을 실천한 ‘후기 형성기 독립적 법학자’로 부각시킨다.

Al-Qarafi 이후 생물 의학 분야와 이슬람 전통을 융합시켜 40일 설을 지지하였던 학자에는 하나피 학파의 법학자였던 the Indian Hanafi 'Umar b. 'Iwad al-Sunāmi와 Hanbali Ibn Rajab이 있다. Al-Sunami는 120일 이후가 되어야 태아가 인간의 형태를 갖춘다는 의학적 근거는 불충분하며, 착상 35일 이후 대부분의 장기 기능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생물 의학적 지식에 근거하여 120일 이전에 유도된 낙태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태아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기에 120일

²⁶ أَخَذَكُمْ يُجْمَعُ خَلْقُهُ فِي بَطْنِ أُمِّهِ أَرْبَعِينَ يَوْمًا

²⁷ أَخَذَكُمْ

이전에는 폭넓게 낙태를 허용한다는 일반적인 하나피 학파의 견해와 궤를 달리한다(Ghaly, 2014). Ibn Rajab은 태아 형성과 관련된 시점 문제에 있어 후다이파 전승 하디스 (분석 대상 5번)를 중심으로 해석을 전개한다. 그는 임신 42일경, 즉 2번째 40일 주기의 시작 시점에 태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시각과 청각, 피부, 살, 뼈 등의 감각기관과 신체 요소가 구성된다고 한다. Ibn Rajab는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형성 시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이븐 마스우드 전승(al-Bukhari와 Muslim 판본 모두에 등장하는 전승자)과 달리 후다이파 전승은 형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견지하기 위해 그는 동시대 의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한다. 당대 의사들에 따르면, 남성 태아는 보통 임신 30일까지, 여성 태아는 40일까지는 형성되지 않고 대체로 35일 정도에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45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Ibn Rajab은 이 의학적 설명이 후다이파 전승의 내용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면서, 형성은 일반적으로 2번째 40일기 동안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일반론적 결론에 그치지 않고, 일부 사례에서는 형성이 첫 40일기(누트파 단계)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그는 이러한 가능성이 단순한 의학적 예외가 아니라, 꾸란 구절이나 예언자의 하디스와도 조화될 수 있는 해석 범위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려 하시는 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으면 남성의 정액이 여성의 온몸과 정맥 곳곳으로 퍼지며, 7일 후 하나님이 그것을 모아 조립하고 조상들의 형질을 주입하신다.*²⁹

해당 하디스 주석은 꾸란 ‘민는 자들의 장’에 기록된 창조에 대한 서술로, 정액 단계에서 이미 어느 정도의 ‘형성(takhalluq)’이 일어나고 있다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 Ibn Rajab은 태아의 형성은 두 번째 40일 단계(누트파)에 이루어진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그의 입장은 결국 al-Qarafi가 주장한 ‘평균적 형성 시점(30~45일)’ 이론과도 상당히 유사한 맥락에서 형성되었으며, 하디스, 의학, 꾸란 해석 간의 조화로운 융합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4.5. 실제 파트와 사례

파트와(فتوى, Fatwa)는 개인 혹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 법학자가 이슬람 율법을 기반으로 하여 내린 판단을 의미한다. 이슬람 법학자들이 꾸란과 하디스, 샤리아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내린 법적 견해이기는 하나, 강력한 사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속법의 판결과는 차이를 보인다. 파트와는 실질적인 규제의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으나, 하디스가 이슬람 율법의 형태로 실현되고, 그렇게 재현된 법이 이슬람 사회에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한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파트와 검토를 진행하였다. Alireza bagheri와 Leina afshar의 논문 ‘Abortion in Different Islamic Jurisprudence’에는 탈라세미아(thalassemia)라는 유전성 혈액 질환을 가진 임신부의 낙태 가부 여부에 대한 사례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탈라세미아는 헤모글로빈 생산 문제로 적혈구 기능 저하를 유발하는

²⁸ Ghaly, Mohammed (2014). “Human Embryology in the Islamic Tradition: The Jurists of the Post-Formative Era in Focus.” Islamic Law and Society 21, no. 3, p.197.

²⁹ Ibn Hajar al-‘Asqalānī(1959), Fath al-Bārī fī Sharh Şaḥīḥ al-Bukhārī, Cairo: Dār al-Ma‘ārif, vol. 11, p. 477.

유전성 질환이다.

4.5.1. 이집트의 사례

샤피이파 법학파가 대세를 이루는 이집트는 일반적으로 낙태 문제에 대해 이슬람 의학 및 보건 윤리 규정 제 63조인 “의사는 의료적인 고려가 요구되지 않는 한, 즉 모체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한 임신부에게 낙태를 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임신 4개월(120일)이 끝나기 전, 임신을 지속하는 것이 모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위험이 분명히 입증된 경우에는 낙태가 허용된다. 이 사실은 반드시 해당 질병에 익숙한 한 명 이상의 전문의를 포함한, 최소 세 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의학 위원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³⁰는 법률을 따른다. 의학 위원회 구성원들은 임신 지속으로 인한 모체의 건강 위협 요인들을 명시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낙태가 권장된다는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임신부와 그녀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슬람 법학 위원회가 2004년에 발행한 파트와 336번에 의하면, 태아에서 감지될 수 있는 어떠한 기형도 임신 종료의 법적 사유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서술한다. 이는 기형의 정도에 관계없으며, 그것이 약물이나 수술로 치료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낙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단지 기형이 모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Mohammed, 2004). 2008년 파트와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태아에 영향을 미치는 선천적 결함의 존재로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의료 검사에 의해 기형으로 진단된 아동의 생명을 해하는 것 또한 엄격히 금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Mohammed, 2008).

결론적으로 이집트에서는 이 탈라세미아 유전병 사례에 대해 낙태를 엄격하게 금한다. 임신 120일 이전이어도 그 판단은 변하지 않는다. 많은 의사들은 유전적 혈액 질환인 탈라세미아와 같이 진단된 경우일지라도 일상 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며, 이것 또한 신의 뜻이기에 낙태는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4.5.2. 말레이시아의 사례

말레이시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법적 견해를 보여준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파트와 위원회(National Fatwa Committee)는 1990년 3월 7일, 중증 탈라세미아 진단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법적 판단을 제시하였다. 제 26차 회의에서 국가 파트와 위원회는 태아에게 유전적 또는 선천적 결함이 있는 경우라도, 그것이 모체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라면 낙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2년 후인 2002년 7월, 말레이시아 파트와 위원회는 중증 탈라세미아 진단을 받은 경우,

1. 임신 40일 이전이며, 모체의 건강의 해가 되지 않고, 부부 모두가 동의할 경우 낙태는 권장되지는 않으나 허용된다.

³⁰ Islamic Organization for Medical Sciences(2004), □The International Islamic Code for Medical and Health Ethics□, Cairo: IOMS, December 11–14, p. 305.

2. 태아에게 결함이 있고 모체의 생명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며, 임신 후 120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낙태는 허용된다.

3. 임신 120일 이후에는 모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가 금지된다.

말레이시아의 국가 파트와 위원회는 120일이라는 하디스의 기반한 판단을 내리고 있으나,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엄금하였던 1990년의 파트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법적 판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4.5.3.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

순니파 법학과 중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띠는 한말리 법학파가 주를 이루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임신을 계속할 경우 임산부의 생명이나 건강이 위협에 처하게 되거나,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적 기형이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된다. 1990년 메카 이슬람 법학자 위원회(Council of Islamic Jurists)에서 발행한 파트와에 따르면, 임산부의 생명이 위협한 경우에는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낙태 또는 조기 출산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이 경우, 낙태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3인의 전문가가 동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Shaltout, 1998). 해당 판결이 있기 이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적인 파트와는 수정 후 첫 40일 이내의 낙태만 허용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낙태에 대한 판결이 개방적인 방향으로 변모한 것으로 보이나, 여전히 많은 사우디아라비아 법학자들은 더 엄격한 입장을 유지하며, 40일 이내일 때만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탈라세미아는 치료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해당 사례는 낙태에 대한 논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파트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선천성 기형이나 유전 질환이 있는 태아에 대해 요청에 따라 낙태를 고려하는 경우, 해당 질환에 치료법이 없어야만 파트와에 따라 낙태가 허용된다. 1990년 메카 이슬람 법학자 위원회의 파트와에 따르면 태아에게 심각한 선천적 기형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수정일로부터 120일 이전, 해당 질환에 대해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낙태가 허용된다. 그럼에도 탈라세미아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낙태가 일절 금지된다.

V. 결론 – 고정된 텍스트를 넘어 살아 숨 쉬는 사회로

본 연구는 생명의 창조와 태아의 발달 과정을 다루고 있는 하디스 구절을 선정하여 하디스 해석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층성을 분석하고, 그 차이가 실제 이슬람 법학에서 재현되고 무슬림의 사회에서 상이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탐구하였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하디스 구절도 문장 구조 상의 요인, 전승자에 따른 상이한 용어의 사용, 편집자의 개입, 대명사의 중의적 사용 등으로 인해 다른 해석이 도출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현대에 이르러서도 하나의 통일된 견해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는 이후 이슬람 법학에 있어서도 상이한 법적 판결을 내리게 하였다. 대부분의 순니 4대 법학파는

태아 발달 120일설을 지지하여 낙태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렸으나, 일부 법학자들은 현대적인 생물학, 의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태아 발달 40일 설을 강하게 지지하기도 하였다. 실제 이슬람 국가의 파트와를 검토하였을 때 법학과 별 입장에 따라 120일 이전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기도, 또 다른 국가의 경우엔 어떠한 이유에서도, 어떤 시점에서도 낙태는 엄격히 금해야 한다는 상반된 법적 판단을 내놓았다.

본고에서는 하디스 텍스트와 이슬람 법학, 그리고 실제 무슬림의 삶이라고 하는 실천적 대상을 연결 짓는 것에 방점을 두었다. 그 결과 전통적 종교 텍스트가 오늘날의 사회에 재현되고 있는 유의미한 연결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어느 사회가 그러하듯 전통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들만이 여전히 현대 사회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순니 4대 법학파들이 낙태 가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하디스에 기술되어있는 요인들만 고려하는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낙태를 행할 수 밖에 없었던 산모의 상황, 의학적인 필요, 낙태로 인해 발생하게 될 해악 혹은 선, 낙태를 하지 않았을 때 파라울 위험 등 종교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수많은 요인들이 최종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더불어 본고의 본문에서 상술했듯이, 하디스 텍스트는 절대불변의 고정된 문헌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텍스트는 필연적으로 유동적이며, 일정 부분 그 형태를 달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al-Nawawi가 기존 하디스 모음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을 해소하기 위해 쿠란 등 다른 권위적인 텍스트를 참조하여 특정 어휘를 삽입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 불변의 산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현대의 의학적 지식과 전통적 하디스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말레이시아의 파트와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 변화하듯, 이슬람의 전통은 단순히 고정되어 폐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닌 유동적이고 맥락적으로 구성되는 역동이라는 점에 주목해야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하디스 해석의 다층성과 그 법적·사회적 적용의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종교 텍스트가 실증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과 그것이 실제 사회에서 작동하는 양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자 하였다. 하디스와 이슬람 법학의 교차점은 단순히 종교적 권위의 재현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무슬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천, 판단, 선택의 과정 속에서 여전히 재해석되고 있으며, 그 해석과 실천은 궁극적으로 인간 공동체의 산물이며 다양한 현대적 가치와 화합의 가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지닌다.

참고문헌

[단행본]

㉠ 한국어 문헌

조희선(2015), “변화하는 무슬림 여성: 코란, 하디스, 이슬람법 샤리아에서 여성 읽기,”

최영길(2010),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言行錄 第1回,”

——(2010),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言行錄 第2回,”

——(2010), “(Sahih Al-Bukhari가 수집한) 예언자 무함마드의 言行錄 第3回,”

< 영문 및 아랍어 문헌 >

al-Kalabadhi, Abu Nasr Ahmad (1987), Rijal Sahih al-Bukhari, ed. 'Abdallah al Laythi, 2 vols, Beirut: Dar al Ma'rifa.

Badi, Jamal Ahmed(2016), Commentary on the Forty Hadith of Imam Al-Nawawi – Timeless Prophetic Gems of Guidance and Wisdom, USA: Lulu Press.

Akiti, Al-afifi and Aasim I. Padela(2022), Islam and Biomedicine, 1st ed., vol. 137,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AG.

Al-Bouti, Mohammad Saeed Ramadan (1976), The Problem of Determining Generations, Prevention and Treatment, Damascus.

Al-Khalili, al-Khali b. 'Abdallah (1993), Al-Irshad fi Ma'rifat 'Ulama' al-Hadith, ed. 'Amir Ahmad Haydar, Mecca: Dar al-Fikr.

Brown, Jonathan(2010), Hadith: Muhammad's Legacy in the Medieval and Modern World, Oxford: Oneworld.

——(2007), The Canonization of al-Bukhārī and Muslim: The Formation and Function of the Sunnī Ḥadīth Canon, Leiden-Boston: Brill.

Ghanim, Umar bin Muhammad bin Ibrahim(2001), Ahkamul-Janin fil Fiqh al-Islami, Jeddah: Darul-Andalus al-Khadera.

Gharaibeh, Mohammad(2023), Ibn Rajab's Commentary on al-Nawawī's Forty Hadith: Innovation and Audience in the Jāmi' al-ʿUlūm Wa-l-Ḥikam,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Ghazali, Abu Hamid Muhammad bin Muhammad(1983), Revival of Ulum al-Din, Beirut.

Ibn Jozi, Abul-Qasim Muhammad bin Ahmad(1982), Al-Qawanin al-Fiqhiyyah, Tunis: Al-Darul-Arabiya al-Kitab.

Muhammad ibn Uthaimen (1996), Kitaab al-Ilm, Riyadh: Daar al-Tharayaa.

Supriyatni, Renny(2011), Pengantar Hukum Islam: Dasar-Dasar dan Aktualisasinya dalam Hukum Positif, Bandung: Widya Padjadjaran.

Wehr, Hans(2011), Dictionary of Modern Written Arabic, Germany: Snowball Publishing.

Zarabozo, Jamaal al-Din M. (1999), Commentary on the Forty Hadith of Al-Nawawi, vol. 1, USA: Al-Basheer Publications and Translations.

✅ [논문]

㉠ 한국어 문헌

김정명(2015), “이슬람 페미니즘과 여성 시각에서 새로운 종교 텍스트 읽기,” 『한국중동학회논총』 36(1): 71–101, 한국중동학회.

손주영(2005), “이슬람법과 법학파의 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15(1): 49–80, 한국이슬람학회.

왕해진(2014), “해외자료(해외자료): 이슬람 법의 이론과 제도,” 『법조』 63(11): 198–280, 법조협회.

임병필(2019), “이슬람 페미니즘의 가부장제 비판과 대응 및 극복 논리,” 『아랍어와 아랍문학』 23(3): 99–123, 한국아랍어아랍문학학회.

임병필(2015), “8개의 이슬람 법학파의 특성과 이크틸라프(الاختلاف) 원칙,” 『아랍어와 아랍문학』 19(4): 172–202, 한국아랍어아랍문학학회.

조희선(2013), “하디스(Hadith)를 통해 본 무슬림 여성,” 『한국이슬람학회 논총』 23(2): 57-87, 한국이슬람학회.

㉠ 영문 및 아랍어 문헌

- Nirwana, Andri, Faisal Husen Ismail, Dhia'ul Khaq, Yeti Dahliana, Alfiyatul Aziza, and Ahmad Nurrohim(2021), “The Ruling on Aborting the Fetus and Its Effect on Inheritance: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Four Sunni School Al-Hikmah: International Journal of Islamic Studies and Human Sciences , 4(4): 60-93.
- Bagheri, Alireza and Leila Afshar(2011), “Abortion in Different Islamic Jurisprudence: Case Commentaries,” Asian Bioethics Review , 3(4): 351-355.
- Berg, Herbert(2011), “The 'Isnād' and the Production of Cultural Memory: Ibn ‘Abbās as a Case Study,” Numen , 58(2/3): 259-283.
- Brown, Jonathan AC(2009), “Did the Prophet Say It or Not? The Literal, Historical, and Effective Truth of Ḥadīths in Early Sunnism,”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 129(2): 259-285.
- Calder, Norman(1996), “Al-Nawawī's Typology of Muftīs and Its Significance for a General Theory of Islamic Law,” Islamic Law and Society , 3(2): 137-164.
- Ghaly, Mohammed(2014), “Human Embryology in the Islamic Tradition: The Jurists of the Post-Formative Era in Focus,” Islamic Law and Society , 21(3): 157-208.
- Shapiro, Gilla K.(2014), “Abortion Law in Muslim-Majority Countries: An Overview of the Islamic Discourse with Policy Implications,” Health Policy and Planning , 29: 483-494. <https://doi.org/10.1093/heapol/czt040> .
- Jamal, Arif A. (2019), “Authority and Plurality in Muslim Legal Traditions: The Case of Ismaili Law,”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 67(3): 491-514.
- Mohammad, AG(2004), Fatwa No. 336 : The Abortion Due to Fetal Deformities , Dar Al-Ifta Al-Messriyah.
- Olughbik, Mohammad Karim and Mohammad Arif Nazari(2023), “Abortion and Its Provis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Islamic Jurisprudence,” Academic Research in Educational Sciences , 4(11): 160-169.
- Reinhart, A. Kevin(2010), “Review of Juynbolliana, Gradualism, the Big Bang, and Ḥadīth Study in the Twenty-First Century,”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 130(3): 413-444.
- Thalib, Prawitra(2018), “Distinction of Characteristics Sharia and Fiqh on Islamic Law,” Yuridika , 33(3): 439-452. <https://doi.org/10.20473/ydk.v33i3.9459> .

☑ [자료]

㉠ 법률서

Islamic Organization for Medical Sciences(2004), The International Islamic Code for Medical and Health Ethics , Cairo: Islamic Organization for Medical Sciences, December 11-14.

㉠ 인터넷 자료

- <https://sunnah.com/muslim:2643a> (Accessed 2025.03.04.)
- <https://sunnah.com/muslim:2643b> (Accessed 2025.03.04.)
- <https://sunnah.com/bukhari:3208> (Accessed 2025.03.04.)
- <https://sunnah.com/nawawi40:4> (Accessed 2025.04.02.)
- <https://sounah.com/hadith/2951/> (Accessed 2025.05.01.)
- <https://legacy.quran.com/75/36-40> (Accessed 2025.05.01.)

2025 한국중동학회 공동추계학술대회

전환기 중동: 갈등과 화해 그리고 새로운 미래

한국중동학회 세션

[좌장]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1. 플라톤의 엘레코스에 대한 태도 변화 -고대 중동수학문화의 영향인가?

발표자: 박제남 (인하대학교)

토론자: 구교선 (전북대학교)

2. “저항의 축”의 세력 약화와 향후 전망

발표자: 김은비 (국방대학교)

토론자: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3. The Emergence of a New Regional Order in the Wake of the 12-Day Wa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haping the Regional Landscape

발표자: 로버트 로렌스 (동덕여자대학교)

토론자: 한새롬 (숙명여자대학교)

4. Selective Entanglement: U.S. Engagement and the Reconfiguration of Middle East Security
Architecture

발표자: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플라톤의 엘렐코스에 대한 태도 변화

-고대 중동수학문화의 영향인가?

박제남 (인하대학교)

플라톤의 엘렐코스에 대한 태도 변화

-고대 중동수학문화의 영향인가?

박제남(인하대)

목차

1. 서론
2. 플라톤과 수학
3. 플라톤이 『메논』에서 문학적 허구의 형식을 취한 목적은 무엇인가
4. 플라톤은 『국가』에서 산술과 기하학의 혁신적 통합을 시도했는가
5. 피타고라스학파의 rational diameter와 irrational diameter
6. 결론

Appendix

참고문헌

1. 서론

Vlastos(1988, 386)는 플라톤의 엘렐코스¹⁾에 대한 태도 변화는 시라쿠사 여행 직후 쓴 것으로 보이는 『고르기아스』²⁾를 기점(terminus post quem)으로 하여 『메논』에서 일어난 것으로 본다.³⁾ 이에 반하여 Benson은 『메논』에서 거짓된 자만을 제거하려는 소크라테스적/엘렐코스적 목표를 넘어서 지식이 어떻게 획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견해를 처음으로 제시하였다고 주장한다(Benson 1990, 130). 특히, Benson은 초기 대화편들에서의 대화와 매우 밀접한 유사성이 있는 『메논』의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의 초반부 대화(82b-84a)는 노예 소년이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자만을 제거하는 것 이상을 하지 않으며, 두 번째 대화(84c-85b)는 지식 획득에 관한 실질적인 견해, 즉 상기설(theory of recollection)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Benson의 이러한 주장은 수학적 고찰 없이 노예 소년과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소크라테스의 엘렐코스과 이에 대한 발전인 상기론으로 해석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는 『메논』에서 플라톤의 엘렐코스에 대한 태도 변화를 철학적 차원보다는 수학적 차원에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고대 중동의 산술과 기하학이 플라톤의 수학 사유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1) 엘렐코스의 용어의 형식과 변천에 대해서 독자들은 김유석(2009), 이윤철(2016)의 논문을 참고하자.

2) 『고르기아스』에서는 플라톤의 그 이전 저작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수학에 대한 지식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하학과의 접촉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는 『고르기아스』가 플라톤이 첫 번째 시라쿠사 여행 직후에 쓰였다는 강력한 내적 증거로 잘 설명된다.

3) Benson(1990)은 Irwin과 Vlastos 모두가 『메논』 시점의 플라톤이 엘렐코스에 대한 태도를 수정한 것으로 본다고 본다. Irwin의 견해에 따르면 플라톤은 더 이상 엘렐코스를 도덕적 지식을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고, Vlastos의 견해에 따르면 플라톤은 더 이상 엘렐코스를 도덕적 진리의 최종 심판자로 보지 않는다.

2. 플라톤과 수학

플라톤은 그의 대화록에서 20여 회 이상을 이집트나 이집트인을 언급한다. 플라톤은 이집트의 기후 (『에피노미스』 987a)나 이집트의 미라 제작 방법 (『파이도』 80c)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탈레스, 피타고라스, 플라톤은 이집트에서 공부했으며, 플라톤은 이집트의 찬미자로 알려져 있다.⁴⁾ 그는 기원전 390년경에 한동안 이집트에 머물렀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비록 플라톤이 실제로 이집트를 방문하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이집트 수학과 천문학에 대해 알게 되었을 방법은 많았다. 실제로 이집트를 여행한 그리스학자가 이집트에서 취득한 지식을 그에게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다. 플라톤의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 이와 관련하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플라톤과 함께 공부한 이집트 지혜의 찬미자로 알려진 고대 그리스 최고의 수학자, 천문학자인 에우독소스(Eudoxus, 408-355 B.C.E.)⁵⁾로, 그의 이집트에서 1년 이상을 보냈으며 이집트어를 배워 그리스어로 번역했다고 전해진다(Davis 1979, 122).

한편, Proclus(2007, 168-169)에 따르면 크란토르(Crantor)는 플라톤의 『국가』가 이집트를 바탕으로 저술했다고 주장한다.

크란토르는 또한 플라톤이 그의 동시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헌법(constitution)을 스스로 창안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의 원본을 번역한 것이라는 이유로 조롱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플라톤은

4) 플라톤은 『파에드로스』 274d에서 수학의 근원을 이집트로 언급한다. 헤로도토스는 『역사』 Book II 109에서 그리스는 이집트로부터 기하학을 배웠다고 주장한다.

5) Vlastos(1988)는 키케로의 전언을 소개한다. 시라쿠사에서 플라톤은 피타고라스 학파의 사람들과 학문에 전념하였으며, 타렌툼의 아르키타스(Archytas)와 로크리의 티마이오스(Timaeus)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티마이오스는 다소 실체가 불분명한 인물이다. 그러나 아르키타스는 그렇지 않다. 그에 관해서는, 그리스 기하학의 모든 역사서에 전해지는 1차 사료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듯, 그는 완벽히 탁월한 수학자였다.

그런 조롱에 거의 신경 쓰지 않았고, 오히려 이 아테네인들과 아틀란티스인들에 관한 이야기를 이집트인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이라고 하며, 아테네인들이 한때 그 헌법 아래에서 살았었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대다수 학자는 『국가』와 관련하여 이집트를 언급하고 있지 않다(버날 2011, 164-165). 한편, 특정수, 546b에서 언급되는, ‘신부의 수(nuptial number)’는 고바빌로니아의 360도 기반 각 시스템이나 60진법 수체계의 영향으로 보기도 한다(Barton 1908).

1) 플라톤과 이집트 수학

그리스 숫자 체계는 기원전 6세기부터 자릿수 문자(ciphered system)를 기반으로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는 기원전 550년경에 건설된 Samos 유팔리우누스 터널 벽에서도 발견된다(Katz 2009, 34). 그리스 상인이나 회계 관련 종사자들은 고대 이집트 10진 단위분수 체계를 사용하였다(Katz 2009, 34-35). 예를 들어 분수 $\frac{4}{5}$ 는 $\frac{1}{2} + \frac{1}{4} + \frac{1}{20}$ 로 단위분수의 합으로 사용되었으며 어떤 분리 방식을 채택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수에 대한 기타 연산들에 관해서는 초기 이론적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나, 역수($\frac{1}{n}$) 구하기와 연속된 두 정수의 비율(epimoric fraction, $\frac{n+1}{n} = 1 + \frac{1}{n}$)에 대해서는 익숙했던 것으로 추정된다(Fowler 1979, 812). 이와 같은 상황은 계산을 어렵게 만들었고(『국가』 526c 참고), 이는 그리스인들이 계산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로도 보인다(『국가』 525d8-e2).

그리스 어린이들은 덧셈과 곱셈에 대한 훈련을 받았으며, 손가락으로 숫자를 나타내는 방법과 작은 돌을 사용한 주판 훈련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한다(Karpinsky 1925, 15). 아리스토텔레스는 『Topics』 163b24-28에서 10×10 까지 곱셈표의 암기를 명제의 암기와 함께 다음

과 같이 강조한다: “기하학에서 기본 요소들을 연습하는 것이 유용하며, 산술에서 10까지의 곱셈표를 손쉽게 외우는 것이 다른 수의 배수에 대한 이해에 큰 차이를 만드는 것처럼, 논증에서도 제일 원리에 능숙하고 명제를 철저히 암기하고 있는 것이 큰 이점이 된다.”

플라톤은 『법률』(819a1-d4)에서 게임 등을 이용한 이집트 산술 교수법을 높이 평가한다. 그리스 자유민들이 이집트 어린아이 수준만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리스 아이들이 길이, 넓이, 부피에 관한 측정법을 배움으로써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⁶⁾ 플라톤이 언급한 이집트 수학의 전통은 기원전 6세기 Samos에서도 익숙한 것으로 보인다. 번스(Burns 1971, 185)는 기원전 550년경 유팔리누스(Eupalinus)의 터널 공사에 대한 주장에서 고대 그리스와 고대 중동의 교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어떠한 긍정적인 결론이라도 도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기원전 6세기 동안 사모스는 이집트의 수학 전통에 익숙해졌으며, 아마도 이오니아 본토 도시들을 통해 바빌로니아의 전통과도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다. 터널을 설계하는 데 사용된 절차는 근동(近東) 수학 전통의 필수적인 일부이며, 헤론(Heron)이 설명한 절차 또한 마찬가지이다.

6) 플라톤이 언급한 내용을 살펴보자. 고대 이집트는 길이의 기본 단위 1(royal cubit)과 1(short cubit)을 사용하며 1(royal cubit)은 7(palms), 그리고 28(fingers)로 사용한다(Appendix A3 참고). 이에 따라서 한 변이 1(royal cubit)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반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을 1(remen)을 사용한다. 현대수학으로 보면 1(remen)은 $\sqrt{2}/2$ (royal cubit)이다. 따라서 1(double remen)은 $\sqrt{2}$ (royal cubit)이다. 이와 같은 길이에 대한 측정은 모두 22가지로 사용되었다(Griffith 1892, 2). 다른 한편, 부피의 측정은 1(heket)을 기본 단위로 6개의 단위분수 $1/2, 1/4, 1/8, 1/16, 1/32, 1/64$ 과 함께 사용되었다(Gillings 1975, 210). 독자들은 Griffith(1892)의 논문에서 광범위한 고대 이집트 측정단위를 만날 수 있다. 플라톤은 이에 대한 일부 지식을 이집트로부터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플라톤과 무리수

『메논』에서 언급되는 $\sqrt{2}$ 와 같은 무리수 (incomensurability)⁷⁾에 대한 연구는 초기 고대 그리스 기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그리스 철학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피타고라스학파의 히파수스 비롯하여 플라톤 시대의 주요 수학자였던 테아이테토스와 에우독소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노력을 자극하였고, 기원전 300년 경 유클리드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다. 플라톤은 『테아이테토스』(147d-e)에서 일부 무리수의 증명에 대하여 언급한다. 테아이테토스는 테오도로스가 넓이가 3제곱피트, 5제곱피트, ..., 17제곱피트인 정사각형의 각 변과 단위 정사각형의 한 변 1-foot와 ‘서로 동일한 측정단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을 작도와 함께 보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증명 방법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또한, $\sqrt{2}$ 가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테오도로스 이전 세대의 피타고라스학파 누군가에 의하여 증명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van der Waerden 1988, 110 재인용). 이어서 그는 『법률』(820c)에서 유리수와 무리수의 구별을 노인이 되어서도 검토를 통하여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가 언급한 ‘구별 방법’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3) 『메논』에 나타난 플라톤의 산술과 기하학

플라톤은 피타고라스학파의 ‘산술’의 중요성과 함께 ‘기하학’의 중요성 모두를 강조한다.⁸⁾ 플루타르크(Plutarch, c.46 -c.119)는 플라톤이 신

7) 고대 이집트나 고바빌로니아의 $\sqrt{2}$ 와 같은 무리수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Appendix A3, A4, A5, A6를 참고하자.

8) 아카데미아(c. 387 B.C.E-529 A.D.E.)의 입구에 쓰여 있었다는 구절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로부터 아카데미아의 수학적 특징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아카데미아가 문을 닫은 지 600여 년이 지난 12세기에 비잔틴 작가 요하네스 체체스(Johannes Tzetzes)가 처음으로 한 말이다(Suzuki 2002, 73). 아카데미아 입구에 그와 같은 명판이 있었는지 그렇지

을 기하학자로 비유했다고 주장한다(Plutarch's Moralia Book 8, Chapter 2, Section 1).

이러한 담론 이후, 디오게니아누스(Diogenianus)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담론이 신들에 관한 것이므로, 특히 그의 생일인 오늘날,
우리는 플라톤을 회의에 참여시키고, 그가 (그의 주장이라고
가정할 때) 왜 신을 항상 기하학자로 비유하는지 알아보까요?

플라톤은 대화록 『메논』에서 2의 irrational diameter $\sqrt{8}$ 에 접근하는 산술적/기하적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는 피타고라스학파의 산술도 중요하지만, 기하학도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 간의 대화를 산술(82b-84a)과 기하(84d-85b)로 나누어 진행한다. 이를 통하여 그는 피타고라스학파의 집단적 가치관을 검토하고 비판한다.

플라톤은 기하학이 추구하는 지식은 존재에 대한 지식이지 특정한 시간에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국가』 527b). 즉, 플라톤은 기하학을 추상화(abstraction)⁹⁾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않은지를 떠나 “플라톤은 기하학을 진정한 지식에 필수적인 학문으로 여겼다.”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로서 피타고라스학파의 산술은 충분하지 않아 기하학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플라톤은 『국가』 526d에서 전쟁과 관련된 기하학의 실용적인 예를 들기도 한다.

- 9) 한편 플라톤은 수를 점(unity)의 모임으로 보고 있다. 그는 『법률』(895e)에서 짝수를 동등한 두 부분으로 나뉘는 수로 정의한다. 짝수와 같은 플라톤의 형상을 수학에서는 ‘추상화’라 부른다. 짝수나 홀수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 이름을 대고 그 정의를 요구하거나, 정의를 내리고 그 이름을 물을 수도 있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451a-c)에서 짝수와 홀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른 한편, 두 자연수 a, b 에 대하여 $\sqrt{2} = a/b$ 로 시작하여 모순을 끌어내는 귀류법(reduction to the impossible)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50년경 『Prior Analysis』(Book I, 41a21-30)에서, 그리고 유클리드(Euclid 1959)는 기원전 300년경 『Elements』(Book X, Proposition 27)에서 각각 다룬다.

(1) 플라톤의 고대중동의 반복테스트법(regular falsi method)

소크라테스는 메논의 노예 소년과 산술적, 기하적 대화를 이어서 진행한다(82b-86b). 여기서 그는 고대 이집트와 고바빌로니아의 반복테스트법(regular falsi method)을 사용한다(Appendix A1 참고; Katz 2009, 2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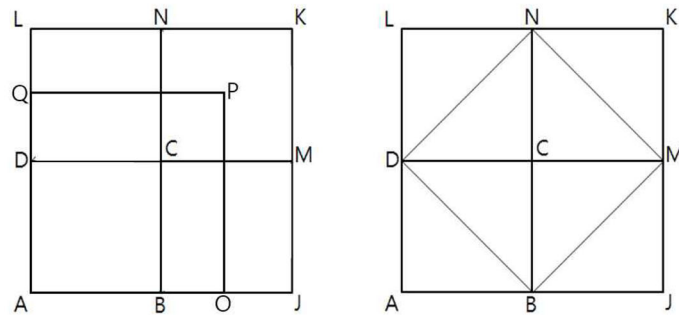


그림 1. (a) 산술적 대화(82b-84a) (b) 기하적 대화(84d-85b)

먼저 산술적 대화(『메논』 82b-84a)는, 『국가』 546c 18-19의 표현으로 보면, 2의 rational diameter 3을 찾는 문제이다.

환언하면 제곱수 $2^2, 3^2, 4^2, \dots$ 중에서 8과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문제이다. 이때, 노예 소년은 처음 $4^2 = 16$, 그리고 $3^2 = 9$ 를 순차적으로 시도하여 플라톤이 원하는 수 3을 매우 성공적으로 얻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Benson은 순차적 해법을 소크라테스적 엘렐코스로 잘못된 자각을 없애는 과정으로 보지만 우리는 Benson이 『국가』 546c의 rational diameter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시도> $\sqrt{8} = 4$ (AJ)를 시도한다(83a)

<평가1> $8 < 4^2 = 16$ 으로부터 오차 $\sqrt{8} < 4$ 를 발견한다(83b).

<수정> $\sqrt{8} = 4$ 를 $\sqrt{8} = 3$ (AO) 으로 수정한다(83e).

<평가2> $8 < 3^2 = 9$ 으로부터 오차 $\sqrt{8} < 3$ 을 발견한다(83e).

여기서 대화는 아무런 검증 없이 일단락된다. 노예 소년이 2의 rational diameter 3을 찾았지만 플라톤은 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노예 소년은 2의 rational diameter 3을 상식에 근거하여 구한 것으로 매우 성공적인 선택이지 실패¹⁰⁾는 아니다.

이와 같은 산술적 대화는 “ $\sqrt{8}$ 의 본질은 산술로 탐구될 수 없다”는 것을 플라톤이 반복테스트법을 사용하여 보여준 것이다. 이어서 기하적 대화가 진행된다. Benson은 이를 상기설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sqrt{8}$ 은 한 변이 2인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이다. 소크라테스는 한 변이 2인 정사각형의 ‘배적문제’를 노예 소년에게 묻는다(84d-85b).

<시도> 주어진 정사각형(ABCD) 각 변을 두 배로 확장한 정사각형(AJKL)을 그린다.

<평가> 큰 정사각형(AJKL)의 넓이는 8이 아닌 16이다.

<수정>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소크라테스가 도움을 준, ‘상식’에 의존하여 4개의 대각선으로 새로운 정사각형(DBMN)을 그린다.

<검증> 새로운 도형의 넓이가 두 배인 8임을 노예 소년이 확인 한다.

플라톤의 이집트 반복테스트법은 3세기 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디오판토스(Diophantos)의 수학에서도 나타난다. 디오판토스는 13개의 장으로 구성된 『Arithmetica』를 저술한다. 그는 여러 문제(예를 들어 Book IV-24, 31; V-10)의 해를 구하는데 이집트 반복 테스트법을 사용

10) 전현상(2013, 39; 43; 45)은 기하적 대화에서 이를 ‘실패’ 또는 ‘잘못된 두 답’ 등으로 표현한다.

하였다(Katz 2009, 183-184)(Appendix A2 참고). rheo 이집트와 고바
빌로니아의 반복테스트법은 이슬람 대수학의 아부 카밀(Abu Kamil, c.
850-930), 중세 피보나치에 의하여 다루어진다(Katz 2009, 277;
343-344).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현대과학에서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3. 플라톤이 『메논』에서 문학적 허구의 형식을 취한 목적 은 무엇인가

Kahn의 주장처럼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의 대화는 문학
적 허구의 형식을 이용한 것으로 실 대화는 없었다고 본다(김석완
2010, 24 재인용). 특히, 기하적 대화는 노예 소년의 수학적 지식을 넘
어선 것으로 허구의 형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기
원전 300년경 유클리드(Euclid 1959)는 『Elements』에서 “두 도형이
같다(Two plane figures are equal.)”를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로 사
용한다. 유클리드는 평행사변형이 대각선에 의하여 “같은 두 삼각형으
로 분할된다”는 것을 Book I, Proposition 37에서 증명한다. 교육을 전
혀 받지 않은 노예 소년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해하고 서로 같다를 ‘상
식’의 수준에서 안다는 것은 어렵다. 또한, 모래 위에 막대기나 손가락
으로 그린 도형이다([그림 1] 참고). 모래 위에 그려진 매우 거친 그림
에서 노예 소년이 “같은 넓이로 분할된다(85a)”는 것을 쉽게 알 수 있
을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플라톤은 문학적 허구의 형식을 도입하여 무
엇을 보이려했을까? 우리는 다음 두 가지를 주장한다.

1) 체계적인 수학적 지식추구

앞에서 알아본 대로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과의 대화를
통하여 반문과 모순 노출이라는 소크라테스적 형식을 넘어 고대 이집트

수학의 ‘시도-평가-수정-검증’의 단계를 거치는 반복테스트법을 사용하여 ‘ $3^2 = 2 \times 2^2 + 1$ ’을 결정하였다.

『국가』 546c의 용어로 산술적 대화 82b-84a를 표현하면, 그는 반복테스트법을 사용하여 “2의 rational diameter는 노예 소년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산술적 수 3이다.”를 주장한 것이다. 특히, 산술적 수를 구하는 방법은 $2^2, 3^2, 4^2, \dots$ 중에서 1만큼 차이가 나면서 8과 가장 가까운 수 n^2 을 정하는 것으로 플라톤은 4^2 , 그리고 3^2 을 차례로 노예 소년이 시도하도록 유도하였다. 물론 2^2 은 시도할 필요가 없다(그림 2 참고). 현대적 수식을 쓰면 노예 소년은 식 $y^2 = 2x^2 \pm 1$ 의 만족하는 값

$$3^2 = 2 \times 2^2 + 1$$

을 반복테스트법 하에서 상식적으로 결정한 것이다(Bulmer-Thomas 1983, 375).

한편, 기하적 대화 84d-85b는 평면의 배적문제에서 나타나는 $\sqrt{2}$ 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사용한 작도가능한 수(constructable number)임을 보이고 있다. 플라톤 시대의 ‘3대 작도가능 수’가 연구되었으며 특히, 부피의 배적문제에서 나타나는 $\sqrt[3]{2}$ 의 작도 가능성은, 모두 실패로 끝나지만, 히포크라테스(Hippocrates, 470-410 B.C.E), 메나에크무스(Menaecmus, 기원전 4세기), 그리고 니코메데스(Nicomedes, 기원전 3세기)에 걸쳐 연구되었다(Merzbach and Boyer 2011, 84-87).

2) 피타고라스학파의 집단적 가치관의 비판

문학적 허구의 형식을 도입하여 모든 수는 유리수¹¹⁾라는 피타고라스

11)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 985b23-98731에서 피타고라스 학파는 우주의 기초(basis)를 수로 선언한다. 이와 같은 기반에서 정사각형의 변과 대각선은 셀 수 있는 공통의 기준단위(common measure)를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학파의 집단적 가치관을 비판하였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의 산술적 대화(82b-84a)에서 피타고라스 학파의 산술은 $\sqrt{8}$ 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어지는 기하적 대화(84c-85b)에서 $\sqrt{8}$ 의 본질에 접근하는 기하적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기하학을 산술화하려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집단적 가치관을 문학적 허구의 형식을 이용하여 비판한 것이다.¹²⁾

플라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가 546c에서 산술과 기하의 통합을 시도한다.

4. 플라톤은 『국가』에서 산술과 기하학의 혁신적 통합을 시도했는가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 간의 산술적 대화(82b-84a)는 어떠한 추가 대화도 없이 끝이 난다.

노예: 그러나, 소크라테스, 제우스에 맹세코, 저로서는 알지 못합니다 (84a).

플라톤은 이를 『국가』 546c 18-19에서 다시 다룬다. 그는 $\sqrt{50}$ 을 5의 ‘irrational diameter’라 하고 7을 5의 ‘rational diameter’라 부른다(Bulmer-Thomas 1983, 375). 환언하면 5의 rational diameter 7은

$$7^2 = 2 \times 5^2 - 1$$

을 만족한다.

12) 플라톤은 기하학이 산술로 환언될 수 없음을 받아드리는 새로운 방법의 발견을 가져왔다고 포퍼는 주장한다(포퍼 2019, 427).

앞에서 언급한 대로 플라톤은 『메논』 82b-84a에서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의 대화를 통하여 2의 rational diameter 3을 구하는 방법과 그리고 『국가』 546c에서 5의 rational diameter 7을 언급한다. 이와 같이 기하학과 관련된 수를 그는 『국가』 546c에서 ‘기하적 수(geometrical number)’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의 산술과 기하의 통합을 현대적 기호를 나타내면

$$y^2 = 2x^2 \pm 1$$

이다(그림 2 참고). 플라톤은 『메논』에서 $3^2 = 2 \times 2^2 + 1$ 을 『국가』에서 $7^2 = 2 \times 5^2 - 1$ 을 언급한 것이다. 이와 같은 플라톤의 통합적 접근은 향후 어떻게 기록되고 발전하는지 알아보자.

테온(기원후 2세기)은 새로운 패턴을 추가하고 Proclus(기원후 5세기)는 이와 같은 패턴이 피타고라스학파의 업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플라톤의 패턴은 사모스의 아리스타르쿠스(310-230 B.C.E)와 알렉산드리아의 헤론(기원후 1세기) 시대에 근삿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발전한다.

먼저, 테온은 플라톤 사후 약 470여년이 지난 기원후 130년경에 새로운 용어와 함께 12의 rational diameter 17을 추가로 다룬다.¹³⁾

1) Theon (Smyrna, c. 130)의 side and diagonal number

rational diameter는 기원후 2세기에 활동한 테온의 저서 『플라톤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학』에 나타난다(Theon 1979, 29-30). 이 책은 플라톤의 저술에 대한 주석이 아니라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을 위한 일반적인 안내서로 당시에 이미 알려진 아이디어를 정리한 참고서에 가깝다. 테온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side number로 그리고 이에 대한 플라톤의 rational diameter를 diagonal number로 새롭게 언급한다(Theon 1979, 29-30).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13) $17^2 = 2 \times 12^2 + 1$ 을 말한다.

피타고라스학파에 의하면 유닛(unit, 또는 monad) 1은 자연수 $\{1, 2, 3, \dots\}$ 를 생성한다. 환언하면 2는 두 개의 유닛 $1+1$, 3은 세 개의 유닛 $(1+1)+1$ 로 귀납적으로 생성된다. 이제 테온에 따라 두 유닛에 의하여 생성되는 또 다른 side and diagonal number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물론 특별한 모임을 만드는데 유닛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발상이다. 두 유닛에 대하여 하나는 side number $s_1 = 1$, 그리고 다른 하나는 diagonal number $d_1 = 1$ 이라고 하자. 이로부터 만들어지는 두 번째 side and diagonal number는 각각 두 수를 더하고 $s_2 = 1 + 1 = 2$, 그리고 side number에 2를 곱하여 diagonal number에 더한다. 즉, $d_2 = 1 + 2 \times 1 = 3$ (기호로 쓰면 $s_2 = d_1 + s_1$, $d_2 = d_1 + 2s_1$ 이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side and diagonal number는

$$s_3 = d_2 + s_2 = 5, \quad d_3 = d_2 + 2s_2 = 7$$

테온은 side number 1, 2, 5, 12와 이에 대응하는 diagonal number 1, 3, 7, 17까지만 언급한다. 테온이 문장으로 이들

$$2^2 + 2^2 = 8 = 9 - 1 = 3^2 - 1,$$

$$5^2 + 5^2 = 50 = 49 + 1 = 7^2 + 1,$$

$$12^2 + 12^2 = 288 = 289 - 1 = 17^2 - 1$$

은 항상 1 만큼의 차이가 난다고 언급한다(Theon 1979, 29-30). 한편, 그림으로 해석하면 다음 삼각형들이 직각이등변삼각형으로 가까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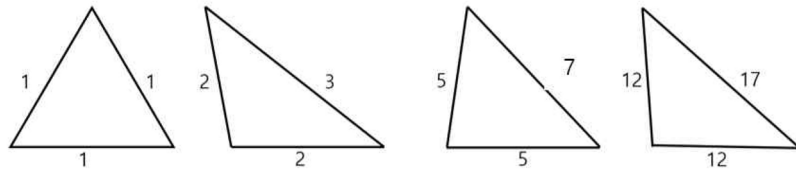


그림 2. Theon의 side and diagonal numbers

테온은 $2a^2 = b^2$ 의 근사적인 식 $2a^2 - b^2 = \pm 1$ 을 만족하는 네 쌍의 정수를 패턴을 통하여 구한 것이다. 29, 70으로 확장해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Theon의 side and diagonal number의 확장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side number(s_i)	diagonal number(d_i)	대각선 길이
1	유타(1)	유타(1)	$\sqrt{2}$
2	2	3	$\sqrt{8}$
5	5	7	$\sqrt{50}$
12	12	17	$\sqrt{288}$
29	29	41	$\sqrt{1682}$
70	70	99	$\sqrt{9800}$

2) Proclus (410-485 A.D.E.)의 side and diagonal number

side and diagonal number 짝을 (s_n, d_n) 으로 표시하면 기원후 5세기에 활동한 프로클로스는 플라톤의 『국가』의 주석에서 두 유타(1)에서 시작한 3개의 짝

$$(1, 1), (2, 3), (5, 7)$$

을 제시하고 이들 사이에 등식 $2 \times 2^2 - 3^2 = -1$, $2 \times 5^2 - 7^2 = 1$ 을 언급한다. 그리고 side and diagonal number의 패턴 도입은 피타고라스학파의 업적으로 말하고 있다(Proclus 2022, 232-233). 이는 후기 피타고라스학파 이후 800여 년이 지난 이후의 주장이다. 이어서 그는 “This is shown graphically by him in the second of Elements.”를 언급한다(Proclus 2022, 237). 이 문장을 바탕으로 1886년 Zeuthen는 유클리드의 『Element』 Book II, Proposition 10이 side and diagonal number가 만드는 항등식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⁴⁾

14) 그러나 최근에는 “This”가 어느 정리인지 그리고 “by him”이 “via him”으

3) Aristarchus (Samos, 310-230 B.C.E.)

플라톤 시대의 rational diameter와 irrational diameter는 무리수의 근삿값과는 무관하다. 기록에 따르면 rational diameter가 근삿값으로 쓰인 경우를 Samos의 아리스타르쿠스의 『태양과 달의 크기와 거리』 명제 7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는 $\sqrt{50}$ 을 만나 $2 \times 5^2 = 7^2 + 1$ 을 언급한 후 $\sqrt{2} \approx 7/5$ 을 사용한다(Heath 2004, 379). 환언하면, 아리스타르쿠스는 플라톤이 『국가』 546c에서 소개한 5의 rational diameter 7을 언급하고, 이로부터 $\sqrt{2}$ 의 근삿값을 7/5로 사용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원후 1세기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헤론이 만난 $\sqrt{720} = \sqrt{27^2 - 9}$ 은 side and diagonal number로 표현할 수 없다. 다음에서 이를 고바빌로니아의 방법(Appendix A6 참고)으로 살펴볼 것이다.

4) Heron(기원후 1세기)과 Ptolemy(100-178 A.D.E.)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이집트인으로 여겨지는 헤론과 프톨레미는 고바빌로니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기원후 1세기의 헤론은 아리스타르쿠스가 rational diameter를 이용한 근삿값을 구하는 방법과 고바빌로니아 방법을 모두 『Metrica』와 『Dioptra』에서 사용하고 있다(Smyly 1944, 19-21). 예를 들어, $\sqrt{2} \approx 17/12$ 는 $2 \times 12^2 + 1 = 17^2$ 에, 그리고 $\sqrt{3} \approx 7/4$ 은 피타고라스학과-플라톤의 확장으로서 $7^2 = 3 \times 4^2 + 1$ 에 근거한다. 또한, 헤론은 $A = a^2 \pm b$ 일 때, \sqrt{A} 의 첫 근삿값을 두 수 a 와 A/a 의 평균값으로 한다. 즉

$$x_1 = \frac{1}{2} \left(a + \frac{A}{a} \right)$$

로 재해석되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Baloglou and Thomaidis 2022, 5-7).

또한, 더 좋은 근삿값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속적으로 접근한다.

$$x_2 = \frac{1}{2} \left(x_1 + \frac{A}{x_1} \right)$$

따라서 그는 삼각형의 넓이 $\sqrt{720}$ 의 근삿값을 위 식을 이용하여 $26\frac{5}{6}$ 로 계산한다(Knorr 1975, 33; van der Waerden 1983, 47)¹⁵⁾.

한편, 프톨레미는 그의 저서 『Almagest』에서 $\sqrt{2}$ 를 60진법으로 고바빌로니아인의 근삿값 1;24,51,10을 사용한다(Ptolemy 1998, 58). 이는 대략 577/408에 해당하며 헤론이 사용한 17/12의 다음 단계이다.

$$\text{즉, } \frac{1}{2} \left(\frac{17}{12} + \frac{24}{17} \right) = \frac{577}{408}$$

(Appendix A6 참고)

5. 피타고라스학파의 rational diameter와 irrational diameter

기원전 4세기 플라톤 시대 이전의 수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현존 문서는 사실상 전혀 없다(Merzbach and Boyer 2011, 41). 그리스 수학자를 파푸스(기원후 3세기말)나 프로클루스(410-485 A.D.E.)의 주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언급한 수학 내용은 커다란 가치를 가지고 있다(Kline 1972, 26). 그렇다면, 후기 피타고라스학파 이후 800년이 지나서 제기된 것이지만 프로클로스의 주장이 사실일 때, 피타고라스학파는 플라톤이 『국가』 546c에서 언급한 rational diameter를 왜 도입했을까? 이는 $\sqrt{2}$ 가 무리수라는 증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15) $\sqrt{720} = \sqrt{27^2 - 9} \approx \frac{1}{2} \left(27 + \frac{27^2 - 9}{27} \right) = 27 - \frac{9}{54} = 26\frac{5}{6}$

16) 무리수의 존재 사실은 플라톤의 『테아이테토스』(147c-148b)에서 명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무지나 오류에 대한 불안이 표현된 유일한 사례는 에우독소스 시대에 집필된 후기 대화편인 『범률』(818d-820d)에서 발견된다. 이때 플라톤은 분명히 무리수의 존재론 내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이지, 이 현

『국가』 546c 18-19와 프로클로스의 주장을 주목한다면, 우리는 피타고라스학파가 $\sqrt{2}$ 는 “서로 동일한 측정단위를 갖지 않는다.”를 보이기 위하여 side and diagonal number에 앤티페어레시스(ανθυφαίρεσις, 거듭되는 몫과 나머지)¹⁷⁾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표 1>에서 변과 대각선에 차례로 몫과 나머지를 연속적으로 적용해 보자. 먼저 2와 3에서 $3 = 2 \times 1 + 1$, $2 = 2 \times 1 + 0$ 으로 2회에 끝이 난다. 다른 한편, 5와 7에서 $7 = 1 \times 5 + 2$, $5 = 2 \times 2 + 1$, $2 = 2 \times 1 + 0$ 으로 3회에 끝이 난다. 이처럼 12와 17은 4회이며 그 횟수가 하나씩 증가하여 결국 몫과 나머지의 횟수가 우리가 한정된 횟수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즉, 피타고라스학파는 $2s^2 = d^2$ 의 근사적인 식 $2s^2 - d^2 = \pm 1$ 을 만족하는 쌍의 정수들을 구하는 패턴과 s 와 d 에 앤티페어레시스를 적용했을 때, 몫과 나머지의 횟수가 충분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에 대한 증거는 없다.

크논은 피타고라스학파는 줄어드는 정사각형을 이용한 것으로 주장한다(Knorr 1975, 32). 물론 무리수의 발견은 Fritz(1945), 박제남(2025, 41)에서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아리스토텔레스는 『Prior Analytics』 I.23, 41a29에서 만일 변과 대각선이 동일한 단위로 측정가능(commensurable)하다고 가정한다면, 홀수가 짝수와 같다는 결론이 도출되며, 이러한 모순을 통해 변과 대각선 사이의 동일한 측정단위를 갖지 않는다(incommensurability)가 증명된다고 주장한다.

6. 결론

우리는 플라톤이 『메논』에서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 간의 대화를 두 개의 산술적/기하적 대화로 나눈 이유를 (a) 기하학의 산술화를 시도

상의 최초 발견에 대해 무지하거나 당혹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Fowler 1979, 815).

17) 앤티페어레시스(anthyphairesis)를 유클리드는 『Elements』, Book VII, Proposition 1, 2에서 다룬다.

한 피타고라스 학파의 집단적 가치관을 비판하고, (b) 피타고라스 학파의 붕괴 이후 기하학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지는 대화록 『국가』 546c에서 (c) 그는 산술과 기하학의 통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사모스의 아리스타쿠스나 알렉산드리아의 헤론의 시대에 와서 플라톤의 통합은 근삿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발전한다.

그가 소크라테스와 노예 소년 간의 대화에서 사용한 수학은 고대 중동의 반복테스트법(Appendix A1 참고)이며 이는 디오판토스 시대에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Appendix A2 참고). 또한, 우리는 플라톤의 rational diameter와 irrational diameter에 대한 고대 중동의 영향 가능성¹⁸⁾도 제기하였다(Appendix A4, A5 참고).

플라톤이 애매하게 언급한 수학을 다룰 때, 그의 표현에 의미를 넣어 언어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톤이 『국가』 546c에서 언급한 rational diameter와 irrational diameter를 $\sqrt{2}$ 의 근삿값으로 접근한다든지 분수나 극한의 개념을 넣어 해석하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피타고라스나 플라톤-프로클로스(410-485 A.D.E.)조차도-이 유리수 근삿값에 관심을 가졌다는 확실한 문헌적 증거는 없으며(Baloglou and Thomaidis 2022, arXiv:2011.07335) 아르키메데스(287-212 B.C.E.)나 아리스타르쿠스(310-230 B.C.E) 시대 이전에 분수는 상인이나 회계 담당자를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았다(van der Waerden 1988, 49). 또한, 귀납적 방법으로 무리수에 수열로 접근하는 것은 헤론(기원후 1세기)의 시대까지도 존재하지 않았다(Agarwal and Agarwal 2021, 11).

18) 우리는 플라톤의 또 다른 애매한 기하적 기술 『메논』 86e-87b를 고대 중동의 영향으로 주장하였다(Park 2020)

APPENDIX

A1. 고대 이집트의 반복테스트법(regular falsi method)

아메스는 고대 이집트 중왕조에서 사용된 빵의 분배 문제¹⁹⁾를 모두 8개로 다루며 40번에서 이를 등차수열 문제로 다룬다. 이때, 그는 반복테스트법을 사용하였다(Chace 1979, 84-85).

문제 40. 빵 100개를 5명에게 등차수열로 나누어 주려고 한다. 빵을 많이 받는 3명의 빵 개수의 합이 나머지 2명이 받는 빵 개수의 7배가 되도록 분배하여라.

아메스의 풀이를 현대적 기호로 알아보자. 빵을 많이 받은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나열하면 $a+4d$, $a+3d$, $a+2d$, $a+d$, a 이다. 큰 세 수의 합이 작은 두 수의 합의 7배이므로 $3a+9d=7(2a+d)$ 이고, $d=5\frac{1}{2}a$ 이다. 이로부터 아메스는 ‘시도-평가-수정-검증’의 과정을 거쳐 답을 구했다.

<시도> 아무런 설명 없이 $a=1$ 을 시도한다. 이로부터 수열

$23, 17\frac{1}{2}, 12, 6\frac{1}{2}, 1$ 을 얻는다.

<평가> 이들의 합은 60이다. 주어진 합은 100이므로 오차가 발생한다.

<수정> $100 = 1\frac{2}{3} \times 60$ 을 이용하여 앞서 구한 수열에 $1\frac{2}{3}$ 를 곱하여 새로운 수열을 만든다.

19) 기자 근처에 피라미드 사업에 필요한 노동자 촌락시설이 건설되었으며 마크 레너(M. Lehner)에 의하여 생활 구역안에서 거대한 제빵소 유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피라미드 노동자에게 배급할 표준규격의 빵 수천 개를 가공할 수 있는 시설로 밝혀졌다(페이건 & 스카레 2015, 203).

$$38\frac{1}{3}, 29\frac{1}{6}, 20, 10\frac{2}{3}, 1\frac{2}{3}$$

<검증> 이들 5개 항의 합은 100이다.

아메스 파피루스 26번, 64번, 75번, 그리고 모스크바 파피루스 23번 등에서 반복 테스트법이 사용된다. 기원전 1800년경 중왕조 시기에 제작된 베를린 파피루스 6619의 이변수 연립방정식 $x^2 + y^2 = 100$, $4x - 3y = 0$ 에도 반복 테스트법이 사용된다(Gillings 1975, 161).

A2. 디오판토스(Diophantus)의 반복테스트법

(『Arithmetica』, Book IV, 25) 이변수 방정식 $y(a - y) = x^3 - x$ 의 해를 구하여라.²⁰⁾

<시도1> 주어진 수를 $a = 6$ 으로 시도한다.

$$y(6 - y) = x^3 - x$$

<시도2> $x = 2y - 1$ 을 시도한다.

따라서 $6y - y^2 = 8y^2 - 12y^2 + 4y$ 를 얻는다.

<평가> 식 $6y - y^2 = 8y^2 - 12y^2 + 4y$ 에서 맨 왼쪽 $6y$ 상수 6은

처음 고정된 수이므로 등식 오른쪽 $4y$ 가 $6y$ 로 되도록 변형해야 한다.

<수정> $x = 3y - 1$ 로 수정하여 대입한다.

<검증> $6y - y^2 = (3y - 1)^3 - (3y - 1)$,

$6y - y^2 = 27y^3 - 27y^2 + 6y$ 를 얻는다. 따라서

$27y^3 = 26y^2$ 이고 $y = 26/27$ 이다. 그러므로

20) Divide a given number into two parts whose product is a cube minus its side.

$$x = 3 \times \frac{26}{27} - 1 = \frac{17}{7} \text{ 이다.}$$

A3. 고대 이집트인의 $\sqrt{2}$ 기반 길이단위체계

고대 이집트의 기본 길이단위체계는 (royal) cubit, palm, finger로 이루어진다. 이때, 7palms는 1큐빗이고 4fingers는 1palm이다. 길이단위 체계를 palm으로 표현하면 7, 6, 5, 4, $3\frac{1}{2}$, 3, 2, $1\frac{1}{2}$, 1, $\frac{1}{4}$ 로 10가지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Griffith 1892, 404). 한편, 질링스는 큐빗, 르멘, 더블르멘의 사용을 주장한다. 주어진 단위 정사각형의 넓이 1cubit^2 를 르멘은 반 배로, 더블르멘은 두 배로한다([그림 3] 참고). 즉, $1\text{remen}^2 = \frac{1}{2}\text{cubit}^2$, $1\text{doubleremen}^2 = 2\text{cubit}^2$ (Gillings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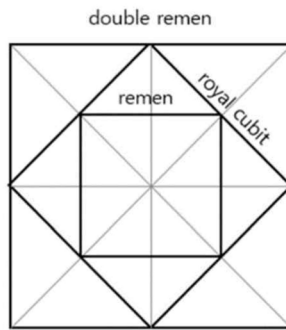


그림 3. 이집트 측정 단위

이와 같은 단위 사용에 대하여 럼킨(Lumpkin 1980)은 고대 이집트인들은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두 변의 제곱의 합이 대각선 길이의 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주장하며 더 나아가 M. 버날은 무리수를 인지했을 것으로 주장한다(Bernal 1992, 599).

무리수는 최소한 기원전 2000년경부터 이집트에서 사용되었으며

비록 유클리디안 방법에 의한 증명 여부를 떠나 상황의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로 보아, 이집트 서기들은 직각이등변삼각형에서 한 변과 대각선의 길이가 ‘동일한 단위길이를 잴 수 없다(incommensurability)’는 것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A4. 고대 이집트의 $\sqrt{2}$ 와 근삿값과 side and diagonal number

우리는 이집트인들이 사용한 $\sqrt{2}$ 의 근삿값을 세 가지 값으로 추정할 수 있다. 먼저, G. 로빈스(Robins 1990, 47-48)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은 한 변이 1(royal cubit)인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길이(double remen)를 1royal cubit 3palms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1royal cubit은 7palms이므로 1(더블 르멘) = $1 + \frac{3}{7}$ 큐빗이다. 이때, 아메스 파피루스(Chace 1979)의 $\langle 2/n \text{ 표} \rangle$ 를 이용하면

$$\sqrt{2} \approx \frac{10}{7} = 1 + \frac{1}{4} + \frac{1}{7} + \frac{1}{28}$$

로 단위분수의 합을 얻는다. 두 번째로 이집트 서기가 다른 단위 ‘small cubit’에서 1small cubit = 6palms, 1palms = 4fingers이고 대각선의 길이를 1small cubit + 2palms + 2fingers를 사용한다. 따라서

$$\sqrt{2} \approx \frac{17}{12} = 1 + \frac{1}{3} + \frac{1}{12}$$

세 번째로, 9개의 피라미드 등에서 다수의 학자들이 추정하는 $\sqrt{2}$ 의 근삿값은 두 가지

$$\sqrt{2} \approx 1 + \frac{1}{3} + \frac{1}{15} = \frac{7}{5}, \quad \sqrt{2} \approx 1 + \frac{1}{4} + \frac{1}{7} + \frac{1}{28} = \frac{10}{7}$$

이다(Butler 1998, 70; Robins 1990, 52). 특히, 우리는 17/12와 7/5에 주목한다. 고대 이집트인은 $\sqrt{2}$ 를 어떤 방법으로 접근했는지를 추정해보자.

아메스 파피루스는 히소스(Hyksos) 왕조 때 서기를 교육하기 위하여 집필된 산술서인데 아메스는 서문에서 자신을 히소스 왕조 파라오 아포피스 33년에 고대 이집트 제12왕조 아메넴하트 3세(c.1859

B.C.E.-c.1814 B.C.E.)때 쓰인 고문서를 복제(copy)하는 서기(scribe)라고 밝히고 모두 87개의 문제를 책으로 저술하였다(Chace, 1979).

Vogel(Gillings 1975, 143 재인용)에 따르면 문제 48번은 지름이 9인 원의 넓이를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이용하여 팔각형으로 접근하고, 정사각형에서 팔각형으로 옮겨간다. 그리고 이를 정사각형화한다. 이때, 정사각형화를 위한 근삿값 $\sqrt{63} \approx 8$ 을 사용하여 $8 \times 8 = 64$ 로 계산한다. 즉,

$$\sqrt{63} = \sqrt{8^2 - 1} \approx 8$$

여기서 우리는 고대 이집트인이 근사식

$$\sqrt{N} = \sqrt{a^2 \pm 1} \approx a \text{ (이집트인의 근사식)}$$

을 추론할 수 있다. 고대 이집트인이 위 근사식을 이용하여 $\sqrt{2}$ 의 근삿값을 구하려면 N 을 순차적으로 2, 8, 50, 288, ...등으로 택하면 된다. 이때, 우리는

$$\sqrt{2} \approx 1, 2\sqrt{2} \approx 3, 5\sqrt{2} \approx 7, 12\sqrt{2} \approx 17, \dots$$

등의 $b_i \sqrt{2} \approx a_i$ 를 연속하여 얻는다. 앞서 알아본 이집트인의 $\sqrt{2}$ 의 근삿값 $7/5$ 와 $17/12$ 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특히, N 이 8 또는 50일 때, $\sqrt{8}$, $\sqrt{50}$ 는 각각 플라톤의『메논』(82a-84a)과 『국가』 (546c)에서 나오는 2와 5의 irrational diameter이다.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수열 a_i/b_i 는 다음과 같은 $\sqrt{2}$ 의 근삿값으로 이루어진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frac{1}{1}, \frac{3}{2}, \frac{7}{5}, \frac{17}{12}, \dots, \frac{a_i}{b_i}, \frac{a_i + 2b_i}{a_i + b_i}, \dots$$

이와 같은 패턴에서 나타나는 수를 기원후 130년경 Theon은 두 유티(1)이 생성한 ‘변과 대각선 수(side and diagonal number)’라 부른다.

A5. 고대 이집트의 $\sqrt{5}$ 와 근삿값과 side and diagonal number

Robins and Shute(1987, 44-46)는 아메스 파피루스 41번의 해석에서 제시한 직각삼각형을 사용한 원의 정사각형화는 삼각형 (4, 8, 9)를

직각삼각형으로 근사하고 있다. 환언하면

$$\sqrt{4^2 + 8^2} = \sqrt{80} = \sqrt{9^2 - 1} \approx 9$$

로 한 것이다. 즉, $4\sqrt{5} \approx 9$ 또는 $\sqrt{5} \approx 9/4$ 이다. 이집트인의 근사식을 다시 적용하면

$$\sqrt{5} \approx 2, 4\sqrt{5} \approx 9, 17\sqrt{5} \approx 38, 72\sqrt{5} \approx 161, \dots$$

등으로 $d_i \sqrt{5} \approx c_i$ 를 연속하여 얻는다. 이때, $\sqrt{5}$ 의 근삿값 패턴은 다음과 같다.

$$\frac{2}{1}, \frac{9}{4}, \frac{38}{17}, \frac{161}{72}, \dots, \frac{c_i}{d_i}, \frac{2c_i + 5d_i}{c_i + 2d_i}, \dots$$

위 패턴을 두 변이 2배의 관계로 이루어진 삼각형이 직각으로 접근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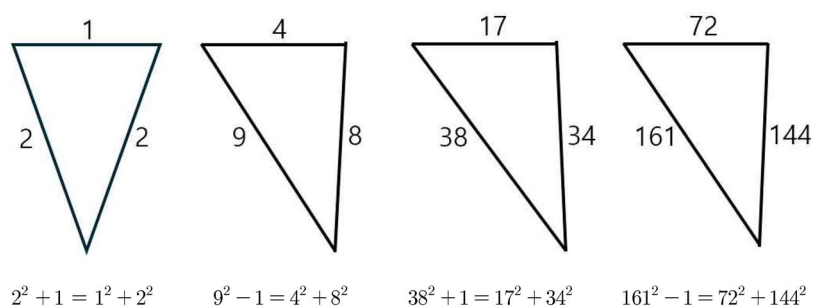


그림 4. 변과 대각선

한편, van der Warden(1983, 171)은 아메스 파피루스 48번의 해석에 고바빌로니아 수학을 사용한다. 고대 이집트인은 8각형의 넓이 $\frac{7}{9}$ 을 정사각형의 넓이로 환원하기 위하여 고바빌로니아인의 근사식

$$\sqrt{\frac{7}{9}} = \sqrt{1 - \frac{2}{9}} \approx 1 - \frac{1}{9} = \frac{8}{9}$$

를 제시한다.

A6. YBC 7289와 반복테스트법

피타고라스의 동방 여행에 관한 전통에는 일정 부분 진실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동방을 여행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원전 546년에 키루스(Cyrus)가 사르디스를 정복하고 크로이소스(Croesus)의 왕국을 페르시아 제국에 병합하였으며, 기원전 538년에는 바빌론을 함락시켰다. 피타고라스가 기원전 6세기 후반에 Samos에 거주하였다면, 바빌로니아 사상이 그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경로는 모두 열려 있었던 셈이다. 특히, 60진법의 고대 그리스 유입은 Herodotus의 기록(『역사』 Book II, 10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학자들이 이집트를 방문한 시기 이전 기원전 7세기에 아시리아가 이집트를 침입한 후 메소포타미아의 수학·과학은 실제로 이집트에 영향을 미쳤으며 고대 그리스는 기원전 600년경 전에 바빌로니아 문명을 접하게 된다(Bernal 2017, 390; Karpinski 1917, 263).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이집트인으로 여겨지는 헤론과 프톨레미는 고바빌로니아의 근삿값 구하는 방법

$$x_{n+1} = \frac{1}{2} \left(x_n + \frac{A}{x_n} \right)$$

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살펴볼 것이다.

텍스트 YBC 7289에는 60진법으로 한 변이 30인 정사각형 내에 42, 25, 35와 1; 24, 51, 10이 쓰여 있다. 이집트적 시각으로는 르멘과 더블르멘이 기록되어 있다.

10진법으로 말하면 한 변이 1/2인 정사각형 내에 대각선의 길이 $\sqrt{2}/2$ 를 $\frac{42}{60} + \frac{25}{60^2} + \frac{35}{60^3}$ 로, 그리고 한 변이 1인 단위정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 $\sqrt{2}$ 를 $1 + \frac{24}{60} + \frac{51}{60^2} + \frac{10}{60^3}$ 로 적었다. 고바빌로니아인들은 이 값이 근삿값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다(Katz 2009, 18).

고바빌로니아인은 $\sqrt{2}$ 를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통하여 인식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근삿값 1; 24, 51, 10을 어떻게 구했는지는 점토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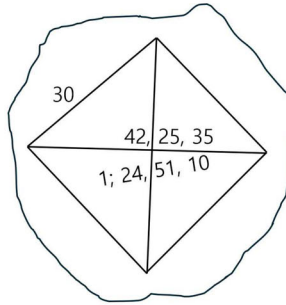


그림 5. YBC 7289

BM 96957+ VAT 6598을 통하여 추정할 수 있다. \sqrt{d} 의 근사식은 처음 근삿값 $\sqrt{d} \approx a$ 에 대하여 $\frac{1}{2}\left(a + \frac{d}{a}\right)$ 로 반복적으로 접근한다. 그 이유는 a 가 \sqrt{d} 에 가까우면 d/a 역시 가까우므로 이들의 평균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시도) a

$$(수정1) \quad \frac{1}{2}\left(a + \frac{d}{a}\right) = a'$$

$$(수정2) \quad \frac{1}{2}\left(a' + \frac{d}{a'}\right) = a''$$

을 통하여 그 과정을 추정한다(Buckle 2023, 5). 이 과정을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side and diagonal number를 구하는 과정으로 보지 않지만 이러한 ‘요령(trick)’에 대한 지식은 그들이 실제로 다루던 수학에서 고대 그리스 방법이 쉽게 나올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Hoyrup 2002, 262; 265). 이와 같은 알고리즘은 side and diagonal 짝으로 말하면 (1, 1), (5, 7), (12, 17), (408, 577), ... 등을 생성하며 매우 빠르게 $2s^2 = d^2$ 로 수렴한다.

고바벨로니아인이 $\sqrt{2}$ 의 근삿값 1; 24, 51, 10을 어떻게 구했을까?

$d=2$ 일 때, test value a 는 $\sqrt{2}$ 와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하고 그 역수 $1/a$ 의 60진법 소수 표현이 유한으로 끝나야 한다(이를 유한소수라 부른다). 특히, $\sqrt{2}$ 의 근삿값 $1; 24, 51, 10$ 은 매우 잘 알려진 수로 YBC 7243 목록 10째 줄에도 나타나 있다(Neugebauer and Sachs 1986, 136).

방법 1.

(시도1) $1;30$

$$(수정1) \frac{1}{2} \left(1;30 + \frac{2}{1;30} \right) = 1;25$$

(시도2) $1;25$

$$(수정2) \frac{1}{2} \left(1;25 + \frac{2}{1;25} \right) = 1;24, 51, 10, 48^{21)}$$

(수정3) $\sqrt{2}$ 의 근삿값을 끝자리를 제외하고 $1;24, 51, 10$ 으로 한다.

(검증) $1;24, 51, 10$ 의 근처의 수의 제곱과 2를 비교한다
(Fowler and Robson 1988, 375).

21) 고바빌로니아인은 곱에 관한 역수를 나타내는 표를 사용하여 나눗셈을 계산하였다. 즉, $a \div b = a \times \left(\frac{1}{b} \right)$ 로 계산하였다. 이때, 곱의 역수가 소수점이하가 유한개로 끝이 나지 않는 경우는 두 자리나 세 자리의 근삿값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어 7, 11, 13, 14 그리고 17의 곱의 역수는 유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는다. 따라서 $1;25 = 1 + \frac{25}{60} = \frac{17}{12}$ 이고 역수 $\frac{12}{17}$ 은 유한개의 자릿수를 가지지 못한다. 이때, 고바빌로니아인은 이를 $\frac{12}{10} \times \frac{10}{17}$ 로 바꾸어 $\frac{10}{17}$ 의 근삿값을 $0;35, 17, 39$ 로 사용한 것으로 우리는 점토판 M 10과 YBC 10529를 바탕으로 추측할 수 있다(Neugebauer and Sachs 1986, 16; Sachs 1952, 152; Mansfield 2023, 184). 따라서 $\frac{12}{10} \times \frac{10}{17}$ 은

$$\left(1 + \frac{12}{60} \right) \times \left(\frac{35}{60} + \frac{17}{60^2} + \frac{39}{60^3} \right) = 0;42, 21, 10, 48$$

이고 $\frac{1}{2} \left(1;25 + \frac{2}{1;25} \right)$ 는 $\frac{1}{2} (1;25 + 1;24, 42, 21, 36) = 1;24, 51, 10, 48$ 이다.

근삿값	제공값
1; 24, 51, 09	1; 59, 59, 56, 48, 19, 21
1; 24, 51, 10	1; 59, 59, 59, 38, 01, 40
1; 24, 51, 11	2; 00, 00, 02, 27, 44, 01
1; 24, 51, 12	2; 00, 00, 05, 17, 26, 24

방법 2. (Short path)

Buckle에 따르면 $\sqrt{2}$ 에 가까우면서 역수가 단순한 수로 1; 24, 22, 30을 제시한다(Buckle 2023, 8). 1; 24, 22, 30은 $\sqrt{2}$ 의 근삿값과 관련된 매우 잘 알려진 수(test value)로 보이는데, 텍스트 CBS 1215에 2회에 걸쳐 나오며 곱셈

$$1;24,22,30 = 0;22,30 \times 3;45$$

으로 0;22,30과 3;45와 그들의 역수도 유한소수로 표에 나타난다(Friberg 2007, 370).²²⁾ 이들 0;22,30과 3;45의 역수는 유한소수이므로 이들의 곱 1; 24, 22, 30의 역수 역시 유한소수이다. 따라서 다음 반복 테스트법을 사용하여 $\sqrt{2}$ 의 근삿값을 구한다.

(시도) 1; 24, 22, 30

$$\begin{aligned} \text{(수정1)} \quad & \frac{1}{2} \left(1;24,22,30 + \frac{2}{1;24,22,30} \right) \\ & = 1;24,51,15 \end{aligned}$$

(수정2) 거듭제곱을 통하여

$$1;24,51 < \sqrt{2} < 1;24,51,15 \text{를 확인하고}$$

$$\sqrt{2} \approx 1;24,51,10 \text{을 근삿값으로 택한다.}$$

(검증) 1; 24, 51, 10의 근처의 수의 제곱과 2를 비교한다

(Fowler and Robson 1988, 375).

22) 60진법으로 0;22,30의 역수는 2;40이며 3;45의 역수는 0;16이다.

a근삿값	제곱값
1; 24, 51, 09	1; 59, 59, 56, 48, 19, 21
1; 24, 51, 10	1; 59, 59, 59, 38, 01, 40
1; 24, 51, 11	2; 00, 00, 02, 27, 44, 01
1; 24, 51, 12	2; 00, 00, 05, 17, 26, 24

참고문헌

- 김석완(2010). “소크라테스의 논박술(elenchos)과 플라톤의 방법론”, 『교육철학』 제48집, 23-47.
- 김유석(2009). “플라톤의 초기 대화편에 나타난 소크라테스의 엘렝코스”, 『서양고전학연구』 제35호, 53-89.
- 박제남(2025). “동지중해 교류로 본 고대 중동의 이해: 기축시대의 탈레스, 피타고라스, 플라톤을 중심으로”, 『이슬람학회논총』 제35-1집, 27-62.
- 버날, M. (오홍식 옮김)(2011). 블랙 아테나 I, 소나무.
- 버날, M. (오홍식 옮김)(2017). 블랙 아테나의 반론, 소나무.
- 이윤철(2016). “소크라테스의 엘렝코스: 플라톤의 인식론적 위계에 서 고찰하는 교육 모델”, 『서양고전학연구』 제55-1호, 47-94.
- 전현상(2013). “플라톤의 「메논」에서의 메논의 역설과 상기설”, 『지중해지역연구』 제15-1호, 31-58.
- 페이건, B., & 스카레, C.(이청규 옮김)(2015). 고대 문명의 이해, 사회평론.
- 포퍼, K.(이한구 옮김)(2019). 열린사회와 그 적들 I, 민음사.
- Agarwal, Ravi, and Agarwal, Hans(2021). “Origin of Irrational Number and Their Approximations”, *Computation* 9(29): 1-

49.

Baloglou, George and Thomaidis, Yannis (2022). “From Plato’s Rational Diameter to Proclus’s Elegant Theorem”, arXiv:2011.07335.

Barton, George(1908). “On the Babylonian Origin of Plato’s Nuptial Number”,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29: 210–219.

Benson, Hugh(1990). “Meno, the Slave Boy and the Elenchos”, *Phronesis* 35/2: 128–158.

Bernal, Martin(1992). “Animadversions on the Origins of Western Science”, *Isis* 83: 596–607.

Buckle, David(2023). “How the Estimate of $\sqrt{2}$ on YBC 7289 May Have Been Calculated”, *Historia Mathematica* 62: 3–18.

Bulmer–Thomas, Ivor(1983). “Plato’s Theory of Number”, *Classical Quarterly* 33(ii): 375–384.

Burns, Alfred(1971). “The Tunnel of Eupalinus and the tunnel Problem of Hero of Alexandria”, *Isis* 62: 172–185.

Butler, Hadyn(1998). *Egyptian Pyramid Geometry: Architectural and Mathematical Patterning in Dynasty IV Egyptian Pyramid Complexes*, Mississauga: Benben Publication.

Chace, Arnold (1979). *The Rhind mathematical Papyrus*, Verginia: NCTM.

David, Whitney(1979). “Plato on Egyptian Art”, *The Journal of Egyptian Archaeology* 65: 121–127.

- Euclid(tr. T. L. Heath)(1959). *The Thirteen Books of the Elements*. New York: Dover.
- Fowler, David(1979). “Ratio in Early Greek Mathematics”, *Bulletin of the AMS*1(6): 807-846
- Fowler, David and Robson, Eleanor(1998). “Square Root Approximations in Old Babylonian Mathematics: YBC 7289 in Context”, *Historia Mathematica* 25: 366-378.
- Friberg, Jöran(2007). *A Remarkable Collection of Babylonian Mathematical Texts*, New York: Springer.
- von Fritz, Kurt (1945). “The Discovery of Incommensurability by Hippasus of Metapontum”, *Annals of Mathematics* 45(2): 242-264.
- Gillings, Richard(1975). *Mathematics in the Time of the Pharaohs*, Massachusetts, The MIT Press.
- Griffith, Francis (1892). “Notes on Egyptian Weights and Measures”, *Proceedings of the Society of Biblical Archeology*(<https://wellcomecollection.org/works/kcvj696z>).
- Heath, Thomas(2004). *Aristarchus of Samos: The Ancient Copernicus*, New York: Dover.
- Høyrup, Jens(2002). *Lengths, Widths, Surfaces*, New York: Springer.
- Karpinski, Louis(1917). “Algebraical Developments Among the Egyptians and Babylonians”, *The American Mathematical Monthly* 24: 257-265.
- Karpinski, Louis (1925). *The History of Arithmetic*, New York: Rand McNally & Company.

- Katz, Victor(2009). *A History of Mathematics: An Introduction*, 3^d Edition, New York: Addison-Wesley.
- Kline, Morris (1972). *Mathematical Thought from Ancient to Modern Times*, vol 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norr, Wilbur(1975). *The Evolution of the Euclidean Elements*, Boston: D. Reidel Publishing Company.
- Lumpkin B.(1980). “The Egyptian and Pythagorean Triple”, *Historia mathematica* 7:186-187.
- Mansfield, Daniel(2023). “Mesopotamian Square Root Approximation by a Sequence of Rectangles”, *British Journal for the History of Mathematics* 38(3): 175-188.
- Merzbach, Uta, and Boyer, Carl (2011). *A History of Mathematics*, New York: Wiley.
- Neugebauer, Otto and Sachs, Abraham(ed)(1986). *Mathematical Cuneiform Texts: American Oriental Series Volume 29*, Connecticut: American Oriental Society.
- Park, Jeanam (2000). “Plato’s Geometric Figure and Thales Theorem: Meno 86e-87b”, *Mediterranean Review* 13(1): 45-63.
- Proclus (ed. and tr. by H. Tarrant) (2007). *Commentary on Plato’s Timaeus*, vol. I, Book I,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roclus (tr. D. Baltzly, J. Finamore, and G. Miles)(2022). *Commentary On Plato's Republic*, vol. II Essays 7-1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tolemy. (tr. G. J. Toomer)(1998). *Ptolemy’s Almagest*,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bins, Gay(1990). “Irrational Numbers and Pyramids”,
Discussions in Egyptology 18: 43-53.
- Robins, Gay and Shute, Charles(1987). *The Rhind
 Mathematical Papyrus*, New York: Dover.
- Sachs, Abraham(1952). “Babylonian Mathematical Texts II-III”,
Journal of Cuneiform Studies 6(4): 151:156.
- Smyly, Gilbert(1944). “Square Roots in Heron of Alexandria”,
Hermathena 63: 18-26.
- Suzuki, Jeff(2002). *A History of Mathematics*, New Jersey:
 Prentice Hall.
- Theon(tr. from the 1892 Greek/French edition of J. Dupuis by
 Robert and Deborah Lawlor)(1979). *Mathematics Useful for
 Understanding Plato*, San Diego: Wizards Bookshelf.
- van der Waerden, Bartel Leendert(1983). *Geometry and
 Algebra in Ancient Civilizations*, New York: Springer
 Verlag.
- van der Waerden, Bartel Leendert(tr. from the Dutch edition
 of 1950 by A. Dresden)(1988). *Science Awakening*, New
 Jersey: Scholor;s Bookshelf.
- Vlastos, Gregory(1988). “Elenchus and Mathematics: A
 Turning-Point in Plato’s Philosophical Development”,
American Journal of Philosophy 109: 362-396.
- Whitney, Davis(1979). “Plato on Egyptian Art”, *The Journal of
 Fgyptian Archaeology* 65: 121-127.

“저항의 축”의 세력 약화와 향후 전망

김은비 (국방대학교)

25. 11. 15 중동학회

이스라엘의 New Order와 저항의 축

국방대학교 김은비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 ▶ '23. 10. 7. 06:30 하마스 기습
 - 이스라엘 1200여 명 사망, 251명 인질
 - ▶ '23. 11. 24. 이-하 휴전(~1. 11), 인질 105명 송환
 - ▶ '24. 9. 23. 레바논으로 전선 확대(~11. 27, 60일 휴전)
 - ▶ '25. 6. 13. ISR, 이란 공습 (~ 24, 휴전)
 - 6. 22. 미, 이란 핵시설 공습(B-2)
 - ▶ '25. 8. 9. ISR, 가자 점령계획 승인
 - ▶ '25. 9. 9. ISR, 도하 미사일 공격(하마스 지도부)
 - ▶ '25. 9. 23. UN 주요국 팔 국가인정 → ISR, 서안합병(?)
 - ▶ '25. 10. 13. 휴전
- ※ 이-가자 사망 6.7만 명↑ (+레바논 3천명)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과 저항의 축

- ▶ '23. 10. 8 헤즈볼라, ISR 북부 공격 개시(로켓, 드론 등)
 - ISR 양면 전쟁 강요
- ▶ '23. 11. 후티반군, 홍해 일대 도발
- ▶ '24. 4. 이스라엘-이란 최초의 본토공격
- ▶ '24. 7. 30 하니예 (하마스 정치지도자) 폭살 @이란
- ▶ '24. 9. 헤즈볼라 호출기 폭발, 레바논 전면 공습, 나스랄라 사살 "New Order"
 - '24. 11. 27. ISR-헤즈볼라, 60일간 임시 휴전 합의
- ▶ '24. 12. 시리아 아사드 정권 붕괴, ISR 시리아 남부 공습
- ▶ '25. 6. 이스라엘, 이란 핵시설 공격(Rising Lion, 6. 22 美 Midnight Hammer)

‘저항의 축’의 형성과 발전

▶ 2003, ‘악의 축’에 대한 반발로 coin

▶ 1979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포위된 위협(esp. ISR)에 대한 대응: 전방 방어 전략

- 목표: 지속적인 “저항”을 통해 미국을 중동에서 철수시키고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것
- 레바논 헤즈볼라,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하마스 / PIJ, 예멘 후티, 시리아 알아사드

▶ IRGC 쿠드스군

- 저항의 축 리더, ‘내외부의 적으로부터 이슬람공화국 보호’ 임무
→ 이념적·군사적 동맹 발굴·육성, 조연·훈련·지휘·자금·무기·정보 지원
- 대리세력에 전략적 인내, 전문성, 신뢰를 바탕으로 지휘관 및 장교 파견



Principal-Agent 이론

▶ 전쟁 수행시 국가(state, principal)는 위험(비용, 비난, 확산 등) 회피 위해 반군(reble, agent)을 지원함으로써 무력행사의 책임을 위임 또는 전가(Salehyan, 2010)

▶ 주인, 대리인의 행위 완전 통제 불가

- 정보 비대칭 현상: 대리인은 해당 지역의 상황, 대리인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정보 보유
- 이익 불일치 현상
⇒ 대리인의 일탈 최소화 위해 감시, 보상, 혹은 제재

▶ 대리인의 일탈

- 감시 실패, 현지 목표 우선화될 시(현지 엘리트, 상업 네트워크와 결탁 심화시)
- 재정 약화로 인한 지원 감소시
- 대리인 조직의 피로 누적(장기 소모전)
- 국제 거버넌스의 압박

P-A 이론과 저항의 축

▶ 이란, Principal로서 Agents(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에게 친서방 세력/이스라엘에 대항하는 무력 행사의 책임을 위임

- 전방 방어 전략: 영토에서 전쟁 피하겠다는 의지
- 역내 영향력 확대 + agents 통해 억지력 구축 의도

▶ Agent의 일탈 방지 조치

- 쿠드스군 활용, 이념(종교), 군사, 정치/외교적 전문성 발휘 (전문가 파견)
- 전략/전술 전수, 훈련 지원, 무기·자금 등 지원

⇐ 이스라엘, op. New Order로 저항의 축 약화 기도

이스라엘의 New Order와 저항의 축

▶ 이스라엘 'New Order' 작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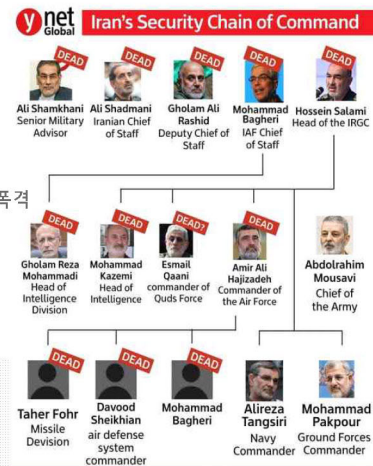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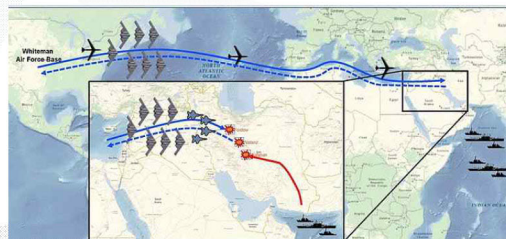
- 2024. 9. 하산 나스랄라 사살 등
 - '24. 11. 27. 이스라엘-헤즈볼라, 60일간의 임시 휴전 합의
 - IDF 레바논 남부 철수, H. 국경에서 약 30km 북쪽으로 이동 (양측 불이행)
 - IDF, 레바논 남부에 전략적 전초기지 5곳 잔류
 - '25. 3. 휴전 합의 이후 최대 규모의 교전
 - '25. 9. 18. 레바논 남부의 헤즈볼라 군사 목표물 공격
- 저항의 축 공격 (시리아, 후티반군 등)
- '25. 8. 9. ISR, 가자 점령계획 승인
- '25. 9. 9. ISR, 도하 미사일 공격(하마스 지도부)



이스라엘의 New Order와 저항의 축

▶ 이스라엘-이란 전쟁

- '25. 6. 13. 'Rising Lion' 작전 개시
 - 이란 핵·군사·미사일 시설 100여 곳 공습/드론 공격 (전투기 200여 대)
 - 군 주요인사 및 핵과학자 다수 사망 (붉은 결혼식 작전, 나니아 작전)
- 6. 22. 美, 'Operation Midnight Hammer' 실시
 - B-2 스텔스/해군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 핵시설 3곳(포르도, 나탄즈, 에스파한) 폭격



저항의 축의 약화

▶ 이란의 약화

- 장기적 경제 침체, 사회적 불안정(아미니 사건 등)
- 12일 전쟁 등으로 전력 + 군사 지도부 손실
 - 쿠드스군과 대리 세력들 간의 연락망 약화, 지휘 공백 등 혼란 가중

▶ 하마스/헤즈볼라의 약화

- 하마스 지도부 전멸, 주민 지지 하락: 남은 고위 군 간부 6~7명뿐(르피가로, 8. 9)
- 헤즈볼라 나임 카셈의 영향력 위문(나스랄라 비교)

▶ 후티 반군의 약화

- '25. 8. 27. ISR, '총리, 외무장관 등 후티 정부 인사 최소 12명 살해'
- 항구, 발전소, 공항 등 피해로 필수 서비스 마비 / 대중 불만 고조

▶ 아사드 정권 퇴출

- 이란-헤즈볼라 연결 통로(무기 밀수 등) 차단

저항의 축 약화에 따른 전망

▶ proxy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 감소

- 지원 능력 (자금, 무기, 전략, 리더십 등) 부족
- 이념/신앙적 측면 리더십/카리스마 잔존 의문

▶ proxy의 이탈

- 장기 소모전, 물리적/인적 피해로 피로 누적
- principal(이란)의 지속 지원에 대한 회의감 상승
- 국제 거버넌스의 압박에 영향
 -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해제 선언, 후티반군에 대한 국제 공조 등
- **이란의 의도/전략에 독립적인 활동 예상**

▶ 이스라엘-미국 연합의 역내 영향력 강화

결론

▶ 이스라엘+친미국가 Vs. 이란+저항의 축 위협 균형

- 저항의 축, 내부균형을 강화하거나 중·러의 도움을 통해 외부균형 모색 가능성

▶ 저항의 축 약화로 역내 세력 균형 불안정

- 이스라엘의 공세적 행동, proxy 세력의 자율적 행동 증가(헛징)

▶ 저항의 축은 사라질 것인가?

▶ 역내 미국의 정책 전망(?): 아시아 중시 Vs. 중동 재개입

▶ 이스라엘의 New Order로 위협은 사라졌는가? 중동의 평화는?

감사합니다

김은비(srain11@korea.kr)



The Emergence of a New Regional Order in the Wake of the 12-Day War: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haping the Regional Landscape

로버트 로렌스 (동덕여자대학교)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strategic and theoretical diagnosis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Middle East policy in the first ten months of his second presidency, concluding with the signing of the cease-fire in Sharm El Shek in early October of 2025. The Trump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often characterized as isolationist and transactional, and this paper does not contest the "transactional" characterization, rather it demonstrates that transactionalism does not inherently lack coherency, the admin's foreign policy is not isolationist in the slightest, and that it is encouraging a complex three-pillared regional order. Through addressing the strengths, weaknesses, and strategic complexities of this endeavor, this presentation clarifies the administration's ostensible vision for the region and offers a theoretical analysis of its actions which are all centered on isolating Iran.

I. Introduction

For decades, Iran cultivated its forward defense doctrine as a central pillar of its security strategy and to expand regional influence and operational capacity. This doctrine yielded a series of proxy networks in Lebanon, Gaza, Yemen, Syria, and Iraq to which Iran provided varying degrees of financial support, weaponry, training, and logistical support and over which Iran had fluctuating degrees of control. Collectively, this network, or “axis of resistance,” served as a deterrence against a potential Israeli or American attack as Hezbollah’s proximity to Israel meant that it would be able to inflict considerable damage to Israel. So successful was this doctrine that by the middle of the last decade, Iranian leadership openly and explicitly bragged about being in control of four Arab capitals (Sanaa, Beirut, Baghdad, and Damascus) and exporting the Islamic Revolution throughout the region (Nashashibi 2015). Ostensibly, regional discontents either lacked the political will or the military capability to challenge Iran’s regional posturing and Iranian’s policy of entrenchment beyond its borders seemed advantageous and rewarding.

Then, on October 7th, 2023, Hamas attacked Israel prompting a war that would eventually be fought on seven fronts including direct kinetic engagement with Iran. In the two years following October 7th, Hezbollah and Hamas’s leadership and weapons inventory have been decimated, the Assad regime has fallen in Syria, and the Houthis now face a challenge from Yemeni forces and agreed to a ceasefire with the U.S. Furthermore, popular mobilization forces (Iranian-backed militias) and Iranian influence in Iraq are under increasing pressure from Washington ahead of the upcoming elections, and Iran’s military leadership, missile production capacity, and nuclear facilities have been attacked by Israeli and U.S. forces. Seemingly, the default regional order has been upended in the Middle East because Iran’s proxy networks failed to deter the attacks, Iran did not protect its proxies, and Israel was able to dominate the skies over Iran at will. The U.S., despite declarations of pivoting to Asia, is heavily engaged on the diplomatic, economic, and military fronts of regional affairs, and this paper argues that in the wake of the last two years of fighting, the Trump administration utilizes a hybrid foreign policy strategy and is encouraging a three-pillar regional order centered around the Gulf (specifically Qatar, the UAE, and Saudi Arabia), Israel, and Türkiye in order to create a more U.S.-friendly/leaning region, to denigrate Iranian regional posturing and nuclear ambitions, and compete with other great powers who have made inroads in the region over the last decade.

II. Theoretical Assessment

Over the course of the first Trump administration, and in the run-up to, and first ten months of his second term, scholars and pundits raced to classify his foreign policy and demark its theoretical boundaries. Some highlight his policies' incoherency (Zakaria 2020), others maintain that he is an isolationist ((Nicolescu 2025, Gul 2024) while others use Walter Russel Meade's four traditions of American politics to describe his foreign policy as Jacksonian (Meade 2017), or a Jacksonian-Jeffersonian hybrid (Rolf 2021).

Regarding incoherency, President Trump does not fit the mold that U.S. allies and adversaries have become accustomed to over the past four decades, but it is not without precedent. Nixon was known for his "madman theory" tactics in which he used erratic and outlandish rhetoric to harness unpredictability for strategic gains in negotiations (Hayward 2025). Whether he is encouraging Canada to become a U.S. state, talking of annexing Greenland, or owning Gaza, President Trump has been predictably unpredictable in his second term, and while this rhetoric understandably earns him criticism from friend and foe alike, it is a negotiation tactic rather than an indication of intent and when one looks at his focus on Iran, one sees coherency and strategic discipline. The isolationist diagnosis is the result of an over-simplified perception of the "America First" doctrine and is at odds with the observable reality in which we live. Jacksonians take a realist approach that distrusts multilateralism, focuses on domestic affairs, strengthens the military, and protects domestic industry. This sounds similar to Trump's "peace through strength" doctrine, but it is also isolationist, and this administration has immersed itself in far too many global issues for that to be correct, and the same is true of the Jacksonian-Jeffersonian hybrid classification.

Donald Trump's madman theory tactics aside, the implementation of his peace through strength initiative in the Middle East is best qualified as a hybrid of transactional realism and selective engagement, with offshore balancing tendencies. Selective engagement holds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remain engaged in regions of strategic importance to prevent instability and maintain favorable balances of power (Posen and Ross 1996). But selective engagement favors alliances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in important theaters in contrast to the Trump administration's proclivity to focus on bi-lateral reciprocal arrangements with concrete benefits as is present in transactional realism. The Trump administration merge the two by creating massive deals that, in theory, institutionalize the transactions that will create a prosperous alternative to the status quo and improve each partner's position relative to Iran. For example, the Armenia-Azerbaijan peace initiative would give Türkiye access to Central Asian markets and increases the potential for

Armenian normalization which could be a profitable export market, all at Tehran's loss. Offshore balancing, articulated by Mearsheimer and Walt (2016), advocates for the United States to maintain regional stability by relying on local powers to counterbalance potential hegemons, intervening directly only when vital interests are at stake. The administration has been explicitly clear in its desires to finish over involvement in regional states' internal affairs and for regional actors to take a bigger share of the burden in regional affairs (The White House 2025). However, the necessary levels of military disengagement from the region have not been met, and the threshold to get involved is too low to be considered offshore balancing.

III. Trump 2.0 and Israel, Türkiye, and the Gulf

a. Support for Israel

Before the current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it was already involved in Israel's war in Gaza. The administration's steadfast support for Israel has been consistent throughout both administrations as was evident in his moving the embassy to Jerusalem, the recognition of Israeli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 and its willingness to attack three nuclear facilities in Iran during the 12-day War amid considerable pushback from its domestic supporters. However, this support is not absolute. While many questions still loom over exactly what took place in the September 9th Israeli strike on Hamas leadership in Doha, it ended with Benjamin Netanyahu reading a scripted apology to the prime minister of Qatar in the presence of Qatari officials in the White House and the Israelis agreeing to a ceasefire (although at the time of this writing it is hanging on by a thread) that is well short of the stated goals of the far right members of Netanyahu's government who have been threatening to walk out of the coalition if their demands weren't met (Stokols 2025, Burns and Nerozzi 2025). Additionally, as discussions of annexation of the West Bank began (a foundational aspiration of Netanyahu's Likud Party) Trump publicly stated that he would not allow it and trying to do so could mean the end of US support for Israel, which would open the possibility of the biggest rift between the countries in decades. Furthermore, the strike in Doha and the ensuing ceasefire gave the opportunity for a regional rival who had long been sidelined in the Israel-Hamas War's negotiation sphere to be front and center in the ceasefire talks, Türkiye's Recep Tayyip Erdogan.

b. Defrosting Ties with Türkiye

The U.S. and Türkiye, despite having security ties that go back seventy years and being the two largest militaries in NATO, have been at odds with each other since the U.S. decision to arm the Syrian Kurds in 2014. Tom Barrack presented his credentials to President Erdogan in May and immediately began working on restoring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As a close friend of President Trump and who was also selected to as the U.S. Special Envoy for Syria and has operated throughout the Levant, the south Caucuses and northern Iraq. Since becoming the Ambassador, Barrack has pushed several Turkish-friendly initiatives. First, he announced that U.S. troops would be withdrawing from Syria and, though this has been slow to come to fruition, is part of an ongoing mission to dissolve SDF forces and centralize power in Damascus where Türkiye holds significant sway. Also, The Kurdish peace initiative is transnational, but also a particularly important domestic issue for Erdogan's electoral strategy, so the U.S. effort to solve it by engaging on multiple fronts is a welcome change of course in Ankara. Regardless of its imperfection, there has been a concerted effort from the U.S. to solve the Türkiye-PKK problem and build a strong centralized government in Damascus through negotiations and sanctions relief which Türkiye wants to prevent an Ocalan-inspired Kurdish entity being established on its border (Kurda 2025; Aydin 2025; Mohammed 2025). The fall of the Iran-friendly Assad government to a more Türkiye-friendly Al Sharaa government is a huge net win for Türkiye that comes at Iran's expense, and Türkiye needs a stable Syria to return its refugees and to profit from the massive reconstruction effort that will come after more than a decade of war.

Next, Barrack also proposed taking over the Zangezur Corridor in early July to end the deadlock in negotiations between Azerbaijan and Armenia. Rumored to be a Turkish idea, this corridor gives Türkiye access to the Caspian Sea and central Asian markets (helping Türkiye's vision of the Middle Corridor while receiving applause from pan-Turkic nationalists groups), diminishes Russia's role in the south Caucuses, cuts Iran out of east-west trade and its northern route through Armenia, and puts NATO on Iran's doorstep, a notable net positive in great power competition given Iran's recently improved relations with China and Russia (Kazimbeyli 2025, Soyulu 2025). Additionally, after the Doha attack, Erdogan came front and center in the cease-fire negotiations between Hamas and Israel. Türkiye hosts some of the Hamas leadership, holds significant political influence with them, and does not consider them a terrorist group. It played a vital role in bringing Hamas to sign the deal and the optics of having Trump and Erdogan together at the head of the table was a significant PR win for President Erdogan who faces increasing domestic challenges. However, this reproachment is not without its hiccups. President

Trump would prefer Türkiye to stop the hedging that has angered many in Washington in recent years and fall back into a more western-aligned foreign policy. This of course, flies in the face of Erdogan's "Axis of Türkiye" initiative and the strategic autonomy that he has so vehemently defended. Accordingly, when it was proposed, even with sanctions relief and desperately needed military sales on the table, a mutually beneficial end could evidently not be met. Disagreements notwithstanding, the administration recognizes Türkiye's empowerment as a balancing variable and the best option to fill the void where a weakened Iran no longer enjoys its previously held influence.

c. Changing the Game with the Gulf

Lastly, President Trump's highly publicized trip in May to the Gulf monarchies of Qatar, the United Arab Emirates, and the Kingdom of Saudi Arabia on the southern flank of the region demonstrated the Gulf's importance moving forward. In this demonstration of economic statecraft, there was, by some calculations, up to 2 trillion dollars' worth of investments signed. President Trump made it clear in his Riyadh speech that he does not want to dictate what happens in the region, rather, he wants regional actors to take control with a little U.S. assistance. This was apparent in the 142-billion-dollar defense sales agreement signed with Saudi Arabia that greatly increase Saudi Arabia's defense capabilities (The White House 2025). But more importantly was the paradigm-changing nature of some of the investments. Moving past the ineffective security patronage that defined the relationship for the past 80 years, the investments made on this trip showed American interest in being a technology partner in making the Gulf a global hub for emerging technologies and AI architecture moving forward. All three countries declared their intent to be regional tech leaders, and the scope of the investments rendered indicates economic interdependence, technological integration, and co-investments in R&D and future industries (Alkhaja 2025). The energy for security paradigm no longer def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lf and the U.S. as these the forward-facing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s that helps these Gulf monarchies realize their respective economic reforms while providing the U.S. with much-needed investment for the foreseeable future.

IV. Conclusion

These emerging three pillars have firm foundations and encouragement from the current American administration. The organizing principles are stability yielding prosperity and containing Iran. Functionally, their collective fragility as a balancing architecture is apparent because of several variables. Primarily, Iran may be down, but it is not out, and neither are its proxies. Iran faces several domestic challenges regarding replacing the assassinated military leadership and the inevitable competition for succession of the Supreme Leader, but they are resilient and have the intellectual property to rebuild infrastructure lost in the 12-Day War. Additionally, the last two years served as a great recruitment tool for their resistance to Israel and some axis leaders believe they are closer than ever to swaying global opinions against Israel. Iran will likely attempt to re-constitute its proxies, though they may not look like they previously did, and it might rush towards a bomb, both of which are destabilizing factors. Like it or not, Iran has a say and can challenge regional order.

Secondly, intra-architecture animosities are in abundance. Türkiye and Israel came close to fighting over air bases in Syria earlier this year and the public rhetoric between leaders is vitriolic with occasional predictions of an impending war between the two states. Obviously, any armed conflict between any of the pillars would disrupt regional stability and destroy paths towards prosperity, and in this case, it would have global implications. While it is unlikely that either state would risk the possible outcomes of such a conflict, it is a possible scenario. Furthermore, while Qatar and Türkiye have good relations, fear of neo-Ottomanism and competition for Sunni regional leadership could potentially harm cooperation between Türkiye and the other Gulf states. Also, the scars from the two-year war in Gaza, assuming the cease-fire holds, will take a long time to heal, and regional actors may not want to risk the domestic consequences of cooperation with Israel immediately. Furthermore, domestic politics in the US, Türkiye, and Israel might complicate cooperation. Israeli youth are turning more conservative, nationalist, and religious; American youth are turning against Israel, and Israel remains very unpopular amongst Turkish voters across all demographics, so given that decision makers answer to voters, the future will be complicated to navigate (Ugur, Demir, & Dalmis 2024; Fox 2025; Schwartz 2025). To be clear, these three do not need to get along to balance, after all, it is not an alliance, but destabilizing antagonism would not counterproductive the Trump administration's stated goals for the region.

Donald Trump's second administration seeks to provide a stable, balanced region in which self-propelled prosperity is an alternative to conflict, failed externally imposed reforms, or foreign

interventions. One way it intends to do so is to expand the Abraham Accords which include recognition of Israel in return for increased security and economic cooperation. By degrading the Iran's (the biggest adversary to the Abraham Accords) expansionist capacity, his administration believes there is a window during which regional actors can choose a path towards prosperity and away from the failed cycles of the past, then it wants to push the burden of maintaining regional stability and prosperity to regional actors. By making a conscious effort to solidify bi-lateral relations (in line with transactional realism) with, and thus strengthening these three pillars, in theory, they balance each other while collectively balancing against any possible resurgent Iran. While Trump is averse to any large deployment of troops to handle regional problems, there are no plans to move large numbers of troops out of the region that would indicate a shift towards offshore balancing. Rather, he will keep forces in the region and reserve the right to act unilaterally and with a small footprint to impose stability, if necessary (in line with selective engagement).

The litmus test for this architecture will be to see if the U.S. can convince the three of them to cooperate to create a stable Syria. By stabilizing Syria together, Israel could receive recognition and guarantees from Syria, Syria could receive security guarantees, Gulf investments, and transit fees, the Gulf could move its energy to Europe, and Türkiye could also receive transit fees and a much needed injection in the economy by being the main provider of re-construction companies while sending back some of its 4 million refugees, all while keeping Iran out.

Works Cited

- Abdulla Abdulrahman. 2025. "Economic Statecraft and Tech Diplomacy: Trump's 2025 Gulf Tour." *Trends*. Dubai: Trends Research & Advisory.
https://trendsresearch.org/insight/economic-statecraft-and-tech-diplomacy-trumps-2025-gulf-tour/?srsltid=AfmBOooUmNAqR-bfqED0ZXi-t6-6eyFqGCVw7l7Ek8vsdISbIDdM-7XQ#_ftn15.
- Aydin and Yasar. 2025. "PKK Disarms-But Will This Bring Peace?" *Point of View*. Berlin: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https://www.swp-berlin.org/publikation/pkk-disarms-but-will-this-bring-peace>.
- Burns, Dasha and Diana Nerozzi. 2025. "Qatar was the turning point': How Israel's bombing of Doha ignited a peace process." *Politico*, October 10.
<https://www.politico.com/news/2025/10/10/qatar-was-the-turning-point-how-israels-bombing-of-doha-ignited-a-peace-process-00604017>.
- Hayward, Tom. 2025. "'Madman Theory': President Trump's Volatility & Implications for Policymakers." *Bloomsbury Intelligencia Security Institute*.
<https://bisi.org.uk/reports/president-donald-trump-signs-an-executive-order-on-the-administrations-tariff-plans-at-a-make-america-wealthy-again-event-wednesday-april-2-2025-in-the-white-house-rose-garden#:~:text=Summary,rhetoric%20can%20translate%20into%20action>.
- Gul, Jolanta. 2024. "America First Again: The Resurgence of Republican Isolationism in Modern U.S. Politics." *Pol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0) 3: 4-35.
- Kazimbeyli, Yaver. 2025. "US offers to manage Armenian segment of Zangezur Corridor." *Caspian News*, July 18.
<https://caspiannews.com/news-detail/us-offers-to-manage-armenian-segment-of-zangezur-corridor-2025-7-18-0/>.
- Kurda and Diyar. 2025. "Centralized, inclusive Syrian government expected by year end: US envoy." *Rudaw*, September 25. <https://www.rudaw.net/english/world/250920252>.
- Mead, Walter Russel. 2017. "The Jacksonian Revolt: American Populism and the Liberal Order." *Foreign Affairs*. <https://www.foreignaffairs.com/north-america/jacksonian-revolt>.
- Mohammed, Taysir. 2025. "U.S. envoy says SDF is valued in the fight against ISIS." *North Press Agency*, July 10. <https://npasyria.com/en/127124/>.
- Nashashibi, Sharif. 2015. "Iran's Regional Ambitions are Clear and Worrying." *Al Jazeera*, March 25.
<https://www.aljazeera.com/opinions/2015/3/25/irans-regional-ambitions-are-clear-and-worrying#:~:>

text=In%20September%2C%20Iranian%20MP%20Ali,to%20the%20Islamic%20Iranian%20revolution%E2%80%9D.

- Nicolescu, Valentin Quintus. 2025. "President Trump's Fortress America." *Policy Brief*. Bucharest: Romanian Diplomatic Institute.
- Posen, Barry R., and Andrew L. Ross. 1996. "Competing Visions for U.S. Grand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21(3): 5–53. <https://doi.org/10.2307/2539272>.
- Rolf, J. N. (2021). Donald Trump's Jacksonian and Jeffersonian foreign policy. *Policy Studies*, 42(5–6), 662–681. <https://doi.org/10.1080/01442872.2021.1934431>
- Soylu, Ragip. 2025. "US offers to oversee disputed Armenia-Azerbaijan corridor." *Middle East Eye*, July 14.
<https://www.middleeasteye.net/news/us-offers-oversee-disputed-armenia-azerbaijan-corridor>.
- Stokols, Eli. 2025. "Trump prompts Netanyahu to apologize to Qatar for bombing its capital." *Politico*, September 29.
https://www.politico.com/news/2025/09/29/trump-prompts-netanyahu-to-apologize-to-qatar-for-bombing-its-capital-00584738?experience_id=EXYF89KVT5UQ&template_id=OTJIR2CRKUD6&variant_id=OTV632IE7RALS&is_login_link=true
- The White House. 2025. "In Riyadh, President Trump Charts the Course for a Prosperous Future in the Middle East." Accessed 10/15, 2025.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5/in-riyadh-president-trump-charts-the-course-for-a-prosperous-future-in-the-middle-east/>.
- The White House. 2025.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Secures Historic \$600 Billion Investment Commitment in Saudi Arabia." Accessed 10/15, 2025.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5/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secures-historic-600-billion-investment-commitment-in-saudi-arabia/>.
- Zakaria, Fareed. 2020. "Trump does not have a foreign policy. He has a series of impulse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opinions/global-opinions/trump-does-not-have-a-foreign-policy-he-has-a-series-of-impulses/2020/01/09/03ae5592-3329-11ea-a053-dc6d944ba776_story.html.

Selective Entanglement: U.S. Engagement and the Reconfiguration of Middle East Security Architecture

건하산 (한국외국어대학교)

Introduction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the United States' engagement in the Middle East has undergone a profound transformation. The fall of the Soviet Union ushered in a unipolar era where Washington sought to maintain energy access, Israel's security, and regional stability through direct intervention and military primacy (Gause 2014). However, the wars in Afghanistan and Iraq revealed the unsustainability of such primacy, forcing a shift toward cost-efficient engagement. By the mid-2010s, strategic fatigue and fiscal limits led to what scholars call selective entanglement, a calibrated involvement maintaining influence through alliances, technology, and deterrence rather than permanent troop deployments (MacDonald 2024).

Under Donald Trump's "America First" doctrine (2017–2021), this model evolved into transactional diplomacy, alliances became conditional, security was exchanged for arms purchases, and regional normalization advanced through the Abraham Accords (Lord 2023). The Gaza War (2023–2025) further tested this logic: the United States sustained Israel militarily while struggling to reconcile strategic necessity with moral authority (Alakel and Arab 2025). The result is an adaptive equilibrium, an era of post-hegemony management (Acharya 2021)—where the U.S. projects power not through occupation but through networked control of military, financial, and digital infrastructures.

1. Military Aid and the Gaza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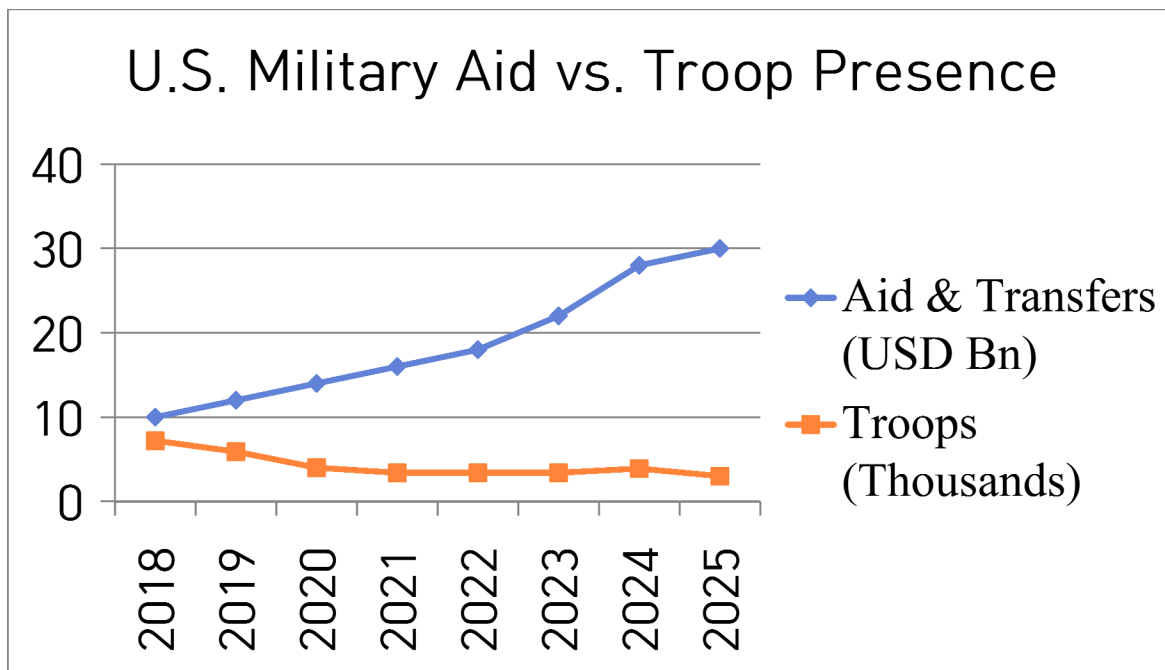
During the Gaza War (2023–2025), Washington's support for Israel reached unprecedented levels. The Costs of War Project estimates cumulative U.S. aid at US \$21.7 billion, including US

\$17.9 billion in the first year and US \$3.8 billion annually thereafter (Hartung 2025). In January 2025, Congress received notification of an additional US \$8 billion arms package, KC-46 refueling aircraft, precision munitions, and Iron Dome components—marking the largest short-term military transfer in U.S. history (Stone and Singh 2025). By September 2025, an extra US \$6.4 billion sale was under consideration. At the operational level, CENTCOM and the 5th Fleet intercepted more than 70 Iranian drones and cruise missiles aimed at Israel during 2024. These actions underscored Washington’s ongoing centrality in regional deterrence despite political rhetoric about withdrawal (CFR 2024).

2. Regional Arms Transfers

According to SIPRI (2025), the Middle East accounted for 27 % of global arms imports in 2020–24. The United States supplied roughly 52 % of those imports, maintaining technological interdependence with Gulf partners such as Saudi Arabia, Qatar, and the UAE. While troop levels stagnated, arms transfers surged, demonstrating an inversion of influence: material dependency replaced territorial presence.

Figure 1. U.S. Arms Transfers vs. Troop Levels (2018–2025)



Source: SIPRI 2025; Hartung 2025).

3. Selective Intervention and Coalition Operations

Rather than direct retaliation against Iranian or Houthi attacks, Washington relied on coalition operations such as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2023–25) with Bahrain, the UK, and 20 others. By 2025, U.S. command participation declined by roughly 30 %, reflecting burden-sharing and delegated deterrence (DoD 2025). The approach combined symbolic strikes, such as the February 2024 air raids on IRGC targets, with a commitment to avoid full-scale escalation.

Figure 2. Delegated Security Architecture (2023–2025)

Security Function	Lead Actor	U.S. Role	Outcome
Missile Interception	Israel + CENTCOM	Technology coordination	70+ Iranian drones neutralized (2024)
Maritime Patrol	Bahrain / Japan / UK	Coalition logistics	Operation Prosperity Guardian
Proxy Deterrence	Saudi / UAE	Arms resupply & intel	Avoided Iran escalation
Airspace Incidents	Israel (Qatar zone)	Private de-escalation	No sanctions imposed

Source: Compiled from DoD 2025 and CFR 2024.

From Military Presence to Remote Leverage

Empirically, selective entanglement confirms that U.S. power projection now operates through *remote leverage*. Troops in Iraq and Syria are fewer than 4,500 combined, they act primarily as symbolic anchors. Real influence resides in arms pipelines, logistics, and surveillance systems integrated into regional militaries. This supports Brooks and Wohlforth’s (2016) notion of “networked hegemony” and Walt’s (2018) argument that great powers can “minimize costs while preserving dominance.”

The surge of U.S. aid amid static deployments disproves the retrenchment thesis (Posen 2014). Instead of retreat, Washington has restructured its commitments: delegating tactical burdens while retaining strategic command. In practice, arms transfers and coalition substitution serve as the backbone of influence (Biddle and Shapiro 2022). The United States’ restrained responses to Iranian and Houthi provocations (2019–2025) and permissive stance toward Israel’s aggressive operations, including reported drone strikes near Doha (Reuters 2025), illustrate a shift from control to supervision. This decentralization enables allies to act autonomously while maintaining dependency on U.S. defense systems. Gause (2024) terms this dynamic “delegated regional autonomy,” where the superpower retains strategic veto but grants operational latitude.

Figure 3. Forms of Selective Entanglement

Mechanism	Description	Example
Arms-for-Security	Defense sales linked to alignment	US \$8 bn Israel package
Coalition Substitution	Multinational ops under U.S. coordination	Prosperity Guardian
Digital / Intel Integration	Cyber + AI defense ties	UAE AI-defense cooperation
Moral Outsourcing	Allies execute sensitive operations	Israeli drones near Doha (2025)

These mechanisms collectively reproduce U.S. structural dominance while diffusing accountability.

Institutionalizing Networked Hegemony

The U.S. remains the primary external penetrator within the Middle Eastern Regional Security Complex (Buzan and Wæver 2003). Despite China’s economic expansion and Russia’s presence in Syria, no rival matches Washington’s embedded defense infrastructure. Over 52 % of arms imports originate from U.S. suppliers, and interoperability standards ensure continued reliance on American logistics and training. Selective entanglement thus exemplifies non-territorial dominance, control through systems, not occupation. As Acharya (2021) and Haass (2022) note, such “networked hierarchies” depend on trust among nodes. Yet over-delegation, evident in Israel’s unilateralism and Gulf diversification toward Chinese technology risks undermining that trust.

The trajectory from 2018 to 2025 suggests a transition from direct dominance to *managed dependence*. Arms and technology, rather than troops, define the new architecture of influence. The U.S. simultaneously avoids overextension and sustains hegemony through modular partnerships and AI-enabled defense systems. This aligns with Miller’s (2023) concept of “strategic minimalism”, a grand-strategy that preserves leverage while minimizing entanglement costs.

Figure 4. Evolution of U.S. Engagement Modality

Era	Strategic Model	Operational Mechanism	Illustration
1990s–2000s	Direct Primacy	Large-scale troop deployment	Iraq & Afghanistan
2010s	Retrenchment Discourse	Offshore balancing	Post-ISIS drawdown
2020s	Selective Entanglement	Networked hegemony	Gaza War 2023–25

Evolution of U.S. engagement modality, 1990s–2020s (Author’s compilation)

Selective entanglement challenges classical neorealism’s assumption that influence equals presence. It demonstrates that capability dispersion through technological and institutional

interdependence that can sustain hegemonic order. In RSCT terms, the Middle East remains externally penetrated but internally multipolar: local powers (Iran, Turkey, Saudi Arabia) assert agency within a U.S.-structured hierarchy. The continuity of American penetration without occupation refines RSCT to include “non-territorial dominance.”

This redefinition bridges systemic realism and institutional regionalism, presenting selective entanglement as delegated hegemony. It is not withdrawal but evolution: hegemony re-engineered for an era of multipolar constraints and domestic fatigue. While this model reduces financial and political burdens, it carries risks of moral hazard and credibility erosion. Over-delegation to allies may embolden unilateralism, complicating U.S. crisis mediation as seen during the Gaza escalation into Lebanon and the Red Sea. To mitigate these challenges, Washington should (1) tie aid to humanitarian and legal accountability, (2) strengthen multilateral mechanisms like the UN and Arab League, and (3) balance bilateral patronage with institutional frameworks ensuring cooperative, not clientelist control. Ultimately, selective entanglement must evolve from reactive flexibility to a sustainable architecture of cooperative management, preserving both influence and legitimacy amid global multipolarity.

Conclusion

The empirical record from 2018–2025 shows that U.S. engagement in the Middle East has not declined, but it has recalibrated. Military presence remains minimal yet symbolically crucial; material assistance and technological interdependence expand exponentially. This duality though less visible, it is more embedded; it defines selective entanglement as the grand-strategic logic of the post-unipolar era. Through arms networks, coalition substitution, and delegated deterrence, the U.S. preserves primacy by provision rather than occupation. The Middle East now operates as a laboratory for post-hegemony management, where stability depends on interdependent systems rather than territorial control. As global competition intensifies, understanding this model will be vital for analyzing future American strategy and the evolving geometry of regional order.

References

- Acharya, Amitav. 2021. *Multilateralism and Regional Order in a Fragmented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iddle, Stephen, and Jacob Shapiro. 2022. “Coalition Substitution and Remote Deterrence.” *Security Studies* 33 (4): 621–654.
- Brands, Hal, and Zack Cooper Edel. 2019. “Delegated Deterrence in the Post-Primacy Era.” *Foreign Affairs* 98 (6): 24–37.
- Brooks, Stephen G., and William Wohlforth. 2016. *America Abroad: The United States’ Global Role in the 21st Century*. OUP.
- Brown University Costs of War Project. 2025. “U.S. Military Aid to Israel 2023–2025.”
- Buzan, Barry, and Ole Wæver. 2003. *Regions and Powers: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ecurity*. CUP.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2024. “U.S. Aid to Israel in Four Charts.”
- Department of Defense (DoD). 2025. *Combined Maritime Forces Report 2025*.
- Gause, F. Gregory III. 2024.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Persian Gulf*. CUP.
- Haass, Richard. 2022. *The Bill of Obligations: The New Politics of Restraint*. Knopf.
- Hartung, William. 2025. *U.S. Military Aid to Israel 2023–2025*. Brown University.
- MacDonald, Paul. 2024. “Selective Engagement and the Future of U.S. Power.” *International Security* 49 (1).
- Miller, Paul D. 2023. “Strategic Minimalism and the Future of American Power.” *The Washington Quarterly* 46 (1): 79–96.
- Posen, Barry R. 2014. *Restraint: A New Foundation for U.S. Grand Strategy*. Cornell UP.
- Reuters. 2025. “Israeli Drone Strikes near Doha Industrial Zone.” March 26.
- SIPRI. 2025. *Arms Transfers Database* (March update).
- Walt, Stephen M. 2018. *The Hell of Good Intentions*. Farrar, Straus and Giroux.
-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Addison-Wesley.